그림/이야기/소리의 조합을 이용한

한국적 캐릭터 개발을 위한 리메이크 연구 시스템

Remaking Study System for Korean Characters
through the Combination of Picture/Story/Sound



주관기관 _ 바프(BAF)
시행 및 발행처 _ 산업자원부

그림/이야기/소리의 조합을 이용한 한국적 캐릭터 개발을 위한 리메이크 연구 시스템

Remaking Study System for Korean Characters through the Combination of Picture/Story/Sound

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각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산업디자인 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과제연구 결과보고서의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일체의 상업적 목적의 사용을 배제합니다.

Copyright ⓒ 2000
All rights are reserved by each copyright owner.
The use of this report is limited to the presentation as a result of study funded by the Ministry of Industrial Resources of Korea.

제출문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그림/이야기/소리의 조합을 이용한 한국적 토탈캐릭터 디자인을 위한 리메이크 연구 시스템'
(사업기간: 1998. 9.1 ~ 2000.2.28) 과제의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0. 2.28

_ 주관기관명 : 바프(BAF)

_ 총괄책임자 : 이나미

_ 연구원 : 노승대, 오용록, 김기철, 이경화, 노상용, 남성혜, 이유미, 임도형, 김진무

목 차

[제 1장] 개요

(1)연구의 배경 8
(2)연구의 목적 9
(3)연구의 내용 10
(4)연구의 방법 15

[제 2장] 그림/이야기/소리의 조합을 이용한
한국적 토탈캐릭터 디자인을 위한 리메이크 연구 시스템

_ 사용방법 17
_ flowchart 27
_ 그림/ Visual Study System 29
_ 이야기/Story Study System 109
_ 소리/Sound Study System 211

자료출처목록

그림 236
이야기 238
소리 240
비디오 244
그밖의 참고자료 246

[제1장] 개 요

(1)연구의 배경

(2)연구의 목적

(3)연구의 내용

(4)연구의 방법

(1)연구의 배경

캐릭터 산업의 고부가가치성에 대한 결과가 입증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업계의 캐릭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자회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외국의 인기 캐릭터를 들여오기 위해 앞다투어 라이센싱 계약을 하고, 아이들은 인기 캐릭터의 스티커가 들어 있는 과자를 사기 위해 부모를 조르고, 엄마들은 봉지만 뜯겨진 채 먹지도 않고 수북히 쌓인 과자나 빵을 처치하기 위해 골머리를 썩이는 일이 비근히 발생하는 요즈음의 세태를 보면 캐릭터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지난 1~2년 사이 지방자치행정기관들마다 앞을 다투어 각 지방을 대변하는 문화상품과 연계한 캐릭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점도 그와 같은 변화를 입증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제 업계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모을 수 있는 인기캐릭터를 개발하느냐에 집중되어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캐릭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분야의 현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캐릭터를 디자인 하는 일은 예쁘고 귀여운 얼굴을 만들어 내는 일이며 이 예쁘고 귀여운 그림을 티셔츠나 컵 등의 상품에 인쇄하여 파는 일이 캐릭터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업계의 현황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이 될 수 있다.

캐릭터의 원리는 의인화된 상징적인 시각물을 이용하여 보다 손쉽고 친근한 방법으로 원하는 내용을 대상관객에게 주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일차적인 원리가 적용되겠으며, 나아가서 캐릭터와 대상 관객 사이에 설정된 친근한 관계를 이용, 삼품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그 이차적인 원리가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역으로 보자면, 캐릭터 사업의 키포인트는 대상 관객과의 친근한 관계' 설정 및 유지에 놓여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캐릭터디자인이란 생김새' 이전에 하나의 성격'을 만들어 내는 일이며, 인기 캐릭터를 만들어 내는 일이란 호감이 가는 캐릭터(character)'로서 흥미로운 성격'과 생김새'와의 조화를 고려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한 논리적이며 감각적인 작업이다. 즉, 하나의 캐릭터를 디자인한다는 일은 그 하나를 중심으로 생성될 수 있는 여러가지 축을 모두 고려한 작업으로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사회생활은 물론 개인의 인생관, 철학, 취향, 취미 등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진출분야가 2차원을 넘어 3차원으로 진입하면서 움직임과 소리는 물론 대상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까지를 고려한 통합적인 쓰임새를 감안, 토탈 캐릭터(Total Character)로서의 필요충분조건까지를 생각한다면 캐릭터디자인을 위해 디자이너가 관여해야할 부분은 훨씬 더 광범위해진다.

(2)연구의 목적

캐릭터 디자인을 위해 그간 디자이너가 관여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야말로 '시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매우 근시안적인 작업일 수 밖에 없었다. 캐릭터작업을 위해 디자이너가 무엇인가를 그림으로 표현해내기에 앞서 고민하는 일은 늘 '무엇(what)'과 '어떻게(how)'의 명제가 혼란스럽게 뒤섞인 상태의 성급한 결론의 도출을 위한 작업일 뿐이었다. '무슨 그림(what)을 어떻게(how) 잘 그려볼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단도직입적인 아이디어 스케치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무슨 그림(what)을 어떻게(how) 잘 그려볼 것인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 도대체 무엇을 왜, 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연구의 과정이 바로 그것이며, 이를 통하여 총체적 의미의 '무엇(what)'이 결정되어야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의 '어떻게(how)'가 결정된다는, 작업의 프로세스에 대한 보다 명확한 구분일 것이다.
디자이너의 작업은 늘 무언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는 오래된 습관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각적인 작업의 방향을 위한 개념적인 설정은 디자이너의 이와 같은 작업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 '무엇'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할 지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본 연구는 캐릭터 작업을 위해 스케치에 들어가기 전 디자이너의 머리 속에 보다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게 하기위한 가장 효율적인 연구방편을 제시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성격' 설정을 위한 내용적인 연구, 설정된 성격을 시각적으로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생김새'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설정된 '성격'과 '생김새'에 부합하는 모종의 '소리(sound)'를 위한 연구 를 가능하게 하는, 이를테면,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것에 대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리메이크 연구 시스템(remake study system)'이라 이해하면 좋을 듯 하다.

리메이크 연구를 위한 대전제는 '한국적인 캐릭터'를 연구하기 위한 각도로 설정되어있다. 즉, 국제 시장을 무대로 겨루기 위한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캐릭터를 보자면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우리가 가진 고유한 것, 즉 '한국적인 캐릭터(character/성격, 성향, 생김새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에 집중될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제목이 시사하듯 '한국적 토탈 캐릭터 개발을 위한 리메이크 연구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를 통하여 이에 디자이너 각자의 상상력과 창조적 개성이 마음껏 반응하고 작용한 결과물로 멋진 한국적 캐릭터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데에 있다.

(3)연구의 내용

‘ 한국적 토탈 캐릭터’를 위한 연구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논의 중 가장 관건이 되었던 문제는 도대체 우리 문화가 지닌 내용 중 어디까지를 ‘한국적’이라 규정지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흔히 그렇듯, 서양문화의 세력에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이전인 조선시대까지를 ‘한국적이라 규정한다면 같은 동양문화권내에서도 늘 중국문화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 역사를 볼 때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문화는 과연 순수히 한국적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문화란 그 속성상 국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흐르기 마련이라고 본다면, 서양문화의 영향권 안에 들게된 근대 이후의 우리 문화 역시 ‘한국적’이라는 관점에서 애정을 가지고 살려내어야 하는 부분이 많으리라는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부터 근대 이후를 모두 망라하기엔 그 범위의 방대함때문에 본 연구를 통하여는 근대 이전까지를 연구의 일차적인 범위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이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추후 쓰임새를 고려한 본연구에 대한 논의 중 두번째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한국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의 ‘How-To’에 대한 접근이다. 그것은 오늘날 새롭게 관건이 되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식의 패러다임을 뒤엎는 ‘가장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이다’의 식의 관점으로부터의 질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식의 얼굴에 우리 식의 이야기와 우리 식의 목소리를 넣기만 한다면 그것이 과연 만족스러운 한국적 캐릭터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일 수 있다. 그것은 한국적이라기 보다는 일방적이며 폐쇄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세상은 21세기적 상황에 맞추어 급변하는 체제에 돌입,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수많은 유형들이 탄생하고 있다. 21세기적인 관점에서의 한국적이란 얼마나 100% 한국적인 양상을 고수하고 있느냐 보다는 그 한국적임이 어떻게 외부인에게 전달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바꾸어 말하면, ‘홀로 존재하는 한국적임’보다는 모두에게 ‘소통되어질 수 있는 한국적임’이 21세기적 의미에서의 한국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제안이다.

‘ 한국적 토탈 캐릭터 개발을 위한 리메이크 연구 시스템’은 디자이너에게 ‘시각’뿐만이 아니라 ‘내용’과 ‘소리’의 부분까지를 관여하여 접근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이라는 점에 착안된 캐릭터디자인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크게 힘써야 할 부분은 사용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림/이야기/소리의 자료구축에 있었고 이에, 본 연구는 각기 천개씩의 그림/이야기/소리 자료 구축을 목표로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구축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의 타당성을 위한 기준은 한국적 캐릭터를 디자인하고자 이 연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관점에 맞추기로 하였다.

<그림/Visual Study System>

그림자료의 경우, 우리 문화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각물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으나‘ 캐릭터’를 디자인하기 위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캐릭터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대상, 즉, 사람을 포함, 의인화가 가능한 대상을 연구의 주내용으로 정하였고 크게 인물/동물/초자연으로 분류한 후 각각을 종류별로 다시 분류, 아래와 같은 분류표가 가능하였다.

A.인물(총 480): 남자 _ 평민, 양반, 스님, 무사, 시종, 기타
여자_ 평민, 귀부인, 기녀, 무녀, 시녀, 기타
노인
어린이

B.동물(433): 개/고양이, 토끼, 거북이, 말, 소, 사슴/노루, 사자, 호랑이, 기타동물
게/새우, 잉어, 기타물고기
까치, 닭, 매, 오리, 학, 기타새

C.초자연(358): 봉황, 불가사리, 용, 해태, 도깨비, 무속신, 부처/보살,
산신령/신선, 수호신, 장승/수호석, 기타초자연물

연구의 기반이 되었던 시각자료의 종류를 살펴보자면 크게, 벽화, 풍속화, 불화, 민화, 낙서화, 나무꼭두, 장승/벅수 등이 있고, 풍속화를 그렸던 화가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가미상의 작품들이어서 막연히 어느 시대의 것이라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인 점이 아쉬웠다. 그림의 경우, 현존하는 시각자료의 많은 부분이 조선시대에 속하는 자료인 만큼,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시각자료는‘ 조선시대’를 전재로 한‘ 한국적’이란 표현이 정확할 듯 싶다. 조선시대로부터 남겨진 그림자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화’는 연대와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나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작품으로서가 아닌, 누군가의 순수한‘ 표현’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각 자료들은 우리 민족의 꾸미지 않은 모습을 담고 있음에 본 연구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위해 합당하다는 생각이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분류상 중복되어있는 것을 포함하여 총 1269점의 시각자료가 본 연구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있다.

<이야기/Story Study System>

이야기 자료의 경우, 우리 민족의 꾸미지 않은 마음이 담긴 자료를 수집한다는 관점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오는 이야기(설화/전래동화/전설/신화/민담/일화/실화)들을 일차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고, 그밖에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고전소설과 판소리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되어있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작자와 연대가 미상이며, 이 역시 작품으로서가 아닌, 누군가의 순수한 표현' 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각 자료들은 우리 민족의 꾸미지 않은 마음을 담고 있음에 본 연구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위해 합당하다는 생각이다.

캐릭터 디자인을 위하여 이야기 자료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적인 설정을 고려하여 인물의 성품별 분석, 사건의 원인과 동기, 결과를 중심으로 각 이야기를 분석하였으며, 한개의 이야기를 한가지 이상의 각도에서의 분석한 유형이 분류에 포함되어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총 920여 개의 유형이 추출되었으며 분석 결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자주 발생,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정리된 총 545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 유형이 아래의 분류표에 의거, 본 연구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있다.

선한형(218):	효도형, 보은형, 지혜형, 모성형, 정의형, 순박형, 지조형, 우애형, 열녀/열부형, 인욕형,
	청빈형, 충직/충신형, 자비형, 신의형
악한형(101) :	포악형, 복수형, 배은망덕형, 과욕형, 과시형, 아첨형, 음모/지모형, 사기형,
	불효셩, 오만형, 나태형, 인색/이기형, 음탕형
해학형(175):	아둔형, 우직형, 능청형, 꾀보형, 재치형, 우연형, 배짱형
변이/초자연형(44):	도움형, 좋은 결과형, 상해형, 나쁜 결과형, 선악이 없는 형
기인형(7) :	도움형, 좋고나쁨이 없는 형

<소리/Sound Study System>

한국적 토탈 캐릭터 디자인을 위한 리메이크 연구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포함되어있어야 할 소리란 과연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분류되어야 할지는 본 연구과제를 통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소리란 실로 광범위한 무한의 자료이며 그것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캐릭터 디자인의 영역에 ‘소리’란 매우 새롭게 접목되는 분야인지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다 보편타당하게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소리에서부터 효과음, 그리고 배경음에 이르기까지, 그림/이야기와 더불어 조합해보고 싶은 소리가 매우 다양하게 필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적인 모양새에 한국적인 내용을 지닌 캐릭터라 할지라도 관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인 감각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시스템을 위한 ‘소리’의 연구는 ‘한국적 소리’ 쪽으로 치중하기 보다는 캐릭터 개발의 관점에 맞추어 필요로 하는 소리 쪽에 주안한 분류로 한정하고 우리 고유의 민속음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연구는 별도의 기회를 찾기로 결론지었다.
캐릭터 디자인을 위해 보편타당하게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소리로 크게 사람음, 자연음, 동물음, 일상음과 그밖의 다양한 효과음으로 분류하였으며, 서양음과 우리 민속음은 배경음으로 연구에 유용하게 쓰여지리라 본다.

본 연구 시스템에 포함된 우리 민속음은 아래와 같은 개념의 분류를 통하여 가급적 우리 민속음에 대한 다양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류는 대별(양성, 음성) 분류만을 명시하였고, 소별분류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감성에 의거한 분류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대별	*소별*	*성악*	*기악*
양성	신나고 흥겨운 소리	민요	농악, 사물놀이, 산조
	재미있고 즐거운 소리	민요, 놀량	사물, 산조(해금)–김영재
	화평한 소리	가곡, 가사, 시조	영산회상, 천년만세, 도드리, 병주
	힘차고 당당한 소리	설령제, 우조	대취타, 종묘악작
	시끌시끌한 소리	휘몰이잡가	별신굿, 농악
	서두르는 소리	판소리의 휘모리	산조, 휘/단모리, 양천, 설장고
음성	위엄있는 소리	악장, 범패	본령, 해령
	슬픈 소리	뿌리깊은 나무/한반도의 슬픈소리	시나위, 산조
	무섭고 섬짓한 소리	구음시나위, 무가, 미궁	대금, 아쟁산조
	호젓하고 쓸쓸한 소리	지름시조	청성곡
	담담한 소리	가사	황병기의 가야금음악

또한 서양음은 우리 민속음과 서로 대비되는 배경음악의 개념으로 분류하였고, 고전음악, 대중음악, 영화음악으로 나누어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배경음악으로 적절한 다양한 음악을 포함하고 있다. 디즈니에서 제작한 'Fantasia'를 비롯, 수많은 애니메이션에서의 경우가 그러하였듯 배경음악으로 효과적인 다양한 고전음악과, 5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던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대중음악 히트곡들, 또한, 90년대에 들어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취하여 제작된 애니메이션 영화음악 을 포함한 다양한 영화음악을 서양음 안에 포함시켰다.

1,000개를 웃도는 수의 소리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용량상의 문제가 대두되어 총 765개의 선별된 자료만을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사람음(77):	말소리, 웃음소리, 울음과 비명소리, 탄성소리, 기타소리
동물음(125):	집짐승, 들짐승, 날짐승, 곤충, 기타
자연음(33):	물소리, 바람소리, 천둥/비소리
일상음(185):	뚜벅뚜벅, 삐그덕/쾅/똑똑, 째그렁/덜그덕, 툭/탁/탕, 부시럭/차르륵, 휙/싱/뽁/통, 전화, 하수구,
	소음, 자동차/오토바이, 비행기/총, 각종신호음, 각종기계음, 각종장난감
서양음(150):	고전음악, 대중음악, 영화음악
효과음(124):	단순한 효과음, 강도가 높은 효과음
민속음(71) :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

(4)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그림, 이야기, 소리라는 세가지 다른 분야의 연구를 캐릭터' 라는 공통분모를 전제한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즉, 그림, 이야기, 소리의 어느 분야이던 그것이 캐릭터를 디자인하기 위한 사용자의 필요를 위해 유효한 형태의 내용과 분류를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가장 큰 전제 조건으로 두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자료들을 위하여는 화집이나 전시도록 등의 형태로 나와있는 다양한 시각자료(벽화, 풍속화, 불화, 민화, 낙서화, 나무꼭두, 장승/벅수)들을 수집하여 이중 캐릭터 디자인을 위하여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3. 연구의 내용 참조) 중심으로 스캔을 하여 데이타화 하였다. 문헌으로 나와있지 않은 그밖의 자료들은 민속관련 전문가의 유적지 답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내용들을 더하였다.

이야기 유형을 위하여는 문헌으로 나와있는 다양한 자료(설화/전래동화/전설/신화/민담(해학)/소설/판소리/일화/실화) 등을 읽고 분석하여 캐릭터의 성격 설정을 위해 유효한 다양한 인물 유형을 추출해내었고 이를 분류하는 표를 작성하였다.

소리 자료를 위하여는 일상음, 주변음, 사람음 등 채집이 가능한 다양한 소리를 직접 채집하는 일과 기존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일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필요로 하는 목록을 먼저 작성한 후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고루 분포될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민속음의 경우 악기음과 구음, 서양음의 경우 고전음악/대중음악/영화음악 안에 작가별, 장르별 분류가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 상태로의 연구시스템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원활히 구동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일이 있었고, 이 작업은 마지막 순간까지 본 연구의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였다. 먼저 CD-Rom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용량 상의 한계가 무엇보다도 큰 걸림돌이었다. 많은 갯수의 자료를 데이타베이스화 하여야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용량과의 싸움이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되고 말았으니 얄궂은 경우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각 데이터의 해상도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고, 소리 데이터의 경우 16bit mono로 최대한 경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두번째의 난관은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발생하였는데, 그림/이야기/소리를 조합하여 검색하는 기능에 있어서 각각의 유형별 검색을 가능하게 하면서 세가지의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이상적이겠으나 그에 합당한 모든 경우의 수를 프로그램화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 되어, 본 매뉴얼 책자를 참고하면서 원하는 경우의 조합을 실험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시스템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책자를 밀접히 참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2장] 그림/이야기/소리의 조합을 이용한 한국적 토탈 캐릭터 디자인을 위한 리메이크 연구 시스템

_ 사용방법

_ flowchart

_ 그림/ Visual Study System

_ 이야기/Story Study System

_ 소리/Sound Study System

사용방법

본 연구 시스템은 크게 그림, 이야기, 소리의 세가지 독립적인 연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을 선택하여 들어가면 원하는 내용을 찾아 검색할 수 있도록 손쉬운 방법으로 분류되어 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면 이 세가지를 조합하여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조합형 (combination study system) 연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 시스템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먼저 이야기나 그림을 독립적으로 검색하며 염두에 두고 있던 개념과 가장 잘 부합하는 캐릭터의 '성격' 및 '생김새'를 가늠한 후 조합형(combination study system ) 으로 들어가 미리 골라두었던 그림과 이야기를 찾아 화면에 띄운 후 이에 부합하는 '소리'를 검색해보는 방법이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그림/이야기/소리에 대한 독립적 연구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분류해놓아 검색이 용이하지만 조합형(combination study system ) 을 이용할 때는 원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만 검색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는, 한 화면에 한가지 내용만을 관여하여 검색할 때는 가지치기식의 편리한 검색 방법이 가능하나, 한 화면에 세가지의 내용을 모두 관여해야 할 때는 프로그램상 일렬검색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임을 양지하기 바란다.

따라서, 그림/이야기/소리에 대한 독립적 연구시스템을 통하여 원하는 내용을 찾게되면 조합형을 이용할 경우를 위해 이에 대한 개별정보를 별도로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이야기/소리에 대한 개별 정보를 찾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본 책자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림/이야기/소리에 대한 모든 개별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본 책자를 활발히 이용하기 바란다.

– 그림/ Visual Study System

각 그림에 대한 개별 정보는 본 책자의 '그림/Visual Study System' 안에 명시되어있는 일련번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각기, '인물'은 A로, '동물'은 B로, '초자연'은 C로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달고 있다.

– 이야기/Story Study System

각 이야기 유형에 대한 개별정보는 각 이야기의 제목을 기억하면 가나다별 분류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다. 맨 첫줄에 제시되어있는 것이 이야기의 제목이며 맨 마지막 줄 괄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각 이야기 유형에 대한 정보로 (분류/책제목/시리즈 제목/엮은이/출판사)의 순으로 되어있다.

– 소리/Sound Study System

각 소리에 대한 자세한 개별정보는 본책자 안에 수록되어 있다. 화면에 나타난 각 소리에 대한 화일명을 기억하면 검색이 가능하다.

그림/이야기/소리의 조합을 이용한

한국적 캐릭터 개발을 위한 리메이크 연구시스템 – 초기검색화면



주화면 : 그림/이야기/소리의 각각의 주 검색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전화면 : 현재 화면에서 이전에 보았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도움말 : 본 연구 시스템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도움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합 : 그림/이야기/소리를 조합하여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끝내기 : 타이틀을 종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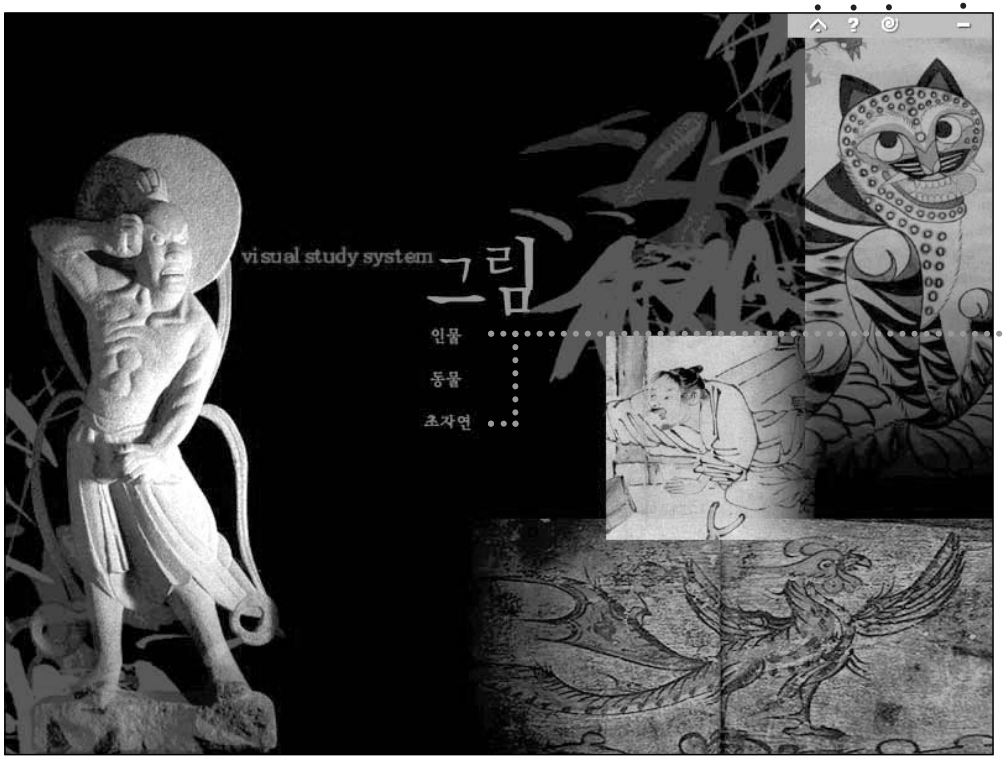
도움말

조합형(combination study system)화면으로 이동

종료

클릭하면 이야기/그림/소리 각각의 검색화면으로 이동

그림/visual study system 주 검색화면



초기검색화면
도움말
조합형(combination study system)화면으로 이동
종료

인물, 동물, 초자연물 각각의 검색화면으로 이동

이전화면 즉, 그림/Visual study system의 주 검색화면으로 이동

인물 그림자료 검색화면



③. ②번에서 선택한 내용에 대한 검색
▶ ◀를 이용하여 이동
[ ]안의 번호는 10-15개의 단위로 건너 뛰며 검색할 수 있다.
이때, 원하는 그림을 찾으면 추후 조합형에서 손쉽게 원하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그 그림의 일련번호를 확인,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일련번호는 본 책자안의 그림(visual study system)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①번에서 선택한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항목 선택

①.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중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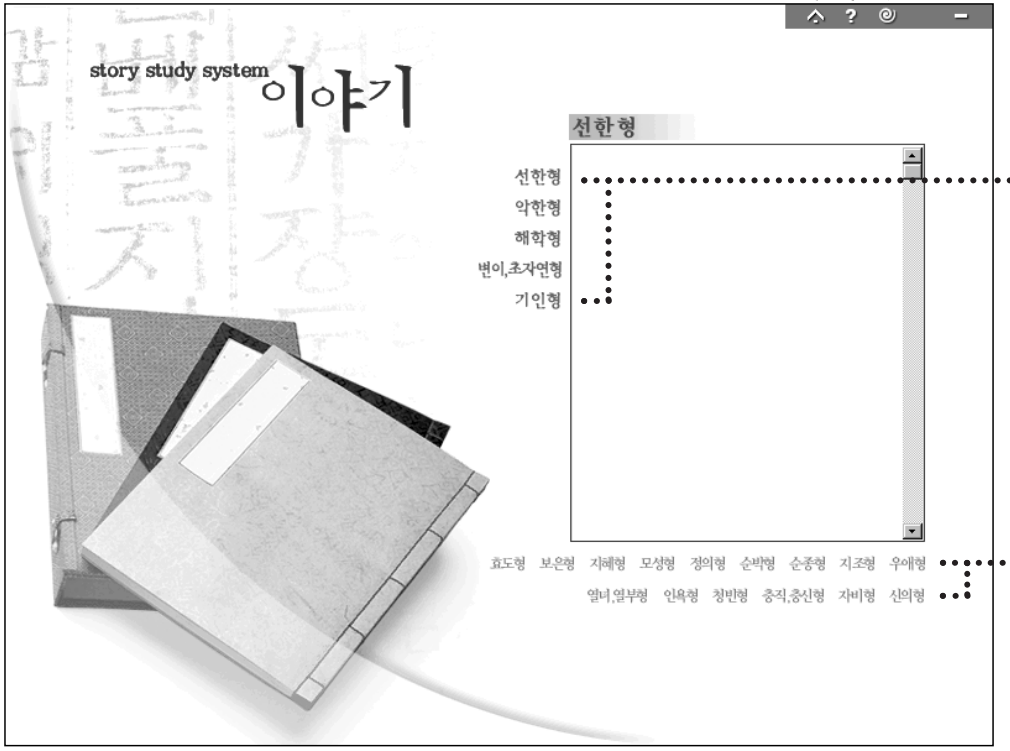
동물 그림자료 검색화면



초자연물 그림자료 검색화면



이야기/story study system 주 검색화면



초기검색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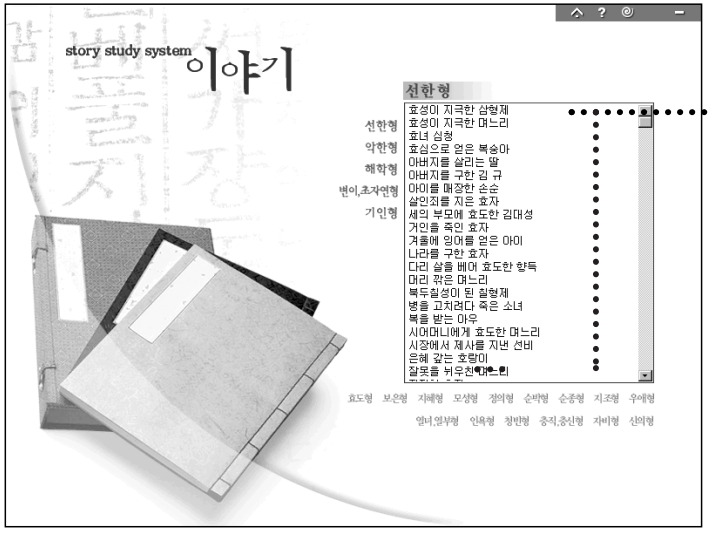
도움말

조합형(combination study system)화면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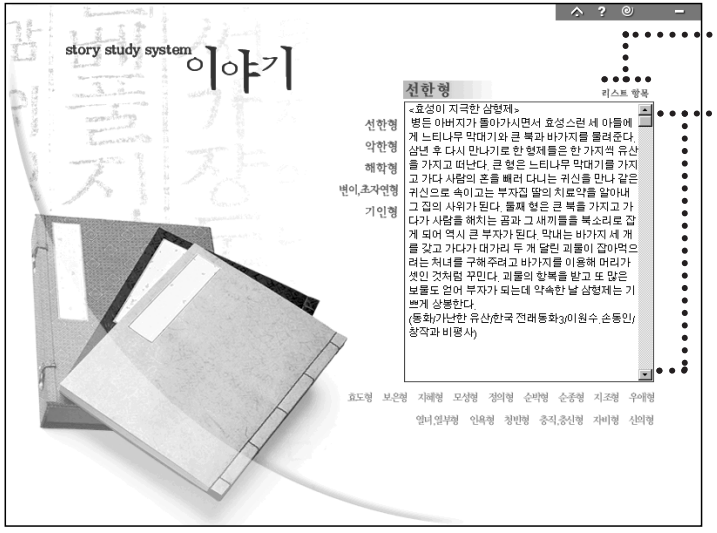
종료

①. 원하는 유형을 선택

②. ①번에서 선택한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항목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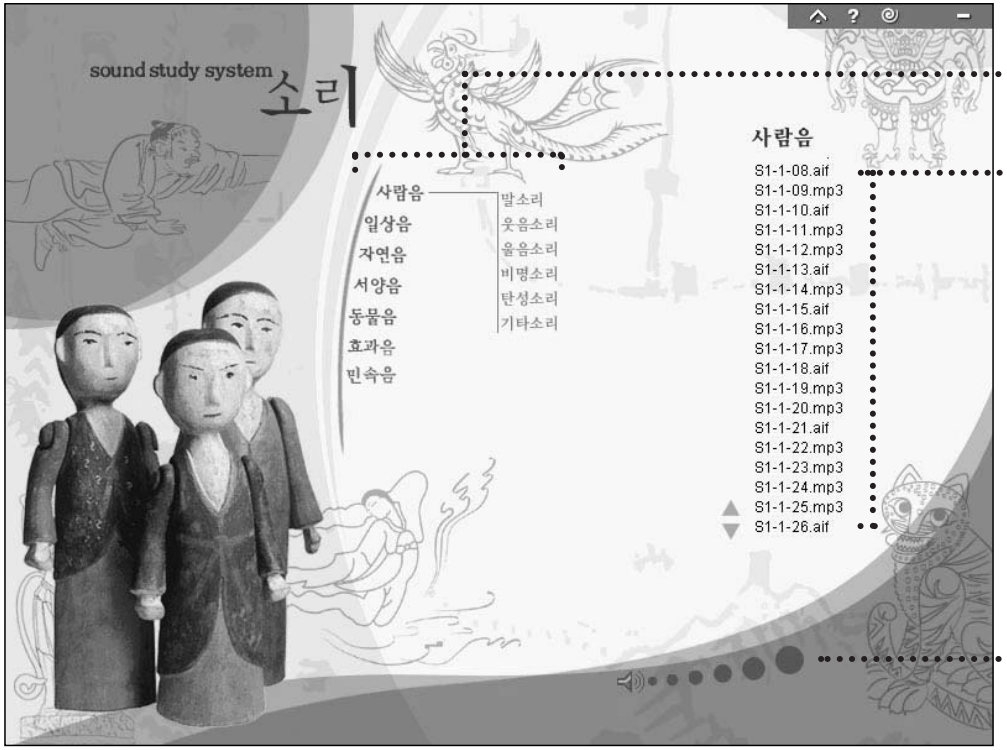
③. ②번에서 선택한 유형에 속하는
이야기의 제목들이 제시되면 그중 하나를 선택



⑤. ③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른 유형의 이야기 제목을 선택

④. ③번에서 선택된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때, 원하는 유형의 이야기 제목을
기억해두면 추후 조합형에서
손쉽게 원하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소리/sound study system 주 검색화면



초기검색화면

도움말

조합형(combination study system)화면으로 이동

종료

①.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면
그 유형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유형이 제시된다.

②. ①번에서 선택한 내용에 대한 검색
▲▼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다.
이때, 원하는 소리을 찾으면
추후 조합형에서 손쉽게 원하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volume: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조합/combination study system 검색화면



초기검색화면

도움말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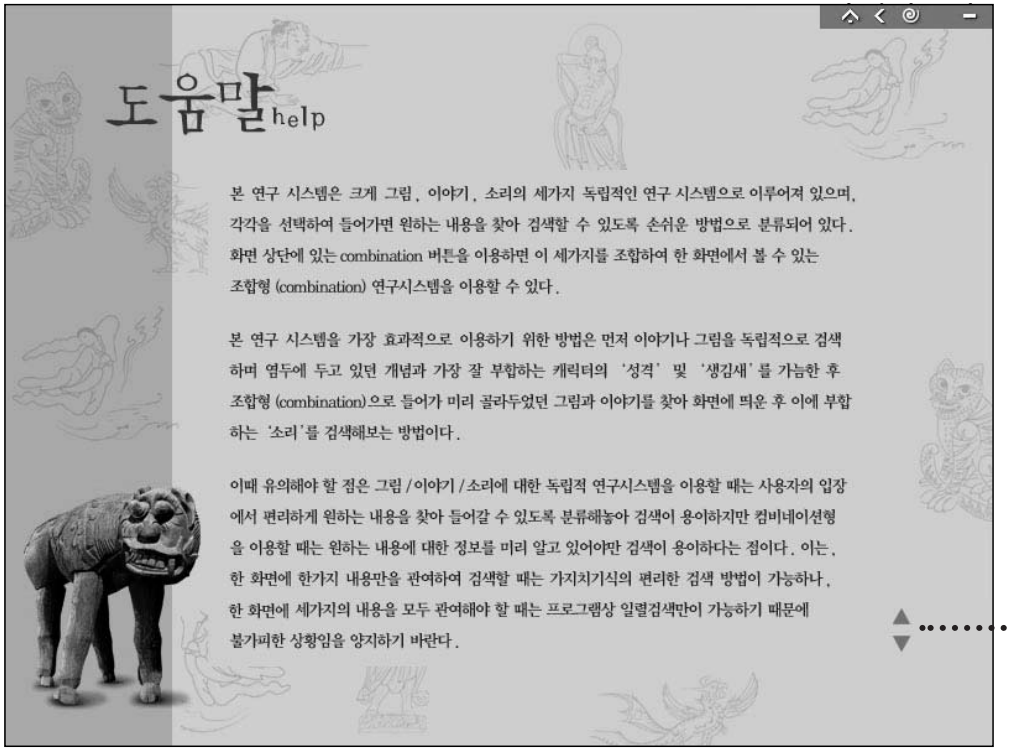
그림유형 검색:그림/visual sudy system을 이용한 세부적인 검색을 통하여 원하는 유형을 찾은 후 본 책자을 이용,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화면 위의 목록에서 같은 번호를 찾아 클릭하면 원하는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 사람은 A로, 동물은 B로, 초자연물은 C로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달고 있으므로,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동물/초자연 정도의 검색은 이 화면을 이용하여 바로 검색할 수 있다.

이야기유형 검색:이야기/story study system을 이용한 세부적인 검색을 통하여 선택한 이야기의 제목들을 기억하면 가나다순의 정렬된 화면의 목록에서 같은 제목을 찾아 선택, 원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소리유형 검색:소리/sound study system을 이용한 세부적인 검색을 통하여 선택한 소리의 일련번호를 기억하면 화면 위의 목록에서 같은 번호를 찾아 클릭,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사람소리 / 동물소리 / 자연음 / 일상음 / 서양음 / 효과음 / 민속음 정도의 검색은 각기 S1 / S2 / S3 / S4 / S5 / S6 / S7으로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통하여 구분할 수 있다. 개별적인 소리에 대한 참고사항은 본 책자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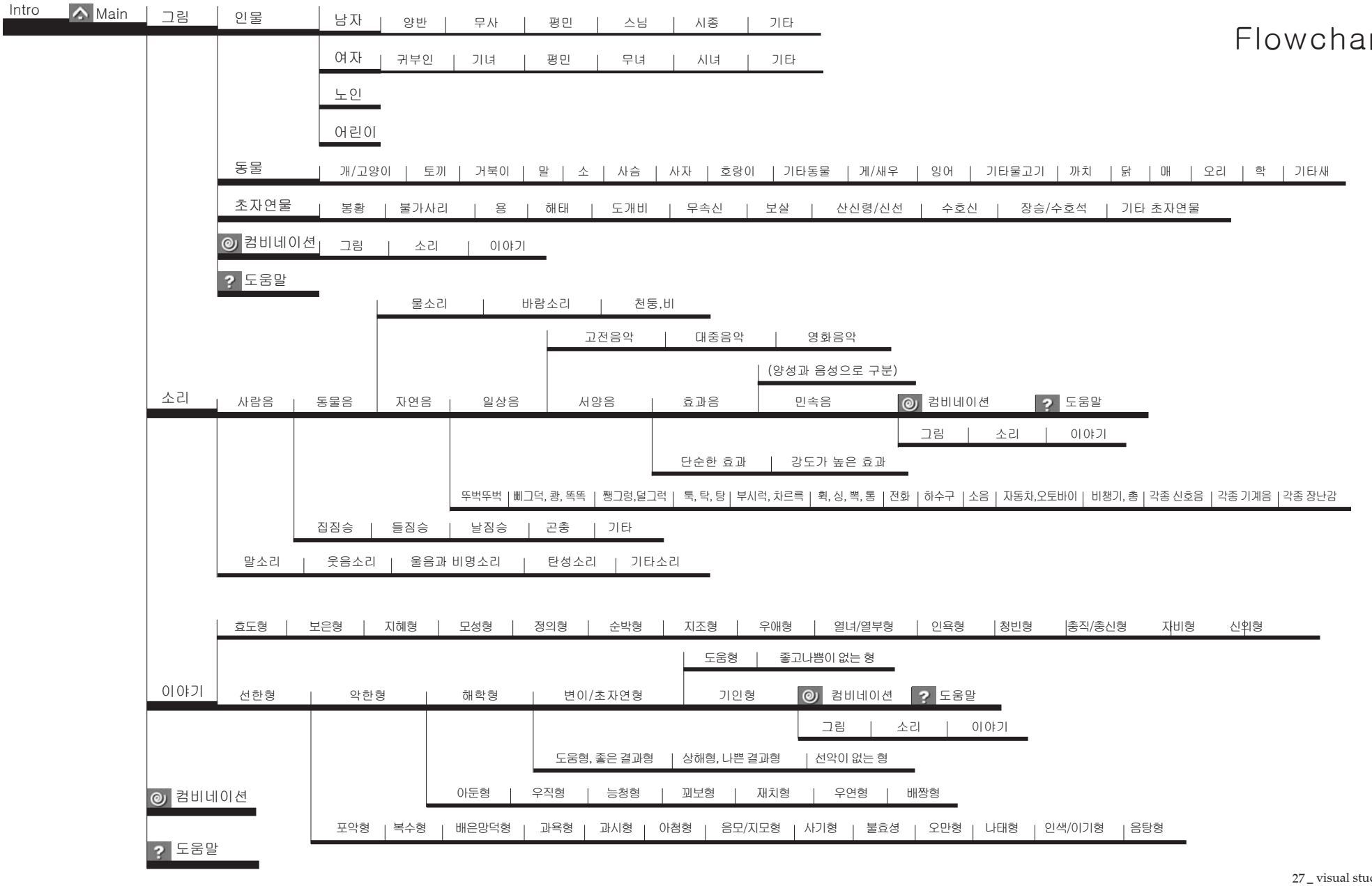
? 도움말

초기검색화면
이전화면으로 이동
조합형(combination study system)화면으로 이동
종료



화면의 위,아래로 이동하며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

Flowchart


Intro
Main
그림
인물
남자
양반
무사
평민
스님
시종
기타
여자
귀부인
기녀
평민
무녀
시녀
기타
노인
어린이
동물
개/고양이
토끼
거북이
말
소
사슴
사자
호랑이
기타동물
게/새우
잉어
기타물고기
까치
닭
매
오리
학
기타새
초자연물
봉황
불가사리
용
해태
도개비
무속신
보살
산신령/신선
수호신
장승/수호석
기타 초자연물
컴비네이션
그림
소리
이야기
도움말
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천둥,비
고전음악
대중음악
영화음악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
사람음
동물음
자연음
일상음
서양음
효과음
민속음
컴비네이션
도움말
그림
소리
이야기
단순한 효과
강도가 높은 효과
뚜벅뚜벅
삐그덕, 쾅, 똑똑
쨍그렁,덜그럭
툭, 탁, 탕
부시럭, 차르륵
휙, 싱, 뽁, 통
전화
하수구
소음
자동차,오토바이
비챙기, 총
각종 신호음
각종 기계음
각종 장난감
집짐승
들짐승
날짐승
곤충
기타
말소리
웃음소리
울음과 비명소리
탄성소리
기타소리
이야기
효도형
보은형
지혜형
모성형
정의형
순박형
지조형
우애형
열녀/열부형
인욕형
청빈형
충직/충신형
자비형
신의형
도움형
좋고나쁨이 없는 형
선한형
악한형
해학형
변이/초자연형
기인형
컴비네이션
도움말
그림
소리
이야기
도움형, 좋은 결과형
상해형, 나쁜 결과형
선악이 없는 형
아둔형
우직형
능청형
꾀보형
재치형
우연형
배짱형
컴비네이션
포악형
복수형
배은망덕형
과욕형
과시형
아첨형
음모/지모형
사기형
불효성
오만형
나태형
인색/이기형
음탕형
도움말



visual study system

그림

[A-인물]

남자

_평민 _양반 _스님 _무사 _시종 _기타

여자

_평민 _귀부인 _기녀 _무녀 _시녀 _기타

노인

어린이

[B-동물]

_개/고양이 _토끼 _거북이 _말 _소 _사슴 _사자 _호랑이 _기타동물

_게/새우_잉어 _기타물고기

_까치 _닭 _매 _오리 _학 _기타새

[C-초자연물]

_봉황 _불가사리 _용 _해태 _도깨비 _무속신 _부처/보살

_산신령/신선 _수호신 _장승/수호석 _기타초자연물

주• 각일련번호 옆에 명시되어 있는 그림에 대한 설명중 작자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모두 '작자미상' 인 경우이며(민화의 대부분이 그러함), 시대가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모두 '조선시대' 임을유의하기 바란다. 또한, 같은 제목을 달고 있는 그림들의 경우,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한 그림의 '서로 다른 부분' 임을 유의하기 바란다.

[A_인물]

A001_A036

[A_인물]_남자_평민


A001• 나무꼭두


A002• 신윤복/주사거배/풍속화


A003• 신윤복/무녀신무/풍속화


A004• 김홍도/담배썰기/풍속화


A005• 김홍도/기와이기/풍속화


A006• 신윤복/주막/풍속화


A007• 김홍도/벼타작/풍속화


A008• 김홍도/벼타작/풍속화


A009• 김홍도/벼타작/풍속화


A010• 김홍도/대장간/풍속화


A011• 김홍도/기와이기/풍속화


A012• 설화도/민화


A013• 설화도/민화


A014• 풍속화


A015• 풍속화


A016• 풍속화


A017• 김홍도/벼타작/풍속화


A018• 김홍도/파적/풍속화



A019• 김홍도/논갈이/풍속화



A020• 무용총/고구려 고분벽화



A021• 김홍도/씨름/풍속화



A022• 김득희/성하직리/풍속화



A023• 김득희/성하직리/풍속화



A024• 김득희/강변회음/풍속화



A025• 김득희/강변회음/풍속화



A026• 전유숙/대결도/풍속화



A027• 권용정/보부상/풍속화



A028• 전유숙/대결도/풍속화



A029• 전유숙/대결도/풍속화



A030• 전유숙/대결도/풍속화



A031• 윤두서/짚신삼기/풍속화



A032• 윤두서/기차도/풍속화



A033• 김두량/목동우화/풍속화



A034• 김홍도/기와이기/풍속화



A035• 김홍도/기와이기/풍속화



A036• 김홍도/점심/풍속화

[A_인물]_남자_평민



A037• 김홍도/우물가/풍속화



A038• 신윤복/단유정강/풍속화



A039• 김홍도/주막/풍속화



A040• 김홍도/무동/풍속화



A041• 김홍도/대장간/풍속화



A042• 김준근/투전/기산풍속화



A043• 김준근/팔탈판/기산풍속화



A044• 김준근/팔탈판/기산풍속화



A045• 김준근/팔탈판/기산풍속화



A046• 김홍도/무동/풍속화



A047• 김홍도/무동/풍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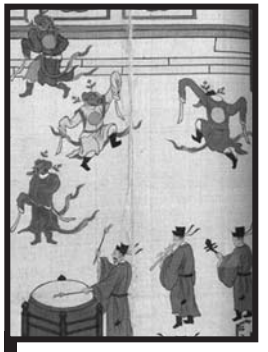
A048• 김홍도/무동/풍속화



A049• 기사송연도/기록화



A050• 기사송연도/기록화



A051• 기사송연도/기록화



A052• 설화도/민화



A053• 설화도/민화



A054• 설화도/민화



A055• 김홍도/신행/풍속회



A056• 광대/나무꼭두



A057• 광대/나무꼭두



A058• 광대/나무꼭두



A059• 재인/나무꼭두



A060• 강희언/석공/풍속화



A061• 권용정/보부상/풍속화



A062• 재인/나무꼭두



A063• 재인/나무꼭두



A064• 재인/나무꼭두



A065• 재인/나무꼭두



A066• 나무꼭두



A067• 나무꼭두



A068• 호랑이 탄 사람/나무꼭두



A069• 수행무사/나무꼭두

A070_A105

[A_인물]_남자_양반



A070• 김홍도/그림감상/풍속화



A071• 김홍도/신행/풍속화



A072• 신윤복/주사거배/풍속화



A073• 신윤복/주사거배/풍속화



A074• 김홍도/활쏘기/풍속화



A075• 김홍도/활쏘기/풍속화



A076• 신윤복/무녀신무/풍속화



A077• 신윤복/기방무사/풍속화



A078• 신윤복/기방무사/풍속화



A079• 신윤복/단유정강/풍속화



A080• 김홍도/활쏘기/풍속화



A081• 김준근/투호/기산풍속화



A082• 김준근/투호/기산풍속화



A083• 신윤복/쌍검대무/풍속화



A084• 김홍도/그림감상/풍속화



A085• 신윤복/년소답청/풍속화



A086• 신윤복/년소답청/풍속화



A087• 신윤복/월하정인/풍속화



A088• 풍속화



A089• 홍필우/오로도/풍속화



A090• 이린상/송하수업/풍속화



A091• 강희언/사인삼경/풍속화



A092• 강희언/사인삼경/풍속화



A093• 강희언/사인삼경/풍속화



A094• 강희언/사인삼경/풍속화



A095• 강세광/현정승집도/풍속화



A096• 김홍도/기와이기/풍속화



A097• 김홍도/벼타작/풍속화



A098• 전유숙/대결도/풍속화



A099• 김준근/쌍륙/기산풍속화



A100• 김준근/쌍륙/기산풍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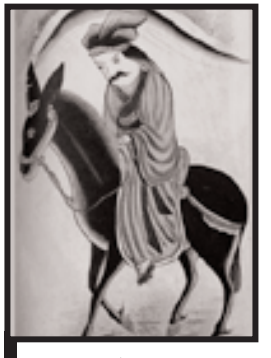
A101• 김준근/쌍륙/기산풍속화



A102• 신윤복/년소답청/풍속화



A103• 신윤복/월하정인/풍속화



A104• 설화도/민화



A105• 설화도/민화



A106• 호랑이를 탄 사람/나무꼭두



A107• 나무꼭두



A108• 나무꼭두



A109• 인물도/민화



A110• 인물도/민화



A111• 인물도/민화



A112• 풍속화



A113• 초상화



A114• 초상화



A115• 초상화



A116• 선관도사/무신도/민화



A117• 평생도/화풍속화



A118• 인물도/민화



A119• 인물도/민화



A120• 인물도/민화



A121• 인물도/민화



A122• 선관도사/무신도/민화



A123• 선관도사/무신도/민화



A124• 설화도/민화



A125• 설화도/민화



A126• 무신도/민화



A127• 무신도/민화



A128• 임춘빈/강민첨 초상화



A129• 조반초상화



A130• 강세황초상화



A131• 전 채용신/일우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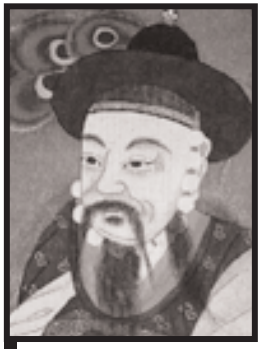
A132• 전 채용신/일우영정



A133• 대감/무신도/민화



A134• 천신대감/무신도/민화



A135• 천신대감/무신도/민화



A136• 강세황자화상



A137• 초상화



A138• 안향 초상화



A139• 송시열초상화



A140• 인물화/민화



A141• 인물화/민화

[A_인물]_남자_양반


A142• 설화도/민화


A143• 설화도/민화


A144• 설화도/민화


A145• 설화도/민화


A146• 무신도/민화


A147• 무신도/민화


A148• 고종황제초상


A149• 고종황제초상


A150• 설화도/민화


A151• 무신도/민화


A152• 호랑이 탄 사람/나무꼭두


A153• 선비/나무꼭두


A154• 선비/나무꼭두


A155• 선비/나무꼭두


A156• 선비/나무꼭두


A157• 호랑이를 탄 사람/나무꼭두


A158• 선비/나무꼭두


A159• 호랑이 탄 사람/나무꼭두

A160_A167

[A_인물]_남자_스님



A160• 오명현/점괘도/풍속화



A161• 김홍도/풍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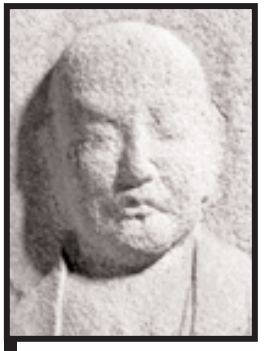
A162• 김득희/송하기승/풍속화



A163• 달마도/민화



A164• 10대제자/석굴암/신라시대



A165• 10대제자/석굴암/신라시대



A166• 10대제자/석굴암/신라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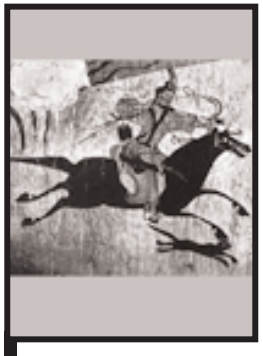
A167• 인물도/불화

A168_A173

[A_인물]_남자_무사



A168• 무용총/고구려 고분 벽화



A169• 무용총/고구려 고분 벽화



A170• 쌍용총/고구려 고분 벽화



A171• 호렵도/민화



A172• 호렵도/민화



A173• 호렵도/민화

[A_인물]_남자_무사


A174• 호렵도/민화


A175• 호렵도/민화


A176• 호렵도/민화


A177• 호렵도/민화


A178• 호렵도/민화


A179• 호렵도/민화


A180• 오방장군/무신도/민화


A181• 오방장군/무신도/민화


A182• 신장군/무신도/민화


A183• 신장군/무신도/민화


A184• 신장군/무신도/민화


A185• 삼국지도/민화


A186• 신장도/불화


A187• 신장도/불화


A188• 신장도/불화


A189• 호렵도/민화


A190• 삼국지도/민화


A191• 삼국지도/민화



A192• 삼국지도/민화



A193• 삼국지도/민화



A194• 삼국지도/민화



A195• 삼국지도/민화



A196• 무신도/민화



A197• 삼국지도/민화



A198• 삼국지도/민화



A199• 호렵도/민화



A200• 호렵도/민화



A201• 호렵도/민화



A202• 호렵도/민화



A203• 호렵도/민화



A204• 신장군/무신도/민화



A205• 신장군/무신도/민화



A206• 신장군/무신도/민화



A207• 신장군/무신도/민화



A208• 신장군/무신도/민화



A209• 신장군/무신도/민화

[A_인물]_남자_무사



A210• 신장군/무신도/민화



A211• 신장군/무신도/민화



A212• 별상/무신도/민화



A213• 신장군/무신도/민화



A214• 오방신장/무신도/민화



A215• 오방신장/민화



A216• 삼국지도/민화



A217• 삼국지도/민화



A218• 삼국지도/민화



A219• 신장군/무신도/민화



A220• 신장군/무신도/민화



A221• 별상/무신도/민화



A222• 일월성군/무신도/민화



A223• 양장군/무신도/민화



A224• 양장군/무신도/민화



A225• 오방신장/무신도/민화



A226• 오방신장/무신도/민화



A227• 신장군/무신도/민화



A228• 장군/무신도/민화



A229• 양장군/무신도/민화



A230• 양장군/무신도/민화



A231• 장장군/무신도/민화



A232• 장장군/무신도/민화



A233• 화덕장군/민화



A234• 용장군/무신도/민화



A235• 용장군/무신도/민화



A236• 무관석상/경주 괘릉



A237• 신선도/민화



A238• 신선도/민화



A239• 신선도/민화



A240• 신선도/민화



A241• 풍속화



A242• 풍속화

A237_A242

[A_인물]_남자_시종

A245_A272

[A_인물]_남자_기타



A243• 풍속화



A244• 산신도/민화



A245• 춤추는 남자/나무꼭두



A246• 춤추는 남자/나무꼭두



A247• 젊은 남자/나무꼭두



A248• 젊은 남자/나무꼭두



A249• 호랑이를 탄 남자/나무꼭두



A250• 나무꼭두



A251• 호랑이를 탄 남자/나무꼭두



A252• 호랑이를 탄 남자/나무꼭두



A253• 호랑이를 탄 남자/나무꼭두



A254• 호랑이를 탄 남자/나무꼭두



A255• 호랑이를 탄 남자/나무꼭두



A256• 호랑이를 탄 남자/나무꼭두



A257• 호랑이를 탄 남자/나무꼭두



A258• 호랑이를 탄 남자/나무꼭두



A259• 호랑이를 탄 남자/나무꼭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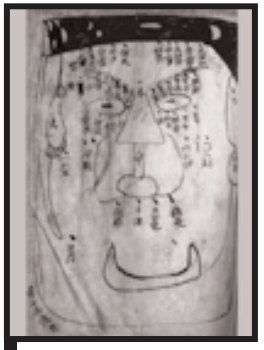
A260• 호랑이를 탄 남자/나무꼭두



A261• 호랑이를 탄 남자/나무꼭두



A262• 용을 탄 남자/나무꼭두



A263• 부적



A264• 낙서화



A265• 나무꼭두



A266• 나무꼭두



A267• 나무꼭두



A268• 나무꼭두



A269• 꼭두



A270• 나무꼭두



A271• 나무꼭두



A272• 호랑이를 탄 남자/나무꼭두

A273_A292

[A_인물]_여자_평민



A273• 전가락사/풍속화



A274• 풍속화



A275• 풍속화



A276• 김홍도/길쌈/풍속화



A277• 인물화/민화



A278• 김홍도/피적/풍속화



A279• 낙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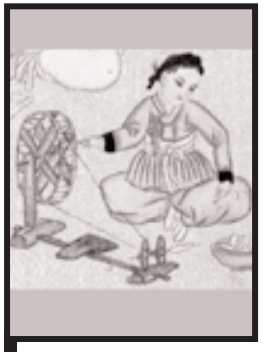
A280• 낙서화



A281• 설화도/민화



A282• 풍속화



A283• 김준근/기산풍속화



A284• 김홍도/길쌈/풍속화



A285• 김홍도/점괘/풍속화



A286• 마근후/촌녀채종/풍속화



A287• 윤두서/풍속화



A288• 김홍도/주막/풍속화



A289• 김홍도/노중상봉/풍속화



A290• 마근후/촌녀채종/풍속화

[A_인물]_여자_귀부인


A291• 마근후/촌녀채종/풍속화


A292• 인물석상/대관령박물관


A293• 송씨부인/민화


A294• 송씨부인/민화


A295• 호구아씨/민화


A296• 호구아씨/민화


A297• 설화도/민화


A298• 설화도/민화


A299• 설화도/민화


A300• 설화도/민화


A301• 설화도/민화


A302• 무신도/민화


A303• 애기씨/무신도/민화


A304• 설화도/민화

A305_A313

[A_인물]_여자_귀부인



A305• 설화도/민화



A306• 무신도/민화



A307• 무신도/민화



A308• 조반부인상/초상화



A309• 고산/민화



A310• 송씨부인/민화



A311• 별상애기씨/무신도/민화



A312• 별상애기씨/무신도/민화



A313• 신선도/민화

A314_A334

[A_인물]_여자_기녀



A314• 신윤복/주사거배/풍속화



A315• 신윤복/청금상련/풍속화



A316• 신윤복/무녀신무/풍속화



A317• 신윤복/쌍검대무/풍속화



A318• 신윤복/쌍검대무/풍속화



A319• 신윤복/년소답청/풍속화



A320• 신윤복/단오풍정/풍속화



A321• 신윤복/풍속화



A322• 신윤복/단오풍정/풍속화



A323• 신윤복/기방무사/풍속화



A324• 신윤복/무녀신무/풍속화



A325• 유운홍/기녀/풍속화



A326• 유운홍/기녀/풍속화



A327• 신윤복/기방무사/풍속화



A328• 신윤복/기방무사/풍속화



A329• 신윤복/단오풍정/풍속화



A330• 신윤복/단오풍정/풍속화



A331• 신윤복/단오풍정/풍속화



A332• 신윤복/단유정강/풍속화



A333• 신윤복/단유정강/풍속화



A334• 신윤복/년소답청/풍속화

A335_A343

[A_인물]_여자_무녀



A335• 대신마누라/무신도/민화



A336• 대신마누라/무신도/민화



A337• 대신할머니/무신도/민화



A338• 대신할머니/무신도/민화



A339• 대신할머니/무신도/민화



A340• 온당대신할머니/무신도/민화



A341• 불사할머니/무신도/민화



A342• 온당대신할머니/무신도/민화



A343• 대신할머니/무신도/민화

A344_A357

[A_인물]_여자_시녀



A344• 송씨부인/무신도/민화



A345• 호구아씨/무신도/민화



A346• 송씨부인/무신도/민화



A347• 설화도/민화



A348• 설화도/민화



A349• 설화도/민화



A350• 설화도/민화



A351• 설화도/민화



A352• 설화도/민화



A353• 설화도/민화



A354• 신선도/민화



A355• 설화도/민화



A356• 설화도/민화



A357• 차마인물도/쌍용총/고구려벽화



A358• 나무꼭두



A359• 나무꼭두



A360• 나무꼭두



A361• 나무꼭두



A362• 나무꼭두



A363• 나무꼭두

A364_A374

[A_인물]_여자_기타



A364• 나무꼭두



A365• 나무꼭두



A366• 나무꼭두



A367• 나무꼭두



A368• 나무꼭두



A369• 나무꼭두



A370• 나무꼭두



A371• 나무꼭두



A372• 연꽃든 여인/나무꼭두



A373• 젓대부는 여인/나무꼭두



A374• 젓대부는 여인/나무꼭두

A375_A398

{A_인물]_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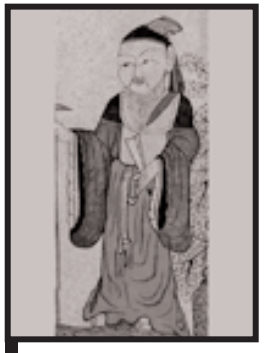
A375• 수성노인/신선도/민화



A376• 수성노인/신선도/민화



A377• 수성노인/신선도/민화



A378• 설화도/민화



A379• 설화도//민화



A380• 이재 초상화



A381• 강세황초상화



A382• 설화도/민화



A383• 설화도/민화



A384• 설화도/민화



A385• 설화도/민화



A386• 설화도/민화



A387• 홍필우/오로도/풍속화



A388• 이린상/송하수업/풍속화



A389• 김준근/기산풍속화



A390• 김홍도/서당/풍속화



A391• 김득희/풍속화



A392• 이린상/송하수업/풍속화



A393• 김득희/성하직리/풍속화



A394• 김득희/송하기승/풍속화



A395• 김득희/풍속화



A396• 김득희/풍속화



A397• 김득희/풍속화



A398• 대감/무신도/민화

A399_A408

[A_인물]_노인



A399• 대감/무신도/민화



A400• 대감/무신도/민화



A401• 무신도/민화



A402• 강세황자화상



A403• 송시열초상



A404• 무신도/민화



A405• 무신도/민화



A406• 무신도/민화



A407• 무신도/민화



A408• 무신도/민화

A409_A432

[A_인물]_어린이



A409• 시동도/민화



A410• 시동도/민화



A411• 동자도/낙서화



A412• 시동도/민화



A413• 문수보살도/민화



A414• 동자도/민화



A415• 시동도/민화



A416• 시동도/민화



A417• 시동도/민화



A418• 시동도/민화



A419• 백동자도/민화



A420• 백동자도/민화



A421• 백동자도/민화



A422• 백동자도/민화



A423• 백동자도/민화



A424• 백동자도/민화



A425• 백동자도/민화



A426• 시동도/민화



A427• 시동도/민화



A428• 동자도/민화



A429• 동자도/민화



A430• 백동자도/민화



A431• 동자도/풍속화



A432• 동자도/풍속화

[A_인물]_어린이


A433• 나무꼭두


A434• 시동도/민화


A435• 나무꼭두


A436• 나무꼭두


A437• 나무꼭두


A438• 나무꼭두


A439• 나무꼭두


A440• 나무꼭두


A441• 나무꼭두


A442• 나무꼭두


A443• 나무꼭두


A444• 나무꼭두


A445• 나무꼭두


A446• 나무꼭두


A447• 나무꼭두


A448• 나무꼭두


A449• 나무꼭두


A450• 나무꼭두



A451• 나무꼭두



A452• 나무꼭두



A453• 나무꼭두



A454• 나무꼭두



A455• 나무꼭두



A456• 나무꼭두



A457• 나무꼭두



A458• 나무꼭두



A459• 나무꼭두



A460• 나무꼭두



A461• 동자상/나무꼭두



A462• 동자상/전주 송광사



A463• 나무꼭두



A464• 나무꼭두



A465• 나무꼭두



A466• 나무꼭두



A467• 동자상/봉은사



A468• 동자상/봉은사

A469_A480

[A_인물]_어린이



A469• 시동상/전주 송광사



A470• 시동상/전주 송광사



A471• 시동상/전주 송광사



A472• 김홍도/서당/풍속화



A473• 김홍도/고누놀이/풍속화



A474• 윤덕희/공기놀이/풍속화



A475• 김홍도/점심/풍속화



A476• 김준근/기산풍속화



A477• 김홍도/고누놀이/풍속화



A478• 김홍도/풍속화



A479• 김홍도/서당/풍속화



A480• 김홍도/점심/풍속화

[B_동물]

B001_B012

[B_동물]_개/고양이



B001• 문배도/민화



B002• 이암/모견도



B003• 이암/모견도



B004• 이암/모견도



B005• 견도/민화



B006• 서수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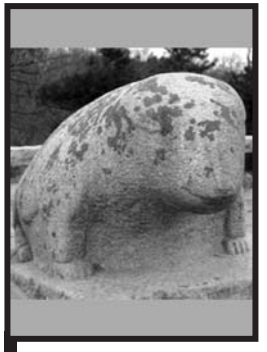
[B_동물]_토끼


B007• 문배도/민화


B008• 김득희/성하직리/풍속화


B009• 신윤복/풍속화


B010• 김홍도/점심/풍속화


B011• 석구상/호암산


B012• 영모도/민화


B013• 영모도/민화


B014• 영모도/민화


B015• 영모도/민화


B016• 영모도/민화


B017• 영모도/민화


B018• 화조영모도/민화


B019• 영모도/민화


B020• 영모도/민화


B021• 영모도/민화


B022• 영모도/민화


B023• 경복궁


B024• 호토도/민화

[B_동물]_거북이


B025• 해귀도/민화


B026• 해귀도/민화


B027• 해귀도/민화


B028• 신귀도/민화


B029• 신귀도/민화


B030• 서귀도/민화


B031• 장생도/민화


B032• 장생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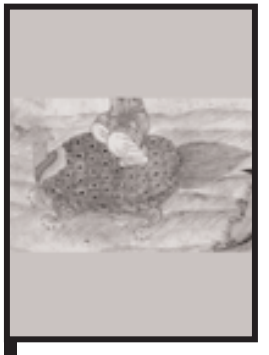

B033• 현무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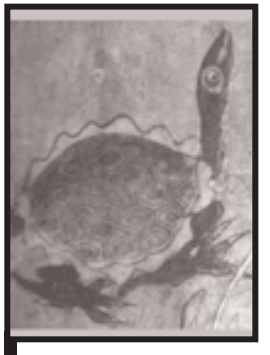

B034• 신귀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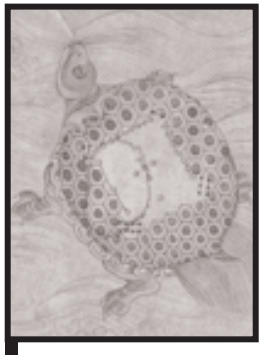

B035• 신귀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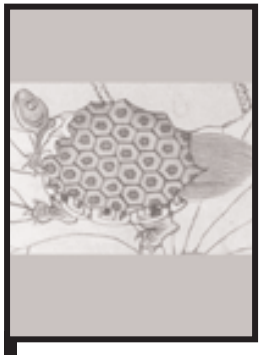

B036• 장생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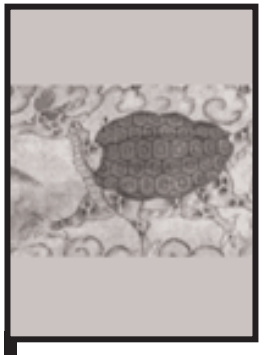

B037• 신선도/민화


B038• 신선도/민화


B039• 장생도/민화


B040• 장생도/민화


B041• 장생도/민화


B042• 신귀도/민화



B043• 장생도/민화



B044• 장생도/민화



B045• 장생도/민화



B046• 장생도/민화



B047• 장생도/벽화



B048• 장생도/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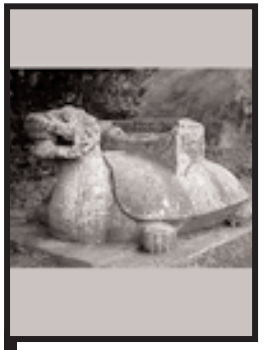
B049• 귀부/영춘



B050• 귀부/영춘



B051• 귀부/삼척,신흥사



B052• 귀부/합천,영암사지



B053• 귀부/합천, 영암사지



B054• 석조/삼막사



B055• 귀부/수원 지지대 고개



B056• 귀부/수원 지지대 고개



B057• 당간지주 받침돌/경주 황룡사지



B058• 귀부/지리산 쌍계사



B059• 귀부/고성 건봉사



B060• 귀부/경주, 태종 무열왕비



B061• 귀부/화엄사



B062• 귀부/미륵사지



B063• 귀부/건봉사



B064• 귀부/건봉사



B065• 귀부/건봉사



B066• 귀부/건봉사



B067• 수원지지대 고개



B068• 귀부/미황사



B069• 귀부/경주무열왕릉



B070• 귀부/법천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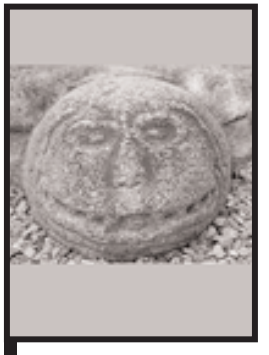
B071• 귀부/봉은 삼산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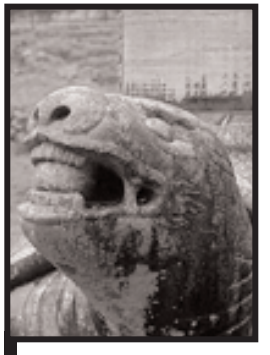
B072• 귀부/창녕읍



B073• 귀부/창녕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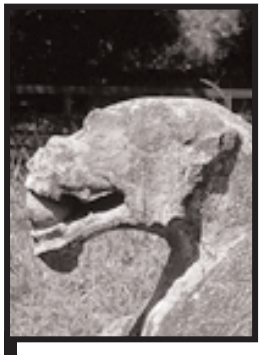
B074• 귀부/창녕읍



B075• 귀부/도갑사



B076• 도갑사



B077• 영월 법흥사



B078• 금산사

[B_동물]_말



B079• 현무도/강서대묘



B080• 현무석상/경복궁



B081• 김홍도/편자박기/풍속화



B082• 김홍도/장터길/풍속화



B083• 무용총/고구려 고분벽화



B084• 마구간/고구려 벽화



B085• 호렵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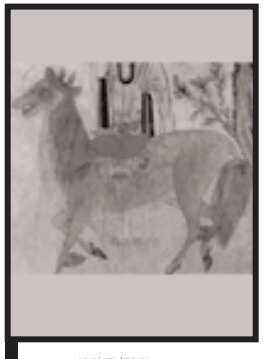
B086• 호렵도/민화



B087• 용마도/민화



B088• 용마도/민화



B089• 신마도/민화



B090• 신마도/민화



B091• 신마도/민화



B092• 목각마상/통영 장군봉

[B_동물]_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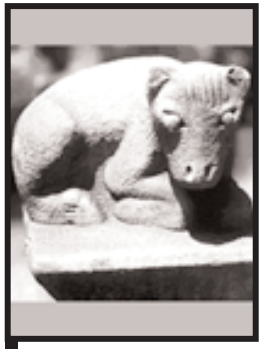
B093• 목각마상/통영, 장군봉



B094• 목각마상/통영, 장군봉



B095• 석마상/경복궁



B096• 석마상/경복궁



B097• 쌍용총/고구려 고분벽화



B098• 김홍도/논갈이/풍속화



B099• 김홍도/노중상봉/풍속화



B100• 행려도/민화



B101• 김두량/목동우화/풍속화



B102• 우도/민화



B103• 전가락사/기록화



B104• 기우신선도/민화



B105• 우도/민화



B106• 목동도/민화



B107• 우도/민화

[B_동물]_사슴


B108• 송록도/민화


B109• 송록도/민화


B110• 송록도/민화


B111• 장생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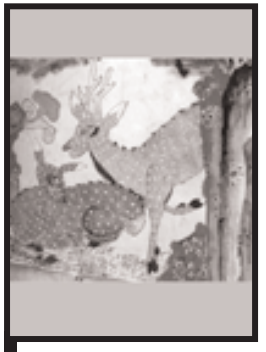

B112• 장생도/민화


B113• 송록연화도/민화


B114• 송록연화도/민화


B115• 화조산수도/민화


B116• 화조산수도/민화


B117• 송록연화도/민화


B118• 송록연화도/민화


B119• 쌍록도/민화


B120• 쌍록도/민화


B121• 화조산수도/민화


B122• 쌍록도/민화


B123• 송록연화도/민화


B124• 송록연화도/민화


B125• 쌍록도/민화



B126• 서록도/민화



B127• 서록도/민화



B128• 서록도/민화



B129• 서록도/민화



B130• 서록도/민화



B131• 서록도/민화



B132• 서록도/민화



B133• 십장생/경복궁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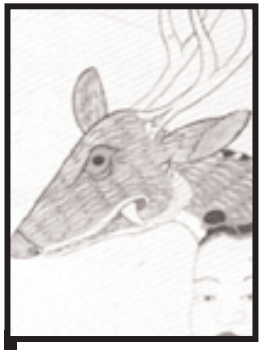
B134• 사슴경첩/진주 장석박물관



B135• 무용총/고구려고분 벽화



B136• 서록도/민화



B137• 수성노인도/민화



B138• 수성노인도/민화



B139• 서록도/민화



B140• 서록도/민화



B141• 서록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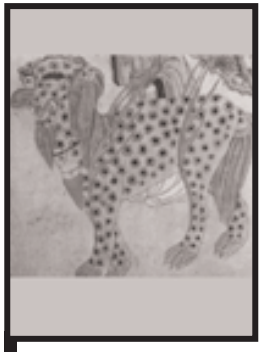


B142• 십장생/경복궁 벽화

B143_B150

[B_동물]_사자


B143• 산수문자도/민화


B144• 신선도/민화


B145• 소맷돌/대흥사


B146• 사자상/파주 보광사


B147• 석사자조각/합천 영암사지


B148• 석사자조각/합천 영암사지


B149• 석사자상/경주 괘릉


B150• 석사자상/경주 괘릉

B151_B156

[B_동물]_호랑이


B151• 호랑이 부적/민화


B152• 호랑이 조각/통영, 충열사


B153• 무경/민화


B154• 호랑이 부적/민화


B155• 호랑이 부적/민화


B156• 화호도/민화

[B_동물]_호랑이



B157• 토끼호랑이/민화



B158• 석호상/이화여자대학교



B159• 판화도/민화



B160• 가호산신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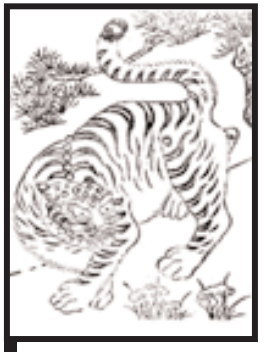
B161• 호작도/민화



B162• 호작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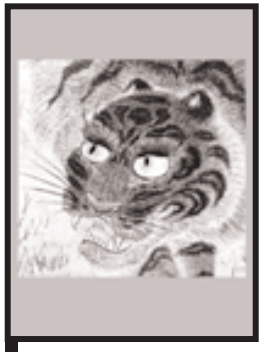
B163• 호도/민화



B164• 호랑이부적/민화



B165• 호작도/민화



B166• 맹호도/민화



B167• 호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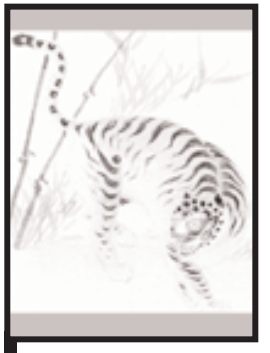
B168• 호작도/민화



B169• 송호도/민화



B170• 호도/민화



B171• 호도/민화



B172• 호도/민화



B173• 호도/민화



B174• 군호도/민화



B175• 호작도/민화



B176• 호도/민화



B177• 호작도/민화



B178• 송호도/민화



B179• 호도/민화



B180• 까치호랑이/민화



B181•



B182• 호작도/민화



B183• 호작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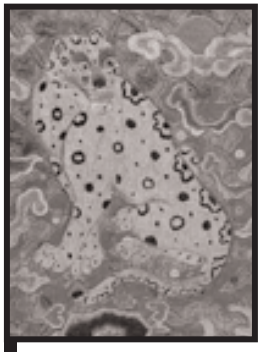
B184• 서호도/민화



B185• 호작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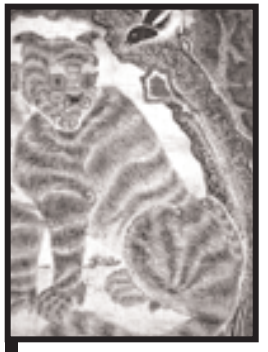
B186• 백호기/민화



B187• 흉배에 놓인 수



B188• 흑호도/민화



B189• 호작도/민화



B190• 부적/민화



B191• 호도/민화



B192• 호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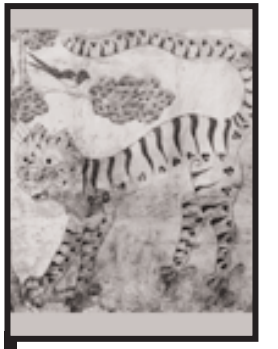

B193• 호도/민화


B194• 호도/민화


B195• 호작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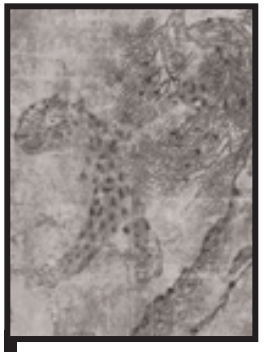

B196• 호작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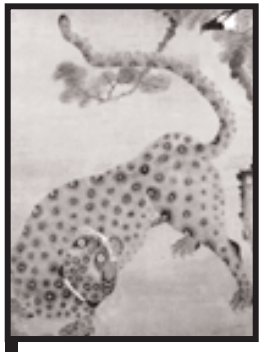

B197• 호작도/민화


B198• 호작도/민화


B199• 호작도/민화


B200• 송호도/가리개


B201• 송호도/가리개


B202• 호작도/민화


B203• 화호도/민화


B204• 호작도/민화


B205• 호작도/민화


B206• 호토도/민화


B207• 호작도/화


B208• 호작도/민화


B209• 까치호랑이/민화


B210• 호작도/민화



B211• 호작도/민화



B212• 호작도/민화



B213• 호작도/민화



B214• 호작도/민화



B215• 호작도/민화



B216• 호작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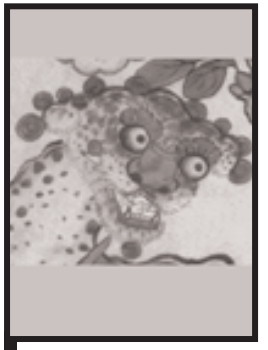
B217• 호작도/민화



B218• 호작도/민화



B219• 호도/민화



B220• 호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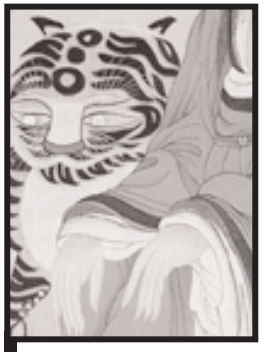
B221• 호도/민화



B222• 호랑이장석/진주 장석박물관



B223• 석호상/경복궁



B224• 산신도/민화



B225• 호도/민화



B226• 산신기호도/민화



B227• 산신기호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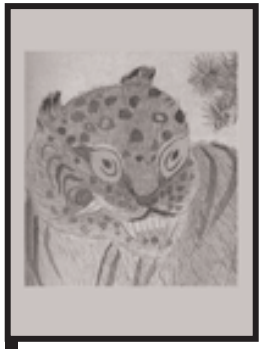
B228• 호작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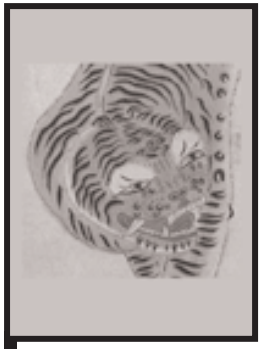
[B_동물]_호랑이


B229• 호작도//민화


B230• 산신기호도/민화


B231• 민화


B232• 호작도/민화


B233• 호작도/민화


B234• 호작도/민화


B235• 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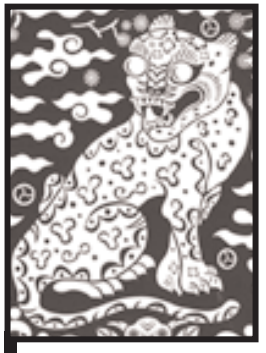

B236• 낙서화


B237• 호작도/민화


B238• 호작도/민화


B239• 낙서화


B240• 낙서화


B241• 단호흉배


B242• 판화도


B243• 판화도


B244• 기호산신도/민화


B245• 낙서화


B246• 낙서화



B247•



B248• 새끼호랑이상/전주 송광사



B249• 호랑이벽화/파주 보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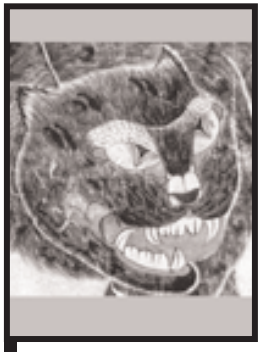
B250• 석호상/경복궁



B251• 석호상/종로 비각



B252• 호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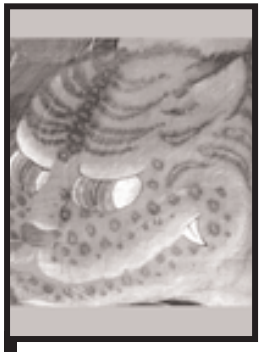
B253• 흑호도/민화



B254• 어(악기)



B255• 호도/민화



B256• 호도/민화



B257• 호도/민화



B258• 호도/민화



B259• 호도/민화



B260• 청룡상/고구려고분벽화



B261• 호작도/민화



B262• 호도/민화



B263• 호작도/민화



B264• 호작도/민화



B265• 산신도/민화



B266• 산신도/민화



B267• 호작도/민화



B268• 호작도/민화



B269• 호작도/민화



B270• 호작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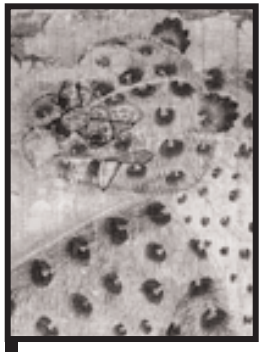
B271• 호작도/민화



B272• 호작도/민화



B273• 호작도/민화



B274• 호작도/민화



B275• 호작도/민화



B276• 호랑이부적



B277• 호랑이부적



B278• 군호도/민화



B279• 만호도/민화



B280• 만호도/민화



B281• 호랑이부적



B282• 호도/민화



B283• 산신도/민화



B284• 김홍도/군도/민화



B285• 김홍도/군도/민화



B286• 호도/민화



B287• 호작도/민화



B288• 호작도/민화



B289• 산신도/민화



B290• 산신도/민화



B291• 산신도/민화



B292• 산신도/민화



B293• 산신도/민화



B294• 산신도/민화



B295• 호도/민화



B296• 호도/민화

B297_B308

[B_동물]_기타동물



B297• 원숭이상/경복궁



B298• 뱀/민화



B299• 나비/낙서화



B300• 원숭이/낙서화



B301• 원숭이/낙서화



B302• 쥐/낙서화



B303• 낙서화



B304• 코끼리/파주 보광사 /벽화



B305• 박쥐 조각/경복궁 벽화



B306• 동물상/경복궁



B307• 동물상/김제 귀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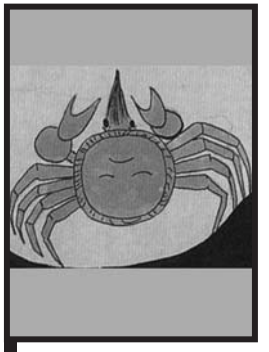
B308• 멧돼지/민화

B309_B316

[B_동물]_게/새우



B309• 게/민화



B310• 게/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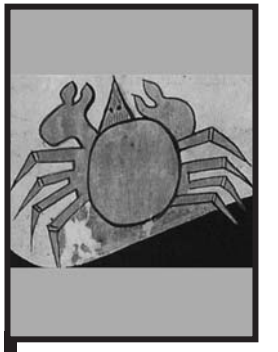
B311• 게/민화



B312• 게/민화



B313• 게/민화



B314• 게/민화

[B_동물]_잉어



B315• 새우/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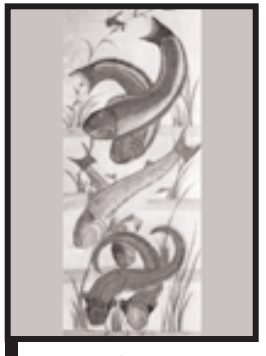
B316• 게/민화



B317• 어락도/민화



B318• 어락도/민화



B320• 어해도/민화



B321• 어해도/민화



B322• 잉어도/민화



B323• 잉어도/민화



B324• 문자도/민화



B325• 문자도/민화



B326• 문자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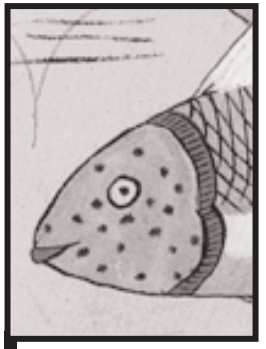
B327• 문자도/민화



B328• 쌍리도/민화



B329• 쌍리도/민화


B329• 쌍리도/민화


B330• 잉어도/민화


B331• 쌍리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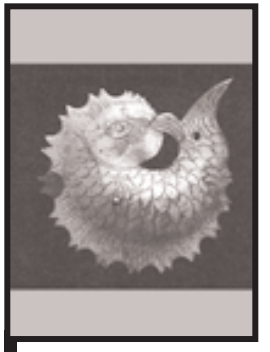

B332• 쌍리도/민화


B333• 민화


B334• 민화


B335• 민화


B336• 잉어경첩/진주 장석박물관


B337• 잉어경첩/진주 장석박물관


B338• 쏘가리/민화


B339• 메기/민화


B340• 메기/민화


B341• 민화


B342• 붕어/민화


B343• 민화



B344• 메기/민화



B345• 민화



B346• 민화



B347• 민화



B348• 민화



B349• 쏘가리/민화



B350• 민화



B351• 민화



B352• 민화



B353• 쏘가리/민화



B354• 쏘가리/민화



B355• 민화



B356• 민화



B357• 민화



B358• 민화



B359• 목어/포항 오어사



B360• 목어/포항 오어사



B361• 목어/고성 옥천사

B363_B369

[B_동물]_까치



B362• 목어/고성 옥천사



B363• 호작도/민화



B364• 호작도/민화



B365• 호작도/민화



B366• 호작도/민화



B367• 호작도/민화



B368• 작도/민화



B369• 호작도/민화


B370• 계도/민화


B371• 화조어해도/민화


B372• 계도/민화


B373• 계도/민화


B374• 계도/민화


B375• 계도/민화


B376• 계도/민화


B377• 계도/민화


B378• 계도/민화


B379• 계도/민화


B380• 계도/민화


B381• 계도/민화


B382• 계도/민화


B383• 계도/민화


B384• 닭경첩/진주 장석박물관

B386_B391

[B_동물]_매



B385• 서응도/민화



B386• 서응도/민화



B387• 서응도/민화



B388• 서응도/민화



B389• 서응도/민화



B390• 서응도/민화



B391• 부적/민화

B392_B398

[B_동물]_오리



B392• 민화



B393• 민화



B394• 민화



B395• 민화



B396• 민화



B397• 민화

[B_동물]_학



B398• 민화



B399• 김득희/강변회음/풍속화



B400• 김득희/강변회음/풍속화



B401• 흉배자수



B402• 학도/화



B403• 신선도/민화



B404• 민화



B405• 군학산수도/민화



B406• 군학산수도/민화



B407• 학도/민화



B408• 학도/민화



B409• 학도/민화



B410• 송학도/민화



B411• 화조도/민화



B412• 화조도/민화



B413• 송학도/민화



B414• 송학도/민화



B415• 송학도/민화



B416• 송학도/민화



B417• 송학도/민화



B418• 학도/민화



B419• 화조도/민화



B420• 송학도/민화



B421• 화조도/민화



B422• 화조도/민화



B423• 송학도/민화



B424• 학경첩/진주 장석박물관



B425• 학경첩/진주 장석박물관

B426_B433

[B_동물]_기타 새


B426• 민화


B427• 꿩/민화


B428• 원앙/민화


B429• 원앙/민화


B430• 민화


B431• 꿩/민화


B432• 참새/낙서화


B433• 민화

[C_초자연물]

C001_C006

[C_초자연물]_봉황


C001• 봉황도/민화


C002• 봉황도/민화


C003• 봉황도/민화


C004• 봉황도/민화


C005• 봉황도/민화


C006• 봉황도/민화

[C_초자연물]_봉황


C007• 봉황도/민화


C008• 봉황도/민화


C009• 봉황도/민화


C010• 봉황도/민화


C011• 봉황도/민화


C012•


C013• 봉황도/민화


C014• 봉황도/민화


C015• 봉황도/민화


C016• 봉황도/민화


C017• 봉황도/민화


C018• 봉황도/민화


C019• 봉황도/민화


C020• 봉황도/민화


C021• 봉황도/민화


C022• 봉황도/민화


C023• 봉황도/민화


C024• 봉황도/민화



C025• 봉황도/민화



C026• 봉황도/민화



C027• 봉황도/민화

C028_C031

[C_초자연물]_불가사리



C028• 민화



C029• 민화



C030• 영수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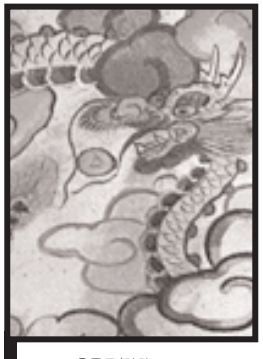
C031• 불가사리조각/경복궁

C032_C037

[C_초자연물]_용



C032• 운룡도/민화



C033• 운룡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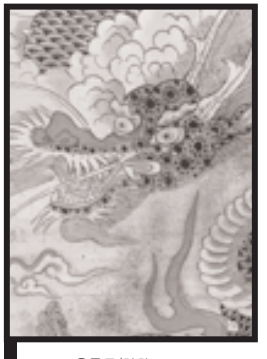
C034• 문자도/민화



C035• 운룡도/민화



C036• 운룡도/민화



C037• 운룡도/민화

[C_초자연물]_용


C038• 청룡도/민화


C039• 운룡도/민화


C040• 문자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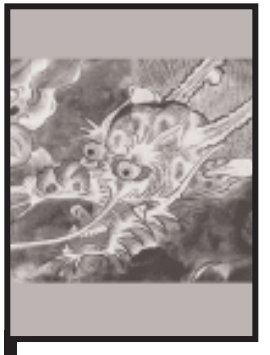

C041• 운룡도/민화


C042• 운룡도/민화


C043• 운룡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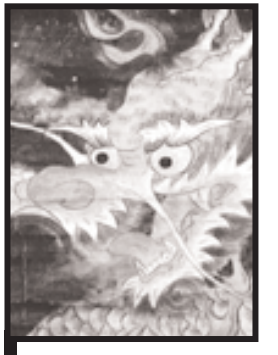

C044• 운룡도/민화


C045• 운룡도/민화


C046• 운룡도/민화


C047• 운룡도/민화


C048• 운룡도/민화


C049• 운룡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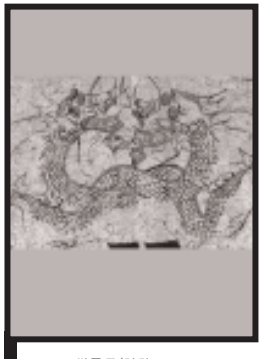

C050• 운룡도/민화


C051• 운룡도/민화


C052• 운룡도/민화


C053• 운룡도/민화


C054• 운룡도/민화


C055• 쌍룡도/민화



C056• 쌍룡도/민화



C057• 쌍룡도/민화



C058• 쌍룡도/민화



C059• 문자도/민화



C060• 문자도/민화



C061• 문자도/민화



C062• 운룡도/민화



C063• 문자도/민화



C064• 문자도/민화



C065• 문자도/민화



C066• 문자도/민화



C067• 쌍룡도/민화



C068• 쌍룡도/민화



C069• 쌍룡도/민화



C070• 문자도/민화



C071• 문자도/민화



C072• 청룡석상/종로비각



C073• 운룡도/민화

[C_초자연물]_용


C074• 운룡도/민화


C075• 용조각/파주 보광사


C076• 금강역사/봉은사


C077• 용벽화/파주 보광사


C078• 목어/파주 보광사


C079• 용조각어/파주 보광사


C080• 소맷돌 용조각/경복궁


C081• 용벽화/상주 남장사


C082• 용벽화/합천 개인 사당벽화


C083• 용벽화/합천 개인 사당벽화


C084• 용벽화/합천 개인 사당벽화


C085• 소맷돌용조각/미황사


C086• 용조각/창녕읍


C087• 용조각/창녕읍


C088• 용조각/관촉사


C89• 상석받침용조각/남연군묘


C090• 연화대좌용조각/대관령박물관


C091• 용조각/미황사

[c_초자연물]_해태


C092• 용조각/진도 쌍계사


C093• 용조각/진도 쌍계사


C094• 청룡석상/종로 비각


C095• 민화


C096• 민화


C097• 민화


C098• 민화


C099• 민화


C100• 민화


C101• 민화


C102• 민화


C103• 해태조각/전주 송광사


C104• 해태석상/경복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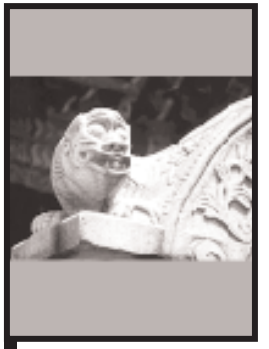

C105• 해태상/광화문


C106• 해태상/종로 비각

C119_C142

[C_초자연물]_도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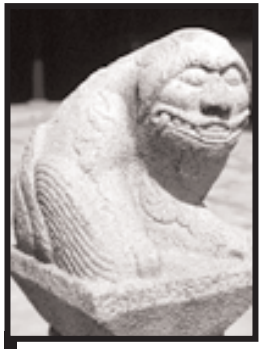

C107• 해태상/경복궁


C108• 해태상/종로비각


C109• 민화


C110• 민화


C111• 민화


C112• 해태상/경복궁


C113• 해태상/광화문


C114• 민화


C115• 민화


C116• 민화


C117• 민화


C118• 해태상/종로비각


C119• 도깨비기와/밀양 영남루


C120• 도깨비기와/밀양 영남루


C121• 남연군묘


C122• 대관령박물관


C123• 미황사


C124• 미황사



C125• 백양사 부도밭



C126• 속초 신흥사



C127• 건봉사



C128• 도깨비 기와/해남 녹우당



C129• 건봉사 부도밭



C130• 신흥사 부도밭



C131• 화엄사



C132• 미황사



C133• 고성 안정사



C134• 고성 안정사



C135• 예천 용문사



C136• 대흥사



C137• 예천 용문사



C138• 예천 용문사



C139• 선운사 도솔암



C140• 지리산 천은사



C141• 안성 석남사



C142• 안성 석남사

[C_초자연물]_도깨비


C143• 전등사


C144• 전등사


C145• 논산 쌍계사


C146• 논산 쌍계사


C147• 수도암


C148• 불상 좌대/김제 귀신사


C149• 안동 하회마을


C150• 밀양 영남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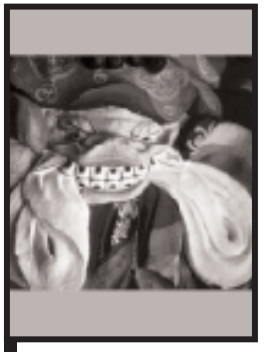

C151• 통영 충열사


C152• 통영 충열사


C153• 강진 통동


C154• 에밀레 박물관


C155• 사천왕상/전주 송광사


C156• 사천왕상/전주 송광사


C157• 사천왕상/전주 송광사


C158• 사천왕상/전주 송광사


C159• 도깨비벽화조각/경복궁


C160• 도깨비조각/청풍 문화재단지


C161• 사천왕상/전주 송광사


C162• 영남루 귀면


C163• 영남루 귀면


C164• 기호산신도/민화


C165• 기호산신도/민화


C166• 산신도/민화


C167• 용신/무신도/민화


C168• 용신/무신도/민화


C169• 산신도/민화


C170• 칠성신/산신도/민화


C171• 기호산신도/민화


C172• 무신도/민화


C173• 일월천신도/민화


C174• 일월천신도/민화


C175• 무신도/민화



C176• 무신도/민화



C177• 무신도/민화



C1678• 상사위/무신도/민화



C179• 상사위/무신도/민화



C180• 제석위/무신도/민화



C181• 칠성도/민화



C182• 칠성도/민화



C183• 칠성도/민화



C184• 칠성도/민화



C185• 산신도/민화



C186• 산신도/민화



C187• 옥황상제/무신도/민화



C188• 옥황상제/무신도/민화



C189• 무신도/민화



C190• 칠성도/민화



C191• 용왕/무신도/민화



C192• 용왕/무신도/민화



C193•



C194• 용왕/무신도/민화



C195• 용왕/무신도/민화



C196• 용왕/무신도/민화



C197• 용궁부인/무신도/민화



C198• 용궁부인/무신도/민화



C199• 용태부인/무신도/민화



C200• 일월선녀/무신도/민화



C201• 용태부인/무신도/민화



C202• 용태부인/무신도/민화



C203• 선녀/무신도/민화



C204• 산신도/민화



C205• 산신도/민화



C206• 산신도/민화



C207• 산신도/민화



C208• 산신도/민화



C209• 산신도/민화



C210• 산신도/민화



C211• 산신도/민화

[C_초자연물]_무속신



C212• 박수대신/무신도/민화



C213• 삼불제석/무신도/민화



C214• 삼불제석/무신도/민화



C215• 원망위/무신도/민화



C216• 홍아위/무신도/민화



C217• 본관위/무신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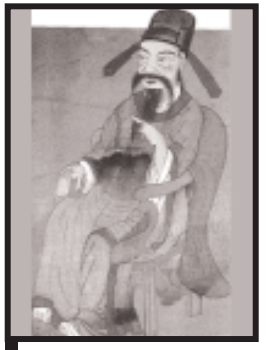
C218• 본관위/무신도/민화



C219• 상사위/무신도/민화



C220• 일월성신/무신도/민화



C221• 무신도/민화



C222• 산신도/민화



C223• 무신도/민화



C224• 삼불제석/무신도/민화

[C_초자연물]_부처/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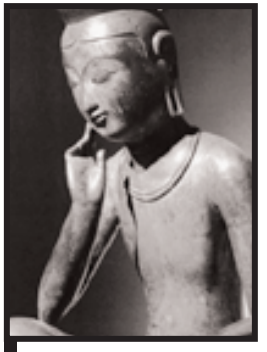

C225• 미륵보살


C226• 지장보살/선운사


C227• 비로자나불/신라


C228• 보상살/기림사


C229• 미륵보살/관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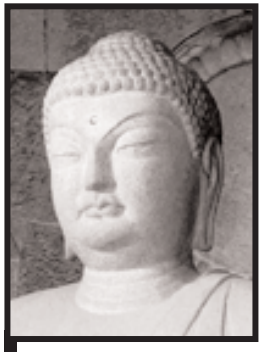

C230• 금동미륵보살상/신라


C231• 보살상/신라


C232• 금동불/신라


C233• 제3상/석굴암/신라


C234• 약사여래/고려


C235• 본증불/석굴암/신라


C236• 십일연관음보살/석굴암/신라


C237• 십일연관음보살/석굴암/신라


C238• 문수보살/석굴암/신라

C239_C274

[B_초자연물]_산신령/신선


C239• 산신도/민화


C240• 산신도/민화


C241• 산신도/민화


C242• 산신도/민화


C243• 산신도/민화


C244• 산신도/민화


C245• 산신도/민화


C246• 산신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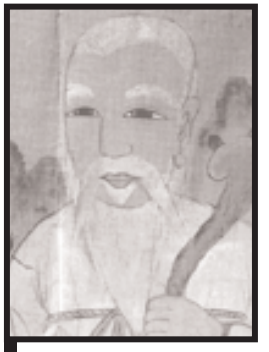

C247• 산신도/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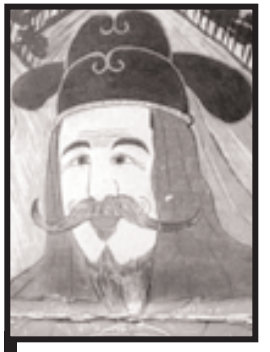

C248• 산신도/민화


C249• 산신도/민화


C250• 산신도/민화


C251• 산신도/민화


C252• 산신도/민화


C253• 산신도/민화


C254• 산신도/민화


C255• 창부/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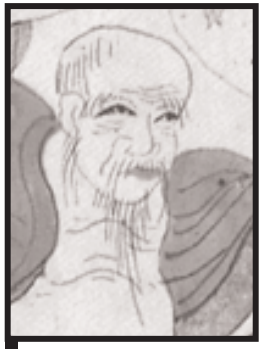

C256• 산신도/민화



C257• 설화도/민화



C258• 설화도/민화



C259• 설화도/민화



C260• 김희성/오수청천/풍속화



C261• 설화도/민화



C262• 설화도/민화



C263• 설화도/민화



C264• 산신도/민화



C265• 산신도/민화



C266• 산신도/민화



C267• 설화도/민화



C268• 산신도/민화



C269• 설화도/민화



C270• 설화도/민화



C271• 설화도/민화



C272• 산신도/민화



C273• 산신도/민화



C274• 산신도/민화

[C_초자연물]_산신령/신선


C275• 산신도/민화


C276• 산신도/민화


C277• 수성노인/산신도/민화


C278• 산신도/민화


C279• 수성노인/산신도/민화


C280• 수성노인/산신도/민화


C281• 수성노인/설화도/민화


C282• 설화도/민화


C283• 설화도/민화


C284• 수성노인/설화도/민화


C285• 산신도/민화


C286• 산신도/민화


C287• 산신도/민화


C288• 설화도/민화


C289• 설화도/민화


C290• 수성노인/산신도/민화


C291• 수성노인/산신도/민화


C292• 수성노인/산신도/민화



C293• 수성노인/설화도/민화



C294• 설화도/민화



C295• 수성노인/설화도/민화



C296• 설화도/민화



C297• 용왕/무신도/민화



C298• 용왕/무신도/민화



C299• 설화도/민화



C300• 비천상/전주 송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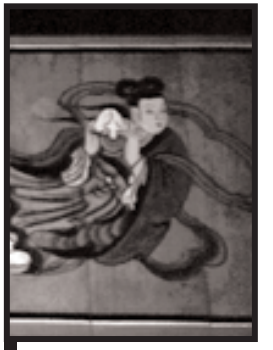
C301• 비천상/전주 송광사



C302• 비천상/전주 송광사



C303• 비천상/전주 송광사



C304• 비천상/신흥사



C305• 비천상/신흥사

C306_C321

[C_초자연물]_수호신



C306• 천왕상/대승사



C307• 민화



C308• 민화



C309• 신장벽화/파주 보광사



C310• 신장벽화/파주 보광사



C311• 금강역사/석굴암/신라



C312• 사천왕/석굴암/신라



C313• 사천왕/석굴암/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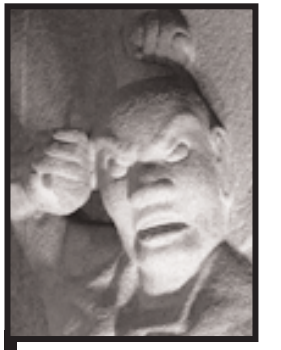
C314• 사천왕/석굴암/신라



C315• 사천왕/석굴암/신라



C316• 금강역사/석굴암/신라



C317• 금강역사/석굴암/신라



C318• 팔부중 제1상/석굴암/신라



C319• 팔부중 제2상/석굴암/신라



C320• 팔부중/석굴암/신라



C321• 팔부중/석굴암/신라

[C_초자연물]_장승/수호석


C322• 제주 돌하르방/경복궁


C323• 제주 돌하르방/경복궁


C324• 장승


C325• 통영시 문화동 벅수


C326• 운흥사터


C327• 장승


C328• 정읍 원백암리


C329• 실상사


C330• 상주 남장사


C331• 순창읍 충신리


C332• 실상사


C333• 통영 문화동 벅수


C334• 정읍 원백암리


C335• 순창 남계리


C336• 순창 남계리


C337• 청원 혜와당사


C338• 이대박물관


C339• 동자상/이대박물관

C351_C358

[C_초자연물]_기타
초자연물


C340• 다산초당


C341• 다산초당


C342• 다산초당


C343• 다산초당


C344• 윤선도 조상묘


C345• 금산사


C346• 청원 혜와당사


C347• 이화대학교


C348• 금산사


C349• 추사 고조부묘


C350• 추사 고조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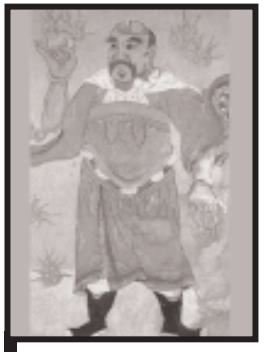

C351• 문자도/민화


C352• 문자도/민화


C353• 문자도/민화


C354• 문자도/민화


C355• 민화


C356• 화덕장군/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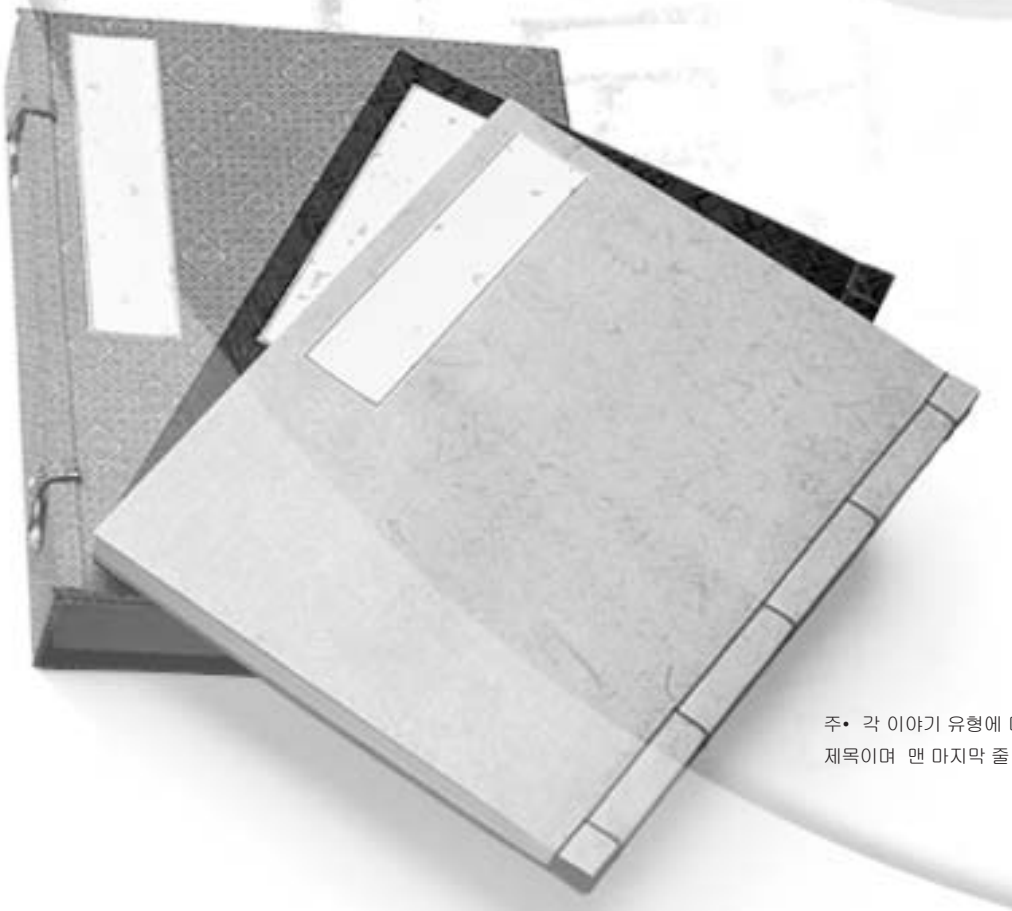


C357• 주작도/경복궁



C358• 주작도/종로비각

story study system 이야기



[선한형]

_ 효도형 _보은형 _지혜형 _모성형 _정의형 _순박형 _순종형 _지조형 _우애형
_열녀.열부형 _인욕형 _청빈형 _충직.충신형 _자비형 _신의형

[악한형]

_포악형 _복수형 _배은망덕형 _과욕형 _과시형 _아첨형 _음모.지모형 _사기형
_불효형 _오만형 _나태형 _인색.이기형 _음탕형

[해학형]

_아둔형 _우직형 _능청형 _꾀보형 _재치형 _우연형 _배짱형

[변이.초자연형]

_도움형.좋은결과형 _상해형.나쁜결과형 _선악이 없는 형

[기인형]

_도움형 _좋고 나쁨이 없는형

주• 각 이야기 유형에 대한 개별정보는 각 이야기의 제목을 기억하면 가나다별 분류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다. 맨 첫줄에 제시되어있는 것이 이야기의 제목이며 맨 마지막 줄 괄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각 이야기 유형에 대한 정보로 (분류/책제목/시리즈 제목/엮은이/출판사)의 순으로 되어있다.

[선한형]

[선한형]_효도형

거인을 죽인 효자

나무하러 산에 간 아버지가 없어지자 효성스런 아들의 꿈에 옥황상제가 나타나 벼룩 한 말,빈대 한 말,바늘 한 말을 가지고 다니라 한다. 아들은 그것들을 구해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빈 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큰 거인이 나타나 광문을 열고 사람이름을 부르자 아버지도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다. 거인이 방으로 들어가자 벼룩을 풀어놓고 마루에 나와 눕자 이를 풀어 논다. 거인이 숲속으로 자러 가자 바늘을 풀어 놓았더니 바늘이 달려가 거인의 몸을 찌른다. 거인이 다시 솥 속으로 들어가자 아들은 큰 돌을 뚜껑 위에 얹어 놓고 불을 때서 죽인 후 아버지와 함께 거인의 재물을 갖고 집으로 돌아온다.

(동화/솥 안에 든 거인/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겨울에 잉어를 얻은 아이

병든 홀어머니의 꿈에 하얀 수염의 노인이 나타나 잉어를 먹으면 낫는다고 한다. 열 살 난 딸이 잉어를 구해보려고 눈 덮인 산골짜기로 들어가니 개 한마리가 나타나 길을 인도한다. 연못에 이르러 아이가 얼음을 깨뜨리자 개가 다시 물속에 뛰어들어 잉어를 물고 나온다. 돌아오는 길에 개는 사라지고 수염 긴 할아버지가 나타나 자기는 산신이며 개는 호랑이가 둔갑한 것이라고 말하며 '네 효성으로 잉어를 구한 것이니 어머니 병이 나을 것이라' 한다.

(동화/얼음 속의 잉어/한국 전래동화4/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나라를 구한 효자

늙으신 부모님을 산 속에 버리는 고려장 풍습이 있었을 때 박 정승은 어머니를 마루 밑에 숨긴다. 당나라 사신이 지혜를 겨루려고 와서는 똑 같은 말 두 마리를 내어놓고 어미와 새끼를 구별하라 한다. 박 정승은 어머니 말대로 먹이를 주어 먼저 먹는 놈이 새끼말이라고 알아맞히고 고려장 풍습은 없어진다.

(동화/말에게서 배운 부모님 은혜/한국전래동화/웅진출판)

다리 살을 베어 효도한 향득

신라 사람 향득은 흉년이 들어 그 아버지가 굶어 죽게 되자 자기의 다리 살을 베어 봉양했다. 이로 인해 왕이 많은 식량을 내렸다.(전설/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손순은 자기의 어린 아이가 매번 할머니의 음식을 뺏아 먹음으로 아내와 상의하여 아이를 땅에 묻으려 하였다. 땅을 팠더니 돌로 만든 종이 나와 이상히 여기고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 들보에 달아 놓고 종을 쳤더니 그 소리가 대궐에 까지 들렸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왕이 그 효성을 칭찬하며 해마다 양식을 내렸다.

(전설/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머리 깎은 며느리

어머니 환갑을 위해 며느리가 머리를 잘라 팔아 음식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울고 아들은 노래부르고 수건을 쓴 며느리는 춤을 춘다. 인심을 살피러 몰래 나왔던 임금이 이것을 알고는 아들에게 과거를 보게 하는데 문제가 '아들은 노래하고 스님은 춤추고 노인은 탄식한다(子歌僧舞老人歎)' 을 풀라는 것이다. 아들은 당연히 급제하고 그 선비가 임금인 것을 알게 된다.

(동화/임금님이 겪으신 일/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병을 고치려다 죽은 소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오누이가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고 33가지 약초를 구하러 산으로 돌아다닌다. 마지막 한가지를 찾으러 간 오누이는 절벽으로 오르다가 찾는 약초가 아닌 것을 알고는 손을 놓는 바람에 절벽에서 떨어진다. 오빠는 살아나지만 누이동생이 죽은 바위를 선녀바위라고 부르게 된다.

(동화/선녀바위/한국전래동화3/강수원/정원)

복을 받는 아우

착한 아우가 나무하러 갔다가 떨어지는 개암을 주우며 아버지,어머니,형에게 갖다 주려고 한다. 날이 저물어 산 속 빈 집 다락에서 자는데 도깨비들이 몰려와 금방망이 은방망이로 필요한 것을 마음대로 만들며 논다. 아우는 배가 고파 개암을 깨물었는데 도깨비들은 집이 무너진다고 도망치고 아우는 금방망이 은방망이를 갖고 와서 잘 살게 된다.

(동화/금방망이 은방망이/옛날 이야기/이영/예림당)

북두칠성이 된 칠형제

아들 일곱을 둔 홀어머니가 밤마다 차가운 개울물을 건너 이웃집의 늙은 영감님에게 마실을 다닌다는 것을 안 아들들은 어머니가 마실을 간 사이 개울물에 징검다리를 놓는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며' 이 다리를 놓은 사람들은 하늘의 별님이 되게 하소서' 하고 빌었는데 그 후 일곱 아들이 죽어 북두칠성이 되었다.

(신화/북두칠성이 된 형제들/한국 전래동화1/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살인죄를 지은 효자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자란 효자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사람처럼 생긴 돌을 주워 뜰앞에 세워놓는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돌을 쪼아 석상을 만든 다음 아침 저녁 문안인사를 드린다. 그러나 장쇠라는 젊은이가 찾아와 석상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냐며 모욕을 주고 발로 석상을 찬다. 서로 옥신각신하다 효자는 장쇠를 우연히 죽이게 되어 옥에 갇힌다. 평소에 효자의 행동을 알고 있던 관원이 위에다 보고하여 효자는 몇 해 동안 만 갇혀있다가 풀려난다.

(동화/아버지의 석상/한국 전래동화4/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세의 부모에 효도한 김대성

김대성은 어릴 때 고용살이로 얻은 밭을 스님에게 보시하고는 얼마 후 죽어서 재상의 집에 태어나는데 손에 이름이 써진 표식을 갖고 있어 다시 대성으로 불린다. 장성하여는 사냥한 곰이 꿈에 나타난 것을 계기로 절을 짓기 시작하여 금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불사를 세운다.

(전설/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며느리

시어머니를 박대하는 며느리가 자식이 없자 음식을 장만해서 절로 갔다. 주지 스님은 아이가 없어 왔느냐고 하면서 부처님께 빌어도 아기를 못 가지니 집에 돌아가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을 섬기면 된다고 한다.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먹다가 급히 나와 마루로 올라가는데 신발을 거꾸로 신고 있었다. 며느리는 마음을 고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들도 낳고 동네 사람 칭찬도 받으며 잘 살았다.

(동화/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한국 전래동화9/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시장에서 제사를 지낸 선비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가난한 선비가 아버지의 위패를 가지고 시장에 나와 어물 가게로 가서 위패를 꺼내들고는 아버지 저것이 명태입니다. 잡수십시오.저것은 조기이고, 저것은 홍합입니다. 저것은 멸치고요...' 이런 식으로 과일 가게,나물 가게를 두루 돌아다닌다. 집에 돌아와 쌀밥하고 나물 몇가지,무우 탕국만 제사상에 올려 제사를 지냈는데 그날 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 오늘 너무 잘 먹었다' 면서 올해 농사는 어떻게 지으면 되는지 가르쳐 준다. 선비는 아버지의 말대로 농사를 지어 차츰 부자가 되었고 아들도 낳아 잘 살았다.

(동화/시장에서 지낸 제사/한국 전래동화9/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선한형]_효도형

아버지를 구한 김 규

성종이 경회루에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어디서 풍악소리가 들려왔다. 성종은 노하여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잡아들였는데 죄수들은 그 아들들을 시켜 탄원서를 내게 하였다. 임금이 더욱 노하여 그 아들들을 잡아들이라 하였더니 모든 아이들이 도망갔는데 오직 김 규만이 도망가지 않고 붙잡혀 왔다. 임금이 열 세살 난 김규에게 도망가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아비를 구하려고 글을 올렸는데 어찌 죄를 입는다고 도망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소문을 짓고 쓴 아이도 김 규였는데 성종이 그 재주를 시험해 보고는 기특하게 여겨 그 아버지와 동료들을 석방해 주었다. 김 규는 명종 때 장원급제하여 벼슬이 판윤에 이르렀다.

(일화/아버지를 구한 김 규/선인의 명언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아버지를 살리는 딸

어느 부부가 딸 여섯을 낳고는 칠성기도 후에 자식을 낳으니 또 딸이라 산에다 버렸으나 온갖 짐승이 돌본다. 15년 후에 아버지가 병들어 어머니가 서천 서역국 시약산 샘물을 떠 오라니 딸 여섯은 거절하고 산에 버린 막내딸이 천신만고 끝에 죽은 아버지를 살려낸다.

(민담/바리덕이/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진오/현암사)

아이를 매장한 손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손순은 자기의 어린 아이가 매번 할머니의 음식을 뺏아 먹음으로 아내와 상의하여 아이를 땅에 묻으려 하였다. 땅을 팠더니 돌로 만든 종이 나와 이상히 여기고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 들보에 달아 놓고 종을 쳤더니 그 소리가 대궐에까지 들렸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왕이 그 효성을 칭찬하며 해마다 양식을 내렸다.

(전설/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은혜 갚는 호랑이

병들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홍시가 먹고 싶다고 하자 아들은 무작정 길을 나서 헤메다가 입 안에 가시 박힌 호랑이를 만난다. 가시를 빼 주니 호랑이는 아들을 등에 태워 순식간에 홍시가 많이 달린 기와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집에 까지 데려다 준다.

(동화/가시 박힌 호랑이/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잘못을 뉘우친 며느리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쁜 며느리가 친정에 갔을 때 의원을 하는 작은 아버지에게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사약을 지어 달랜다. 작은 아버지는' 지금 죽이면 네가 의심을 받으니 1년 동안 시어머니를 잘 모시다가 오면 그때 지어 주겠다' 고 한다. 며느리가 집에 와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사랑하게 된다. 1년 후에 작은 아버지에게 간 며느리는 오히려 보약을 지어 달라고 한다.

(동화/자기 잘못 뉘우친 며느리/한국 전래동화7/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진정한 효자

들판에서 어느 상주가 방갓(상주들이 쓰던 삿갓 모양의 큰 갓)으로 웅덩이에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본 암행어사는 깜짝 놀라 고약하고 예의없는 놈이라고 그 상주를 쫓아가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상주는 낮에 잡은 물고기를 조려서 어머니께 드리며 그 가시를 일일이 골라내어 편하게 잡수시도록 하였다. 아침에 상주는 어머니가 고기를 잡숫고 싶어해서 할 수 없이 방갓으로 고기를 잡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니 암행어사는 그에게 많은 상금을 준다.

(동화/방갓으로 고기 잡은 효자/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천도 복숭아를 얻은 소년

늙으신 아버지가 병이 들자 나이어린 아들은 온갖 약을 구해다 드리지만 효력이 없다. 소년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기로 하고 뒷산 골짜기 폭포에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이레째 되는 날 폭포 위에서 비단옷이 떨어진다. 소년은 옷의 임자인 선녀에게 옷을 돌려주고 대신 천도복숭아 두 개를 얻어 아버지의 병을 말끔히 고친다.

(동화/천도를 얻은 소년/한국 전래동화4/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효녀 심청

심청은 눈 먼 아버지가 동냥젖으로 길렀으나 효심이 지극하여 아버지를 정성껏 봉양하더니 공양미 삼백석을 절에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몸을 뱃사람에게 판다. 그러나 용궁에서 살아나와 황후가 된 심청이는 맹인잔치를 열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

(판소리/심청전/판소리 열두마당/유윤필/들불)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

오후부터 비가 내려 품삯을 받지 못하고 돌아오던 며느리가 개똥무더기 속에 보리쌀이 소복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가져다가 수십 번을 씻은 다음 밥을 해서 시아버지에게 드렸다. 천둥번개가 더욱 심해지더니 낮선 궤짝 하나가 하늘에서 마당에 떨어져서 며느리가 부엌에 가지고 가서 열어보니 쌀이 가득 있다. 쌀을 퍼 내면 다시 쌀이 채워지는 이 궤짝은 하늘이 며느리의 효성을 알고 보내 준 것이었다.

(동화/줄지 않는 쌀 궤짝/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효성이 지극한 삼형제

병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효성스런 세 아들에게 느티나무 막대기와 큰 북과 바가지를 물려준다. 삼년 후 다시 만나기로 한 형제들은 한 가지씩 유산을 가지고 떠난다. 큰 형은 느티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가다 사람의 혼을 빼러 다니는 귀신을 만나 같은 귀신으로 속이고는 부자집 딸의 치료약을 알아내 그 집의 사위가 된다. 둘째 형은 큰 북을 가지고 가다가 사람을 해치는 곰과 그 새끼들을 북소리로 잡게 되어 역시 큰 부자가 된다. 막내는 바가지 세 개를 갖고 가다가 대가리 두 개 달린 괴물이 잡아먹으려는 처녀를 구해주려고 바가지를 이용해 머리가 셋인 것처럼 꾸민다. 괴물의 항복을 받고 또 많은 보물도 얻어 부자가 되는데 약속한 날 삼형제는 기쁘게 상봉한다.

(동화/가난한 유산/한국 전래동화3/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효심으로 얻은 복숭아

늙은 아버지가 병이 나자 소년은 갖가지 약을 써 보았지만 효험이 없어 폭포수 밑에 가서 신령님께 정성껏 빈다. 어느 날 폭포 위에서 선녀의 옷이 떨어지고 소년은 그 옷을 선녀에게 갖다 준다. 선녀는 그 보답으로 다음 날 하늘나라 복숭아를 갖다주고 소년은 그 복숭아로 아버님의 병을 깨끗이 고친다.

(동화/하늘나라 복숭아/한국전래동화3/강수원/정원)

[선한형]_보은형

은혜갚는 호랑이

부모 없이 산골짜기 초가집에 사는 삼형제에게 호랑이 두 마리가 찾아와 먹을 것을 달래고 삼형제는 닭 두 마리를 잡아 준다. 호랑이가 따라 오라고 하여 쫓아 가니 어느 곳을 파라고 한다. 땅 속에서 보석상자를 얻어 와서 삼형제는 행복하게 산다.

(동화/삼형제/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은혜 갚는 호랑이

암자에서 수도하는 스님에게 호랑이가 나타나 고통을 호소하자 스님은 목에 걸린 가시를 빼 준다. 한달 뒤 호랑이는 어여쁜 처녀를 데려다 주고 스님은 처녀를 간호한 뒤 본가에 데려다 주지만 처녀는 스님을 따르겠다고 하여 의남매를 맺고 함께 불도를 닦는다. 그 기념으로 두 개의 탑을 세운다.

(전설/오누이탑 전설/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은혜 갚는 호랑이

매일 몇 십리를 걸어다니는 우체부가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준 뒤 먹을 닭도 사 주자 호랑이는 매일 우체부를 태우고 다니며 보은을 한다. 늙어서는 금보따리를 물고 우체부 집에 찾아와 살다가 죽는다.

(민담/우체부와 호랑이/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은혜를 갚는 호랑이

죽순 밭을 망친 호랑이를 찾아 나선 나무꾼은 새끼를 발견하나 차마 죽이지 못하고 죽창을 버려둔 채 돌아온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에게 돌아와서 모든 사정을 알아채고 큰 멧돼지를 잡아서 나무꾼 집마당에 갖다 놓는다.

(민담/나무꾼 박서방/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은혜 갚는 호랑이

아들 하나와 살고 있는 나무꾼 홀아비가 집에 와 보니 호랑이가 아들을 물고 갔다. 다음날 낫을 들고 호랑이굴에 들어가 새끼들을 다 죽인 뒤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 어미 호랑이가 나타났다. 나무로 뛰어오르려다 가지 사이에 턱이 걸린 것을 나무꾼이 구해 주자 어미는 나무꾼을 집으로 데려다 준다. 그리고선 여인도 물어다 주고 산짐승도 물어다 주며 은혜를 갚는다.

(민담/턱이 걸린 호랑이/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은혜 갚는 호랑이

아버지 병을 고치려고 산삼을 캐러 간 소년이 호랑이 새끼를 낚어챈 독수리를 활로 쏘아 구해준다. 산삼을 캐고 돌아오니 한밤중이 되어 늑대가 달려드나 호랑이가 나타나 살려주고 등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준다. 며칠에 한번씩 짐승을 잡아 소년의 집 앞 바위에 갖다 놓는다.

(전설/맹호바위 전설/호랑이/손도심/서울신문사)

은혜 갚은 개구리

가난한 농사꾼이 양식이 없어 가재도구를 몽땅 팔아서 쌀 한 뒷박을 받아 가지고 오다가 먹을려고 잡혀가는 개구리들이 불쌍해서 쌀과 맞 바꾼다. 개구리들은 연못에서 헌 바가지를 가져다 주는데 쌀이 끝없이 나오는 화수분 바가지여서 농사꾼은 저도 잘 살고 이웃도 많이 도와 준다.

(동화/화수분 바가지)

은혜 갚은 까치

까치를 잡아먹으려던 구렁이를 지나가던 선비가 구해주고 가다가 날도 저물고 길도 잃어 산속의 기와집에서 자게 된다. 기와집 주인인 구렁이 아내는 선비를 죽이려 하지만 선비의 말을 듣고는 뒷산의 종이 울리면 살려주겠다고 한다. 자정이 다 되어 종이 울리고 선비는 구사일생으로 풀려나게 된다. 연유를 궁금해 한 선비는 종탑 아래에서 은혜를 갚기 위해 몸을 던져 종을 울리고는 탈진하여 죽어있는 까치를 발견하게 된다.

(동화/은혜갚은 까치/한국전래동화집/창작과 비평)

은혜 갚은 멧돼지

사냥꾼에 쫓겨 온 멧돼지를 구해준 착한 머슴이 멧돼지의 말대로 하여 대감집의 사위가 된다. 그러나 색시가 지네에게 납치되자 멧돼지와 함께 찾아가 지네를 죽이고 색시와 함께 많은 보물을 얻어 집으로 돌아온다.

(동화/멧돼지와 지네/한국전래동화4/강수원/정원)

은혜 갚은 뱀

장마에 떠 내려가던 뱀이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옥에 갇히자 감옥으로 들어와 은인을 물고는 또 약초를 갖어다 주어 고치게 한다. 다음날 사또는 뱀에게 물리고 이 사람이 나타나서 상처를 고치고는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어 감옥에서 풀려난다.

(동화/사람을 구해 주었더니/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정오/현암사)

은혜 갚은 뱀

나무를 하러 가던 지성이는 아이들이 죽이려던 뱀 새끼를 구해서 산으로 데려다가 살려내고 친구가 된다. 지성이가 다 커서 김초시의 딸과 결혼하게 되자 뱀은 결혼하면 안된다고 극구 말린다. 그래도 지성이가 결혼을 하게 되자 뱀은 지성이의 품속에 숨어서 신부집으로 간 다음 신혼방에 숨어 들어간다. 신부가 방으로 들어오자 뱀이 목을 물고 늘어지고 신부는 커다란 지네로 변한다. 뱀은 지네가 신부를 잡아먹고 둔갑한 것이라면서 지리산으로 들어간다.

(동화/지성이와 감천이/한국 전래동화7/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은혜 갚은 사슴

사냥꾼에게 쫓긴 사슴이 나무꾼 소년에게 자기를 숨겨 달라고 애원한다. 소년은 사슴을 수풀더미에 숨겨주고 쫓아온 사냥꾼에게는 다른 방향을 아르켜 준다. 사슴은 소년에게 산삼이 많은 곳을 가르켜 주면서 은혜를 갚는다.

(동화/사슴과 나무꾼/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선한형]_보은형

은혜 갚은 사슴

나무꾼 총각이 사슴을 구해 주자 사슴은 선녀가 내려 와 목욕하는 곳과 색시로 삼는 법을 가르쳐 준다. 선녀를 아내로 맞아 아이 둘을 낳았을 때 감춰두었던 선녀의 옷을 돌려 준다. 선녀는 옷을 입고 아이들을 데리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나무꾼은 다시 사슴의 도움으로 하늘로 올라가서는 옥황상제와 겨루게 되고 선녀 아내의 도움으로 옥황상제를 이겨 하늘에 살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를 뵈러 땅에 내려왔다가 약속을 어겨 하늘로 돌아가지 못한다.

(동화/나뭇꾼과 선녀/한국 전래동화3/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은혜 갚은 사슴

장마에 떠 내려가던 사슴이 사람에게 구원을 받자 산삼 있는 곳을 가르쳐 주어 부자가 되게 해 준다.

(동화/사람을 구해 주었더니/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정오/현암사)

은혜 갚은 자라

길 가다가 자라 한마리를 살려 준 젊은이가 금강산까지 가서 꼬리 아홉 달린 여우굴에 들어가 고생을 하고 산신령의 도움으로 자라에게 가서 칼을 한 자루 얻어 온다. 그 칼을 던져 여우는 벼락에 맞아 죽는다.

(동화/금강산 구미호/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정오/현암사)

은혜 갚은 제비

흥부에게 부러진 다리를 치료받은 제비가 가을이 되어 강남으로 날아가 제비왕에게 사정을 아뢰고 은혜를 갚을 박씨 하나를 얻어 흥부에게 갖다 준다. 둥근 박 넷이 열렸는데 추석 날 아침에 그것을 타보니 박 속에서 온갖 보물과 목수,종들이 몰려 나와 큰 부자가 되었다.

(판소리/흥부전/판소리 열두마당/유준필/들불)

은혜를 아는 다람쥐

깊은 산골의 할아버지 부부가 족제비에 물려가는 다람쥐를 구해 집에서 기르기 시작했더니 십 년이 지나 수 백 마리가 되었다. 할아버지 부부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람쥐들은 곡식과 알밤을 물어와 두 늙은이를 봉양하고 또 늙은 부부가 죽자 울면서 무덤을 만들고는 해마다 찾아와 제사를 지낸다.

(동화/다람쥐 가족/한국전래동화4/강수원/창작과 비평사)

은혜를 아는 두꺼비

아가씨가 보살펴 준 두꺼비가 지네에게 바쳐진 아가씨를 위해 싸우다 지네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는 이야기

(동화/은혜 갚은 두꺼비/옛날 이야기/이영/예림당)

주인을 구한 개

개를 데리고 이웃마을 잔칫집에 갔던 사람이 술에 취해 돌아오다 풀밭에서 잠이 든다. 마침 들불이 일어나고 개는 냇가에 가서 몸을 적셔서는 주위의 잔디를 축여 주인을 구해내고는 목숨을 잃는다. 주인은 술이 깨어 깜짝 놀라고 개를 위해 무덤과 비석을 만든다.
(전설/소가 웃을 일이다/고려원미디어)

주인을 구한 소

농사꾼이 소를 몰고나가 풀이 많은 곳에 소를 매어놓고 밭일을 하는데 호랑이가 농사꾼을 덮친다. 소는 호랑이에게 달려들어 뿔로 받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 아들이 아버지와 소를 집으로 데려온 후 호랑이 가죽을 돌담에 널어놓았더니 소가 다시 들이받아 소도 죽고 만다.
(민담/소가 웃을 일이다/고려원미디어)

주인의 병을 고친 고양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사랑해 준 주인이 병이 들었는데 쥐 천 마리가 있어야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고양이는 은혜를 갚기로 결심한다. 부모를 잃은 상주가 된 듯이 두건을 쓰고는 쥐구멍 앞에 앉아 기다리다가 쥐가 나타나자' 내가 상주가 되었는데도 문상도 오지 않는 짐승' 이라며' 일일이 문상을 받을 수 없으니 타작마당에 한 번에 모여 인사를 하도록 하라' 고 말한다. 약속한 날 수천 마리의 쥐가 타작마당에 모이자 고양이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쥐를 모조리 잡아서는 주인의 병을 고친다.
(동화/은혜 갚은 고양이/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호랑이를 구한 며느리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효성스런 며느리가 친정을 오갈 때 등에 태워 준 호랑이가 사냥꾼의 함정에 빠진 것을 보고는 호랑이 대신 죽겠다고 함정에 뛰어 들어 호랑이를 구 한다.
(민담/며느리의 효심/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선한형]_지혜형

겸손한 까치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어렵자 날짐승들이 먹이가 넉넉한 쥐에게 식량을 얻으러 간다. 꿩과 비둘기는 쥐에게 가서 거만한 말투로 말하다가 오히려 매를 맞고 돌아오지만 까치는 공손한 말투를 사용해 칭찬도 받고 식량도 얻는다.

(동화/쥐에게 매맞은 날짐승들/한국 전래동화1/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공짜로 지붕 고친 판서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영은문은 사찰의 일주문 보다도 훨씬 높게 세워져 있었는데 지붕의 기와가 깨져 비가 샐 염려가 있었다. 비계는 너무 경비가 많이 들고 사다리를 걸치기에는 건물이 쓰러질 것이 염려되자 당시의 호조 판서는 2천 냥으로 무악재를 넘어오는 나뭇짐을 모조리 사들여 영은문 아래에 쌓았다. 나뭇짐 더미가 문의 용마루와 같아지자 사람이 올라가 깨진 기왓장을 갈고 나뭇짐은 산 값에 다시 되팔아 버렸다. 관청의 돈 한 푼도 안쓰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민담/한 푼 안 들이고 고친 기왓장/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김영만/을유문화사)

방탕한 버릇을 고쳐 준 기생 의양

한양의 건달 김무숙은 기생 의양을 만나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의양은 김무숙이 준 세간살이를 팔아 다른 곳에 맡기고는 김무숙을 본처에게로 돌아가게 한다. 김무숙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 의양은 그를 중노미로 채용하여 갖가지 수모를 주며 부려 먹는다. 그리고 이러한 모의에는 김무숙의 친구들도 끼어드는데 결구 의양은 김무숙의 버릇을 완전히 고쳐 놓는다.

(판소리/게우사/판소리 열두마당/유준필/들불)

꿈을 산 문희

김유신의 누이 동생 문희는 언니가 꾼 꿈(오줌을 누었더니 서울에 가득찬 꿈)을 사고 김춘추를 만나 그의 부인이 되고 후에는 왕비가 된다.

(일화/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남편을 출세시킨 여자 종

시골의 우직한 짚신장수가 72켤레의 짚신을 만들어 서울로 올라와서 한 켤레에 한 냥이라 비싼 값에 팔려다가 여자 종의 눈에 띄어 그의 남편이 된다. 종은 천 냥 돈을 남편에게 쓰게 해 사람들을 사귀게 하고 또 무예를 배워 과거에 급제토록 한다. 그러나 장사길로 나선 그는 가난한 사람을 돕느라 밑천 만 날리는데 함경도에서 우연히 산삼을 얻게 되어 주인 대감에게 귀한 선물을 하게 되고 또 손님들에게도 산삼을 돌려 벼슬을 얻게 된다. 그리고는 차차 벼슬이 높아져 수군 절도사가 되었다.

(민담/수군 절도사가 된 짚신장이/한국 전래동화1/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누이를 결혼시킨 김유신

결혼도 하지 않은 누이동생이 김춘추의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김유신은 왕이 밖에 거동하는 날을 기다려 마당에 불을 피우고 누이를 불태워 죽이려 한다. 왕은 김춘추를 불러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누이동생은 혼례를 올리게 된다.

(일화/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도둑 누명을 벗은 상주

길을 가던 상주가 나졸에게 붙잡힌 도둑을 구경하고 있었더니 공범을 대라는 나졸의 압박에 도둑이 상주를 지목하여 공범이라고 우긴다. 나졸이 상주를 도둑과 함께 연행하려 하자 상주는 도둑에게 '나의 한 손은 손마디가 없으니 어느 손이냐' 고 묻는다. 도둑은 망설이다가 왼손이라고 하는데 상주는 멀쩡한 두 손을 내 보이며 도둑의 모함임을 밝힌다.

(민담/도둑 누명 벗은 상주의 재치/한국 전래동화7/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도량이 넓은 처용

용의 아들 처용은 아내가 몹시 예뻤는데 병을 주는 역신(疫神)이 이를 탐내어 처용이 없는 사이 사람으로 변해 그녀와 동침했다. 처용은 이를 알고도 태연히 노래를 부르니 역신은 그 도량에 감복하여 다시는 처용의 얼굴 그린 것만 보아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맹세하고 그로부터 신라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 사귀를 쫓았다.

(전설/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도량이 넓은 황희 정승

세종 때에 영의정으로 있던 황희는 도량이 넓기로 유명했는데 이웃집 아이들이 무르익은 배에 돌은 던져 땅에 수북히 떨어진 것을 보고는 하인을 시켜 이웃집 아이들에게 갖다주라 하기도 하고 노비의 자식들이 수염을 잡아당기고 옷을 밟고 음식을 줏어먹어도 탓하지 않았다 한다.

(일화/청파극담/이륙/고전국영총서50)

도적을 물리친 몸종

신행길에 색시를 잃어버린 신랑이 석수쟁이,나무꾼,고리백정과 함께 도둑의 발자국을 따라간다. 신랑은 3천 발 땅속으로 들어가 색시를 만나나 색시는 신랑을 바위굴에 가두고 오히려 색시의 몸종이 산삼을 대려다 주며 도둑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준다. 신랑은 도둑과 싸우다 몸종의 재치로 이기고 함께 돌아와 부부가 된다.

(동화/땅 속 나라 도적 퇴치)

돈귀신을 쫓은 아내

벼슬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가난한 부부가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에 들어가 살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없는 첫날 밤 남자로 변신한 귀신이 바느질하는 아내의 무릎을 벤다. 아내는 뜨거운 인두로 귀신의 이마를 지지고 도망친 귀신은 골방의 돈궤짝으로 들어간다. 부부는 묵은 돈의 귀신이라며 돈을 써서 많는 사람을 돕고 자신들도 행복하게 산다.

(동화/귀신 이야기/한국전래동화2/강수원/정원)

돌덩이와 쌀을 맞바꾼 아이

가난한 식구가 모아논 돌무더기의 맨 윗돌이 금덩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주 영감이 쌀 백석과 맞바꾸면서 맨 위에 있는 쌀은 고사지내는 쌀이라고 주지 않자 가난한 집 아들은 돌을 주면서 맨 위의 돌은 고사지내는 돌(실은 금덩이)이라고 주지 않는다.

(동화/고삿섬과 고삿돌/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정오/현암사)

[선한형]_지혜형

때를 기다리는 권남

총명하면서도 도량이 넓은 권남은 그 명성이 널리 알려졌으나 과거시험만 보면 번번히 떨어졌다. 그래도 그는 초조한 기색이라곤 없이' 과거의 합격여부는 하늘의 뜻인데 어찌 슬퍼하고 궁상을 떨겠는가' 하였다.

(일화/필원잡기/서거정/고전국역총서49)

똑똑한 아이

감나무 가지가 이웃 대감집의 담 안으로 뻗어서 그 집에서 감을 다 따가자 아이는 대감을 찾아가 문짝의 창호지 안으로 문을 넣고는 이 손이 누구 손이냐는 질문으로 대감의 항복을 받아낸다.

(동화/할아버지의 감나무/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마음 병을 고친 의원

어느 청년이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자 바가지에 담겨 있는 물을 아주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때부터 바가지 물이 왜 붉었는지, 왜 바가지가 거기에 있었는지 등의 의심스러운 생각이 일어나자 속이 메스꺼워졌다. 청년은 초롱불을 들고 다시 그곳에 가서 물을 살펴보니 붉은 벌레 같은 것이 들어있는 듯 했다. 청년은 집에 돌아와 토하고 설사하며 진짜 병이 들었는데 용한 의원이 이 청년을 진찰하고는 환약 서른 알을 주면서 비싼 값을 받는다. 약을 먹고 거뜬히 낫자 청년은 선물을 들고 다시 의원을 찾아가니 의원은 약값을 돌려주며 마음에서 생긴 병이어서 밀가루 환약을 주었다 한다.

(민담/마음 때문에 생긴 병/한국 전래동화8/최래옥/창작과 비평사)

명판결을 내린 까치

참새와 파리가 서로 죄가 많다고 다투다가 까치에게 와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한다. 까치는 파리에게' 너는 음식을 크게 없애지 않으며 병이 옮는 것은 사람의 잘못이다' 라고 하고 참새에게는' 너는 농사지은 곡식을 많이 없애고 약한 벌레를 잡아 먹는다' 하면서 매를 때린다. 참새가 다리가 아파 뛰어다니는 것과 파리가 잘못했다고 손을 비비는 것은 이 때 부터라고 한다.

(동화/까치의 재판/한국전래동화3/강수원/정원)

명판결을 한 아이

가난한 농부가 설 쇨 돈을 마련하기 위해 족제비 굴에서 수달을 발견하고 쫓아가니 부자집 개가 물고 제 집으로 들어간다. 농부와 부자는 서로 자기 수달이라고 우기다 재판을 받는데 원님은 수달을 반으로 나누라고 하니 둘 다 불만이다. 아이가 나서서 농부는 가죽을 탐냈으니 털가죽을 갖고 개는 고기를 탐냈으니 남은 고기를 주라고 명판결을 한다.

(동화/슬기로운 재판)

미신을 물리친 신숙주

신숙주가 일본으로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다. 사람들이 아이를 가진 여자를 바다에 던져 액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고 바람이 자기 시작해 무사히 돌아왔다.

(일화/필원잡기/서거정/고전국역총서49)

미움을 은혜로 갚은 아이

부모가 일찍 돌아간 아이는 외삼촌 집에 의탁하지만 외숙모가 박대를 해서 집을 나간다. 우연히 서당 선생의 눈에 띄어 거기에서 먹고 자며 배우게 되는 데 총명하고 부지런하여 성장해서는 서당 선생의 사위가 된다. 아이가 서당 선생 댁으로 들어오자 집도 점점 부유해지는데 외갓집은 점점 가난해지고 아이들도 속을 썩여 아주 초라한 집안이 되었다. 십 년 후에 아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된 후 외삼촌 집에 찾아와 오히려 부모님처럼 모시고 가서 행복하게 산다.

(동화/원수를 은혜로 갚은 조카/한국 전래동화8/최래옥/창작과 비평사)

방 안에서 자게 된 고양이

고기잡이 영감님이 잡힌 큰 잉어를 살려주자 용왕에게 금빛 구슬을 얻어서 부자가 된다. 그러나 나쁜 노파가 가짜 구슬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진짜 금빛 구슬과 바꿔치기하자 영감네는 다시 가난해진다. 그 집에서 기르던 개와 고양이가 주인의 사정을 알고 구슬을 되찾으러 가서 나쁜 노파 집의 벽장 속에 구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양이는 쥐들을 다그쳐 구슬을 다시 찾아 오다가 개의 등에 타고 강을 건넌다. 개가 자꾸 고양이에게 강물에 구슬을 빠뜨리지 않았니' 라고 자꾸 묻는 바람에 고양이가 화가 나 대답을 하는 순간 구슬은 물 속에 빠진다. 개는 미안해서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고양이는 어부의 그물에 걸린 죽은 고기를 먹다 뱃속에 든 구슬을 발견해 집으로 돌아온다. 그 때부터 고양이는 방 안에서 잠자며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개는 마루밑에서 누른밥을 먹게 되는데 차차 서로 미워해서 원수처럼 되었다.

(동화/금빛 구슬/한국 전래동화1/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부모 눈을 뜨게한 막내딸

두 거지가 만나 결혼을 해서 세 딸을 낳았더니 살림도 펴서 부자가 되었다. 딸들이 열다섯 살이 넘자 교만해진 거지 부부는 제 덕에 먹고 산다는 막내딸을 내쫓는다. 막내딸은 마 캐는 세 총각집에서 살다가 마음씨 착한 막내 아들과 결혼해서 부자가 된다. 백 일 동안 거지잔치를 벌려서 장님거지가 되어 찾아온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데 그 순간 두 장님은 다시 눈이 떠진다.

(동화/가은장아기/한국 전래동화4/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부자 버릇 고친 원님

높은 사람에게 아양 떨고 낮은 사람에게 위세하는 부자의 버릇을 고치려고 환갑 잔칫날 원님은 허름한 농사꾼 차림으로 찾아가니 술 한잔에 쫓겨난다. 다시 관복을 입고 찾아가 귀한 대접을 받으며 음식을 자꾸 관복에 쑤셔 넣으면서 옷을 보고 사람을 접대한다고 하니 부자는 잘못했다고 싹싹 빈다.

(민담/의관 대접)

부하 버릇을 고친 어린 사또

똑똑하지만 나이 어린 사또가 부임하자 낮은 벼슬아치들이 건방지게 굴고 인사도 하지 않는다. 사또는 돌로 만든 갓을 만들어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 거만한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관리들에게 씌우자 그제야 관리들은 잘못했다고 싹싹 빈다. 그래도 관리들은 사또를 자기네 옷소매에 넣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사또는 다시 밭의 긴 수수를 잘라오라고 해서 관리들에게 소매 속에 넣어보라고 한다. 긴 수숫대를 든 관리들이 어물어물하자 사또는' 1년 자란 수숫대도 소매 속에 넣지 못하면서 17년 자란 나를 어찌 소매 속에 넣으려 하느냐' 고 호통을 친다.

(동화/어린 사또/한국 전래동화1/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불씨를 꺼트린 며느리

새로 시집 온 며느리가 대대로 내려 온 불씨가 연거퍼 꺼지자 부엌에 숨어서 망을 보다가 불씨가 담긴 화로에 오줌을 누는 소년을 뒤쫓게 된다. 산속으로 도망친 소년이 땅 속으로 숨자 그 자리를 식구들과 함께 파는데 큰 바위를 젖히자 보물이 담긴 세 항아리가 나와 집으로 가지고 돌아 온다.

(동화/불씨/한국전래동화2/강수원/정원)

[선한형]_지혜형

설총을 낳은 원효

원효대사는 어느 날 느닷없이 길에서 노래를 부른다'. 누가 자루 없는 도낄를 빌려 주겠는가,나는 하늘 받칠 기둥을 찍으련다' 는 내용인데 무열왕은 그 뜻을 알고 결혼을 주선한다. 원효대사는 다리에서 일부러 떨어져 옷을 적시고 그 곁의 요석궁에 머물며 공주와 동침해 신라의 대학자 설총을 낳는다.

(전설/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스님이 된 이지란

이지란은 여진 사람인데 이성계의 휘하 장수가 되어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다. 개국공신이 되어 벼슬이 높아지자 그는 스스로 물러나며' 싸움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지옥의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머리를 깍고 죽은 뒤의 보복을 면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그는 그날로 절에 들어가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

(일화/중이 된 이지란/선인의 명언 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슬기로운 계집종

큰 부자 영감이 가장 아끼는 두개의 술병 중 한 개를 깨트린 계집종의 잘못을 마님이 덮어주려고 하자 부자 영감이 몹시 화를 내는 바람에 계집종이 실토를 한다. 그리고는 나머지 한 개의 술병도 깨뜨려 버리고 술병으로 인해 언젠가 또 한 사람이 죽을 테니 미리 깨뜨리고 제가 죽겠다고 하여 부자 영감은 잘못을 뉘우친다.

(동화/여자종의 지혜/한국전래동화2/강수원/정원)

슬기로운 까치

함정에서 자기를 구해준 나그네를 잡아먹으려던 배은망덕한 호랑이가 재판을 받으러 오자지혜로운 까치는 현장검증을 하자며 호랑이를 함정에 다시 집어넣고 나그네를 구해 준다.

(동화/까치와 호랑이/한호의 미술/조자용/에밀레박물관)

슬기로운 딸

생트집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원님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에 옷도 아닌 옷을 입고 말도 아닌 말을 타고 선물도 아닌 선물' 을 가져오라 한다. 슬기로운 딸의 말대로 날이 어스름할 때 누더기를 걸치고 당나귀를 타고 살아있는 참새를 선물로 들고 가서 위기를 모면한다.

(민담/말도 아닌 말)

슬기로운 선덕여왕

선덕여왕은 당태종이 보낸 꽃그림을 보고 향기가 없는 꽃임을 알았고 옥문지에서 개구리가 모여 우는 것을 보고 여근곡의 백제군사를 죽였다. 또 자기가 죽을 날과 그 후의 일을 미리 예견했다.

(일화/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슬기로운 선비

뇌물을 쓰지 않아 번번히 과거에 떨어진 선비가 우연히 미행나온 임금을 만나 꾀꼬리와 황새의 노래 시합과 황새의 개구리 뇌물을 받고 눈이 먼 부엉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 다음 과거시험에 걸린 문제는'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가 눈이 멀었다' 여서 선비는 당연히 합격하게 된다.
(민담/눈먼 부엉이)

슬기로운 아들

원님이 부유한 백성의 재산을 뺏으려고 겨울날 산딸기를 따오라고 억지를 쓴다. 어린 아들이 나타냐 아버지가 독사에 물렸다' 고 해서 원님이' 추운 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느냐' 고 물으니' 추운 겨울에 산딸기는 어디 있느냐' 고 되물어 위기를 모면한다. 또 돌로 만든 배를 만들어 오라 하니 모래로 꼬은 새끼줄을 달라고 한다.
(동화/산딸기와 돌배)

슬기로운 왕비

영조대왕이 후비를 고를 때 직접 간택된 처자들에게 어느 고개가 가장 높으냐고 물으니 대관령,한계령이라 하나 한 사람은 보릿고개라 대답한다. 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물으니 장미,모란,도화라 하나 앞의 사람은 목화가 꽃도 이쁘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 주며 생업도 주는 아름다운 꽃이라 하여 왕비가 된다.
(전설/소가 웃을 일이다/고려원미디어)

슬기로운 정승

궁녀와 사랑하던 총각이 내시에게 발각되어 쫓기게 되자 모든 사실을 종이에 적어 황희 정승에게 알린다. 황 정승은 임금 앞에 가서 숫진드기와 암파리의 짝짓는 걸 비유로 들며 얘기하자 임금은 눈치를 채고 궁녀를 대궐에서 내보내고 총각체포령도 거두고 만다.
(전설/진드기와 파리도)

슬기로운 황희 정승

아이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데 먼저 한 아이의 주장을 듣고 네가 옳다' 하더니 다른 아이의 주장을 듣고도' 너도 옳다' 한다. 옆의 부인이' 두 아이들의 다 옳다는 말이냐' 고 참견을 하니 황희 정승은 당신 말도 옳소 라고 대꾸한다.
(전설/모두 다 옳다/소가 웃을 일이다/고려원미디어)

시아버지 버릇을 고친 며느리

옛날 인천 구월동에서 주막을 하는 맹가는 힘이 장사라 맹장군이라 불렸는데 주막에서 자는 사람 중에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복면을 한 채 그 재물들을 빼앗았다. 그것도 이른 새벽에 닭 우는 소리를 교묘하게 내어 잠을 자던 손님들이 일찍 길을 떠나게 만들고는 미리 그 길목에 가서 기다리다 범행을 하는 지능범이었다. 힘도 장사고 신체가 우람하니 그를 당하는 길손이 없었는데 관가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손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맹장군의 며느리는 매우 영리한 여자여서 시아버지의 버릇을 고칠 방법을 생각해 냈다. 이른 새벽에 맹장군이 닭 우는 소리를 내자 며느리는 곧 닭아 닭아 우지 마라 맹장군의 인(사람)닭이다' 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맹장군은 며느리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데다 부끄러움을 느껴 마음을 고치게 된다.
(전설/맹장군과 사람 닭/한국 전래동화7/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선한형]_지혜형

신랑을 구해준 신부

어느 과부가 죽은 까투리를 가져다 먹고 아들을 낳아 15살이 되자 장가를 보낸다. 아들이 길을 가다 엄청나게 큰 구렁이를 만나는데' 15년 전에 내가 잡은 까투리를 네 어미가 가로챘다' 며 대신 아들을 잡아먹으려 한다. 아들은 신부집에서 맛난 음식을 먹어 살이 쪄서 돌아올 때 잡아먹으라며 위기를 모면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신부는 신랑과 옷을 바꿔 입고 시댁으로 오다가 구렁이를 만나자' 인정이 없어 용이 못된 구렁이' 라며 꾸짖고 신랑을 잡아먹으려면 내가 살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고 다그친다. 구렁이는 소원을 세 번만 들어주는 여의주를 주는데 신부는 오히려 그 여의주로 구렁이를 죽이고 돌아와 행복하게 살게 된다.

(동화/까투리와 구렁이' 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쌀 한 톨을 소로 만든 며느리

아들 셋을 둔 아버지가 가장 지혜로운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쌀 한 톨씩을 나눠준다. 첫째,둘째 며느리는 쌀을 버리거나 먹어버리는데 셋째 며느리는 쌀 한 톨로 참새를 잡고 참새를 팔아서 병아리를 사고 닭을 키워서 송아지를 사게 된다.

(민담/소가 웃을 일이다/고려원미디어)

아내의 수다를 고친 남편

수다스런 아내를 둔 남자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금덩이를 주웠지만 집으로 가져가지를 못한다. 다음 날 남편은 산으로 가서 주먹밥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아내는 주먹밥이 달린 나무를 보고는 온 동네에 수다를 떨고 다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 그제야 남편은 금덩이를 집으로 가져 오는데 부인이 수다를 떨고 다녀도 도무지 믿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부인은 수다병도 고치고 금도 잘 보관해서 걱정없이 살게 되었다.

(동화/주먹밥이 열린 나무/한국 전래동화7/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아들 버릇을 고친 황희 정승

조선시대의 유명한 정승 황희는 그 아들이 술 먹고 기생방 출입이나 하면서 속을 썩이자 단단히 야단을 치지만 아들은 또 기생집에 갔다. 황희는 아침에 기생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하품을 하며 나오자 넙죽 절을 하며 나리,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여쭌다. 어쩔 줄 모르는 아들을 모셔다 드린다며 집으로 와서는 또 절을 하며 어느 대감집의 자제이시냐,나라에 할 일도 많은데 기생방 출입으로 세월을 보내는 대감의 자제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고 말한다. 아들이 엉엉 울자 황희는 방 밖으로 나갔는데 그 후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 아버님처럼 영의정이 되었다.

(일화/아들에게 절한 황희 정승/한국 전래동화8/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아버지 마음을 바꾸는 아이

늙은 아버지를 모시기가 귀찮은 아들이 자기 아이에게 할아버지를 헌지게에 지고 가서 버리라 한다. 아이는 헌지게를 지고 돌아와서 이 다음에 아버지를 버릴려면 지게가 필요하다 말하고 아버지는 크게 후회한다.

(동화/아버지를 버린 아들/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한 소년

어린 아들이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려고 하자 아버지는 세 가지 문제를 맞추면 허락을 하겠다 한다. 종이로 만든 벽,종이로 둘러싸인 불,종이로 만든 바람이 무엇인지 알아내라는 아버지의 문제에 소년은 결국 그것이 창호지와 등불과 부채임을 맞춘다. 서울로 간 소년은 장원급제하고 벼슬도 높이 오른다.

(동화/과거보다 어려운 시험 문제/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
창작과 비평사)

악인을 벌주는 도깨비

자기와 함께 살던 총각에게 준 선물이 항상 주막집 주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된 도깨비가 꾀를 내어 때리는 방망이를 총각에게 주어 주막집 주인을 혼내고 쌀 나오는 보자기와 때리면 돈이 나오는 말을 되찾게 해 준다.
(동화/도깨비가 준 보물/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정오/현암사)

왕위를 양보한 효령 대군

양녕 대군이 바로 밑의 아우 효령 대군에게 가서' 너는 내가 왜 미친 체하는지 아느냐? 충녕(세종)이 임금이 될 덕이 있음을 아느냐' 하였다. 효령 대군은 형의 뜻을 알고 아버지인 태종에게 가서' 어제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너는 내 제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하고는 스님이 되어 왕위를 양보했다.
(일화/꿈에 부처님을 본 효령 대군/선인의 명언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우애를 깨우친 함우치

함우치가 전라감사로 있을 때 서로 큰 가마솥을 가지려고 다투는 형제가 소송을 내자 가마솥을 깨뜨려 똑 같은 무게로 나누라고 하였다. 두 형제는 다시 작은 가마솥을 가지려고 싸우니 함우치는 우애 없음을 꾸짖어 이들을 깨우쳐 주었다.
(일화/필원잡기/서거정/고전국역총서)

이성계의 마음을 움직인 박 순

함흥의 이성계를 설득하기 위해 박순은 새끼 딸린 어미말을 타고 갔다. 함흥에 도착해서 새끼 말은 나무에 매어 놓고 어미 말만 타고 들어가니 새끼와 어미가 슬프게 울었다. 이성계가 사연을 알고는 곧 슬픈 기색을 띄었고 서울로 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박순은 용흥강을 건너지 못해 뒤쫓아온 이성계의 부하에게 목이 잘렸다. 이성계는 박순이 강을 건넜으리라 추측하고 군사를 풀었는데 그는 병이 나서 행로가 지체되어 강을 못 건넜던 것이다.
(일화/한 발 늦어 죽음을 당한 박순/선인의 명언 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인자한 김수온

김수온의 마부가 게을러 한 달 사이에 여러 마리의 말을 죽였으나 그는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하다고 하면서 마부를 끝까지 매질하지 않았다.
(일화/필원잡기/서거정/고전국역총서49)

재치 많은 며느리

며느리를 셋이나 내쫓은 고약한 시어머니를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우선 집안 식구와 동네 사람들의 인심을 얻는다.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마다 시어머니를 매질하여 결국은 시어머니의 항복을 받아내고 만다.
(민담/시어머니 길들이기)

[선한형]_지혜형

재치있는 어사

큰 딸은 가난한 양반집에 시집보내고 작은 딸은 부유한 상놈집에 시집보냈는데 둘째 사위는 매양 양반에게 끌려 가 매를 맞는다. 길에서 우연히 어사를 만나 신세타령을 하니 어사는 관청에 들어가 둘째 사위가 친척이라며 일부러 부른다. 어사는 재산도 큰 딸 집과 나누게 하여 두 집 다 잘 살게 해 준다.

(민담/밥보자기와 볼기)

재치있는 원님

아홉 살 원님을 골탕먹이려고 이방은 스님과 짠다. 스님은 회리바람에 굴갓이 날아갔으니 찾아달라 하고 원님은 회리바람은 사공 탓이라고 하며 사공에게 굴갓을 만들되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흙으로 굽고 쇠줄을 달아오라 한다. 무거운 굴갓을 보고 스님은 사실대로 말한다.

(동화/어린 원님/우리가 정말…/현암사)

정승을 깨우친 농부

황희가 벼슬전에 길을 가다 두 마리 소를 데리고 일하는 농부한테' 어느 소가 일을 잘 하느냐' 고 묻자 농부는 귀속말로 왼쪽 소가 일을 잘한다고 일러준다. 그러면서 짐승이라도 사람의 마음과 같으니 잘하고 못하는 것을 소들이 듣게 말하면 불평을 사게 된다고 한다. 황희는 그 때부터 남의 결점을 말하지 않게 된다.

(전설/농부에게서 배우다/소가 웃을 일이다/고려원미디어)

죽음을 모면한 박삼길

박삼길은 힘이 센데다 공부도 열심히 하여 과거에 합격해 벼슬길에 올랐다. 성종이 연산군의 어머니인 윤비를 내쫓고는 사약을 내리려고 회의를 열었을 때 그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연산군이 즉위하자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했지만 박삼길은 무사하였다.

(일화/연산군의 화를 피한 박삼길/선인의 명언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중종을 살린 영산군

중종이 진성 대군으로 있을 때 하루는 연산군을 따라 사냥을 가게 되었다. 연산군은 진성 대군이 인망을 얻고 있음을 알고' 나는 동대문으로 가고 너는 남대문으로 들어가되 늦게 궁궐에 도착한 사람은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고 명했다. 옆에 있던 영산군(성종의 열셋 째 아들)이 내 말을 타고 가면 된다 하고 함께 말을 타고 궁궐로 돌아왔는데 연산군이 조금 더 늦게 도착해 진성 대군은 무사할 수 있었다.

(일화/중종을 살린 영산군/선인의 명언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지략으로 집을 얻는 탈해

어린 탈해는 살 만한 땅에 숫돌과 숯을 물고는 그 터를 자기 조상이 살던 터라 하여 송사를 일으키고 숯과 숫돌을 찾아내 그 집을 빼앗아 살게 된다.

(전설/ 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지혜로 말을 찾아 준 사또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말을 잃어버린 농부가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다른 마을에서 그 말을 찾아냈으나 도둑놈은 자기의 말이라고 우긴다. 둘은 사또에게 갔는데 농부는 왼쪽 눈이 멀었다 하고 도둑놈은 오른쪽 눈이 멀었다 한다. 사또는 농부의 집에서 도둑놈 집 사이의 길과 밭을 조사한 후 도둑놈을 잡아낸다. 말은 도둑놈의 집으로 가며 오른쪽 콩밭의 잎만 뜯어먹었기 때문이다.

(동화/눈 먼 말은 누구의 것/한국 전래동화1/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지혜로운 나인

어진 임금님이 나인들을 불러 놓고 누가 슬기로운지 시험해 보려고 문제를 낸다. 가장 좋은 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연꽃,모란꽃,매화꽃,함박꽃 등이 나왔으나 임금의 마음에 드는 대답이 아니었다. 맨 뒤의 나인이 목화꽃이라고 대답하자 목화는 솜과 의복을 만들게 해 주는 가장 좋은 꽃이라며 그 나인을 칭찬한다. 다시 임금이 가장 넘기 힘든 고개가 무슨 고개냐고 물으니 대관령,추풍령 등이 나오지만 그 나인은 백성들이 넘기 힘든 고개는 보릿고개라고 대답하여 임금의 칭찬을 듣는다.

(동화/제일 높은 고개/한국 전래동화4/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지혜로운 사또

본부인이 사내아이를 낳고 첩은 계집아이를 낳자 첩의 종이 아이를 바꿔치기하고는 시침을 뚝 떼었다. 본부인은 아무 내색없이 사또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저희들을 불러 달라고 말한다. 어느 날 사또는 두 여자를 불러 놓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아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라고 한다. 첩은 좋다고 하지만 본부인은 자기 아이가 다칠까봐 첩에게 아이를 주라고 한다. 사또는 진짜 어머니는 본부인이라며 첩을 옥에 가둔다.

(동화/진짜 어머니 가려 낸 명관 사또/한국 전래동화7/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지혜로운 성종

조위가 숙직 중에 궁녀와 동침했다는 것을 알게 된 신종호는 조위를 벌 주어야 한다고 성종에게 건의한다. 성종은 신종호를 평안도 어사로 임명하고는 미리 평안도 감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신종호를 미색으로 함락시키라고 지시한다. 옥매향이라는 기생은 신종호가 성천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객사의 이웃집에 들어가 밤마다 애절하게 운다. 신종호는 너무나 애처로운 그 소리에 위로를 하러 찾아가고 결국은 옥매향의 미모와 술수에 빠져 동침을 한 게 된다. 서울로 돌아온 신종호는 성종에게 목숨을 살리기 위해 한 여인을 범했다고 실토하지만 성종은 궁녀와 옥매향을 불러들이고는 너도 죄를 지었으니 조위와 같이 벌을 받겠느냐고 묻는다. 신종호는 어쩔 줄 모르는데 성종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는 궁녀와 옥매향을 두 사람의 배필로 정해 준다.

(일화/부처님 어사/어사출또/민융기/하늘)

스님을 일깨운 지혜로운 아이들

고려 때 혜명대사가 은진 관촉사의 미륵불을 두 토막으로 완성해 놓고 윗돌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큰 고민을 하고 있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미륵불이다 보니 사람의 손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강가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던 혜명대사는 무릎을 탁 쳤다. 아이들이 장난으로 만든 두 토막 미륵불을 가지고 먼저 아래 몸체를 세운 다음 모래로 덮고 윗몸을 끌어올려 아래 몸체에 올리고는 모래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혜명대사는 똑 같은 방법으로 미륵불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었다.

(전설/혜명대사와 은진 미륵불/한국 전래동화7/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지혜로운 원님

비단장수가 돌사람 앞에 비단을 놓고 자다가 보따리를 잊어 먹고 원님에게 찾아달라 하니 원님은 돌사람을 잡아다 매를 때린다. 구경꾼들이 웃자 모두 옥에 넣고는 비단을 한 필씩 바치라고 하여 갖고 온 비단 중에 비단장수의 비단이 섞여 있는 것을 추적해 진짜 도둑을 잡아낸다.

(동화/꾀 많은 원님/한국구전동화/앞선 책)

[선한형]_지혜형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아버지

아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고 묻자 아들은 호랑이라고 대답하지만 늙은 아버지는 죽는 것이 제일 무섭다고 한다. 제일 좋은 것은 장가 가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것이며 제일 더러운 것은 변소나 거짓말이 아니라 남의 신세를 지는 것이라고 한다. 신세를 지면 자기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아들을 깨우쳐 준다.

(동화/이 세상에서 제일은/한국 전래동화8/최래옥/창작과 비평사)

다른 마을로 이사간 지혜스런 어머니

조광조와 남곤은 서당을 다닐 때부터 친구였는데 열댓 살 먹은 소년들이 되자 어느 날 바람 쐬러 나갔다. 길에서 만난 예쁜 처녀들에게 조광조는 자꾸 눈길이 가는데 남곤은 똑바로 앞만 보고 걸었다. 집에 돌아온 조광조가 어머니에게 자기는 아직 수양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남곤의 이야기를 한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먼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서 조광조에게' 네 나이 때는 예쁜 여자에게 눈길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 남곤처럼 모질고 차가우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지 못한다' 고 이사 이유를 말해준다. 훗날 조광조가 모함을 받아 죽게 될 때 그 우두머리는 바로 남곤이었다.

(일화/예쁜 여자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한국 전래동화9/창작과 비평사)

참부모를 가려낸 아들

김 진사와 박 진사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여서 장가를 든 후에는 부인들끼리도 가깝게 지냈다. 그러나 박 진사가 아들 셋을 두었는데도 김 진사는 아이가 없어 늘 걱정이었다. 두 친구는 서로 짜고 박 진사 부인이 낳은 아들을 김 진사 부인이 낳은 것처럼 하여 김 진사도 외아들을 키우게 되었다. 아들들이 성장하자 김 진사의 총명한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는데 박 진사의 세아들은 모두 낙방을 하는 바람에 두 진사는 서로 다투는 사이가 되었다. 박 진사가 자기 아들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 진사의 아들은' 남의 밭에 떨어져 잘 자란 배추씨는 구의 것이냐' 는 비유를 들어 박 진사를 설득한다. 그 후 두 집안은 평화를 되찾는다.

(동화/참부모 찾은 아들/한)

처녀 다섯을 시집보내는 어사

암행어사가 어느 곳을 지나다가 시집 못간 딸 다섯 명이 어사놀이를 하며 아버지 배 좌수를 혼내는 놀이를 한다. 나무 위에서 딸들의 배필도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암행어사는 고을 사또에게 달려가 며칠 후에는 한꺼번에 딸 다섯 명을 시집 보내는 잔치를 벌린다.

(민담/시집 보내는 재판/한국 전래동화8/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청지기를 구해 준 이항복

이항복의 청지기가 궁녀와 정을 통해 죄를 입게 되었다. 임금님의 부름에 늦게 나타난 이항복이' 종로통에서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말벌이 모기에게 내 배에 구멍을 뚫어달라 하니 그 모기가 어느 사람은 있는 구멍도 뚫었다고 벌을 받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의 배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느냐]고 떠드는 소리를 듣느라 늦었습니다' 하였다.선조는 눈치를 채고 그 청지기의 죄를 용서했다.

(일화/성수패설(작자 미상)/태평한화/편집부/신원문화사)

총명한 권준

권준은 일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직책을 맡아 본 적이 있었는데 4,5년 동안 판결을 내리지 못한 살인사건의 용의자 두명을 앞에 놓고 사건의 전말을 스스로 이야기하며 캐어묻자 두 도둑은 말문이 막혀' 이 사람도 전에 도둑질을 해 본 사람 아냐? 어떻게 우리가 한 일을 이처럼 자세히 알지' 하면서 모조리 자백했다.

(일화/필원잡기/서거정/고전국역총서49)

총명한 꼬마 소년

스승보다 총명한 꼬마 소년이 스승,제자들과 함께 과거시험을 보러가다가 소녀와 입맞춤을 하라는 스승과 제자들의 요구를 슬기롭게 해결한다. 그래도 결국 알몸으로 배나무에 올라가 있던 소년은 정승을 만나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정승의 사위를 거절한 채 처음 자기를 도와 준 소녀와 결혼해 고향 원님으로 돌아온다.

(동화/스승보다 현명한 소년/한국전래동화2/강수원/정원)

현명하고 아름다운 처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녀가 이웃집 양반의 아들과 정혼을 하였는데 통인이' 그 여자는 나와 정이 통했다' 고 음모를 꾸몄다. 처녀는 관가에 가서 고발했는데 원님은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웠다. 처녀는 신체의 비밀을 말하고 원님이 다시 통인에게 물으니 통인은 처녀가 비밀을 말한대로 똑같이 대답했다. 그 때 처녀가 제 몸에 본래 그러한 점이 없다' 며 통인이 다른 사람을 시켜 엿듣고는 대답한 것임을 밝혀낸다. 사또는 처녀가 이 사건으로 파혼했음을 알고는 두번 째 며느리로 기쁘게 맞이한다.

(민담/골계총서(작자 미상)/태평한화/편집부/신원문화사)

현명한 며느리

쌀 한 말로 세 식구가 석 달을 살면 며느리로 삼겠다는 양반의 말에 가난한 이웃집 처녀가 응모한다. 사흘 동안 밥을 배불리 먹고는 그 다음날부터 두 종들과 함께 일하러 다니면서 돈을 벌어 온다. 석 달 뒤에는 쌀이 한가마나 늘게 되고 처녀는 당연히 양반집의 며느리가 된다.

(민담/며느릿감 고르기/한국 전래동화9/최내옥.한연호/창작과 비평사)

형제들을 화합시킨 풍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 삼형제는 유명한 풍수를 초청해 명당에 묘를 쓰기로 하였다. 닷새 후에 명당을 잡아 주겠다고 하면서 그 집에서 쉬는데 어느 날 큰며느리가 옷보퉁이를 들고 들어와 맏아들이 잘 되는 명당을 잡아달라고 한다. 다음 날에는 둘째며느리가,그 다음 날에는 셋째며느리가 들어와 선물을 드리며 남편이 잘 되는 명당을 잡아 달라고 하니 풍수는 몹시 기분이 상했다. 보따리 세 개를 방 안에 둔 채 집으로 가니 맏아들이 쫓아와 애걸을 하기에 사랑방에 가 보라고 한다. 맏아들은 세 며느리들을 다 불러 놓고 아버님 돌아가시자 마자 이렇게 우애가 없으니 무슨 명당이 나오겠느냐 꾸짖고 다시 풍수를 불러 우애 있는 명당에 아버지 묘를 쓴다.

(동화/대접 받고 도망간 풍수/한국 전래동화8/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선한형]_모성형

우직한 호랑이

호랑이 새끼를 고양이로 알고 품에 넣은 채 산을 내려가던 나뭇꾼이 뒤에서 쫓아온 어미 호랑이에게 쫓겨 나무 위로 올라간다. 밤새도록 울부짖던 어미 호랑이는 나무를 쓰러트리려고 밑둥을 물어뜯다가 지쳐서 앉은 채로 죽는다.

(동화/호랑이의 모성애/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원사)

은혜 갚는 호랑이

어미 호랑이가 새끼 세 마리를 너럭바위에 올려 놓고 높은 뒷 바위에서 지켜 본다. 산나물 캐러 온 세 처녀가 이곳까지 와서 고양이인 줄 알고 무척 귀여워 한다. 어미 호랑이는 기분이 좋아서 침을 흘리고 세 처녀는 깜짝 놀라 집으로 도망간다. 다음날 아침 세 처녀의 집 앞에는 바구니,칼,나물이 제 것대로 놓여 있어 호랑이가 한 일인 줄 알게 된다.

(동화/세 처녀/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은혜 갚은 호랑이

홀로 사는 딸기장수 아주머니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고개 위에서 앉아 있다 잠이 드는데 호랑이 새끼 네 마리가 나타나 재롱을 부리는 바람에 깨어 난다. 아주머니는 새끼들에게 딸기를 먹이며 즐거워하고 갑자기 나타난 어미는 아주머니를 물고 굴속으로 데려간다. 정신 차려 보니 호랑이 부부와 새끼들이 음식을 차려 놓고 열심히 권한다.

(동화/딸기장수 아주니/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선한형]_정의형

개미와 모기를 살려 준 아이

계수나무 혼과 선녀의 혼이 결혼해 낳은 나무 도령은 홍수가 나자 계수나무를 타고 떠내려 가다 개미와 모기,아이를 구해 준다. 여자아이 둘과 노파 한 분이 있는 섬에 도착해서는 구해 준 아이의 모함을 개미의 도움으로 이겨내고 또 모기의 도움으로 영리하고 착한 노파의 딸과 결혼한다.

(동화/나무 도령/한국전래동화/웅진출판)

귀신을 보는 노인

눈이 멀었으나 귀신을 보는 노인이 결혼식을 치루는 집에 가서는 기절한 신부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 내나 귀신은 문구멍으로 도망가며 복수를 맹세한다.

(동화/귀신과 눈먼 노인/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나라 구한 네 장사

힘 센 장사 바위손이가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콧바람이 센 콧바람손이,산을 움직이는 곰배손이,오줌줄기가 센 오줌손이를 만나 동생들로 삼고 적군을 통쾌하게 물리친다.

(동화/네 장사의 모험)

노인을 보살피는 총각

백두산의 총각 나무꾼이 산속에서 앓는 노인을 만나자 정성껏 보살펴주니 기력을 찾은 노인은 술이 나오는 그림을 한 장 그려 준다. 그러나 원님의 권모술수로 그림을 빼앗기게 된 찰나 노인이 느닷없이 나타나 그림 속의 학을 불러 내서는 총각과 함께 타고 구름 속으로 사라진다.

(민담/술이 나오는 그림)

도리를 아는 아들

주워 기른 맏아들과 들째인 친아들이 성장하자 노 부부는 맏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한다. 친 아들이 아닌 맏아들은 스스로 집을 떠나 돌아다니다가 원숭이를 구해 주고 받은 보물 때문에 옥에 갇힌다. 뒤따라온 노부부 때문에 사실이 밝혀지고 원님은 맏아들이 바로 자기의 친아들임을 알게 된다.

(동화/원숭이가 준 보물)

모자람을 드런낸 신부

어느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뵙게 되는 날,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데 방귀가 뽕' 하고 나왔다. 유모가 재빨리 죄송합니다,제가 늙어서 엉덩이에 힘이 없어 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였더니 시부모가 착하다고 유모에게 비단 한 필을 상으로 주었다. 신부가 비단을 빼앗으며' 방귀는 내가 뀌었는데 네가 왜 상을 받느냐' 하였다.

(민담/골계총서(작자 미상)/태평한화/편집부/신원문화사)

배은망덕한 호랑이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나그네가 구해 주자 배은망덕한 호랑이는 나그네를 잡아먹으려 한다. 기에 나그네가 사정을 하여 죽기 전에 재판을 하는데 소나무는' 우리를 찍어 죽이는 사람' 이라 하면서 잡아먹으라 하고 황소는' 우리를 평생 부려먹고 잡아먹는 잔인한 사람' 이라면서 역시 호랑이에게 잡아먹으라고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까치는 현장감정을 하자면서 호랑이를 다시 함정에 집어넣고 재판을 끝낸다.

(동화/까치와 호랑이/한호의 미술/조자용/에밀레 박물관)

벌 주는 호랑이

어느 게으른 여인이 변소에도 가기가 싫어 솥이 없는 아궁이에 앉아 일을 보는데 큰 호랑이가 나타나 사정없이 꾸짖는다. 게으른 여인은 부모,남편,아이들을 거두기 위해 부지런히 살 것을 약속하고 호랑이는 그 기념으로 요강을 하나 갖어다 준다. 여러 해가 지나 게으른 여인은 부지런한 호랑이 따님이라는 별명을 얻는다.

(민담/게으른 여인/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사람들을 돕는 할머니

제주도에 살고 있는 설문대 할망은 몸이 너무 커서 한라산에 앉으면 두 발이 양쪽 바다 바닥에 닿는다. 그러나 제주도가 너무 작아 양식이 부족해서 육지와 다리를 놓으려고 하자 사람들은 명주 백 필을 짜 드리기로 약속한다. 결국 명주 한 필이 모자라 설문대 할망은 다리을 놓지 않고 한라산의 산신이 된다.

(신화/설문대 할망/한국전래동화/웅진출판)

여우를 잡은 거타지

거타지는 활 잘 쏘는 사람으로 사신을 따라 서해를 건너다 골대도라는 섬에 남겨지고 용왕을 괴롭히는 여우-중으로 변신한 여우-를 잡는다. 용왕의 딸을 색시로 얻고 색시는 꽃가지로 변하여 당나라까지 갔다가 돌아와서는 다시 여자로 변하여 거타지와 함께 살았다.
(전설/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영험한 호랑이

김진사의 딸과 박첨지의 아들은 어려서부터 친했으나 김진사는 이진사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낸다. 결혼식날 신방에 신랑 신부가 들어가자 호랑이가 나타나 신부를 물어다 박첨지 집 마루에 갖다 놓는다.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라 말하고 두 남녀를 결혼시킨다.
(민담/산신령의 중매/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영험한 호랑이

무당 일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여인이 절의 산신령에게 백일기도를 드리기로 하고 집에서 절을 오고 갈 때 어느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을 것을 스님과 약속한다. 백일이 다 돼 가는 날 이웃 사람이 같이 오겠다고 하여 옥신각신하다가 말없이 동행하여 절에 왔더니 법당 밖에 큰 호랑이가 나타나 동행한 사람을 쫓아 보내고 무당은 백일기도를 다시 시작한다.
(민담/큰 손님/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위선자를 꾸짖는 호랑이

북곽선생은 천하가 떠받드는 선비였는데 고을 동쪽에 사는 아름다운 과부 동리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다섯 아들에게 쫓겨 도망간다. 들판의 웅덩이에 빠져 진흙 투성이가 되었는데 그 앞에 큰 호랑이가 나타나 인간의 위선을 통렬하게 꾸짖는다.
(소설/호질/박지원/한국고전명작/학일출판사)

은혜 갚는 호랑이

사냥꾼이 산속에서 호랑이를 감고 있는 큰 구렁이를 보고 화살을 쏘아 호랑이를 구해 준다. 사냥꾼은 뒤를 쫓아온 구렁이에 쫓겨 나무 위로 올라가고 구렁이는 나무 밑둥을 감고 부러뜨리려 한다. 살려준 호랑이가 나타나 구렁이를 유인해 산 위로 올라가고 돌을 굴려 구렁이를 죽인다.
(민담/구렁이와 호랑이/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이웃 돕는 삼형제

눈이 밝은 첫째와 힘이 장사인 둘째, 맞을수록 힘이 나는 막내가 흉년을 맞아 산에 올라가 살펴 보니 관청에만 쌀이 남아 돈다. 둘째가 한 밤중에 한 어깨에 쌀 삼십 가마씩 져다가 동네 사람에게 나눠 주고 막내는 원님에게 잡혀가 거뜬히 매를 맞고 나온다.
(동화/재주 있는 삼형제)

정의를 실천하는 홍길동

홍판서의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자 자기를 죽이려던 자객을 죽이고 가출한다. 홍길동은 도적의 굴에 들어가 두목이 되어서는 활빈당이라 이름하고 불의한 재물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 또 도술로 일곱의 길동을 만들어 각 도로 보내어 재물을 탈취하니 전국이 시끄러웠다. 나라에서는 홍길동의 아버지와 형을 잡아들이고는 홍길동을 잡아오도록 한다. 홍길동은 스스로 자수하는데 여덟명이 잡혀 들어오니 누가 진짜인지 알아내지를 못한다. 결국 홍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하니 홍길동은 조선을 사직하고 율도국에 들어가 왕위에 올라 태평한 나라로 만든다.

(소설/홍길동전/허균/한국고전명작/학일출판사)

효성에 감동하는 신령님

아버지를 찾아 헤매던 아들이 꿈 속에서 신령님의 계시로 벼룩,빈대,바늘 한 말씩을 지고 나선다. 우연히 거인의 집에 들어가 벼룩, 빈대,바늘을 풀어 놓고 거인은 견디다 못해 솥 안으로 들어가 자는 것을 불을 때서 죽이고 아버지를 구한 후 보물을 찾아 집으로 돌아온다.

(동화/솥 안에 든 거인/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효성에 감동하는 호랑이

효성이 지극한 박수천은 효자동에 살며 북한산성 밑에 계시는 아버님에게 매일 문안인사를 다녔다. 어느날 무악재에 올라가는데 난데 없이 호랑이가 나타나 등에 타라는 시늉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매일 호랑이를 타고 아버님 문안인사를 다녔는데 그가 죽자 장사지내는 곳에 호랑이가 나타나 울부짖다가 따라 죽었다. 그의 묘 옆에 묻어주었고 그 무덤이 북한산 효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

(전설/박효자/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효성에 감동하는 호랑이

남편은 약초 팔러 출타하고 시아버지는 이웃 마실에서 돌아오지를 않아 며느리는 아기를 재워놓은 채 횃불을 들고 시아버지 마중을 나간다. 호랑이가 시아버지를 잡아 놓은 것을 보고 며느리는 아기를 드릴 테니 시아버지를 살려 달라고 호랑이에게 빈다. 호랑이는 며느리와 시아버지를 집에 데려다 주고는 아기를 데리고 사라진다. 얼마 후에 한 노인(호랑이)이 아기를 다시 돌려 준다.

(전설/아기와 시아버지/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효성에 감동하는 호랑이

병든 어머니가 눈 덥힌 추운 겨울 날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무작정 딸기를 찾아 나선다. 눈보라 속에서 나타난 호랑이는 아들을 업고 순식간에 봄 날 같은 곳에 데려가 딸기를 따고 난 후 되돌아 온다. 어머니는 딸기를 먹고 병을 고친다.

(동화/딸기/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효성에 감동하는 호랑이

산골의 가난한 나무꾼이 처녀와 결혼해 살다가 일년 만에 아버지만 남기고 죽자 신부의 친정에서는 재혼을 시키려 한다. 거짓으로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전갈을 보내니 신부는 시아버지를 남겨 두고 내려오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단숨에 데려다 준다. 어머니에게 속은 줄 알고 돌아나오니 또 호랑이가 업어서 집에 데려다 준다. 호랑이는 산으로 돌아가 함정에 빠지고 신부는 호랑이 대신 죽겠다고 함정에 뛰어 들어 호랑이를 구한다.

(민담/며느리의 효심/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선한형]_순박형

꽃이 된 할머니

딸만 셋을 힘겹게 기른 할머니가 의지할 데가 없어 막내딸을 찾아가니 효도를 정성껏 하지만 너무 가난해 신세지기가 불편하다. 다시 두 딸을 찾아가니 둘째 딸이나 첫째 딸이나 다 잘 사는데도 할머니를 받아주지 않는다. 막내딸 집으로 돌아오다 할머니는 얼어 죽고 그 무덤에서 할미꽃이 피어난다.
(동화/할미꽃/한국구전동화/앞선 책)

담배먹는 호랑이

옛날 어른들이 손자들과 함께 화롯불 가에 모여 앉아 옛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첫머리에 등장하는 말이' 옛날 옛날에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에' 였다. 호랑이가 무슨 담배를 피우랴만 그 말에 어린 구수함과 정다움,웃음 등이 바로 우리의 정서를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거기에 담뱃대를 들고 서 있는 토끼까지 그려진 그림들도 있어 우리들을 동화의 세계로 인도한다.
(동화/담배먹는 호랑이/한호의 미술/조자용/에밀레박물관)

마음씨 좋은 호랑이

남자들이 용맹이 없던 시절에 여자들이 호랑이에게 가서 아양을 떨며 용맹의 원천인 수염를 얻어 온다. 그러나 수염을 기르고는 아이를 기를 수 없어 남자들이 차지하게 되고 그때부터 남자들은 수염을 기르며 용기와 위엄을 갖게 된다.
(민담/호랑이 수염/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매일 즐거운 노인

착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혹부리 영감님이 나무하러 가서 도깨비를 만나나 노래를 잘 불러 혹도 떼고 보물도 얻어온다는 이야기
(동화/혹부리 영감님/옛날 이야기/이영/예림당)

벼락부자가 된 머슴

모을 것이 없어 떡부스러기를 모으던 머슴이 장마가 나자 떡자루를 가지고 산 위로 피신하는데 배가 고파 견디지 못한 양반의 돈자루와 떡 부스러기 한 줌과 바꾸어 부자가 된다.
동화/돈자루 떡자루/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정오/현암사)

부지런하고 정직한 농부

금강산 기슭에 사는 정직한 농부가 선녀가 꿈에 나타나 옥황상제의 상을 주겠다며 시키는대로 하라는 말을 듣는다. 다음 날 농부는 금강산에 올라 금붕어 연못을 지나서 산꼭대기에서 백발 할머니를 만나 머리를 빗겨준다. 할머니가 잠든 사이 빨간 머리카락을 뽑아 도망가는데 마귀할멈이 뒤쫓아오자 선녀가 준 세 개의 손수건을 차례로 던져 위기를 벗어난다. 시장에서 빨간 머리카락을 팔려고 돌아다니니 이 소문이 궁궐 임금님 귀에 들어가 농부는 빨간 머리카락을 임금님에게 바친다. 원래 이 머리카락은 사람을 이고 살리는 보물인데 마귀할멈이 훔쳐 갔던 것이다. 농부는 걱정없이 평생을 살게 된다.
(동화/죽은 사람 살리는 빨간 머리카락/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부지런하고 착한 덕보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나무꾼 덕보는 깊은 산속 연못가에서 도끼질은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린다. 그러자 연못에서 산신령님이 금도끼를 들고 나와 네 것이냐고 묻고는 아니라고 하자 또 은도끼를 들고 나온다. 결국 쇠도끼가 자기 것이라고 하자 산신령은 정직한 너에게 선물로 준다고 금도끼,은도끼를 주고 사라진다.

(동화/금도끼와 나무꾼/한국전래동화4/강수원/정원)

상사병에 걸린 처녀

이쁘고 거문고를 잘 타는 봉선은 임금님 앞에 나아가 재주를 겨루게 되나 왕비가 되지는 못한다. 집으로 돌아와 상사병을 앓게 되는데 지나가던 임금이 거문고 소리를 듣고 들어오자 마지막으로 연주를 한다. 임금은 피가 나는 손가락을 백반으로 싸 주고 돌아가고 봉선은 죽어 그 무덤가에서 봉선화가 피어난다.

(동화/봉선화/한국구전동화/앞선 책)

소경을 돕는 도깨비

형 때문에 눈이 먼 아우가 엿듣는지도 모르고 도깨비들이 소경 고치는 법,병 고치는 방법,샘물 나오는 곳을 떠들어 아우는 눈도 뜨고 재물도 얻게 된다.

(동화/거지 형제와 도깨비/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정오/현암사)

순박한 심봉사

심청의 아버지 심봉사는 부인이 아이를 낳고 7일 만에 죽자 이집 저집을 아이를 안고 다니며 젖을 얻어 키운다. 그러나 화주승에게 공양미 삼백석을 약속해 심청이가 몸을 팔게 만들기도 하고 뺑덕어미를 만나 모아 논 재산을 다 날린다. 결국 황성 맹인잔치에서 심청을 만나 눈도 뜨고 신세도 바꾼다.

(판소리/심청전/판소리 열두마당/유준필/들불)

어리숙한 총각

어수룩한 총각이 세상 물정을 배우려고 길에 나섰다가 도깨비와 일 년씩 살면서 쌀 나오는 보자기와 때리면 금돈이 나오는 말을 얻으나 번번히 주막집 주인에게 빼앗긴다. 세 번째는 때리는 방망이를 얻어오는데 주막집 주인이 쫓아오면서 때리는 방망이에 혼이나 가로챘던 물건을 돌려 준다.

(동화/도깨비가 준 보물)

여우 수건을 얻은 할아버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할아버지가 여우가 흘린 수건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목에 둘러 보았더니 점점 몸이 작아지는 신기한 물건이었다. 마침 임금님이 이웃 나라 임금과 지혜 겨루기를 하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이웃 나라로 가서 유명한 점쟁이의 지혜를 없애고 몸 안에 감춘 물건도 알아가지고 돌아와 임금님께 알린다. 이웃 나라 임금이 몸 속에 감춘 칼을 알아맞추자 그 임금은 점쟁이의 영험이 사라져 이쪽 임금의 물건을 알아맞히지 못한다.

(동화/ 이상한 여우 수건/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선한형]_순박형

염라대왕을 만난 사람

십 년간 머슴을 살고 모은 돈을 잃어버린 석숭이가 자기 팔자를 물으러 염라대왕에게 간다. 가면서 만난 사람들과 이무기의 팔자 까지 대신 물어보고 돌아오면서 여의주도 얻고 색시도 얻고는 그 때부터 복이 모여 천하제일의 부자가 된다.

(민담/석숭이의 복)

울면서 극락에 간 농부

매일 술 마시고 싸움만 하던 농부가 나이50이 넘자 마음을 고치고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만큼 되었을 때 병이 나서 죽고 말았다. 농부는 저승길을 울면서 가며 계속 참회를 하였는데 절을 백 개나 지은 사람과 동행이 되었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즐겁게 저승길을 가며 자기는 당연히 극락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갈림길에서 저승 차사가 농부는 좁은 길로,절을 지은 친구는 넓은 길로 보냈는데 농부가 가는 길이 극락으로 가는 길이었다. 농부는 마음을 뉘우쳐 극락으로 왔고 그 사람은 부처님을 위해 절을 짓는다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잘 먹고 살며 자랑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 것이었다.

(동화/울고 가는 저승길과 웃고 가는 저승길/한국 전래동화 8/최내옥/창작과 비평사)

자신을 알게 된 쥐

늙은 쥐 내외가 늦게 딸을 낳아 이쁘고 귀하게 기른 후 훌륭한 사위로 해를 점 찍고 가서 말하니 해는 먹구름을 당할 수 없다 하고 먹구름은 바람을 당할 수 없다 하고 바람은 은진미륵을 당할 수 없다 하고 은진미륵은 쥐를 당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쥐 중에서 훌륭한 사위를 맞이한다.

동화/제일 훌륭한 사위/한국구전동화/앞선 책)

정직해서 부자가 된 장님

같은 마을에 사는 장님 총각과 앉은뱅이 처녀가 시장에 가려고 총각이 처녀를 업고 서로 의지하면서 길을 떠난다. 샘물에서 황금 막대기를 본 두 사람은 임자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길을 떠난다. 나쁜 사나이가 나타나 장님 총각에게 자기를 업고 가라고 윽박지르자 두 사람은 샘물의 황금 막대기를 가르켜 준다. 그 사나이가 샘물에 가 보자 황금 막대기는 없고 큰 구렁이가 덤벼들자 두 토막을 내 죽이고는 다시 돌아와 두 사람을 때려주고 간다. 두 사람은 이상한 일이라며 다시 샘물에 가 보자 황금 막대기는 두 토막이 나 있다. 앉은뱅이 처녀가 놀라서 일어나자 곧 걷게 되고 총각도 눈이 떠져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

(동화/장님 총각과 앉은뱅이 처녀 /한국 전래동화 4/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착하기만 한 아우

형에게서 쫓겨나 어머니와 누이동생을 데리고 사는 가난한 아우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말하는 남생이를 얻어 시장에서 구경꾼들에게 많은 돈을 받는다. 또 형이 남생이를 죽인 후에는 그 시체를 땅에 묻어 주는데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나 황금 열매를 맺는 바람에 더 큰 부자가 되고 형이 거지가 되어 찾아오자 따뜻하게 맞아준다.

(동화/말하는 남생이/한국전래동화3/강수원/정원)

착한 마음으로 고친 병

친오누이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장님 총각과 앉은뱅이 처녀가 읍내 잔치에 가려고 총각이 처녀를 업고 길을 가다가 시냇물 속에서 황금 지팡이를 발견한다. 그러나 서로 나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알고 황금 지팡이를 그대로 두고 떠나는데 도둑을 만나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 도둑이 그 자리에 가보니 구렁이가 덤벼들어 죽여버리고는 두 사람을 쫓아와 심하게 매질을 한다. 두 사람은 다시 황금 지팡이를 찾아가는데 두 토막이 난 황금 지팡이를 보는 순간 총각은 눈을 뜨고 처녀는 걷게 된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착한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산다.

(동화/장님 총각과 앉은뱅이 처녀/한국전래동화4/강수원/정원)

해와 달을 무는 불개

캄캄한 까막나라 임금님이 불을 훔치는 불개에게 해를 훔쳐오라 명령하니 불개는 해나라에 가서 해를 물었으나 너무 뜨거워 그냥 놓고 돌아온다. 임금님은 화가 나서 달이라도 물어오라 하니 이번에는 너무 차가와 물지 못한다. 임금님은 끝없이 불개를 파견하고 불개가 해와 달을 물 때마다 일식과 월식이 생긴다.
(동화/불 개/한국전래동화/웅진출판)

거지가 된 의붓딸

계모에게 손이 잘려 쫓겨난 의붓딸은 부자집 총각과 결혼하게 되나 일이 꼬여 남편과 함께 쫓겨나게 된다. 그러나 우물에서 두 손을 찾고 주막에서 일하다가 등짐장수로 자기를 찾아다니는 남편을 만나 잘 살게 된다.
(동화/내 쫓긴 의붓딸/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정오/현암사)

꽃이 된 며느리

시어머니의 학대에 고생하던 며느리가 밥이 뜸이 들었는지 먹어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 띄어' 어른 보다 먼저 밥을 먹는 나쁜 버릇이 있다' 고 내쫓긴다. 며느리가 죽어서 묻힌 무덤에서 밥풀이 묻은 것 같은 꽃이 피어난다.
(동화/며느리밥풀꽃/한국구전동화/앞선책)

남편에 순종하는 흥부의 처

흥부의 아내는 흥부의 말에 순종하여 품을 팔아 생계를 돕는데 온갖 궂은 일을 다 한다. 그래도 흥부가 매를 대신 맞고 돈을 벌려고 하자 극구 만류하며 눈물을 쏟는다. 흥부가 몰래 매를 맞으러 떠나자 아내는 정화수를 떠 놓고 매일 빌다가 흥부가 매도 못맞고 맨손으로 돌아오자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판소리/흥부전/판소리 열두마당/유준필/들불)

[선한형]_순종형

말하는 목침을 얻은 총각

주막집에 머물던 총각은 꿈에 나타난 주막 주인의 아버지에게 제사를 잘 얻어 먹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주인과 함께 정성껏 제사를 모셨다. 다시 꿈에 나타난 영감님의 말대로 하여 찾아낸 금덩이는 주막 주인에게 주고 자기는 주막집 문턱을 목침만 하게 잘라 가지고 서울로 간다. 목침은 말을 하여 총각을 정승 집 딸의 병을 고치게도하고 과거에도 합격한다. 재상이 되자 어느 날 목침이 또 말을 하며 둔갑한 여우 부부 잡는 법을 일러주어 그대로 하였지만 암놈 여우는 도망을 친다. 새로 맞은 왕비가 재상을 죽이려 하자 재상은 목침의 말대로 매와 고양이를 숨겨 왕비에게 간다. 매는 왕비의 눈을 쪼고 고양이는 목을 물어 둔갑한 암여우임이 들어난다.
(동화/꿈 잘 꾸어 재상이 된 총각/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
창작과 비평사)

복을 받는 소녀

추운 겨울 날 마음씨 착한 소녀는 고약한 계모의 말에 따라 산나물을 캐러 산에 갔다가 동굴 속에서 버들잎 소년을 만나서 산나물도 캐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약병 세 개를 얻어온다. 이를 이상히 여긴 계모는 소녀 뒤를 밟아 동굴 속에서 소년을 죽이고 돌아오고 다시 산나물을 캐러 온 소녀는 약병으로 소년을 살려낸 후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동화/연이와 버들잎 소년/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복을 받는 소녀

추운 겨울 날 마음씨 착한 소녀는 고약한 계모의 말에 따라 산나물을 캐러 산에 갔다가 동굴 속에서 버들잎 소년을 만나서 산나물도 캐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약병 세 개를 얻어온다. 이를 이상히 여긴 계모는 소녀 뒤를 밟아 동굴 속에서 소년을 죽이고 돌아오고 다시 산나물을 캐러 온 소녀는 약병으로 소년을 살려낸 후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동화/연이와 버들잎 소년/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순종만 하는 아우>형이 젓가락으로 눈을 찔러 소경이 된 아우가 산속을 헤매다 우연히 도깨비 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도깨비들이 소경 고치는 법,병든 외동딸 고치는 방법,샘물 나오는 곳 등을 떠드는 것을 잘 듣고는 그대로 실천하여 집도 사고 논도 사서 잘 살게 된다.
(거지 형제와 도깨비)

순종하는 부자 가족

가난한 노인이 부자 노인에게 가서 놀다가 부자가 된 것은 가족이 화합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 부자 노인이 아들을 불러' 황소를 지붕에 올려 놓으라' 하니 아들은 어머니,아내,머한 노인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며 부자 노인과 함께 집에 가서 아들에게 그렇게 시키니 아들은 툴툴거리며 어머니,아내와 함께' 아버님이 노망이 났다' 고 비웃는다.
(민담/부자가 못 되는 까닭/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
창작과 비평사)

임기응변이 능한 기생

술자리에서 어느 곰보 관리가 주근깨가 많은 기생을 보고' 네 얼굴에 주근깨가 많으니 기름을 짜면 몇 되 나오겠다' 하였다. 그 기생이 즉시 대답하기를' 사또께서도 얼굴에 벌집이 많아서 꿀을 짜내면 몇 석 나오겠습니다.' 하였다.
(민담/골계총서(작자 미상)/태평한화/편집부/신원문화사)

현숙한 곽씨 부인

심봉사의 처 곽씨 부인은 앞 못 보는 가장을 공경하고 시중드는 것이 한결 같은데 살림이 어려워 몸을 아끼지 않고 품팔이를 했다. 심봉사의 뜻을 따라 명산대천에 치성을 들이고 임신하여 심청이를 낳으나 7일 만에 죽고 만다.
(판소리/심청전/판소리열두마당/유준필/들불)

가난해도 곧은 선비

먹을 것이 떨어진 선비가 아내의 채근으로 밤중에 남의 벼이삭을 자르러 갔다가 샛별이 자기를 바라보는 줄 알고 부끄러워서 그냥 돌아온다. 다음 날 떠돌이 머슴이 집으로 들어와서 선비에게 일도 가르치고 자기도 일하면서 집안을 풍족하게 만든다. 머슴은 샛별이 화해서 나타난 사람이었던 것이다.

(동화/샛별머슴)

낙화암에 어린 전설

신라와 당의 군사가 쳐들어오자 백제의 후궁과 궁녀들은 남의 손에 죽지 않겠다 하고 이곳에 와서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음으로 꽃이 떨어진 바위라 하여 낙화암이라 하였다.

(전설/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네 다리를 갖게 된 개

먼 옛날 하느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를 불러 땅 위로 내려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라고 한다. 한참 후에 옥황상제가 다시 불러서 물어보니 닭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었다 하여 머리 위에다 붉은 벼슬을 붙여준다. 개는 밤중에 도둑을 지켰다고 하니 그 상으로 다리를 하나 더 준다. 그래서 개는 오줌 눌 때 상으로 받은 다리가 젖지 않게 하려고 한 다리를 들게 되었다. 돼지는 먹을 것만 얻어먹었다고 하자 옥황상제는 칼로 돼지의 코를 잘라 직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동화/닭의 볏과 개 다리와 돼지 코/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단종을 장사지낸 엄흥도

단종이 영월에 유배되어 있다가 죽임을 당하자 그 시체를 강가에 버렸으나 수습하는 사람이 없었다. 영월 사람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북쪽 산에다 묻고 자취를 감추었는데 영조 때 엄흥도의 공적을 치하하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일화/단종을 장사지낸 엄흥도/선인의 명언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임금의 사촌을 가둔 이내

이내가 대사헌으로 있을 때 태종의 사촌인 이백온이 자기집 여종의 남편을 죽이자 태종은 사면하려 하였으나 이내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결국 귀양을 보내게 되었다. 이내가 이백온을 결박해서 귀양 보내자 태종은 어찌 종친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하자 이내는' 종친을 욕보이는 게 아니라 전하의 정치를 바르게 보좌하는 도리' 라고 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일화/임금의 사촌을 가둔 이내/선인의 명언 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죽음 앞에도 의연한 박안신

대범한 박안신은 왕자의 난에 연루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는데도' 옳은 말하는 신하를 죽인 임금이라는 이름을 남길까 두렵다' 는 말을 태종에게 접하여 오히려 사형을 면했다.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올 때 해적을 만났으나 결박을 당하고도 당당한 태도에 해적들이 굴복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일화/필원잡기/서거정/고전국역총서49)

지조 있는 선비

글만 읽던 선비가 어머니,아내와 함께 굶게 되자 낫을 꺼내 들고 제일 농사가 잘 된 논에 들어가서 하늘에 하소연을 한다.' 이 벼를 베어가도 될까요,안될까요' 를 하늘에 묻더니 스스로' 남의 벼를 베다니,안 되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고는 도로 낫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마침 숨어서 벼 도둑을 잡으려고 망을 보던 논 주인은 마음이 감동되어 선비를 뒤쫓아가 살림을 돕기로 한다. 부인은 부자 주인집의 일을 거들기로 하고 선비는 열심히 공부만 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과거에 합격해서 논 주인을 부모처럼 모시며 잘 살았다.

(동화/마음씨 곧은 선비/한국 전래동화8/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지조와 신의를 지킨 홍순복

김식의 제자인 홍순복은 김식이 귀양 가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허리끈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그는 칼을 뽑아 허리끈을 잘라버렸다. 그는 처조부 김맹유가 군수로 있을 때 찾아갔더니 김맹유는' 너는 가난한데 왜 물건을 달래지 않느냐' 고 하였다. 홍순복은' 관아의 물건을 함부로 주어서는 안된다' 고 하며 꿀 반 되와 개가죽 반 장을 받아와서는 다시 돌려보내면서' 개가죽은 안장이 없어 빌린 것이요 꿀은 긴 여행에 병이 나면 쓰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편지를 써 보냈다.

(일화/허리띠를 자른 홍순복/선인의 명언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지조있는 선비 정갑손

꼿꼿하면서도 성품이 너그럽기로 유명한 정갑손은 함경도에서 서울로 오던 길에 자기의 아들이 과거에 합격했다는 방을 보고는 노하여 말하기를 감히 누구에게 아첨하려 드는가.내 아들은 과거에 합격할 실력이 아니다. 이는 임금의 눈을 속이는 짓이다' 라고 꾸짖고 아들의이름을 지워버렸다.

(일화/필원잡기/서거정/고전국역총서49)

지조있는 여인

암행어사 조위는 속리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고 산속의 외딴집에 머물게 되는데 방이 하나 뿐이여서 홀로 있는 여인과 같이 지내게 된다. 조위는 아랫목에서 먼저 자다가 여인이 옆에 와서 눕자 일부러 다리를 얹어보는데 세 번째에는 여인이 일어나 조위를 깨우고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며 종아리를 때린다.

(일화/정조시험/어사출또/민융기/하늘)

천생배필 이도령

남원 광한루에서 춘향을 처음 보고 사랑에 빠진 이도령은 그날 밤 춘향과 첫 인연을 맺고 즐겁게 지내다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간다. 과거에 급제해 암행어사가 된 이도령은 변사또의 핍박에 죽음을 앞에 둔 춘향을 구하고 정실 부인으로 삼는다.

(판소리/춘향전/판소리 열두마당/유준필/들불)

청탁을 싫어한 허성

사리가 분명한 허성은 뇌물 한 번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청탁이 들어오면 그 반대로 해 주었다. 이조판서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남도 쪽으로 보내달라고 청탁을 하자 평안도 변두리로 보내주었고 또 어떤 이가 좋은 벼슬을 청하자 도리어 지방 향고의 말단직을 주어 아 버렸다.

(일화/필원잡기/서거정/고전국역총서49)

아첨하는 친구와 절교한 조언형

조언형은 강 혼과 어려서부터 친구였으나 강 혼이 연산군의 비위를 맞추자 그와 절교하였다. 조언형이 단천 군수로 있을 때 마침 강 혼이 임금의 명을 받고 지방을 순시한다는 전갈이 오자 조언형은 술통을 갖고 강 혼의 숙소에 찾아가 술을 나누어 마셨다. 술이 오르자 조언형은 강 혼의 처사가 잘못됐다고 꾸짖고는 이제 벼슬을 내놓고 이곳을 떠나겠다고 말한 후 이튿날 단천을 떠나버렸다.
(일화/조언형의 충고/선인의 명언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희생적인 장끼 한뫼 도령

장끼인 한뫼 도령이 까투리 공주를 보자 한 눈에 반하여 청혼을 하는데 임금이 보낸 군졸에 붙들려 옥에 갇힌다. 공주가 병이 나자 임금은 신하들의 아들과 시합을 시켜 사위를 고르도록 한다. 한뫼 도령은 두 번의 시합을 이겨 임금의 사위가 된다. 사위의 지혜로 꿩들을 잡을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사냥용 개를 기르기 시작하자 한뫼 장군은 냄새 를 없애는 법과 기어서 달아나는 법을 꿩들에게 가르친다. 사람들이 콩을 매단 덫을 놓자 여러 꿩들이 그것을 따먹으려 욕심을 내게 되니 한뫼 장군은 스스로 콩을 먹고 덫에 치어 동족을 구한다. 공주는 한뫼 장군 곁에서 죽음을 택한다.
(소설/장끼전(작자 미상)/한국고전명작/학일출판사)

가족을 그리다 죽은 소녀

몽고군에 끌려간 찔레 소녀는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 가족을 데려오려 하나 파견된 사람이 맨 손으로 돌아온다. 직접 고향에 온 찔레는 고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헤메다가 산골짜기에서 죽고 그 자리에서는 찔레의 넋이 꽃으로 피어나 찔레꽃이라 불리운다.
(동화/찔레꽃 소녀/한국전래동화/웅진출판)

내 잘못이라 우기는 가족

김서방네 집은 언제나 싸우는 소리로 시끄럽고 이서방네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김서방네 소가 고삐를 풀고 온 동네 밭을 망치자 식구들은 서로 잘못을 헐뜯으며 싸우고 이서방네는 같은 경우,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우기다가 웃음보가 터지고 만다.
(민담/집안이 화목한 비결)

서로 아껴주는 형제

의좋은 두 형제가 정성껏 모시던 홀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 가을이 되어 벼를 거두자 두 형제는 서로를 생각해 밤마다 벼를 지고 상대방의 볏섬에 쌓아 놓고 돌아오는데 아침에 보면 볏섬이 줄지 않고 그대로 있다. 밤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날 길에서 서로 부딪쳐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동화/의좋은 형제/한국전래동화/웅진출판)

[선한형]_우애형

선량하고 우애있는 흥부

놀부에게 쫓겨난 흥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품팔이를 다 한다. 흥부는 뱀에게 먹힐 뻔한 제비 다리를 고쳐 주고 다음 해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심었는데 그 박 속에서 나온 재물로 큰 부자가 된다. 결국에는 거지가 된 놀부를 정성으로 모시자 놀부도 잘못을 뉘우치고 우애있는 형제가 된다.

(판소리/흥부전/판소리 열두마당/유준필/들불)

우애 깊은 형제

우애 좋은 형제가 시내에서 이상한 구슬을 주워 나무 상자에 넣었더니 열 때 마다 금덩이가 나온다. 둘은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남을 돕고 부지런하였느데 장가갈 때가 되어 재산을 둘로 나누다 구슬을 서로 양보하려 한다. 결국 구슬을 제 자리에 갖다 놓자고 하여 시내에 갔다가 똑 같은 구슬을 하나 더 얻게 된다.

(동화/신기한 구슬/한국전래동화2/강수원/정원)

우정을 지키는 친구

가난할 때 서로 돕자고 약속한 친구가 찾아오자 부자가 된 친구는 돈이 나오는 황새 그림이나 항아리 그림,돈꿰짝 그림을 번번히 주지만 그 때마다 친구는 하루에 한 번 사용하라는 약속을 어기고 과욕을 부리다가 부자 친구와 함께 옥에 갇힌다. 그래도 부자 친구는 우정을 지키며 그림 속의 말을 함께 타고 하늘로 사라진다.

(동화/소원을 들어주는 그림/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정오/현암사)

죽어서도 친구가 된 아이들

양반의 딸 달님이와 상놈의 딸 별님이는 떨어질 수 없는 친구다. 어느 날 달님이가 별님이네 집에 가서 노는데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고 눈 쌓인 산고개를 둘이서 같이 넘다가 발을 헛 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다. 봄이 되어 그 자리에서 도라지꽃 두 송이가 피어난다.

(동화/도라지 꽃/한국구전동화/앞선 책)

형들의 원수를 갚은 반쪽이

삼형제 중에 첫째와 둘째는 키도 크고 미남들이었는데 셋째는 얼굴도 반쪽,몸도 반쪽,다리도 하나인 반쪽이었다. 그러나 반쪽이는 힘이 무척 세었는데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나 소와 돼지를 잡아가는 일이 생긴다. 반쪽이의 큰 형이 호랑이를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잡아먹힌다. 둘째형도 역시 산에 들어갔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자 반쪽이는 호랑이를 잡으러 간다. 산에서 만난 영감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마루밑에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영감님이 반쪽이가 간 줄 알고 자기가 호랑이라며 신체의 비밀을 떠든다. 반쪽이는 마루에서 나와 호랑이의 이마를 때려죽이고 집으로 돌아와 효도를 하며 살게 된다.

(동화/호랑이 잡은 반쪽이/한국 전래동화8/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상사병으로 죽은 처녀

용감한 젊은이가 일년에 한 명씩 처녀를 잡아가는 용을 죽이고는 처녀에게 백일 후에 다시 와 아내로 맞겠다고 약속을 한다. 처녀는 기다리다 지쳐 마음의 병이 들어서 백일 전에 죽고 백일이 되어 나타난 젊은이는 슬피 울다 처녀의 무덤을 찾아간다. 무덤 곁에는 처음 보는 나무가 자라고 있어 백일홍이라 부르게 된다.

(동화/백 일 동안 피는 백일홍꽃/한국전래동화/웅진출판)

일년에 한 번 만나는 견우

하늘의 임금에게는 베를 잘 짜는 직녀라는 딸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자 견우라는 총각에게 시집을 보냈다. 둘은 사이가 좋아 언제나 놀러만 다니고 임금님의 말도 잘 듣지 않게 되자 화가 난 임금은 하늘나라 동쪽과 서쪽으로 헤어져 살도록 명령했다. 일년에 한 번씩 7월 칠석날 밤에만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도록 허락해 주었더니 이들이 흘리는 눈물이 땅에서는 큰 비가 되어 홍수가 났다. 땅 위의 짐승들이 회의를 하여 두 사람을 만나도록 다리를 놓자고 결정해서 7월 칠석날 까치와 까마귀가 하늘 나라로 올라가 머리와 머리를 맞대어 훌륭한 다리를 만들었다.

(전설/견우와 직녀/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일장춘몽을 꾼 조신

조신이란 스님이 어느 집 딸을 사모하여 매양 낙산사 관음보살게 빌다가 보니 문득 그 낭자가 문으로 들어와 함께 부부되기를 원했다. 40여년을 동고동락하다 15세에 큰 아이가 굶어 죽고 네 자녀들과 고생하다가 결국 아이 둘씩 맡아 가족이 흩어지려 할 때 깨어보니 온통 꿈이었는데 수염과 머리털은 희어져 있었다.

(전설/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일편단심 춘향

기생의 딸 춘향은 이도령과 첫 인연을 맺은 후 끝까지 열녀로서 살아남는다. 새로 부임한 원님이 수청들 것을 거절해 모진 매를 맞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감옥으로 찾아온 거지꼴의 이도령을 오히려 걱정하며 위로한다. 결국은 이도령의 암행어사 출도로 목숨을 구하고 정렬 부인이 되는 행복을 누린다.

(판소리/춘향전/판소리 열두마당/유준필/들불)

지혜로운 아내

깊은 산골 노총각이 장가를 든 후 아내와 떨어지기 싫어 초상화를 밭머리에 꽂아 놓고 일하는데 바람에 날린 초상화는 대궐 까지 날아간다. 아내는 대궐로 잡혀가고 3년 후 걸인잔치를 열었을 때 남편이 나타나자 계교로 임금과 옷을 바꿔 입게 하고 거지들과 임금을 쫓아낸다.

(눈치 삼 년 뛰엄 삼 년)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은 권경희

권경희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벼슬을 받았는데 처의 집안이 미천하여 그 벼슬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 많았다. 권경희의 아버지도 이혼할 것을 권했는데 그는 가난할 때 10여년을 함께 고생한 처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종도 오히려 훌륭한 선비라 두둔했고 처가도 미천한 가문이 아님이 밝혀져 말썽이 사라졌다. 그는 벼슬이 대사헌까지 이르렀다.

(일화/고생한 아내를 버리지 않은 권경희/선인의 명언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치술신모가 된 부인

박제상이 왜국으로 떠난 후 그 부인은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 죽었다. 부인은 치술신모,곧 치술령의 산신이 되었다.
(전설/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선한형]_인욕형

거지가 된 왕자

태어나는 왕자가 매번 죽자 왕은 점쟁이의 말대로 새로 태어난 왕자가 13살이 되던 해에 거지로 만들어 대궐에서 내 보낸다. 왕자는 갖은 고생을 하다가 남의 집 머슴이 되고 인정 많은 막내딸이 돌보아 주는데 추운 겨울 날 찾아온 귀신을 막내딸이 쫓아낸다. 왕자는 대궐로 돌아간 후 막내딸을 왕비로 맞는다.
(동화/거지 왕자와 시골 처녀/한국전래동화3/강수원/정원)

고생을 사서 하는 외아들

명이 짧은 정승 외아들을 스님이 데려다 석 달을 이어주고 다시 명을 늘리기 위해 3년 동안 딸 셋 있는 부자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고생을 한다. 첫째,두째 딸과 달리 셋째 딸은 인정많고 지혜로와 3년이 되는 날 외아들과 결혼하게 되고 명도 백년을 늘리게 된다.
(동화/두고도거지)

기다리다 지친 딸

설날이 되어 딸의 분을 사러 간 어머니가 약속한 사흘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딸은 기다리다 지쳐 병이 들어 죽는다. 그 무덤에서 꽃이 피어나니 사람들은 분 때문에 죽었다고 분꽃이라 부른다.
(동화/분꽃/한국구전동화/앞선 책)

말없이 수행하는 여승

깊은 산골에서 도를 닦던 세 여승에게 산신령이 나타나 황금색 열매를 주며' 입 속에 넣고 있으면 복을 받게 된다' 고 한다. 그러나 하루종일 입 속에 열매를 넣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 두 여승은 주머니에 열매를 넣었고 한 여승은 계속 입 속에 넣고 있었다. 차차 한 여승만 복을 받고 두 여승은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산신령이 나타나' 수양이 깊은 사람도 함부로 말을 않하는 법,잡담이나 하며 무슨 복을 받겠느냐' 고 훈계한다. 곧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복이 나간다는 것인데 잇새로 재물이 샌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전한다.

(민담/잇새로 재물이 샌다/한국 전래동화9/최래옥/창작과 비평사)

복 받은 옥니장이

도토리묵을 좋아하는 스님이 꾀를 내어 부처님이 도토리묵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신도들에게 알렸다. 그 후 신도들은 부지런히 산에 가서 도토리를 주워 절로 나르는데 한 여자는 얼마나 열심히 도토리를 나르는지 다른 사람과 말도 하지 않는다. 입 속에도 도토리를 물고 오기 때문이었는데 어느덧 앞니가 옥니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 여자는 큰 부자가 되었다.

(동화/옥니장이의 욕심/한국 전래동화9/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여러 재난을 견딘 숙향

송 나라 때 김전과 장씨 사이에서 태어난 숙향은 5살 때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장 승상 댁에서 크다가 모함을 받고 쫓겨 난다. 어느 노파의 집에 의탁해 살면서 수를 놓은 것이 이상서의 아들에게 들어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다. 이상서는 자기도 모르게 혼인한 숙향을 내어쫓고는 아들 이선을 태학으로 보내어 학문에 열중하도록 하였다. 숙향은 우여곡절 끝에 이상서 부부를 만나 모든 사실을 아뢰고 며느리로 인정받는다. 이선은 장원급제하고 집으로 돌아와 서로 상면한 후 숙향은 부모를 다 찾게 된다. 그 후 이선은 황태후의 약을 구하여 살려내니 초왕으로 봉해진다. 이선이 70세 되던 해 선약을 먹고 숙향과 함께 천상으로 올라갔다.

(소설/숙향전(작자 미상)/한국고전명작/백두성/학일출판사)

왕비가 된 염소치기

아버지마저 돌아가자' 두눈' 이는 계모와 두 딸에게 갖은 구박을 받게 된다. 어느 날 네 눈을 가진 계모는 두눈이에게 산에 가서 염소를 치고 오라고 시키는데 산에서 염소들이 사람들로 변해 두눈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 준다. 음식을 다 먹으면 염소로 돌아가서 집으로 끌고 오는데 집에서는 밥을 먹지 않음으로 계모는 한눈박이 딸을 산으로 같이 보낸다. 한눈박이가 잠자는 사이 두눈이는 음식을 먹어버리고 또 세눈박이 딸도 똑같이 산에 가서 잠만 잔다. 계모는 염소를 죽여버리나 두눈이가 그 쓸개들을 모아 싸리문 옆에 묻었더니 사과나무 싹이 올라와 금사과가 주렁주렁 열린다. 왕자가 지나가다가 금사과를 따지 못하자 식구들을 시켜 보지만 아무도 따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두눈이가 사과를 뚝뚝 따서 왕자에게 드리고 결국은 왕비가 된다. (동화/왕비가 된 염소치기 소녀/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죽을 고비를 넘긴 아들

아이가 세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오래 살 수 있다는 스님의 말에 원님은 외동아들을 딸려 보내며 금실과 은실로 수를 놓은 옷을 주어 보낸다. 스님과 몇 해 동안 지낸 후 스님 곁을 떠나 길을 가다가 호랑이가 변한 영감님에게 누룽지를 주어 살아난다. 다시 빈 집에 들어가 옥피리만 들고 나오자 집이 무너지고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 말을 돌본다. 옥피리를 불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데 주인집 큰댁 잔치에 부모님이 주신 옷을 입고 말을 탄 채 공중에서 나타나 공경을 받고 돌아온다. 셋째 딸이 이것을 눈치채고 서로 가까이 지내다가 결국은 결혼해 행복한 부부가 된다.

(동화/이상한 옥피리/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선한형]_청빈형

검소함을 지킨 유순도

검소한 유순도는 검은 말가죽으로 지은 신을 오랫동안 신었는데 어느덧 검은 색이 퇴색해 희게 보였다. 관복에는 으레 검은 신을 신는 것이라 사간원 아전이 이를 적발하자 옷을 들어 두발을 보이며' 자세히 보라' 하였다. 아전이 신의 주름 사이에 아직 검은 빛이 남아 있어 웃으면서 가 버렸다.

(일화/태평한화골계전/서거정/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을유문화사)

청렴한 안성

안성은 고려 우왕 때 과거에 합격하여 40년 동안 관직에 있었으나 어찌나 청렴한지 이삿짐이라고는 다 떨어진 고리짝 하나 뿐이었다. 한 번은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오는데 그 고리짝도 낡아서 책을 담을 수 없었다. 부인이 왜 종이를 발라 쓰지 않느냐고 빈정대자' 우리가 종이를 가져 오지 않았으니 무슨 종이로 바른단 말이오' 하였다. 관청 물건은 종이 한 장도 사사로이 쓰지 않겠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

(일화/안성의 청렴/선인들의 명언 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청빈한 유관

유관(柳寬)은 정승이면서도 청빈하기로 유명하다. 큰 비에 천정이 새면 우산을 받고 새우면서도 우산이 없는 집을 걱정하고 손님 접대는 탁주 두어 잔으로 하였다.

(일화/청파극담/이륙/고전국역총서50)

친구의 청을 거절한 정 붕

정 붕은 선견지명이 있어 유자광과 친척이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어 유자광이 화를 당할 때 무사하였다. 친구인 성희안의 주선으로 청송부사가 되었는데 잣과 꿀을 보내달라는 성희안의 편지가 있었다. 정 붕은 잣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고 꿀은 벌통 속에 들어 있으니 난들 어찌하겠습니까?' 하는 답장을 보내 성희안을 부끄럽게하였다.

(일화/고관의 청을 거절한 정 붕/선인의 명언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피리 부는 맹사성

맹사성은 청렴 결백하고 글재주도 뛰어났지만 피리도 잘 불었다. 혼자 터득해 배운 피리를 언제나 가지고 다녔는데 그가 집에 있고 없는 것을 피리 소리로 가늠했다고 한다.

(일화/필원잡기/서거정/고전국역총서49)

황금을 돌로 본 최영

최영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항상 가슴에 새겨 변한 일이 없었다. 재상들이 서로 초청해 좋은 음식으로 즐길 때에도 그는 항상 손님을 맞이하면 오래도록 음식을 내지 않다가 기장과 쌀을 섞어 밥을 지어 대접하였다. 손님들이 배가 고파 나물밥을 맛있게 먹으며' 밥이 매우 맛있다' 하니 그는' 이것도 병법이다' 라고 하였다.

(일화/용재총화/성현/대동야승/고전국역총서49)

바른 말을 하다 죽은 박한주

연산군 때의 간관(간官:임금의 잘못을 지적해 바로잡는 관리)이던 박한주는 연산군의끝없는 놀이를 보고' 상께서는 사당이나 능에 한 번도 친히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서 놀이는 끝없으니 효도가 아닙니다' 하였다. 연산군이 눈병이 나서 그리 되었다고 변명하자' 후원에서 말타고 공을 치며 눈병이 났다고 핑계하십니까?' 하였는데 결국 임사홍의 간계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일화/바른 말을 하다 죽은 박한주/선인의 명언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왕자를 구한 박제상

왜국에 볼모로 잡혀간 왕자를 구하러간 박제상은 거짓으로 왜왕에게 투항해 왕자를 빼돌리고는 사로잡힌 몸이 되었으나 끝까지 신라의 신하임을 고집하여 화형을 당했다.

(실화(신화/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인정 많은 향단

춘향의 몸종인 향단은 언제나 정성을 다하는데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었지만 신분을 감추고 거지꼴로 춘향의 집에 찾아오자 예전과 다름없이 대접한다. 그러나 춘향이가 죽을 신세가 된 것을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애처로와 한다.

(판소리/춘향전/판소리 열두마당/유준필/들불)

자손을 눈 멀게 한 성석린

이성계가 함흥으로 내려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자 성석린이 이성계의 마음을 돌리려고 함흥으로 내려간다. 나그네처럼 꾸미고 나타난 성석린은 친구이자 임금이었던 이성계와 환담을 나누는데 무심결에 하는 말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역설했다. 이성계가 화를 벌컥 내자 성석린은' 설득하러 온 것이라면 저의 자손은 눈이 멀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였다. 이 거짓 맹세는 말한대로 되어서 성석린의 큰 아들은 눈이 멀고 둘째 아들은 아들을 못 낳았는데 큰 아들의 두 아들들은 장님으로 태어났다

(일화/장님이 된 성석린의 자손/선인의 명언 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주인 대신 죽는 종

세종 때 한 관리가 죄를 지어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충직한 종이 그의 부인으로 위장하여 옥에 들어가서는 그 관리를 탈출시키고 자기가 옥에 갇혔다. 모슨 사실이 탄로났으나 세종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이러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종을 석방하였다.

(일화/필원잡기/서거정/고전국역총서49)

주인을 구한종

제주 사람 고득종은 어머니를 뵈러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 배가 다 깨어졌다. 그가 종 한 사람과 함께 배의 깨어진 판자를 붙잡고 물 속에 떴다 잠겼다 하였다. 종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하직하고 갑니다' 하고는 주인을 판자에 묶어 놓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

(일화/용재총화/성현/대동야승/고전국역총서49)

죽음으로 충언한 김처선

내시였던 김처선은 연산군이 악정을하자 죽을 결심을 하고 연산군의 음란함을 꾸짖었다. 연산군은 활로 가슴과 배를 쏘고 그래도 말을 계속하자 두 다리와 혀를 자르고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 호랑이에게 주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처' 자가 들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바꾸게 하고 그가 살던 집은 연못을 만들어 버렸다.

(일화/환관 김처선의 죽음/선인의 명언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춘추를 다 외운 구종직

구종직은 시골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교서관 정자가 되어 숙직을 하다가 평상복을 입고 경회루 구경을 갔다. 마침 임금님 행차를 만났는데 임금의 명으로 한 곡 노래를 부른 다음 경서를 외워 보라 하니[춘추]를 한 구절도 막히지 않고 줄줄 외웠다. 임금이 부교리라는 관직을 주자 반대가 심했는데 임금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춘추]를 외워보라 했더니 아무도 외는 사람이 없더니 오직 구종직만이 다 외웠다. 임금은' 한 구절도 못 외면서 높은 자리에 있는데 어찌 구종직만이 부교리에 오를 수 없단 말이냐' 고 반문한다.

(일화/노래를 잘 부른 구종직/선인의 명언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황산벌의 영웅 계백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제로 쳐들어오자 계백은 5천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맞서 4번을 연이어 이겼으나 마침내 패전하여 모두 죽었다.

(실화/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선한형]_자비형

세 가지 보물을 얻은 막내

삼형제를 둔 늙으신 아버지가 떠나자 첫째,둘째형은 막내에게는 재산을 조금 주고 둘이서 나눠 가졌다. 착한 막내는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더욱 가난해져 떠돌이 신세가 되나 늙은 스님을 보살펴 주고는 집이 생기는 짚방석과 무엇이든지 나오는 표주박,심부름꾼들이 나오는 젓가락을 얻어 집으로 돌아온다. 두 형은 아우의 성공이 부러워 일부러 재산을 나눠주고 늙은 스님을 찾아가지만 그 절엔 아무도 없어 빈털터리가 되었다. 막내는 두 형을 받아들여 보살펴 준다.

(동화/세 가지 보물/한국 전래동화3/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개미를 구해 준 아이

유명한 관상장이가 친구 집에 왔다가 머슴아이를 보고는 살인을 할 얼굴이라며 당장 내쫓으라 한다. 영문도 모르고 쫓겨난 아이는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개울가 나무 그늘에 서 있는데 불어난 물에 개미들이 떠내려 간다. 아이는 개미를 불쌍히 여겨 모두 건져 주고는 개울물이 불어 건너지 못하자 다시 주인집으로 돌아온다. 관상쟁이는 아이의 관상이 달라졌다며 사위로 삼으면 잘 살겠다고 한다. 결국 그는 사위도 되고 글도 배워 벼슬도 하게 된다.

(동화/개미 구해 사위가 된 머슴아이/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거위를 살린 선비

과거보러 떠난 선비가 주막의 헛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거위가 주인집 딸의 진주 구슬을 먹어버린다. 주인은 선비를 의심하여 꽁꽁 묶은 뒤 관가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데 선비는 거위를 제 곁에 묶어 달라고 한다. 아침이 되자 거위의 똥 속에서 구슬이 나오고 선비는 거위를 살리려 했다고 주인에게 말한다.

(동화/구슬 먹은 거위/한국전래동화3/강수원/정원)

걸인을 구한 정수스님

정수스님은 눈 쌓인 저문 날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에 여자 거지가 아이를 낳고는 거의 얼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행도 잊고 거지를 안아주어 목숨을 구했다. 여자가 소생하자 정수스님은 옷을 다 벗어주고 절에 돌아와 거적으로 몸을 덥고 밤을 세웠고 이러한 자비행으로 국사가 되었다.

(전설/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너그러운 성종

성종이 숙직을 하고 있는 조위의 방에 가 보니 그는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한 궁녀가 조위의 방에 들어와 사랑을 호소하자 조위는 타일러 내보내려고 하지만 궁녀는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한다. 조위는 궁녀를 죽게 할 수 없음으로 그녀의 청을 들어주고 성종은 이를 다 보고도 오히려 조위를 칭찬해 준다.

(일화/궁녀의 연정/어사출또/민융기/하늘)

도량 넓은 황희

황희가 90이 넘어서 방 안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이웃 아이들이 와서 마당의 복숭아를 함부로 따니 그는' 다 따지는 말아라,나도 맛보게' 하였다. 밥을 먹을 때도 많은 아이들이 몰려와 서로 얻어먹으려고 시끄럽게 하였으나 그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일화/용재총화/성현/대동야승/고전국역총서49)

도량이 넓은 이의갑

이의갑은 벼슬을 내놓은 후 의약을 모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의갑의 동생이 형님 집에 오다 막벌이꾼들이 해장술을 하기 위해' 마누라가 급히 체했다고 속이고 이의갑에게 사향소합원을 얻어다 팔면 된다' 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형님 집에 와 있으니 역시 한 사람이 와서 도움을 청하였는데 이의갑은 청심환 두 개,소합원 세 개를 내어주며 또 머슴을 불러' 호박죽으로 병이 났으니 양식도 없을 것이라 쌀 한 말을 주어 보내라' 하였다. 동생이 오면서 들은 소리를 낱낱이 말하니 형님은' 취한 것도 병이니 내 약으로 해장이 되면 그것도 공덕이다' 하며 웃었다.

(일화/요절일화집/임경일/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을유문화사)

돌다리를 놓은 장사

힘이 센 것을 숨기고 자란 김장사가 밤새 개울에다 돌다리를 놓고 나무다리를 헐어버린다. 그러나 돌이 부족해 문하골 돌다리의 돌을 하나 가져왔기 때문에 그곳의 송장사는 밤에 큰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김장사와 송장사는 번갈아 다리의 돌을 옮기다 송장사가 힘이 달려 개울바닥에 놓았고 두 장사가 죽자 홍수 때 돌다리도 무너진다.

(전설/장사와 돌다리/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용궁으로 못 들어간 어부

젊은 어부가 낚시에 걸린 큰 잉어를 살려주자 용왕님이 공주를 살려 주었다며 사람을 보내 용궁으로 초대한다. 어부는 공주와 결혼해 재미있게 살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돌아오는데 공주는 작은 상자를 주며' 물길아 열려라' 하면 용궁으로 통하는 길이 열린다면서 절대 상자를 열어보면 안된다 한다. 어부는 집에 돌아와 그 상자를 열어보는데 그 때부터 상자는 효험을 잃게 되어 용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동화/용궁공주/한국 전래동화1/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선한형]_자비형

인정 많은 아우

고약한 형에게 양식도 못 얻고 돌아오는 길에 수수를 주운 아우는 수수떡을 만들어 시장에 가다가 굶은 할머니에게 전부 준다. 할머니의 말대로 산꼭대기에서 푸른 구슬을 얻은 아우는 집에 돌아와 푸른 구슬을 던졌더니 던질 때 마다 황소가 나와 큰 부자가 되었다.
(동화/푸른 구슬 붉은 구슬/한국전래동화2/강수원/정원)

진정한 우정을 지킨 노인

두 친구가 극락에 가기 위해 산에서 돌을 삶기로 하고 한 사람은 두 아궁이에 불을 때고 한 사람은 나무를 하러 다녔다. 그러나 나무하는 영감이 친구의 돌이 먼저 물러지기를 빌고 있을 때 불을 때는 영감은 자기 아궁이에 많은 불을 때고 친구의 아궁이에는 불을 조금만 넣었다. 그런데도 나무하는 영감님의 돌이 먼저 물러서 둘은 함께 길을 떠났다. 어느 모퉁이에서 굴갓을 쓰고 있는 사람을 만나니 나무하던 영감을 데리고 극락으로 가면서 친구에게는 마음을 고쳐야 극락에 올 수 있다고 한다.
(동화/돌을 삶은 두 노인/한국 전래동화8/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잉어를 살려 준 나무 장수

나무 장수가 비오는 날 낚시질을 갔다가 잡은 큰 잉어를 살려주자 며칠후 그 연못에서 낚시질을 하던 나무 장수를 태우고 용궁으로 간다. 잉어는 용궁의 왕자였는데 모든 선물은 다 받지 말고 깊은 방 속의 작은 반지를 얻으라고 말한다. 나무 장수는 그 반지를 얻어 작은 단지에 넣은 다음 자기집 선반에 얹어두었는데 처녀가 나와 나무 장수의 아내가 된다. 그 처녀는 용궁의 공주로 그혼이 작은 반지에 들어있었던 것인데 예쁘고 총명해서 왕자가 나무 장사에게 시집보내려고 했던 것이다. 큰 집을 짓고 잘 살려니 사또가 수상하다고 나무 장사를 불러보고는 이상한 점이 없자 예쁜 부인을 빼앗으려고 바둑 시합을 한다. 나무 장사는 부인의 도움으로 바둑도 이기고 말을 타고 강을 건너는 시합에서도 이긴다. 또 병사를 거느리고 싸움을 하게 되어 사또는 그 통에 죽어버리고 나무 장사가 사또가 된다.
(동화/잉어를 구해준 나무 장수/한국 전래동화9/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잘못을 감싸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찰떡이 먹고 싶다고 하자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옆집에서 찹쌀을 얻어 떡을 찌기 시작한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불을 살살 때라' 하고 남편은' 나무가 부족하다' 며 산으로 갔는데 며느리는 떡을 찔 줄 몰라 마구 불을 때다가 솥과 시루를 깨어놓는다. 며느리가 울고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내가 진작 부엌에 나왔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을…다 내탓이다' 하고 돌아온 남편은' 내가 불을 때주었으면 될 것을…다 제 잘못입니다' 한다. 시아버지는 이 사연을 듣고' 내가 찰떡을 먹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 고생을 시키는구나' 하였다. 그 후 이 집안은 화목하고 부유한 가정이 되었다.
(민담/다 내 잘못이다/한국 전래동화8/최래옥/창작과 비평사)

끝까지 신의를 지킨 종

어느 부자가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으나 반쪽이였다. 눈,코,손도 하나였는데 마침 그 집의 하인도 같은 날에 잘생긴 아들을 낳았다. 둘은 형제처럼 어울려 지냈는데 장가갈 때가 되자 종의 아들이 반쪽이 대신 선을 보아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종의 아들은 반쪽이를 숨겨서 신방에 들어간 후 살며시 빠져 나와 신부댁 늙은 배나무에 올라가 귀신 흉내를 낸다. 몇 대 조상 때 부터 같이 살았던 나를 박대할 수 있느냐,이런 잔치에도 나에게는 아무 대접이 없지 않느냐, 그 별로 신랑을 반쪽으로 만들겠지만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주인도 반쪽을 만들겠다고 소리를 친다. 신방에 간 식구들이 반쪽이가 된 신랑을 보고 놀라는 순간 종의 아들은 본집으로 돌아가다 이것을 다 보고 있던 반쪽이의 아버지를 만난다. 반쪽이 아버지는 종의 아들에게 고마워하며 집으로 돌아가 종 문서를 불태우고 사위로 삼는다.

(동화/반쪽이를 장가 보낸 종/한국 전래동화8/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친구의 신의를 가르친 아버지

놀기만 하는 아들의 버릇을 고치려고 아버지는 돼지 한 마리를 삶아 돗자리에 싸고 술도 한 동이 지고는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집에 간다. 아들 친구에게' 간 밤에 도둑이 들어 그만 실수로 도둑을 죽이게 되었으니 이 시체좀 맡아달라' 고 한다. 그 친구가 얼굴이 새파래지며 거절을 하자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친구에게로 가 보자' 고 한다. 아버지 친구에게 가서 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어서 들어와 같이 상의하자' 고 한다. 아들은 그 후 나쁜 친구들과 손을 끊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

(동화/진짜 친구/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도둑을 감동시킨 선비

고지식한 선비 노인이 할머니의 바가지로 베를 한 필 들고 시장에 팔러 간다. 고개 위에서 어떤 젊은 도둑이 베를 팔고 쌀과 북어를 사다 드리겠다며 여기서 편히 기다리라고 한다. 선비는 그를 기다리다가 맨손으로 돌아오며 베를 팔지 못해 젊은이가 고생을 한다고 생각한다. 선비는 장날 마다 그 고개에서 젊은이를 기다리다 돌아오는데 한 달 후에 그 도둑이 고개로 지나가다가 그 선비를 보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선비의 집을 몰래 쫓아간 도둑은 선비가 끝까지 도둑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다.

(동화/베 팔러 간 고지식한 선비/한국 전래동화7/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문둥이와 약속을 지킨 효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가 어머니 심부름으로 고개 너머에 사는 어머니 친구 집에 베 한 필을 갖고 간다. 고갯마루에서 불을 피우며 무엇을 먹고 있는 일곱 사람을 보고 효자가 궁금하여 다가가 보니 얼굴이 흉측한 문둥이 들이었다. 통행세로 베 한 필을 내라고 하니 효자는 집에서 베 한 필을 더 가져오겠다고 한다. 어머니는 가지 말라고 하지만 효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베를 가지고 약속 장소로 간다. 문둥이들은 간 곳이 없고 너럭바위에는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었다. 효자는 북두칠성의 복을 받아 벼슬도 하고 오래 살았다.

(동화/문둥이와 약속을 지킨 효자/한국 전래동화9/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악한형]

[악한형]_포악형

결국 지옥으로 간 사람

그럭저럭 살던 사람이 죽어서 저승으로 갔는데 성문 앞에서 사무를 보던 사람이 바로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다. 서기로 있는 그의 도움으로 이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살아 나왔는데 처음에는 효도하며 가족을 돌보고 어른들에게도 예의를 지켰다. 그러나 세월이 얼마 지나자 다시 술 먹고 싸움질을 하더니 다시 죽어서 저승으로 간 후 지옥으로 떨어졌다.

(동화/죽을 날을 통고받은 사람/한국 전래동화8/최래옥/창작과 비평사)

돌이 된 용

수로왕은 자기 영토 안의 연못에 사는 악한 용을 다스리지 못해 부처님께 머리를 숙이고 청하였더니 용과 사귀던 나찰녀(사람을 잡아 먹는 여자 악귀)들은 5계를 받았고 용은 고기들과 함께 만어산 계곡의 수 많은 돌이 되었다.

(전설/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두 손을 자른 계모

새로 온 계모는 의붓딸을 구박하다가 손을 잘라 내쫓고 의붓딸은 거지가 되어 돌아다니다 부자집 총각의 꿈에 나타나는 바람에 그 집의 며느리가 되어 아들도 낳는다. 일이 꼬여 아들과 쫓겨난 며느리는 우물에서 두 손을 찾고 주막에서 일하다가 등짐장수 차림으로 자기를 찾아나선 남편을 만나 잘 살게 되고 일을 꾸민 계모는 벌을 받는다.

(동화/내쫓긴 의붓딸)

며느리를 학대하는 시어머니

착한 며느리를 밤낮으로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아침밥을 짓다가 뜸이 들었나 보려고 밥알을 몇 개 먹어보는 며느리를 보고는 버릇이 없다고 매를 때려 내쫓는다. 며느리는 죽어 그 무덤에서 밥풀이 묻은 것 같은 꽃이 피어나고 사람들은 며느리 밥풀꽃이라 부른다.

(동화/며느리밥풀꽃/한국구전동화/앞선 책)

무서운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무서워 아무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착한 며느리가 설날이 되자 떡국을 한 솥 끓였으나 시어머니가 먹지 못하게 한다. 배가 고파 떡국을 얼른 입에 넣었으나 시어머니가 나타나는 바람에 떡이 목구멍에 걸려 며느리는 죽고 그 때부터 뻐꾸기는 떡국 때문에 떡국 때문에' 하고 울게 된다.

(동화/떡국 때문에 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심사 나쁜 호랑이

할머니의 무우밭을 망쳐 놓은 포악한 호랑이가 팥죽을 먹으러 오라는 할머니의 말에 속아 혼이 나는 이야기. 밤중에 팥죽을 얻어먹으러 왔다가 눈에 재가 들어가자 고춧가루 탄 물로 눈을 씻게 된다. 바늘 꽂힌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쇠똥에 미끄러지자 멍석이 호랑이를 둘둘 말아버린 후 지게가 져다가 강물에 버린다.

(동화/심사 나쁜 호랑이/한국 전래동화1/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아들을 죽인 계모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어린 아이를 새로 들어온 계모가 물에 빠져 죽이지만 아이는 개구리,달개비풀,금송아지로 계속 태어난다. 금송아지는 계모가 또 죽일까봐 도망쳐서 금종을 치고 대궐에 들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되어 집으로 내려와 계모의 죄를 모두 밝힌다.

(동화/금송아지)

인정없는 놀부의 처

놀부의 마누라도 인정사정 없기는 놀부와 마찬가지,양식 얻으러 온 흥부가 놀부에게 매를 맞고 부엌으로 기어와 밥 한 술을 달라고 하자 밥 푸던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때린다. 흥부가 뺨에 붙은 밥을 떼어 먹으며 다른 쪽 뺨도 때려 달라하니 부지깽이로 흥부를 실컷 때린다.

(판소리/흥부전/판소리 열두마당/유준필/들불)

자기만 아는 심술쟁이

삼년 동안 지옥에서 고생하던 심술쟁이가 염라대왕의 배려로 하늘에서 내려온 파뿌리를 잡고 올라가는데 수 많은 죄인들이 달라붙는다. 심술쟁이는 파뿌리가 끊어질까봐 옆에 붙은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마지막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도 떼어놓으려 하자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다.

(동화/기회를 놓친 심술쟁이/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천하의 잡놈 변강쇠

천하의 불한당인 변강쇠는 개성 부근에서 옹녀를 만나 부부가 되어 각처를 떠돌아 다닌다. 지리산에 들어가 터를 잡는데 변강쇠가 장승을 땔감으로 잘라와서 결국 장승동티로 죽고 만다. 옹녀는 강쇠의 시체를 치우려고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나 그때 마다 스님과 초라니와 풍각쟁이가 죽는다. 나중에 뎁득이가 각설이패와 함께 겨우 시체를 묻고는 옹녀와 헤어진다.

(판소리/변강쇠가/판소리 열두마당/유준필/들불)

[악한형]_복수형

구렁이 아내의 복수

까치를 잡아먹으려던 구렁이가 선비의 도움으로 죽자 구렁이 아내는 선비를 죽이려고 하지만 뒷산의 종이 울리는 바람에 복수를 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종을 친 것은 선비가 살려준 까치였다.
(전설/까치의 보은/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정오/현암사)

돌아다니는 이야기 귀신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남한테 해 주지 않는 총각이 장가를 가게 되자 자기들을 묶어만 놓고 있다고 이야기 귀신들이 복수를 하려 한다. 이 말소리를 엿들은 머슴이 신행길을 쫓아가며 배도 못 먹게 하고,샘물도 못 마시게 하고 바늘방석에도 앉지 못하게 해서 총각을 구한다. 총각도 사정을 알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는다.
(동화/이야기 귀신)

사나운 호랑이

숫호랑이를 죽인 아버지가 암호랑이의 저주로 죽고 암호랑이는 마을로 내려와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린다. 아들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영구바위 호랑이굴로 들어가 기다리다가 꼬리부터 들어오는 호랑이를 그물로 얽고 무기로 때려 죽인다.
(전설/영구바위 암호랑이/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악한형]_배은망덕형

간악한 뺑덕 어미

심봉사가 살림이 넉넉하단 말을 듣고 자청해서 시집 온 뺑덕 어미는 꽃감 빼 먹듯 심봉사의 재산을 들어먹는다. 황성 노인잔치에 따라나선 뺑덕 어미는 주막에서 만난 황봉사를 따라 도망쳐 버린다.
(판소리/심청전/판소리 열두마당/유준필/들불)

스님에게 죄를 씌운 사람

스님이 시장에서 짚신을 팔아 두 냥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스무 냥이 든 전대를 줍자 자기 돈 두 냥까지 전대에 넣은 후 주막 주인에게 맡겨 놓고 주인을 찾으러 나선다. 우연히 돈을 잃어버린 사람을 만나자 스님은 전대에서 두 냥을 집어내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데 그는 스님의 두 냥도 자기 돈이라고 우긴다. 결국 원님이 판결을 하게 되는데 현명한 원님은 두 사람 말이 다 맞다고 하면서 전대를 스님에게 주며' 스님은 스무냥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아보라' 하고 그 사람에게는 당신은 스물두 냥을 잃어버렸으니 스님이 주운 전대는 아니다.다시 잃어버린 전대를 찾으러 나가라' 한다. 스님이 스무 냥을 돌려주자 그 사람은 크게 잘못을 뉘우친다.
(동화/스무 냥의 임자는/한국 전래동화3/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

여름 장마에 떠 내려오는 사슴,뱀, 사람을 구해 주니 사슴은 산삼 있는 곳을 가르쳐 주어 부자가 된다. 구해 준 사람은 쓸 돈을 안 준다고 농사꾼을 도둑으로 몰아 누명을 씌우지만 뱀이 나타나 진실을 알릴 방법을 알려 준다. 농사꾼은 뱀에게 물린 사또를 구하고 누명을 씌운 사람을 옥에 가둔다.
(동화/사람을 구해 주었더니)

친구를 배신한 이생원

이종백이 암행어사가 되어 김제 관내에서 문서를 검사하다 남장 여도적을 발견하고 그녀가 욕심쟁이 이생원의 친구인 정생원인 것을 알아낸다. 정생원은 모든 재산을 이생원에게 맡기며 자기 딸을 이생원의 아들과 혼인시킬 것을 부탁하고 죽었는데 재산만 차지하고 딸을 내쫓았던 것이다. 이종백은 이생원을 잡기 위해 진짜 도둑을 보내 이생원의 친구가 되게 하고 돈을 받지 않는 선생과 머슴도 보낸 후 이생원을 잡아들여 문초를 한다. 도둑은 이생원과 한패라고 하고 선생과 머슴은 십 년 동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나중에서 정생원의 딸이 나타나자 이생원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된다.

(일화/남장 여도적/어사출또/민융기/하늘)

게으르고 욕심많은 윤보

덕보가 산신령에게 금도끼,은도끼를 얻은 이야기를 듣자 욕심쟁이 윤보는 연못가에 가서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빠뜨린다. 역시 산신령이 연못에서 금도끼를 갖고 나와 네 것이냐고 물으니 운보는 얼른 제 도끼라고 대답한다. 산신령은 욕심쟁이라고 꾸짖으며 목에다 혹을 하나 붙여 준다.

(동화/금도끼와 나무꾼/한국전래동화4/강수원/정원)

구렁이가 된 서울 부자

절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한 후 집으로 가는 세 아이에게 스님이 소원을 묻자 각기 부자, 평양 감사, 도승이라고 말하고 몇년 후 그 소원은 모두 이루어진다. 평양 감사가 행차하던 중 어릴 때 같이 공부하던 도승을 만나 그 절에 묵게 되는데 감사가 부자가 된 친구도 만나고 싶다 하자 도인은 부적을 던져 그 친구를 불러오는데 구렁이가 되어 나타난다. 도인이' 욕심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하며 감사의 요구대로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도인이 뒷뜰의 천도 복숭아 세 개를 따 오라고 하자 부자는 몰래 복숭아를 한 개 먹어치우고 그 벌로 구렁이가 되어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한다.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며 동네에 내려와 보니 어느 새 사십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다. (동화/구렁이가 된 서울 부자/한국 전래동화3/이원수. 손동인/창작과 비평사)

금기를 어긴 스님

강원도 주천(酒泉)에 술 샘이 있는데 퍼 마시면 술이 되는 샘이어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한 잔씩 마신다. 단 한 잔 이상을 마시면 안 되는 금기가 있었는데 고개를 넘어가던 스님이 샘물을 두 잔 떠먹는 바람에 평범한 샘물이 되고 만다.

(전설/소가 웃을 일이다/고려원미디어)

[악한형]_과욕형

다시 가난해 진 어부의 아내

마음씨 착한 어부가 항아리를 하나 건져 집으로 돌아오자 그 안에서 사내아이가 나와 소원을 세 번만 들어준다고 한다. 처음에는 쌀을,다음에는 부자집을 청해서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욕심 많은 부인은 어부에게 다시 새항아리를 건져오라고 시키고는 항아리 속의 동자를 불러 자기 얼굴을 미인으로 만든다. 미인이 되자 못난 어부를 버리고 왕비가 되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옛날의 모습으로 전부 돌아간다. 한편 어부는 바다에서 올라온 거북을 타고 용궁으로 들어가 공주와 결혼하게 된다.

(동화/욕심 많은 어부의 아내/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돈 만 아는 부자

부자 양반은 돈을 열심히 모으고 머슴 총각은 떡부스러기를 모으는데 장마가 닥쳐 온 동네 사람들이 산 위로 피신 한다. 돈 자루를 가지고 간 양반은 배가고파 견디지 못하고 결국 돈자루와 떡부스러기 한 줌하고 바꾸고 만다.

(동화/돈자루 떡자루)

만족할 줄 모르는 할머니

가난한 사냥꾼 할아버지가 함정에 빠진 사슴을 살려 주었는데 할머니는 사슴에게 기와집을 달라고 하라 한다. 그래서 기와집을 얻고 다음에는 세간살이도 얻었는데 또 하인도 얻어오라는 성화에 사슴에게 가서 소원을 말하고 왔더니 기와집은 다 없어지고 옛날의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할머니가 울고 있었다.

(동화/욕심 많은 할머니/한국전래동화2/강수원/정원)

벌을 받는 형

착한 아우가 잘 살게 된 내력을 듣고 욕심쟁이 형도 나무하러 가서 개암을 주우며 전부 자기 것이라고 한다. 아우처럼 그 집에 가서 있는데 역시 개암을 깨물으니 전에 우리를 속인 놈이 또 나타났다고 도깨비들이 끌어 내 혼찌검을 낸다.

(동화/금방망이 은방망이/옛날이야기/이영/예림당)

보물을 가로챈 공주

늙은 어머니가 죽으면서 큰아들에게는 돈이 나오는 구슬을 주고 둘째아들에게는 군인이 쏟아져 나오는 피리를 주고 막내아들에게는 몸이 보이지 않는 조끼를 주었다. 욕심이 많은 공주는 첫째,둘째 아들을 불러다 보물을 뺏고는 광 속에 가두고 막내아들을 불렀으나 막내 아들은 조끼를 입고 들어가 공주의 나쁜 소행만 알고 도망쳐 나왔다. 우연히 코가 길어지는 아가위 열매를 알게 되어 이것을 공주에게 팔아 공주의 코가 길어진 사이에 두 형의 보물을 되찾았다. 막내는 임금에게 두 형을 풀어달라고 빌었으나 임금이 말을 듣지 않자 군인이 나오는 피리를 불어 수천 명 무사가 쏟아져 나와 두 형을 살려낸다.

(동화/심술 나쁜 공주/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사돈집에서 망신한 삼촌

조카딸의 후행으로 사돈집에 간 삼촌은 밤중에 광 속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다가 배탈이 나서 바지에 똥을 쌌다. 개에게 그것을 핥아 먹게 했더니 개가 바지를 물고 도망쳐 버려 안방에서 마님의 고쟁이를 훔쳐 입는다. 아침 밥상에 올라온 은탕기를 갓 안에 감추었다가 신랑의 외조부와 인사를 나누는 바람에 모두가 탄로난다. 그런데 조카딸이 들어와' 사돈집에서 망신하면 병이 낫는다 해서 이렇게 되었다' 고 변명을 해 주어 위기를 모면하고 마음을 고친다.

(동화/사돈집에서 망신한 삼촌/한국 전래동화7/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소금장수와 숯장수를 삼킨 호랑이

금강산을 지나가던 소금장수가 재수 없게 산 만한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다. 호랑이 뱃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태백산 숯장수가 또 들어왔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눈 후 배가 고파지자 숯으로 불을 피워 내장을 베어서는 소금을 뿌려 구워먹었다. 호랑이가 뱃속이 아파 발버둥을 치다가 공중에서 떨어져 죽자 두 사람은 항문으로 기어나왔다. 그곳은 지리산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두 사람에게 옷과 여비를 주었고 또 임금에게 큰 상도 받았다.
(동화/호랑이 뱃속에서 만난 사람들/한국 전래동화9/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심술꾸러기 놀부

흥부의 형인 놀부는 마음씨 착한 흥부를 내어 쫓고는 재산을 독차지한 채 살면서 못된 짓만 골라 한다. 제사에 음식을 차리기는 커녕 돈으로 대신 놓고 지내고 양식 얻으러 온 흥부를 오히려 매질하기도 한다.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 주고 부자가 되었다고 하자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분질러서 고쳐 주는데 박 속에서 나온 인물들이 놀부의 재산을 거덜 낸다.
(판소리/흥부전/판소리 열두마당/유준필/들불)

아기가 된 욕심장이

깊은 산골의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파랑새가 가르쳐준 샘물을 먹고 젊은 사람이 되자 자기 부인도 샘물을 먹게 해서 젊은 부부가 되었다. 이웃의 욕심장이 영감이 이 말을 듣고 그 샘물을 찾아갔는데 영 돌아오지를 않았다. 부부가 샘에 가보니 그 영감은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 어린 아이가 돼 있었다.
(동화/젊어지는 샘물/한국 전래동화3/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욕심 내다 잃어버린 고기

우연히 만난 이리와 여우가 먹이를 구하러 다니다가 길에 떨어진 쇠고기를 발견한다. 이리와 여우는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우다가 원숭이에게 재판을 맡긴다. 원숭이는 고기를 공평하게 나눠준다며 한쪽 편의 고기를 조금 크게 잘라 놓자 이리와 여우는 크기가 다르다고 항의한다. 원숭이가 한 입의 고기를 베어먹고 견주어 보니 다른 쪽의 고기가 크므로 또 그 쪽의 고기를 베어먹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먹다 보니 양쪽의 고기덩어리는 아주 작아졌는데 그제야 이리와 여우는 울상이 되었다.
(동화/원숭이의 꾀/한국 전래동화4/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욕심 때문에 죽은 세 거지

세 거지가 우리도 복을 받아보자며 동냥해서 얻어 온 밥을 서낭님 부부에게 바친다. 몇 년이 지나자 안서낭님이' 거지들에게 이제 복을 주자' 고 하니 영감서낭님이' 아직 거지들의 수양이 부족하여 지금 복을 주면 세 거지가 다 죽는다' 고 하며 말린다. 안서낭님이 영감 서낭님 몰래 복을 주어 동냥 밥그릇에 금싸라기가 나타나자 세 거지는 신나게 놀아 보자며 어린 거지에게 술 심부름을 시킨다. 두 거지가 짜고 어린 거지를 죽이고는 그가 사 온 술을 마시고는 둘 다 죽는다. 어린 거지도 금을 독차지하려고 술에 독을 넣었던 것이다. 서낭님 부부가 와 보니 이미 세 거지가 죽어 있어 영감 서낭님의 말이 옳았음을 알게 된다.
(동화/서낭님이 거지에게 준 복/한국 전래동화9/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욕심 많은 노인

착한 혹부리 노인이 도깨비한테서 혹도 떼고 보물도 얻었다는 소리를 듣고 욕심쟁이 혹부리 노인도 도깨비를 찾아가나 혹이 노래주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안 도깨비들은 혹을 다른 뺨에 붙여 주며 혼을 낸다.
(동화/혹부리 영감님/옛날 이야기/이영/예림당)

욕심 많은 도둑

무엇이나 만들어내는 맷돌이 대궐에 있다는 것을 안 욕심 많은 도둑이 그것을 훔쳐 낸다.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며 비싼 소금을 내라고 말하면서 맷돌을 가니 소금이 끝없이 나와 배가 기우러져 도둑도 죽고 맷돌은 지금도 바다속에서 소금을 만든다.

(동화/소금을 만드는 맷돌/옛날 이야기/이영/예림당)

욕심 많은 부자

가난한 집 식구들이 무엇이라도 모아보자 하여 돌덩이를 모았는데 지주 영감이 보니 맨 위에 있는 돌이 금덩이라서 쌀 백 석과 맞바꾼다. 쌀을 실어 갈 때 맨 위의 쌀은 고사지내는 쌀이라고 주지 않으니 돌을 주면서 맨 위의 돌은 고삿돌이라고 주지 않아 큰 부자가 된다.

(동화/고삿섬과 고삿돌)

욕심 많은 사나이

꾀 많은 사나이가 가짜 금덩이를 부자에게 맡기고 3천냥을 빌려 간다. 가짜 금인 줄 알게된 부자는 이웃집 잔치에 가서 금덩이를 도둑맞았다고 소문을 내고 돈을 빌려간 사나이는 이 소문을 듣고 3천냥과 이자를 가지고 부자에게 와서 맡긴 금덩이를 내 놓으라고 다그친다. 부자는 얼른 돈을 받고 가짜 금덩이를 돌려준다.

(동화/자기 꾀에 속은 사나이/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욕심 많은 세 사람

목화 장수 네 사람이 목화창고의 쥐를 없애려고 고양이를 한 마리 사서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각자의 몫으로 정했다. 어느 날 고양이가 다리 하나를 다쳐 그 다리를 맡은 사람이 약이 되는 산초 기름을 발라 동여매 주었는데 아궁이 곁에 있다가 기름에 불이 붙어 고양이는 허둥지둥 목화창고에 들어가 뒹굴렀다. 순식간에 목화창고는 불타버리고 세 목화 장수는 아픈 다리를 책임진 사람에게 목화값을 물어내라고 한다. 결국 옥신각신하다가 원님에게 판결을 의뢰하는데 원님은 아픈 다리에 불이 붙은 고양이가 목화 창고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성한 세 다리 때문이니 당연히 그 다리 주인들이 목화값을 물어야 한다고 명판결을 하여 욕심쟁이들을 혼낸다.

(동화/다리를 다친 고양이/한국전래동화2/강수원/정원)

욕심 많은 심마니

세 사람의 심마니가 산삼을 캐러 갔다가 절벽 밑의 산삼을 발견하고는 둥구미를 만들어 마음씨 곧은 심마니가 타고 내려가 산삼을 캐서 올려 보낸다. 위의 두 심마니가 둥구미를 내던지고 도망간 뒤 절벽의 심마니가 이무기 도움으로 올라와 보니 두 심마니는 서로에게 독을 먹여 죽어 있다.

(민담/산삼과 이무기)

욕심 많은 원님

무엇이든지 넣었다가 꺼내면 그와 똑 같은 것이 나오는 항아리를 얻은 농사꾼이 이웃의 영감이 자기네 할아버지가 묻어 논 것이라 하여 원님에게 가져 간다. 원님은 항아리를 가로채 대청에 놓았는데 원님 아버지가 항아리에 빠지는 바람에 꺼내 놓았더니 모두 백 명이나 나와서 서로 아버지라고 싸운다.

(동화/이상한 항아리/한국구전동화/앞선 책)

욕심 많은 형

착한 아우가 할머니로 변신한 여우를 잡아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을 본 욕심 많은 형은 그대로 흉내를 내다가 진짜 할머니를 때려 큰 고역을 치룬다.

(동화/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정오/현암사)

욕심 많은 형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가 산 속에서 절구를 하나 줍는다. 집에 가져와 옥수수를 넣고 빻아 보니 금가루로 변하여 두 형제는 부자가 된다. 장가를 들어 분가하면서 서로 절구를 가져가려고 다투다 절구는 떨어져 못 쓰게 된다.

(동화/이상한 절구/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욕심으로 죽게 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어렸을 때 친구를 찾아가 돈이 나오는 황새 그림과 항아리 그림과 돈궤짝 그림을 얻으나 그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사용하라는 약속을 어기고 욕심을 내다가 감옥에 갇혀 친구와 함께 죽게 된다. 그래도 친구는 말을 그린 후 욕심장이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하늘로 사라진다.

(동화/소원을 들어주는 그림)

욕심이 지나친 형

내쫓은 착한 아우가 말하는 남생이를 얻어 큰 부자가 됐다고 하자 그 남생이를 얻어서 시장에 가지고 가나 남생이가 말을 안해 죽여 버린다. 또 아우가 남생이 무덤 곁의 나무에서 황금 열매를 땄다고 하자 그 가지를 꺾어다 심었더니 흙과 모래가 쏟아져 나와 집이 묻혀 버렸다.

(동화/말하는 남생이/한국전래동화3/강수원/정원)

욕심쟁이 농사꾼

어느 해에 농사꾼이 무농사를 지었는데 큰 것이 어린아이 몸뚱이만 해서 원님에게 바쳤더니 기특하다고 송아지를 준다. 욕심쟁이 농사꾼이 이 말을 듣고 살찐 송아지를 원님에게 바쳤더니 요새 들어온 귀한 물건이라며 큰 무를 내어 준다.

(동화/송아지와 바꾼 무)

이리가 된 스님

할아버지 부부가 친자식처럼 키우던 개가 죽자 뒷산 절간의 스님에게 다시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돈부터 내라고 한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개를 묻으려고 구덩이를 파다가 금덩이를 발견한다. 할아버지는 스님에게 금을 주고 개를 살리려고 하니 스님은 구덩이에서 나온 금덩이를 모두 달라고 한다. 할아버지는 그냥 돌아와 개를 양지 쪽에 묻어 주었는데 그날 밤 스님이 이리의 가죽을 쓰고 금덩이를 훔치러 온다. 할아버지를 위협해 금덩어리를 모두 챙겨 도망가려는 순간 스님은 진짜 이리로 변해 손으로 움켜쥘 수가 없자 도망을 치고 만다.

(동화/이리가 된 욕심 많은 스님/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집안을 망친 욕심쟁이 부자

욕심쟁이 허서방은 동냥 온 노승의 발우에 똥을 담아 주었다. 이웃집의 가난한 양서방이 이것을 보고는 발우를 깨끗이 씻어 공양을 담아 드렸더니 노승은 방에 머물며 짚단으로 많은 돈을 만들어 양서방에게 주었다. 양서방의 이야기를 들은 허서방은 다음 해에 노승이 나타나자 크게 대접하며 자기를 위해 도술을 부려 줄 것을 부탁했다. 노승은 짚단으로 허서방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라지니 그 때부터 두 허서방은 자기가 주인이라며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서로 제 마누라라고 싸우며 관가에 송사해도 누가 진짜인 줄 가려내지 못해 돈과 물자가 낭비돼 가산이 거의 탕진하였다. 그 때 노승이 나타나 허서방을 꾸짖으며 가짜 허서방을 짚단으로 만들어 놓고 사라진다.

(민담/파수록/부묵자/태평한화/신원출판사)

황소와 감을 바꾼 사람

착한 사람이 정성껏 기른 큰 감을 임금님께 바치자 임금님은 그 상으로 금덩어리를 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같은 마을의 욕심장이는 소를 바치기로 하고 임금님께 갔다. 임금님은' 요즘 들어온 귀중품이 무엇이냐' 고 묻더니 농부가 가져다 준 감을 도로 내어준다.

(동화/황소 잃고 감을 얻은 욕심쟁이/한국전래동화3/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코가 길어진 부자

인정 많은 가난뱅이 영감은 부자 영감집에서 쫓겨온 노인을 재워주고 코가 길어지는 빨간 부채와 코가 높아지는 파란 부채를 얻는다. 부자 영감은 강제로 가난뱅이 영감과 집을 맞 바꾸고 좋아하다 길어진 코가 옥황상제의 궁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하늘에서 떨어져 죽게 된다.

(동화/빨간 부채 파란 부채/한국전래동화3/이원수.손동인/창작과비평사)

호랑이 밥이 된 형

착한 아우가 푸른 구슬을 얻어 부자가 되었다고 하자 욕심장이 형은 아우가 말하는대로 산꼭대기에서 푸른 구슬만 가져 오지 않고 붉은 구슬도 갖고 온다. 집에서 푸른 구슬을 던져 황소가 나오는데 붉은 구슬을 던졌더니 호랑이가 나타나 황소를 잡아 먹는다. 그래도 다시 한번 던졌더니 호랑이가 나와 그만 형을 먹어버린다.

(동화/푸른 구슬 붉은 구슬/한국전래동화2/강수원/정원)

[악한형]_과시형

대장장이에게 진 장사

씨름판에 가면 늘 황소를 타 오는 시골 장사가 어느 날 호미를 사려고 대장간에 간다. 대장장이는 곱사등이였는데 장사가 굽은 호미를 두 손으로 쫙 펴는 것을 보자 그것을 집어 배배 새끼를 꼬았다. 장사가 깜짝 놀래 사과를 하자 대장장이는 힘자랑하다 병신이 되었다면서 겸손하도록 타이른다.

(동화/쇠로 새끼 꼬는 대장장이/한국 전래동화7/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악한형]_아첨형

아들이 죽는 날에 잔치열던 임사홍

연산군이 임사홍의 집에 갔는데 임사홍의 아들인 임희재의 시를 보고' 나를 진시황에 비유한 괘씸한 놈이니 죽여야겠다.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임사홍은 오히려 맞장구를 쳐서 죄도 없는 아들이 죽게 되었다. 아들이 처형되던 날, 임사홍은 집에서 잔치판을 벌렸고 연산군은 이를 알고 충신이라고 하였다.

(일화/시 때문에 죽은 임희재/선인의 명언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악한형]_음모.
지모형

간사한 여우

동물의 왕인 호랑이가 병들자 여러 동물들이 문병을 온다. 간사한 여우는 매일 문병을 오면서 아양을 떠는데 볼일이 있어 늦게 나타난 멧돼지에게 꾸지람을 하며 호랑이에게 죽이라고 권한다. 멧돼지는 오히려 병환에는 여우의 간이 좋다며 여우가 간을 드려 호랑이의 병을 고쳐 드리라고 역습한다.

(동화/멧돼지의 앙갚음/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간악한 솔개

황새가 새끼 일곱 마리를 낳았으나 먹이를 구하러 가야만 하는데 사나운 짐승들이 새끼를 잡아 먹을까봐 떠나지를 못한다. 마침 솔개가 잔디밭에서 마른 풀만 주워먹으며 자기는 생명있는 풀도 함부로 못 먹겠다고 능청을 떤다. 황새는 솔개에게 집을 맡기고 먹이를 구해 돌아왔더니 새끼들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황새는 너무 울어 목이 길어졌는데 하느님은 이를 불쌍히 여겨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만들고 솔개는 가까운 곳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동화/능청맞은 솔개/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개구리 지혜에 진 여우

여우가 개구리를 만나자 지혜를 겨뤄 개구리를 잡아 먹으려 한다. 개구리는 등이 울퉁불퉁한 것은 홍수를 막기 위해 큰 돌을 등에 졌기 때문이고 눈이 노란 것은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라 한다. 개구리는 여우에게 몸의 털이 몇 개냐고 물어보아 대답을 못하게 하고 영웅은 혀를 목구멍 안쪽으로 넣을 수 있다는데 그렇게 해 보라며 여우의 기를 죽인다.

(동화/큰소리치다 도망친 여우/한국 전래동화7/손동인/창작과 비평사)

교활한 중 일운

허성이 청탁을 받으면 반대로 해 준다는 것을 안 홍덕사의 중 일운은 허성을 찾아가서는' 평양의 여명사는 산수가 맑은 명승이라 하니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지리산 단속사로 가면 저의 계획은 다 그르칩니다' 라고 하였다. 허성은 이 말에 속아 일운을 단속사로 보냈다.

(일화/필원잡기/서거정/고전국역총서49)

굶게 된 구두쇠 영감

눈오는 날 점심밥도 없이 마당쇠를 데리고 사냥을 떠난 구두쇠 영감은 꿩을 한마리 잡는다. 불에 구운 후 영감은 시를 지은 사람이 다 먹자고 하고 마당쇠에게' 까' 자를 집어넣어 석 줄을 지으라고 한다. 마당쇠는' 다 구워졌을까,맛이 있을까,어디 먹어 볼까' 하면서 혼자서 꿩을 다 먹어 버린다.

(동화/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한국전래동화/웅진출판)

당나귀 귀를 가진 임금님

귀가 당나귀처럼 커진 임금님이 이를 감추려고 갓장이를 시켜 큰 갓을 만들고 비밀을 지키라고 한다. 갓장이는 비밀을 말하지 못해 병이 나고 죽기 전에 대숲에 가서 크게 비밀을 말하니 그 때부터 바람이 불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는 소리가 나서 온 백성이 알게 된다.

(동화/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한국전래동화3/이원수.손동인/
창작과비평사)

명당이 탐 난 부자

홀어미와 외아들이 사는 집터가 정승 판서와 만석꾼이 날 명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부자가 그 집을 사려고 하나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이라고 팔지를 않는다. 부자는 가짜 산신령이 되어 매일 밤 앞뜰 감나무 위에서 호통을 치나 이를 눈치 챈 아들이 오히려 혼을 내고 십년 후에는 과거에 급제한다.

(민담/가짜 산신령)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

아들청개구리는 엄마청개구리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만 행동을 한다. 엄마 청개구리는 결국 병이 나서 죽게 되고 냇가에다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다 묻어줄 줄 알고 아들 청개구리에게 냇가에 묻어 달라 한다. 그때에야 후회하며 아들청개구리는 엄마를 냇가에다 묻고는 비만 오면 무덤이 떠내려 갈까 봐 개굴개굴 운다.

(동화/말 안 들은 청개국리/한국전래동화/웅진출판)

사나운 원님

사납고 괄괄한 원님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관속들이 꾀를 내어 심부름꾼에게 원님의 뺨을 때리게 한다. 원님은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나 모두들 원님이 실성을 했다고 몰아세운다. 원님은 더욱 화가 나고 이곳을 지나던 감사에게 사실을 말하자 오히려 정말 미쳤다고 파직을 시킨다.

(민담/사나운 원님 길들이기)

상놈의 아내를 빼앗은 양반

어느 양반이 이웃집 상놈의 아내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욕을 퍼붓자 대항을 못하더니 얼마 후에는 오히려 관가에 호소하였다. 원님은 양반의 허물은 법률 조문에 없으니 무죄이고 상놈이 양반을 모욕한 죄는 세 차례 고문한 뒤 먼 곳으로 귀양보내야 한다' 고 하였다. 상놈이 거꾸로 옥에 갇히니 그 어머니가 양반을 찾아와 사정하지만 끝내 듣지 않는다. 할 수 없이 상놈의 아내가 사죄하러 갔더니 양반이 방 안으로 끌어들여 정을 통하고는 상놈을 풀어주었다.

(민담/성수패설(작자 미상)/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김영만/을유문화사)

색시를 탐낸 스님

마음에 둔 처녀가 시집을 간다는 소리를 엿듣고 스님은 그 집에 가서 액운이 끼었다며 자기에게 시집을 와야 한다고 한다. 다음 날 색시를 궤짝에 넣어 절로 가다가 사냥나온 감사 일행과 부딪쳐 궤짝을 버리고 숲에 숨었더니 감사는 궤짝 속의 처녀를 구해 주고 대신 호랑이를 넣어 두는데 스님은 다시 궤짝을 가지고 가서 열어 본다.

(민담/색시 궤짝 범 궤짝)

욕심 많은 사람

남이 잊어먹고 간 것을 제것으로 삼는 주막 주인이 돈궤를 맡긴 손님에게 그 사실을 잊어먹게 하려고 호박씨 닷되를 까 먹인다. 호박씨를 많이 먹으면 건망증이 생긴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손님은 아침에 일어나 돈궤를 찾아서 떠나버린다. 그러고 보니 방값, 밥값,술값까지 잊어버리고 가 버렸다.

(민담/호박씨를 먹이면)

[악한형]_사기형

의뭉스러운 사위

정승 장인이 벼슬을 주지 않자 사위는 정승의 백마를 훔쳐내 먹칠을 해서 다시 바치고는 현감이 된다. 비 때문에 사실이 탄로나자 정승 아들이 제 매부를 잡으러 내려오지만 오히려 계략에 빠져 백 년이 지난 뒤의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아버지더러 내가 증조부라고 우기는 말을 한다.

(민담/아비냐 증손자냐)

자신의 죄를 안남곤

남 곤은 글을 잘 지어 이름을 떨쳤으나 조광조와 틈이 생기자 다른 재상들을 설득하여 조광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귀양보내거나 죽인 장본인이다. 어느 날 그는 일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다고 평하는가' 라고 묻더니' 소인이라고 욕을 한다' 는 대답을 듣고는 하인을 시켜 평생 동안 쓴 자기의 글을 모조리 불태워 하나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미리 방비하였던 것이다.

(일화/기묘사화를 일으킨 남 곤/선인의 명언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지모로 소를 뺏는 도둑

장날 저녁 때 산길 오르막에다 비싼 신 한 짝을 떨구어 놓고 고개 내리막길에다 또 한짝을 떨구어 놓는다. 소장사가 외짝신은 소용없다며 고개를 넘어 와서는 신발짝이 있으므로 소를 놔 두고 고개를 다시 넘어 다른 신발짝을 줏으러 간다. 소도둑은 유유히 소를 끌고 도망친다.

(민담/소도둑의 고무신 작전/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김영만/을유문화사)

고양이를 속인 쥐

옥황상제가 모든 동물에게 어느 날 대궐 앞에 오는 순서대로 상급을 준다고 명하는데 쥐는 고양이에게 모이는 날이 다음 날이라고 속인다. 소 등을 타고 가던 쥐는 대궐 앞에서 뛰어내려 제일 먼저 도착하고 호랑이,토끼,용 등이 줄지어 들어와 12띠라는 영원한 벼슬을 받는다. 다음날 도착한 고양이는 쥐와 원수가 된다.

(민담/12띠의 유래/소가 웃을 일이다/고려원미디어)

제 꾀에 죽은 토끼

약아빠진 토끼가 두부 일곱 모를 가지고 시장에 가는 착한 호랑이를 속여 두부를 빼앗아 먹고 결국에는 호랑이도 죽여서 고기를 먹는다. 짐승 그물에 걸리자 파리를 불러들여 죽은 체 하고 있다가 살아나지만 독수리의 발톱에 채여 하늘로 올라간다. 토끼가' 하느님께서 부르셔서 가는 길' 이라고 속이니까 독수리는 놀래고 겁이 나서 토끼를 떨어트려 죽이고 만다.

(동화/약은 토끼의 죽음/한국 전래동화1/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두더지가 된 며느리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언제나 고기 반찬을 드리는데 집을 떠나 있게 되자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떠났다.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고기 대신 지렁이를 드리고 자기가 고기를 먹는다. 어머니는 고기를 감추었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먹으라고 꺼내주니 아들은 지렁이를 보고 깜짝 놀란다. 이 때 벼락이 며느리를 쳐서 죽이고 죽은 며느리의 혼은 두더지가 되어 지렁이만 먹고 살게 된다.

(동화/두더지가 된 며느리/한국 전래동화4/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재물만 탐내는 딸들

딸 셋과 양아들을 키워 결혼시킨 영감이 딸들 집에 갔더니 전부 푸대접을 하고 양며느리만 극진한 대접을 한다. 딸들 집에 거짓 부고를 냈더니 딸들은 거짓 울음을 울며 재산만 탐내는 말을 하고 영감은 부아가 나서 모든 재산을 양며느리에게 물려준다.

(민담/거짓 죽음에 거짓 울음)

마음 고친 불효자

불효자가 효자의 집에 가서 효도하는 법을 배운 후 집에 돌아와 그대로 행하지만 효도를 받아 보지 못한 아버지는 트집만 잡는다. 효자가 불효자의 아버지에게 모든 말씀을 드린 후에야 불효자는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동화/불효자의 진심/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벌 받은 가짜 효자

어느 감사가 거지 차림으로 돌아다니다 효자로 소문난 집에 머문다. 효자는 잔칫집에 가며 어머니에게는' 손자를 보며 벼를 말리라' 하고 아버지에게는' 소 둘을 끌고 풀 먹이러 갔다 오라' 한다. 이 효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늘' 우리 부모님은 그만 쉬시라고 해도 놀면 뭘 하느냐고 일을 하신다' 고 소문을 낸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었다. 또 다른 효자집에 갔더니 그 효자는 부모에게 고깃국과 생선을 늘 구워서 올리는데 실제로 그것을 먹는 사람은 늙으신 부모가 아니라 그 상에서 밥을 먹는 손자들이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생색을 내면서 어린 자식들이 배앗아 먹게 만드는 가짜 효자의 모습을 안 감사는 관청에 돌아온 후 두 가짜 효자를 불러 멍석말이를 시켰다.

(민담/벌 받은 가짜 효자/한국 전래동화9/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악한형]_오만형

거만 떠는 울산 병사

정승 정약보가 말을 모는 아이 하나만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다 주막에서 머물게 되었다. 저녁상을 받는데 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울산 병사가 들이 닥친다. 주막집 주인이 방이 없어 정약보의 밥상을 웃목으로 밀어놓고 야단법석이다. 방으로 들어선 울산 병사는 온갖 거만을 떨더니 장기를 두자고 한다. 장기판이 무르익어 울산 병사가 승세를 타자 쫓아 온 구종들이' 울산 병사 장군' 이라고 고함을 지른다. 정약보를 따라온 아이가 마침 정승이 승세를 타자' 대광보국 숭록대부 장군' 이라 소리를 치니 울산 병사는 문 밖으로 뛰어나가 대죄를 드린다. 정약보는 아이를 꾸짖은 후 울산 병사와 하룻밤을 같이 지냈다.

(민담/요절일화집/임경일/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을유문화사)

거지가 된 임금 1

너무도 거만한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목욕을 하는 사이 어떤 사람이 몰래 왕의 옷을 입고 왕궁으로 돌아간다. 왕은 누더기를 걸치고 걸어서 왕궁으로 돌아가지만 문지기들은 왕을 쫓아내 버린다. 왕은 갖은 고생을 하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 그러자 다음 날 왕은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가 자신을 대신한 하늘나라 사람을 만나게 된다.

(동화/거만하여 거지가 되었던 임금/한국 전래동화7/손동인/
창작과 비평사)

거지가 된 임금 2

너무도 거만한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목욕을 하는 사이 어떤 사람이 몰래 왕의 옷을 입고 왕궁으로 돌아간다. 왕은 누더기를 걸치고 걸어서 왕궁으로 돌아가지만 문지기들은 왕을 쫓아내 버린다. 왕은 갖은 고생을 하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 그러자 다음 날 왕은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가 자신을 대신한 하늘나라 사람을 만나게 된다.

(동화/거만하여 거지가 되었던 임금/한국 전래동화7/손동인/
창작과 비평사)

도사를 업신여긴 선비들

부잣집 사랑에 도사가 들어가자 먼저 와 있던 선비들이 아니꼬워하며 시짓기를 해서 쫓아내려 한다. 도사는 종이에 바다 그림을 그려 도술로 방 안의 사람들을 배에 싣고 어느 섬으로 간다. 금지된 과일을 따 먹고 풍랑을 만나는데 비명소리에 놀란 주인이 방문을 열어보니 시렁 밑에 매달아 놓은 메주를 먹거나 주머니에 넣고 있다.

(동화/망신당한 선비들/한국구전동화/앞선 책)

마음 바꾼 소녀

귀엽게만 자란 외동딸은 자기 밖에 몰라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친구도 없다. 어느날 방구석에서 나온 새앙쥐가 쌀알을 발견하고는 어미쥐를 데리고 나와 먹는 것을 보고는 마음을 고치게 된다.

(동화/쥐에게서 배운 소녀/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악한형]_나태형

게으른 사나이

쌀 한 톨로 밥을 하면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던 때 한 게으른 사나이가 매번 밥을 짓기가 싫어 쌀을 많이 넣고 밥을 짓는다. 게으른 사람은 솥에서 쏟아져 나온 밥 때문에 묻혀 죽고 하느님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
(동화/쌀/한국구전동화/앞선 책)

게으른 아이

온종일 잠만 자는 게으른 아이가 황소에게 너처럼 한가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황소는 옷을 벗어 달라고 한다. 그러자 황소는 아이가 되고 아이는 황소가 되는데 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지우며 황소를 몰고가려고 매질을 한다. 황소가 된 아이는 엉엉 울다가 잠에서 깨어나고 그 때 부터는 부지런한 아이로 바뀌게 된다.
(동화/황소가 된 아이/한국전래동화4/강수원/정원)

게으른 아이

소처럼 먹고 자는 것이 소원인 아이가 노인에게 소의 탈을 얻어 쓰고 진짜 소가 되어 팔려 간다. 아이는 하루 종일 논과 밭을 갈면서 고생하다가 무우를 먹고 도로 아이가 된 후 부지런한 아이가 된다.
(동화/소가 된 잠꾸러기/옛날 이야기/이영/예림당)

[악한형]_인색.
이기형

구두쇠 변계량

대제학을 지낸 변계량은 인색하기로 유명하였는데 남에게 빌려 주거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도 없었다. 참외나 수박을 먹어도 남은 게 있으면 표시를 해두고 술잔도 계산하는 사람이었다. 세종과 재상들이 많은 음식을 보냈는데 혼자 다 먹을 수 없어 구더기가 생겨도 하인에게 주는 법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게 했다.
(일화/구두쇠 변계량/선인의 명언 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구두쇠로 유명한 자린고비

춘천의 구두쇠 토목공이 충주의 구두쇠 자린고비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는데 자린고비가 사돈 집에 와 보니 밥상에 자반고기가 올라 왔다. 자린고비는 이 비싼 자반고기를 어찌 밥상에 올리느냐며 한 마리만 찬장에 매달아 놓고 밥 한술을 뜰 때마다 고기를 쳐다보면 된다고 하여 토목공이 항복을 한다.
(동화/자린고비/한국전래동화3/강수원/정원)

뉘우치는 구두쇠

인색한 구두쇠가 서울로 가며 할 수 없이 곳간 열쇠를 아내에게 맡기고 떠나자 아내는 곳간을 열고 동네 사람에게 인심을 베푼다. 한강을 건너던 구두쇠는 이무기가 나타나 너는 아내 때문에 살았다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감사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 된다.
(동화/착한 아내 때문에/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마음을 고친 구두쇠

유명한 구두쇠 영감이 아들들을 다 결혼시키고도 살림을 내어주지 않아 불평이 많았다. 어느 친척이 찾아와 구두쇠 영감에게' 오는 도중에 상여를 만났는데 두 팔이 관 밖으로 나와 있었다. 죽은 사람이 유언하기를 평생 구두쇠로 살았지만 죽을 때는 아무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고 말했다 한다. 구두쇠 영감은 감동을 받아 아들들을 분가시키고 재물을 쓸 데는 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동화/구두쇠 영감/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못말리는 구두쇠

자린고비는 뚫어진 문구멍 바를 종이를 주워오나 문구멍 보다 작아서 그 종이에 편지를 써서 달랑곱재기에게 보낸다. 답장을 쓴 종이로 문구멍을 바르려는 심산인데 소식이 없어 가 보니 달랑곱쟁이는 종이가 없어 답장을 못 보냈다 한다. 문구멍에 바른 편지를 자린고비가 뜯어 오니 달랑곱재기는 붙은 밥알을 떼 놓고 가란다.

(민담/자린고비와 달랑곱재비)

스님도 매질하는 옹고집

포악한 구두쇠 옹고집이 시주하러 온 스님을 매질하자 스님은 도술로 똑 같은 옹고집을 만들어 진짜 옹고집의 집으로 보낸다. 당연히 한 바탕 소동이 나는데 결국은 진짜 옹고집이 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온갖 고생을 하게 된다. 그 때에야 마음을 고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법도 얻게 된다.

(동화/옹고집 이야기/한국전래동화3/강수원/정원)

자기 목을 자르려는 구두쇠

지독한 구두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간단하게 장사를 치루고는 제사도 지내지 않아 구두쇠의 아버지는 몹시 배가 고팠다. 염라대왕에게 하소연을 하니 이상한 감투를 하나 주어서 그것을 아들에게 씌웠더니 잡귀신을 뗀다고 물밥을 말아 내동댕이쳐서 그것을 얻어먹었다. 배가 고프면 아들에게 감투를 씌워 두통이 생기게 하고 또 물밥을 얻어먹으면 감투를 벗겨주는데 제대로 된 제사밥을 얻어먹으려고 감투를 벗겨주지 않았더니 구두쇠 아들은 도끼로 자기 목을 자르려 한다.

(동화/이상한 감투/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자기만 아는 사람

동시에 죽은 두 사람이 같이 저승길을 가는데 염불 잘 하는 사람은 계속 앞서 가고 뒤에 쳐진 사람은 엉터리로 염불을 하면서 간다. 염라대왕이 저 혼자 좋은 곳에 가겠다고 동행을 뿌리친 것은 죄가 크다고 하면서 앞에 온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뒤에서 엉터리 염불 한 사람은 극락으로 보낸다.

(민담/저승길도 같이 가라)

죽어서도 빈틈 없는 수전노

어느 인색한 사람이 자기가 죽은 후 아들들이 돈을 낭비할까봐 걱정이 되어 큰아들을 불러서' 장례 경비가 얼마나 되겠느냐' 고 물어보니' 3,4,백냥이 넘겠다' 고 하자 집안 망칠 자식이라고 한다. 다시 둘째 아들에게 물어보니' 겉치레 없이 아껴쓰면 4,50냥이면 족합니다' 하였는데 그는' 네 형보다 조금 낫구나' 하였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에게 물어보니' 시신을 깨끗이 씻어 푹 삶아 시장에 내다 팔면 네댓 냥은 벌 수 있습니다' 하였다. 그는 네 말이 최고다.그러나 절대 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

(민담/교수잡사(작자 미상)/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김영만/을유문화사)

[악한형]_음탕형

꼬리치는 여인

암행어사 조위가 충청도 연풍 땅에서 방이 하나 뿐인 주막에 들렀는데 여주인이 자꾸 자고있는 조위에게 접근해 온다. 조위는 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꺽어와 여주인의 종아리를 때리려 하는데 그 때 남편이 나타나 조위에게 감사하며 부끄럽다고 사죄한다.

(일화/음탕한 여인/민융기/어사출또/하늘)

욕심 때문에 죽은 원님

길을 가던 원님이 예쁜 처녀를 보자 자기의 첩으로 삼으려 하나 말을 듣지 않자 산에 가서 머루를 따오라고 시킨다. 처녀는 산으로 갔다가 맨 손으로 돌아와서는' 독사가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다' 고 하니 원님은' 이른 봄에 무슨 독사가 있느냐' 고 되묻는다. 처녀가' 그럼 이른 봄에 무슨 머루가 있겠느냐' 고 대답하자 원님은 화가 나서 처녀를 연못에 빠뜨린다. 사람들이 처녀를 구해 다른 곳으로 보내고는 죽었다는 소문을 낸다.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던 처녀는 커다란 벼 이삭과 옥수수,감자를 구해서는 원님에게 돌아와 용궁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원님은 보물 욕심에 연못으로 가서 용궁의 문을 찾다가 빠져 죽는다.

(동화/욕심 많은 원님/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집안망신

새색시가 건넛집 총각과 이야기하다 시어머니에게 들켰더니 그 때부터 무슨 일만 있으면 이것을 들고 나와 며느리를 공격했다.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제 년은 젊어서 바람피우다가 광주리만한 북을 매고 세 동네를 돌아다니는 망신을 당했다' 는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같은 이야기로 며느리를 또 꾸짖자 며느리가 대어들으니' 김치 단지 만한 북을 매고 두 동네를 돌았을 뿐' 이라며 무색해 한다.

(민담/집안 망신/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해학형]

[해학형]_아둔형

개암 소리에 놀란 도깨비

산 속 빈집에 모여서 놀던 도깨비들이 착한 아우가 깨무는 개암 소리에 놀라 도깨비 방망이를 버려둔 채 도망간다.

(동화/금방망이 은방망이/옛날 이야기/이영/예림당)

거울에 절하는 농부

고지식하지만 효성스런 농부가 아버지가 돌아가자 몹시 슬퍼하던 어느 날 시장엘 가서 어느 기둥에 걸려 있는 물건에 자기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보고 그 물건을 샀다. 집에 돌아와 그 물건을 상자 속에 모시고는 매일 문안을 드리는데 이를 이상히 여긴 아내가 그 물건을 찾아내 들여다 보고는 남편이 첩을 들였다고 난리를 친다. 또 시어머니가 이 물건을 보고는 첩의 어미까지 끌고 왔다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이웃집 사람이 와서 보고는 웃음을 참지 못한다. 그것은 그 때 까지 잘 쓰지 않던 거울이었다.

(동화/거울 소동/한국 전래동화4/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건망증이 심한 사람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대변이 마려워 버드나무에 망건과 갓을 매달아 놓고 그 밑에 앉아 일을 보았다. 일을 마치고 일어나면서 망건과 갓이 머리에 부딪치자 그는 벌써 잊어버리고' 어느 놈이 망건과 갓을 여기에 매달아 놓았다' 며 침을 뱉더니 또 대변을 보고는 더러운 녀석이 똥을 싸고 내뺏네' 하였다.

(민담/버려진 망건과 갓/한국 전래동화3/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해학형]_아둔형

건망증이 심한 할아버지

건망증이 심한데다 글도 모르는 영감님이 새로 하인 하나가 들어와 배씨라고 말하자 종이에다 배를 하나 그린다. 성을 잊을까봐 그렇게 한 것인데 며칠 뒤 그 하인을 부르려고 종이를 꺼내보니 웬 공이 하나 그려져 있어 공서방을 여러 번 부르지만 대답이 없다. 배서방이 무슨 일인가 해서 와 보았더니 영감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마구 화를 낸다. 저는 배서방이라고 대답을 하기에 종이를 다시 보니 꼭지를 잊어먹고 그린 배가 그려져 있었다.

(동화/꼭지 없는 배/한국 전래동화4/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골탕 먹는 도깨비

도깨비와 친구가 된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피를 제일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자기는 돈이 제일 무섭다고 말한다. 온 집안에 피를 뿌려 도깨비를 쫓으니 도깨비는 돈을 가져 와 마당 가득히 뿌려 놓는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골탕먹는 호랑이

늦게 본 외아들이 호랑이에게 잡혀 가자 아버지는 호랑이 굴로 찾아 간다. 굴안에서 살아있는 외아들을 찾고서 꼬리부터 들어오는 호랑이의 ?알을 세게 잡아당기자 호랑이는 놀래서 도망가며 뜨거운 홍똥을 싼다. 그 똥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마에 떨어져 대머리가 되고 그때부터 대머리가 퍼지기 시작한다.

(민담/대머리의 유래/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골탕 먹는 호랑이

가을에 농사지어 짠 들기름을 강아지가 다 먹어버리자 화가 난 주인은 호랑이 밥이나 되라고 산 속에 매어 노니 호랑이가 삼키면 항문으로 나가고 또 삼키면 항문으로 나가 여러 마리를 한 줄에 꿰어 논다.

(동화/기름 강아지/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골탕먹는 호랑이

피리 잘부는 나무꾼이 호랑이를 만나 나무 위로 올라 간다. 그러자 대 여섯 마리의 호랑이가 모여 서로 무등을 타고 올라오고 나무꾼은 마지막으로 피리를 분다. 그런데 맨 밑에 잇는 놈이 무당호랑이여서 춤을 추기 시작하자 다른 놈들이 떨어져 땅에 부딪쳐 죽는다. 나무꾼은 계속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온다.

(동화/춤추는 호랑이/호랑이/손도심/서울신문사)

골탕먹는 호랑이

소금장수가 호랑이가 변신한 사람의 집에 신세를 지는데 호랑이인 것을 눈치 채고는 방울이 딸랑새라며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짐승의 창자를 뜯어먹는 새라고 한다. 밤이 깊어 호랑이의 허리에 방울을 달아 놓고 딸랑새가 없어졌다고 흔들어 깨우니 호랑이는 정신없이 뛰어 도망간다.

(동화/딸랑새/한국구전동화/앞선 책)

골탕 먹는 호랑이

어린 남매만 있는 집에 호랑이가 찾아와서 문으로 들어가려다 바늘에 찔려 당하고 아궁이로 들어가려다 연기에 질려 당하고 지붕을 뚫고 들어가려다 뜨거운 감자에 당한다. 결국 좁쌀 다섯말을 다 찧고 난 호랑이는 지치고 그때 돌아온 부모에게 잡히고 만다.
(동화/방아 찧는 호랑이)

골탕먹은 호랑이

숯장수는 숯 팔러 시장에 가고 산 속에 혼자 남은 아내에게 호랑이가 와서 먹을 것을 달랜다. 줄 것은 없고 아침에 개가 낳은 강아지 세 마리가 있어 한 마리를 던져 주었더니 호랑이는 넙죽 받아 먹고는 가지 않아 또 한마리를 던져 준다. 그래도 가지 않아 화로 속에 있던 돌을 해진 솜에 싸서 던졌더니 호랑이는 또 강아지라 생각하고 받아 삼켜서 죽게 된다.
(동화/호랑이 잡은 산 색시/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골탕먹는 호랑이

순진한 농사꾼이 호랑이 미끼로 쓰는 노인의 망태에 스스로 들어가 나무에 매달리고 호랑이들은 농사꾼을 잡아 먹으려고 뛰어오르다 망태 밑의 말뚝에 찔려 죽는다. 농사꾼은 노인과 함께 호랑이 가죽을 팔아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동화/호랑이 잡는 망태)

공부에 질린 아들

농사일 안하고 글공부를 하겠다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통버선 신고 갓 쓰고 무릎 꿇고 단정히 앉아 책만 읽어야 한다고 허락을 한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자 사흘째에는 다 벗어던지고 일하러 나간다. 그러면서 소가 말을 안들으면' 너도 통버선 신고 갓끈 조이고 방에서 글만 읽을테냐' 고 위협을 한다.
(민담/통버선 신고 갓끈 조이고)

기생의 잔꾀에 속은 김가측

김가측은 모처럼 기생 하나를 사랑했는데 실은 도둑질이 능한 기생이었다. 그 기생이' 부호의 자제들은 담백한 음식만을 좋아한다' 하니 그 때부터 채소와 과실만 먹고 이질에 걸렸다. 기생이 또 귀한 집안 자제들은 대변을 더디 본다' 하였더니 김가측은 변소에 가서 오래 앉아 있었다. 그 사이 기생은 김의 모든 재산을 갖고 도망쳐 버렸다.
(민담/태평한화골계전/서거정/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을유문화사)

깃털을 뱀으로 안 나뭇꾼

나무 하러 간 아이가 장끼의 꽁지 깃털을 주워 머리의 수건에 꽂고는 샘물을 마시러 갔다가 기다란 깃털이 물에 비추면서 마치 꽃뱀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착각한다. 나무꾼은 꽃뱀이 뱃속에 들어가서 창자를 갉아먹는다고 진짜 앓아 눕는다. 먼 곳의 의원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나무꾼을 데리고 산 속의 샘물로 가서 장끼의 깃털 대문에 생긴 마음의 병임을 밝혀준다.
(동화/짱끼의 꽁지 깃에 놀란 나무꾼/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남 따라 하는 바보

어느 바보가 초상집에 문상을 가서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남을 따라 하는데 처음에는 영감님이 문상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들어가 영감님이 쓰는 말투를 써서 상주에게 꾸지람을 듣는다. 두번째는 젊은 사람을 따라 들어가 그대로 하는데 상주가 화를 내자 처음 문상은 아버님 것이고 이번 문상은 자기 몫이라 하여 위기를 모면한다.

(동화/상가에간 바보/한국전래동화2/강수원/정원)

너무 우둔한 아이

미련한 정승 아들을 석 달을 가르쳤으나 글자 하나를 알지 못하니 훈장은 '소보다 미련하다'고 한다. 정승은 화가 나서 소를 가르쳐 보라 하고 훈장은 '하늘 천'과 '땅 지' 두 글자를 소에게 가르친다. 석 달 열흘 후에 소는 글자를 아는 시늉을 하고 정승 아들은 여전히 글자를 몰라 훈장은 살아난다.

(민담/소보다 미련한 정승 아들)

노새 방귀에 죽은 선비

노새를 타고 가던 선비에게 점치는 소경이 '노새가 방귀를 세번 뀌면 죽는다'고 하였다. 선비는 귀담아 듣지 않았으나 얼마 후 노새가 방귀를 '푹' 뀌었다. 선비는 노새의 항문을 돌맹이로 막고 얼마쯤 갔는데 노새가 방귀를 뀌자 돌맹이가 날아가 버렸다. 다시 큰 돌맹이로 막고 가다가 단단히 막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뒤를 들여다보는 순간노새가 방귀를 뀌면서 돌이 날아와 선비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다.

(민담/방귀 세 번/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담뱃대를 잃어버린 사람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담뱃대를 오른손에 들고 어디를 가다가 보니 담뱃대가 보이지 않았다. 걸어가면서 양쪽 팔을 흔들다 보니 오른손이 뒤쪽으로 가는 순간 담뱃대가 보이지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걸음이 바뀔 때 오른손이 앞으로 나와 담뱃대가 보이자 그 사람은 '아,예 있구나' 하였다. 그러더니 온종일 길을 가면서 '담뱃대 어딨나" 아,예 있구나'를 되풀이 하였다 한다.

(민담/담뱃대 소동/한국 전래동화3/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도둑과 기생이 부러운 의원

염라대왕 앞에 기생과 도둑과 의원이 심판을 받으러 왔다. 기생은 '얼굴과 몸에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부잣집 자제들을 위로했다'고 하니 염라대왕은 '젊은이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며 세상에서 더 살다가 오란다. 도둑놈은 '부잣집 물건을 훔쳐 가난한 집에 나누어 주었다'하니 그도 세상에서 더 살게 된다. 의원은 '말똥,소오줌,나무 껍질을 모아 두었다가 병든 사람에게 즉각 약을 써서 살려주었다'하니 염라대왕은 노기충천하여 '저놈을 기름 가마에다 넣어라, 병든 인간들에게 소환장을 보내도 번번히 거역하는 것이 저 놈 탓이다'하였다. 의원이 도둑과 기생에게 '세상에 나가거든 내 마누라에게는 기생이 되라 하고 아들들은 도둑이 되라고 전하라'한다.

(민담/염라대왕/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돈 만 잃은 사위

외동딸을 바보에게 시집보낸 부부가 어느 날 사위에게 시장에 가서 뚝배기와 갓을 사오라고 보낸다. 딸은 남편에게 뚝배기는 물을 부어 보고 갓은 머리에 써 본 다음 사오라고 하였다. 바보 사위는 시장에 가서 뚝배기는 머리에 써 보다가 깨뜨려서 돈만 물어 주고 갓에는 물을 부어 망가트리니 또 돈만 물어 주고 돌아왔다. 집에 와서 부인이 잘못 가르쳐 주었다고 역정을 내다가 오히려 장인에게 매만 맞는다.

(동화/장 보러 간 바보 사위/한국 전래동화1/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돌부처와 거래하는 총각

바보 총각인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 어머니는 비단을 내 주며 장사를 하되 말 없는 사람에게 팔라고 한다. 말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다 총각은 돌부처와 거래를 하게 되고 외상값을 주지 않는다고 돌부처와 시비하다가 돌부처가 쓰러진 자리에서 보물을 찾아 돌아온다.
(동화/바보와 돌부처/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말이 꼬이는 중

농사꾼이 '무엇을 사 가느냐' 고 물으니 중은 '고기를 사 간다' 고 하고 다시 '고기를 드십니까' 라고 물으니 '좋은 술이 있어서' 라고 대답한다. 이런 식으로 중은 장인,장모에 마누라,첫재 첩,둘째 첩, 이야기까지 전부 들추어 놓고는 가 버린다.
(민담/장인뿐인 줄 아나)

멍청한 호랑이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다가 낮잠이 들고 담뱃불이 번져 털에 불이 붙는다. 놀라서 개울물에 뛰어 들어 불을 끄니 그때부터 호랑이 털에 얼룩이 남는다.
(민담/호랑이 털이 얼룩진 이유/호랑이/손도심/서울신문사)

미련한 호랑이

어쩌다 호랑이 꼬리를 잡게 된 소금장수가 지나가던 스님을 꾀어 대신 호랑이 꼬리를 잡게 하고 줄행랑 친다. 3년 후에 그 자리에 와 보니 아직도 스님이 호랑이 꼬리를 잡고 서 있다.
(민담/소금장수와 스님/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멍청해지는 호랑이

호랑이는 개를 잡아먹으면 취한다.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하듯 온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어약한 짐승에게도 잡히게 된다. 술 취한 호랑이는 무서워 할 필요도 없고 어려워 할 필요도 없다.
(민담/취한 호랑이/한호의 미술/조자용/에밀레박물관)

모자라는 신부

어느 신부가 신혼 첫날 밤 아기를 낳았다. 시어머니가 다급하여 아기를 받아 안방에 눕혀 놓고 돌아왔더니 신부가' 어머니가 손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작년에 낳은 아이도 데려올 걸 그랬습니다' 하였다.
(민담/골계총서(작자 미상)/태평한화/편집부/신원문화사)

미련한 호랑이

작은 짐승을 잡아 먹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한 호랑이가 마늘을 먹으면 풀도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을 여자에게 마늘을 요구하자 여자는 마늘 대신 토란을 준다. 토란을 마늘로 알고 호랑이는 다섯 알을 얻어먹고 가을에 다시 토란을 많이 얻어 겨우내 먹었으나 결국 풀을 먹지는 못하게 된다.

(동화/마늘과 토란/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미련한 호랑이

어쩌다 호랑이 꼬리를 잡게 된 소금장수가 지나가던 스님을 꾀어 대신 호랑이 꼬리를 잡게 하고 줄행랑 친다. 3년 후에 그 자리에 와 보니 아직도 스님이 호랑이 꼬리를 잡고 서 있다.

(민담/소금장수와 스님/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미련해서 팔려간 돼지

개는 밥이나 맛있는 누룽지를 먹는데 자기는 구정물이나 밥찌꺼기만 먹는다며 불만이 많던 돼지는 개가 밤새도록 도둑을 지키기 때문에 주인에게 귀여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날 저녁부터 돼지는 잠을 안 자며 꿀꿀대니 주인 할머니는 돼지가 병이 났다며 침을 맞힌다. 미련한 돼지는 '내가 소리가 작아 그런가 보다' 하고는 밤에 더욱 큰소리로 울자 할머니는 이튿날 돼지를 팔아버린다.

(동화/분수 몰라 팔려간 돼지/한국 전래동화4/이원수. 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바보같은 호랑이

배고픈 호랑이가 괴상하게 생긴 토끼 (실은 고슴도치)를 만나 단숨에 삼켰으나 깜짝 놀라 뱉어 낸다. 수백 개의 바늘에 찔려 입 안이 아픈 호랑이는 냇가에 가서 물을 먹으려다 밤송이가 하나 떠내려 오는 것을 '나으리 어인 행차십니까' 하고 인사를 드린다.

(동화/고슴도치와 호랑이/한호의 미술/조자용/에밀레박물관)

바보 같은 호랑이

부부는 이웃 제사집에 가고 집에 남아 있는 세 자매에게 호랑이가 찾아온다. 호랑이는 어랜애들이라 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며 창살문을 뜯는데 막내는 엄마가 온 줄 알고 관솔에 불을 붙여 창틈으로 자꾸 내 보낸다. 부부가 돌아와 보니 큰 호랑이가 수염이 다 탄 채 죽어 있다.

(동화/세 살짜리 사냥꾼/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부인에게 귀를 잘린 이세린

이세린은 기생집을 드나들다 본부인에게 들켜 귀를 잘렸다. 재담꾼 김인복을 만나자' 자네는 눈 하나가 멀었고 나는 귀 하나가 없으니 누가 나은가' 라고 물었다. 김인복이' 자네가 낫다.뒤에서 하는 말도 가리우는 것이 없어서 남 보다 먼저 듣고 또한 대단히 빠르게 될 것이다' 하였더니 이세린은 그렇게 여겼다.

(일화/청강선생 소총/이제신/대동야승/고전국역총서 62)

사또의 사위가 된 바보

어느 바보가 부잣집에서 일을 해 주고 받은 돈 한 냥을 잃어버리고 돌아오자 어머니는 손에 꼭 쥐고 오라 시킨다. 다음 날에는 고양이를 받아 쥐고 오다가 고양이 발톱에 할퀴어 피투성이가 된다. 어머니가 목을 매어 끌고 오라 하니 다음날에는 돼지고기를 줄에 매어 끌고 오고 보자기에 싸 오라고 하니 우유를 보자기에 싸 온다. 병에 넣어 오라 하니 쌀을 병에 넣어 오고 자루에 넣어 오라 하니 말을 자루에 넣어 메고 온다. 그런데 생전 웃지 않던 사또의 딸이 말이 자루에서 발광하는 것을 보고는 큰소리로 웃어서 사또는 바보를 사위로 삼는다.

(동화/바보 때문에 웃게 된 사위의 딸/한국 전래동화4/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선생님을 때린 아이

어리석은 아이가 선생님만 따라 하면 된다는 아버지 말을 듣고 글방에 가서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만 따라 한다. 선생님이 꾸짖는 소리까지 따라 하니 그만 화가 나서 아이의 뺨을 때렸더니 이 아이도 선생님의 뺨을 마주 때리며' 이놈이 미쳤구나,어서 책 가지고 가거라' 하고 따라서 소리를 지른다.

(동화/하늘 천 하렷다/한국 전래동화1/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성미 급한 농부

어리석으면서도 성질이 급한 농부가 많은 닭을 키워 알을 낳기 시작하자 매일 한 개씩 달걀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뱃속의 알을 꺼내어 큰 부자가 되어야 겠다고 그 닭들은 전부 죽인다. 그러나 뱃속에 알이 있을 리 없건만 그는 닭을 너무 성급하게 잡아서 달걀이 전부 터졌다고 후회한다.

(동화/터진 달걀/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셈만 하다 망한 독장수

독장사를 시작한 젊은이가 독을 지고 가다 밭둑에 세워놓고 쉬면서 계산을 한다. 닷 냥에 샀으니가 팔면 열 냥이 되고 열 냥이 스무 냥이 되고 스무 냥이 마흔 냥이 되고… 이렇게 독을 천 개 팔면 오천 냥이 되겠구나 하고 좋아하다가 춤을 추는 바람에 지게작대기를 건드려 독이 깨지고 만다.

(동화/독장수의 꿈/한국구전동화/앞선 책)

실수 연발의 바보 남편

바보 남편을 둔 영리한 부인이 친정에 가면서 남편이 실수를 할까봐 한가지 꾀를 내었다. 남편에게 실을 묶어 밖으로 낸 다음 한 번 당기면' 진지 많이 드십시오' 라 하고 두 번 당기면' 담배 태우십시오' 라고 말하라 하였다. 밥을 먹으면서 사위는 제대로 말씀을 잘 드렸는데 부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개가 실을 묶어논 북어대가리를 물고 가는 바람에 사위는' 진지,담배' 를 연발하였다.

(동화/진지 담배/한국 전래 동화1/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어리석고 둔한 사또

언제나 부인의 지혜에 신세를 지는 어리석은 사또에게 어느 농부가 와서 소가 마른 콩을 먹고 죽었는데 어찌 하면 좋으냐고 묻는다. 사또는 어쩔 줄 모르다가 부인의 의견대로 병든 소가 아니니 가죽과 고기를 팔아 송아지를 사서 키우면 어미소가 될 것이라 일러준다. 마침 부인이 없을 때 상주가 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사또는 어머니의 가죽과 고기를 팔아 계집애를 사서 키우면 어머니가 된다고 한다. 상주가 놀래서 도망치자 사또는 아주 명답이라고 스스로 흐뭇해 한다.

(민담/어리석은 사또의 실언/한국 전래동화7/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어리석은 개구리

우물 속에서 왕노릇을 하던 개구리가 장마통에 세상 밖으로 나와 거북이를 만나면서 세상 물정을 알게 되고 자신의 처지도 이해하게 된다.

(동화/우물 안 개구리/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어리석은 공생원

아둔한 공생원이 문상을 가게 되자 아내는 김첨지가 하는 대로만 따라 하라고 당부한다. 키 큰 김첨지가 상가집 문설주에 이마를 부딪히자 공생원은 문지방에서 뛰어올라 이마를 부딪쳐 혹이 생긴다. 다시 김첨지가 상주들과 인사를 하며 실수로 방귀를 뀌자 공생원은 방귀 대신 똥을 싸고는 손으로 집어내서는' 이것도 인사가 되느냐?고 묻는다

(민담/방귀 대신에 똥이/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어리석은 도깨비

어느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 그물에 걸린 작은 항아리를 얻어 뚜껑을 열었더니 큰 도깨비가 나왔다. 도깨비가 어부를 잡아 먹으려 하자 어부는 꾀를 내어 도깨비에게' 그 큰 몸이 어떻게 작은 항아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고 한다. 도깨비가 재주를 자랑하려고 다시 작은 항아리에 들어가자 어부는 뚜껑을 닫아 바다에 던져 버렸다.

(동화/어리석은 도깨비/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어리석은 며느리

남자가 되고 싶었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갓을 쓰고 있다가 돌아온 시아버지에게 갓을 쓴 채 인사를 한다. 우물에 가서는 우물 속에 갓 쓴 여자가 보인다고 뛰어 들었다가 겨우 목숨을 건진다.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잘못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꾸짖게 된다.

(동화/갓 쓴 며느리/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어리석은 부자 영감님

보름달을 좋아하는 부자 영감님이 꾀 많은 하인의 말을 듣고 달을 사 오라고 하자 하인은 한달 후 보름달이 뜰 때 달을 사왔다며 돌아온다. 또 섬 구경을 가자며 영감님을 모시고 가서는 말을 팔아버리고는 도둑이 훔쳐 갔다고 둘러댄다. 그러고도 하인이 집에 다녀온다고 하자 돈까지 두둑이 주어 보낸다.

(동화/돈 주고 달을 산 바보/한국전래동화4/강수원/정원)

어리석은 술장수들

두 술장수가 길에서 만나 서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목이 말라서 한 사람이 돈을 내고 상대편의 술을 사 마셨다. 이렇게 서로 돈을 주고 받으며 술을 다 마셔 버렸는데 두 사람은 크게 취해 술을 다 팔았다고 좋아한다.

(민담/바보 술장수들/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어리석은 용왕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라가 천신만고 끝에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 오지만 용왕은 간을 숨겨 두고 왔다는 토기의 언변에 속아 육지로 나가 다시 간을 가져오라고 자라에게 명령한다.

(판소리/토끼전 판소리 열두마당/ 유준필/들불)

어리석은 형리

어느 스님이 죄를지어 유배를 가는 도중 죄수를 압송하는 형리에게 술을 사서 주었다. 형리가 술이 취해 쓰러지자 스님은 형리의 수염과 머리를 깍고 옷을 바꿔 입었다. 형리는 술에서 깨어나자 ' 중은 여기 있는데 내 몸은 어디로 갔나' 하였다.

(민담/골계총서(작자 미상)/태평한화/편집부/신원문화사)

옛 것을 좋아하는 부자

골동품을 무조건 좋아하는 부자에게 어느 사람이 와서' 임금의 자리도 마다한 허유가 귀를 씻던 표주박' 이라며 떠들자 백금(百金)을 주고 그것을 샀다. 또 어떤 사람이' 공자님이 제자들에게 강연할 때 쓰던 돗자리' 라 하여 또 백금을 주었고 용을 그던 지팡이도 백금에 사 버렸다. 마침내 재산이 탕진 되었는데도 그는 표주박을 갖고 지팡이를 짚고 헤진 돗자리를 겨드랑이에 낀 채 당당히 걸어가니 안 웃는 사람이 없었다.

(민담/명엽지해/홍만종/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을유문화사)

잊어먹는 도깨비

길에서 도깨비를 만나 돈 서 푼을 꾸어주니 그 다음날부터 매일 서 푼을 갚으러 온다. 밥이 나오는 냄비,무엇이던지 두들기면 나오는 방망이까지 매일 가지고 찾아오는데 도깨비는 꾼것만 기억하고 갚은 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이란다.

(동화/정신없는 도깨비)

제 발이 저린 도둑

이야기를 잘 못하는 과부가 이웃집 할머니를 찾아가서 두꺼비 이야기를 듣고' 엉금엉금 기는구나,낼름낼름 먹는구나,빨질빤질 보는구나' 를 집에 와서도 외우는데 밤중에 도둑이 들어왔다가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바로 자기의 행동과 같은지라 줄행랑을 치게 된다.

(민담/이야기 흉내내기)

제사상 앞에서 통곡한 여인

어느 집에 새로 시집 온 며느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시어머니가 ' 분행' 을 하라고 시켰다. 원래는' 분향(향을 피움)' 이라 하지만 시어머니가 잘 몰라서' 분행' 이라고 말한 것인데 며느리는 이 말을' 분해' 라고 알아듣고는 제사상 앞에서' 아이고 분해라,분해애... 분해애...' 하고 통곡을 하였다. 아마 제 집에서도 분향하는 걸 본 적이 없었던 모양이라고 시아버지는 흉을 본다.

(민담/아이고 분해/한국 전래동화9/최래옥/창작과 비평사)

[해학형]_우직형

존대말이 심한 며느리

시집가는 처녀에게 어머니는 존대말을 써야한다며 시아버지는 시아버님,시어머니는 시어머님으로 불러야 한다고 가르친다. 시집간 후 식구들이 모두 밭에 나간 사이 송아지가 우물가에서 어른거리자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다.' 시아버님,송아지님이 물님이 먹고 싶어서 우물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동화/어머니 말을 듣고/한국구전동화/앞선 책)

촛국을 먹은 사람들

어느 사람이 서울에 왔다가 처음 본 초를 사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선물을 돌렸는데 불을 켜는데 쓰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못했다. 이를 훈장에게 물었더니 유식한 체 하느라고' 국을 끓여먹는 것' 이라 말했다. 그래서 물을 끓여 파,고춧가루 등을 넣고 양초를 넣은 다음 국이라고 먹으면서' 맛이 이상 하다' 고 떠든다. 마침 서울 갔다온 사람이 나타나 불을 켜는 것이라고 하면서 양초에 불을 켜 보이니 훈장이 또 나서서' 뱃속의 불을 끌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며 모두 발가벗고 냇물속에 들어가 목만 내놓는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냇물위의 머리통만 보고서는 도깨비라고 하면서 담뱃불을 붙여 도깨비를 쫓으려 한다. 동네 사람들은' 저놈이 우리 뱃속의 초에다 불을 붙이면 다 죽는다' 면서 모두들 머리를 물속에 넣고 숨는다.

(민담/촛국 먹고 아그그/한국 전래동화3/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호랑이를 속인 여우

호랑이에게 잡힌 여우가 내가 짐승의 왕이니 내 뒤를 따라와 보면 알 수 있다' 면서 호랑이를 앞서서 걸어가니 모든 짐승이 놀래 도망간다. 호랑이는 여우가 정말 무서운 놈이라고 생각 한다.

(동화/여우와 호랑이/호랑이/손도심/서울신문사)

고지식한 할아버지

이웃집에서 가져온 제사음식을 먹다가 보니 떡이 한 개만 있으므로 두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 안하는 사람이 떡을 먹기로 하였다. 시간이 흘러 두 노인이 벙어리처럼 앉아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도 보기만 하고 말을 안하자 도둑놈은 눈 뜬 장님이라 생각하고 귀한 물건들을 묶어서 도망간다. 참다 못한 할머니가' 망할 놈의 영감,이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단 말이요' 하니 영감은 이렇게 말했다.' 이 떡은 내것이요'

(민담/떡은 누구의 것/한국 전래동화3/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고집 피우다 죽은 장끼

장끼가 아내인 까투리와 아홉의 아들과 열둘의 딸을 거느리고 추운 날씨 속에서 먹이를 구하려고 눈덮힌 벌판을 헤매다가 콩 한알을 발견한다. 까투리가 어제밤의 꿈이 불길하니 그 콩을 먹지 말라고 만류하지만 장끼는 고집을 부리며 그 콩을 주워먹다 덫에 치여 죽는다. 장끼는 까투리에게 재혼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는데 까투리는 장례를 치루며 문상왔던 홀아비 장끼에게 다시 시집을 간다. 재혼한 부부는 자식들을 모두 혼인시키고 명산대천을 구경다니다가 큰물에 들어가 조개가 된다.

(판소리/장끼전 /판소리 열두마당/유준필/들불)

너무 유식한 사위

문자 쓰기 좋아하는 사위가 처가집에 와서 장인과 함께 자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장인을 물고 간다. 사위는 밖에 나가 소리를 치는데 한문투로 외치니 이웃 사람들이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 구하러 오지를 않고 결국 장인은 범에 물려 간다.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사위를 다그치나 문자 쓰는 버릇은 고치지 못한다.

(민담/문자 쓰는 사위)

미끼가 된 농사꾼

고생을 면하게 해 주겠다는 노인의 말을 듣고 망태에 들어간 농사꾼은 호랑이 잡는 미끼가 되어 나무에 매달리는 신세가 된다.

(동화/호랑이 잡는 망태/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정오/현암사)

미련한 농부

서울에 가서 3년만 뒹굴면 벼슬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리석은 농부는 서울로 올라와 온 몸을 이불로 감싸고는 이 거리 저 거리를 뒹굴고 다닌다. 1년도 못되어 농부를 모르는 서울 사람이 없다시피 되고 평민복 차림으로 나왔던 임금님의 눈에 띄어 벼슬을 하게 된다.

(동화/고지식한 농부/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바둑에 미친 사람

여종이 달려 와서 바둑에 열중하고 있는 주인에게' 집에 불이 났다' 고 하니 주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불이냐,무슨 불이냐?' 고 말한다. 또 어떤 나그네와 바둑을 두는데 시골의 머슴이 올라와' 노영감님이 돌아가셨다' 고 하니 주인은 바둑판을 내던지면서' 아버님이 과연 죽었느냐,참으로 아깝구나!' 하였다.

(민담/골계총서(작자 미상)/태평한화/편집부/신원문화사)

사랑 말을 듣게 된 소

부잣집 며느리가 천하장사라서 역적으로 몰리게 되자 소에 먹을 것을 얹어 도망을 간다. 소가 걸음이 느려 며느리는 소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소는 짐에 눌리고 머리에 받혀 죽을 지경이다. 소를 내려놓고 걷다가 걸음이 느려지면 며느리가' 이랴, 이 놈의 소야,머리에 이랴' 한다. 그때부터 소를 부릴 때는' 이랴' 라고 말한다.

(민담/소가 웃을 일이다/고려원미디어)

쇠고집

고집쟁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 집에 손님이 왔다. 아버지가 사랑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져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아들은 술을 사 오다 외나무다리에서 고집 센 사나이를 만났다. 두 사람은 누가 양보하랴 하고 버티고 서 있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가 찾아 나섰다. 아들의 그런 꼴을 보더니 아버니는' 자너는 술병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내가 이 자식과 겨룰 테니' 라고 하였다.

(민담/쇠고집/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자기 집으로만 가는 소

한 사람이 소를 바꾸려고 우시장에 갔다가 사돈을 만나 소를 맞바꾸고는 술을 먹다가 둘 다 취해 버렸다. 어두워져 소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소는 자기집으로만 가니 두 사돈은 술이 취하여 각자 사돈마님의 방에서 자게 된다.

(민담/소가 웃을 일이다/고려원미디어)

[해학형]_능청형

장기 도사가 된 청년

이기는 사람이 진 사람의 코를 손가락으로 튕기는 시합을 하던 청년은 번번히 영감님에게 져서 코가 새빨개졌다. 아내의 권고로 그 청년은 5년 동안 장기를 배우고 손가락으로 목침을 튕기는 훈련을 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영감님과 장기대결을 했다. 영감님이 장기에 져 청년이 코를 한 번 튕기자 콧등 가죽이 찢어지고 많은 코피가 흘렀다. 청년은 이제 적수가 없다며 장기판을 없앤 후 5년 후에는 과거에 급제하는 영광을 갖는다.

(동화/코가 날아갈 뻔한 영감님/한국 전래동화8/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천지의 도리를 깨친 소년

어느 아이가 [천자문]을 배우며 맨 처음에 나오는' 하늘 천(天)' 자를 가지고 하늘에 관한 온갖 질문을 한다. 하늘의 해의 크기며 왜 뜨고 지는지,달 보다 큰지 작은지 등등을 묻고 배우는 사이 10년이 흘렀다. 다시' 땅 지(地)' 자 하나를 배우는데 역시 10년이 걸렸는데 20년 만에 천지의 이치를 모두 알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었다.

(동화/질문대장/한국 전래동화1)

허장성세하던 배비장

제주에서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던 배비장은 봄놀이에 쫓아 갔다가 애랑의 계교에 속아 우스운 몰골을 하고 애랑의 집에 찾아간다. 애랑의 남편 행세를 하는 방자 때문에 자루와 궤 속에 들어가고 동헌으로 옮겨져 목사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허우적거리다가 망신을 당한다.

(판소리/배비장전)

검은 머리를 뽑는 본부인

육십이 넘은 노재상이 젊은 첩을 얻어 사랑하면서 매번 흰 머리를 뽑게 했다. 하루는 첩이 출타해서 부인에게 흰 머리를 뽑아달라 하였더니 검은 머리카락을 전부 뽑아버린다.

(민담/성수패설(작자 미상)/태평한화/편집부/신원문화사)

공짜 좋아하는 부자

여섯 살 아이를 빚 대신 데려간 부자가 새경도 받지 않는다는 총각을 보고는 아이는 돌려보내고 입혀 주고 먹여 주고 재워 줄 것을 약속한다. 다음날부터 총각은 옷을 입혀 줘야 일어나고 먹여 줘야 일하고 재워 줘야 잠잔다. 욕심쟁이 부자는 총각을 그대로 내쫓고 만다.

(민담/먹여 주고 재워 주고)

나그네 골리는 양반

한 나그네가 소를 탄 선비에게 주가(술집)이 어디냐' 고 물으니' 이 동네에는 주가는 없고 김가나 이가는 많다' 한다. 다시' 술집이 어디냐' 고 하니' 숟가락 넣는 술집은 시장에 가야 있다' 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능청을 떠는데 말 못할 양반' 이라고 하니 말을 못 타니 소를 탔지' 라고 대구한다.

(민담/말 못할 양반)

나이가 줄어드는 기생

어느 장사꾼이 평양에서 큰 이익을 보고 기생집에들러 나이를 물어보니 열여덟살이라고 한다. 이듬해 다시 평양에 가서 장사는 실패했지만 다시 그 기생에게 갔더니 열일곱살이라고 한다. 또 그 이듬해에는 장사가 망해서 등짐을 지고 가 그 기생에게 갔더니 열여섯살이라고 한다. 장사꾼은 소리 내어 울며' 네 나이도 내 장사 밑천 같이 해마다 줄어드니까 그것이 슬퍼서 운다' 고 하였다.

(민담/고무줄 나이/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능청스런 사나이

머슴이 나무를 하러 갔다 처음 만난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서는 담뱃대를 항문 밖에 내었다가 잡아당겨 호랑이를 홀랑 뒤집어 살아난다. 두번째 만난 호랑이 한테는 새끼 목에 걸린 뼈다귀를 빼준 후 산삼을 얻고 세번째 만난 호랑이에게는 형님이라 부르며 집으로 데려와 십년 밀린 새경을 받아 낸다.

(민담/호랑이를 세 번 만나다)

능청스런 춘향 모친

춘향의 모친 월매는 기생 출신으로 세상사를 많이 겪은 여인이다. 이도령과 춘향이가 첫 인연을 맺을 때 서약서를 받기도 하고 이도령이 서울로 올라갈 때는 춘향이를 데려가라고 떼를 쓰기도 한다. 거지꼴로 찾아 온 이도령을 푸대접하여 밥도 주지 않는 등 성질을 부리기도 한다.

(판소리/춘향전/판소리 열두마당/유준필/들불)

동료를 골려 준 김수온

김수온은 깍쟁이로 소문 난 동료를 골려 줄 속셈으로' 내가 관상을 조금 보는데 선생은 장수하리라' 하였다. 그가 좀 더 자세히 일러달라고 하자 김수온은 간단한 술자리라도 마련하라고 한다. 동료들과 함께 푸짐한 대접을 받은 후 김수온은' 선생께서 이미50세를 더 사셨으니 장수하셨고 지금도 건강하시니 장수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그는 또한 책을 사 보는 법이 없이 남의 책을 빌려다가 한 장씩 찢어 소매 속에 넣고 다니면서 외웠고 다 외고 나면 책은 이미 없어져 버렸다. 한 번은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신숙주의 책을 빌려다가 방에다 도배를 해 놓고는 신숙주가 따지러 오자' 나는 항상 저렇게 붙여놓고 왼다네' 하였다.

(일화/남의 책을 빌어다 도배한 김수온/선인의 명언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사돈 밥상을 가로채는 나그네

나그네가 어느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는데 주인의 대접이 소홀하였다. 마침 그 집의 사돈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잘 차린 저녁상이 들어오자 나그네가 배가 몹시 고프다며 먹어버린다. 다시 반찬 없는 상이 들어오자 사돈은 싸울 수도 없어 그 밥상을 받아 억지로 먹는데 주인이 나와 보고는 어쩌지 못하고 들어가 버린다. 이튿날 아침 나그네 밥상이 먼저 들어오자 나그네는' 어제는 염치없이 먼저 먹었다' 며 사돈에게 갖다 주고 사돈 밥상이 들어오자 제가 받아서 잘 먹었다. 주인이 사랑방에 와 보니 어제와 똑 같은지라 화가 나서 이 놈의 집 헐어버려야겠다' 고 투덜댄다. 나그네는 도끼를 찾으며' 밥 값을 하기 위해 이 집을 부숴드리겠다' 며 능청을 떤다

(민담/나그네와 사돈/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살림 걱정 없는 거지

섣달 그믐이 되자 다리 위는 오고가는 사람들로 분주하자 거지는 마누라에게' 우리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상팔자' 라고 자랑을 한다. 마누라가 그렇다고 맞장구를 치자 거지 남편은 한술 더 떠서' 나한테 시집 잘 온 탓이야' 라고 말한다. 부자집에서 불이 나자 거지가 다시' 우리는 불날 걱정이 없다' 고 으쓱대니 아들은'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라고 한다.

(민담/ 거지의 자랑/한국 전래동화8/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선생님을 무안 준 아이

조는 아이를 꾸중한 선생님이 오히려 졸기 시작하자 아까 혼이 난 아이가 선생님을 깨운다. 선생님은 공자님 말씀을 들으러 갔다며 변명을 하자 이 아이는 일부러 조는 척 한다. 선생님이 다시 꾸중을 하려 하자' 공자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선생님은 오셨다 가지 않았다' 고 아이가 대답을 한다.

(동화/공자님 말씀/한국 전래동화1/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스님을 속여먹는 이홍

남문 밖에서 시주를 받고 있는 스님을 만난 이홍이 사흘동안 2백 푼을 모았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 집의 큰 유기를 시주하겠다며 데리고 간다. 술집에 들어가 술을 실컷 먹고는 집에 가서 준다며 스님에게 대신 술값을 치루게 한다. 서너 술집을 들느니 스님 수중에 있는 돈도 거의 다 떨어졌다. 이홍이' 유기가 몹시 큰데 자네가 무슨 힘으로 가져가려나' 하니 스님이' 비록 만 근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 고 한다. 이홍은 보신각 종을 가르키며' 유기가 저기 있으니 잘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스님은 금새 사라지고 말았다.

(민담/담정총서(작자 미상)/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김영만/을유문화사)

시치미 떼는 신랑

신부집에 처음 간 신랑이 체면차리다 실컷 못 먹은 나박김치를 찾아 밤중에 부엌에 들어간다. 항아리를 찾아 손을 넣었으나 손이 빠지지 않아 마침 문턱을 베고 자는 장인의 머리를 목침으로 알고 항아리로 때리고 도망친다. 온 집안이 도둑이 들었다고 난리가 나는데 신랑은 시침을 떼고 방문을 열고 나온다.

(동화/뻔뻔한 신랑/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임금과 약속을 어긴 양녕 대군

미친 척하여 임금의 자리를 세종에게 물려준 양녕 대군이 관서 지방으로 여행을 가며 여자를 조심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양녕 대군이 정주에서 예쁜 여자를 만나 하룻밤을 같이 지내며 시 한 수를 지어 주었다. 서울로 돌아와 세종에게 갔더니 약속을 지켰다며 잔치를 베풀었는데 노래 가사가 양녕이 지어준 시였다. 그여자는 감사가 대기시켜 놓았던 기생이어서 서울로 보냈던 것이 었는데 양녕은 얼른 뜰로 내려가 임금의 처분을 기다렸다. 세종은 그 기생을 양녕과 함께 살도록 해 주었다.

(일화/양녕 대군과 미녀/선인의 명언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길손

길을 가던 나그네가 강물을 건너게 되자 그 깊이를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강을 건너왔다. 나그네가 강물의 깊이를 몇 번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아 화를 냈더니 강물을 건너온 사람이' 내가 건너온 물은 벌써 흘러가 버렸으니 어찌 그 깊이를 알 수 있겠소 한다

(민담/물의 깊이는/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이빨 모으는 기생

어느 사람이 관북지방에서 기생을 사귀어 사랑하다가 이별하게 되었다. 그 기생이 울면서' 주신 물건이 많다 하나 이를 한 개 주시면 거기에 깊은 정을 품겠습니다' 하니 그 사람이 감격하여 이를 하나 빼 주었다. 철령에 당도하여 그 기생 있는 관북지방을 되돌아 보고 있으니 어느 나그네가 울면서 따라 왔다. 그 사유를 알아보니 자기와 똑같이 그 기생에게 이빨을 빼 주고 오는 사람인지라 그는 기생과의 정이 일시에 사라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종을 보내어 그 이빨을 찾아오게 보냈더니 그 기생이 한 주머니나 되는 이빨을 던져주며' 네 상전의 이빨이 어느 것인지 모르니 네가 찾아 가라' 고 말하는 것이었다.

(민담/파수록/부묵자/태평한화/신원문화사)

익살맞은 방자

이도령의 시중을 드는 방자는 장난끼가 심해서 아는 것도 모르는 척,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는 인물이다. 춘향이를 데려오라는 분부에 여러가지 익살 을 떨기도 하고 이도령이 춘향이 집을 찾아갈 때 안내를 맡으며 능청을 부리기도 하지만 악인이나 꾀보는 아니다.

(판소리/춘향전/판소리 열두마당/유준필/들불)

장난꾸러기 이항복

이항복이 젊어서 절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식사에 반찬이 너무 없었다. 이항복은 스님을 불러 곁에 앉히고는 밥 한 술 뜰 때마다 '게장' 이라고 말하라 하였다. 스님이 실수로 게장을 연거푸 외치자 이항복은' 너무 빨리 외칠 것 없네. 너무 연거푸 외치면 너무짜' 라고 하였다.

(일화/명엽지해/홍만종/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을유문화사)

정승을 속인 젊은이

늘어나는 문객들을 쫓아내기 위해 정승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에게 벼슬자리를 준다고 한다. 문객들이 거의 없어졌을 때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 기러기가 물고 가다 떨어트린 앵두가 된장독만 하다' 고 거짓말을 하고 차차 앵두가 앵두만 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러기와 앵두는 서로 만날 수 없으니 정승은 결국 속게 된다.

(민담/여름 기러기)

책을 빌려 베개로 쓴 양반

늙은 양반이 북한산으로 놀러 가다가 태고사에 사는 스님을 만나자 볼 만한 책을 중흥사로 가져 오라 하였다. 스님이 주지에게 책을 얻어 중흥사의 늙은 선비에게 전했더니 신의가 있다고 칭찬하면서' 절의 목침이 너무 불편해 베개 대신 쓸 테니 내일 아침 가져 가라' 는 것이었다.

(민담/교수잡사(작자 미상)/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편집부/을유문화사)

천하의 술꾼 고형산

고형산은 중종 때 사람인데 체구도 커서 음식도 남보다 두 배나 먹었고 술은 한정이 없었다. 하루는 아전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고을 수령으로 나가니 내일 모화관에서 술자리를 준비하라' 하고 시켰다. 고형산이 모화관에 가니 잔칫상이 잘 차려져 있었는게 고을 수령으로 나간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만 술이 먹고 싶어 그런 장난을 하였고 술이 취하자 모화관의 큰 기둥 옆으로 가 술 권하는 시늉을 하며' 어찌 집주인에게 한 잔 권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였다.

(일화/나무 기둥과 대작한 고형산/선인의 명언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토끼를 속인 자라

토끼를 용궁까지 데리고 올 임무를 자원한 자라는 토끼의 그림을 가지고 육지로 나가 토끼를 만난다, 자라는 용궁에 가면 육지에서 만나는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높은 벼슬도 얻을 수 있다고 토끼를 꾀어 용궁으로 데려가나 용왕의 판단착오로 토끼를 다시 육지로 데려다 주며 면박을 당한다.

(판소리/토끼전/판소리 열두마당/유준필/들불)

형에게서 재산을 받은 동생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한 형에게 가난한 동생이 찾아가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 형이 동생에게 재산을 안 준 일,동생 집 제사는 기름기가 없어 힘을 쓰지 못하겠다는 푸념, 동생이 욕심 많은 형을 흉본 이야기등을 하였다' 고 한다. 형은 동생의 말을 옳게 여겨 재산을 나눠주는데 동생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 놓고 잔치를 열며 형님을 훌륭하신 분이라며 치켜세운다. 나중에 형은 동생에게 속은 것을 알고 다시 꿈 이야기를 꾸며 동생에게서 재산을 돌려받으려 한다. 동생은' 이제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알면 형님은 재산도 못찾고 망신만 당하니 그대로 돌아가시라' 고 한다. 그 후 동생은 형님을 잘 섬기며 우애있게 살았다.

(동화/꿈에 본 아버지가 한 말/한국 전래동화9/최래옥/창작과 비평사)

[해학형]_꾀보형

경험으로 아는 스님

가문 날에 농부와 스님이 만나 내기를 한다. 스님은 장삼을 만져보고 비가 온다 하고 농부는 오지 않는다 하여 쌀과 소를 걸고 기다리는데 장대비가 쏟아져 스님이 이긴다. 장삼은 땀에 절어 소금기가 많아서 공기 중에 습기가 많으면 눅눅해지기 때문이다. 소를 내기에 걸었다 해서 소내기라 하다가 소나기로 바뀌었다는 전설.

(민담/소나기의 유래)

기지로 벼슬을 얻은 무관

잘 생기고 머리 좋은 무인이 십여 년이 지나도록 벼슬을 얻지 못하자 산 꿩 한 마리를 사서 눈에 화살을 꽂아 큰 재상의 후원에 던져 넣고는 재상을 찾아가 면담하고는 재상을 섬기게 되었다. 선전관 자리가 비자 재상은 병조판서에게 청탁 편지를 보내지만 정중하게 거절하는 편지가 온다. 무인은 곧 시골로 돌아간다며 꿩 값을 달라고 한다. 재상은 노하여 한 냥을 주어 내어쫓고 병조판서에게 ' 전에 추천한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 는 편지를 보낸다. 병조판서는 청탁을 뒤로 미루어 재상이 노한 줄 생각하고 그 무인을 선전관으로 뽑는다. 무인은 다시 재상에게 찾아가 꾀로 벼슬을 얻었음을 말씀드리니 재상은 장수의 재목이라며 기뻐한다.

(민담/교수잡사(작자 미상)/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김영만/을유문화사)

꾀 많은 동자승

늙은 스님은 벽장에 곶감을 감추어 놓고 혼자 먹으면서 어린 스님들에게는 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을 한다. 영리한 어린 스님은 곶감을 다 먹고는 비싼 벼루를 마당에 던져 깨 버리고 누워있는다. 늙은 스님이 물으니 벼루를 깨뜨려 죽으려고 곶감을 먹었다 한다.

(동화/스님과 곶감/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꾀 많은 총각

쌀을 네모지게 썰어 갖고 길을 떠난 가난한 총각이 복이 붙어 있는 처녀 집을 알아내고는 장인의 맘에 들어 장가도 들고 자기 집도 부자가 된다.

(동화/부자 집에 장가든 총각/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꾀 많은 토끼

자라의 꾐에 빠져 용궁에 온 토끼는 용왕의 병에 토끼의 간이 좋다는 소리를 듣자 곧 한 꾀를' 내어 제 간은 영약이라 하도 찾는 사람이 많아 산중에 감추어 두고 무심코 왔다' 고 말하면서 용왕을 설득한다. 용왕은 토끼의 언변에 속아 자라와 함께 간을 가져오라고 보내나 토끼는 육지에 내리자마자 자라를 놀리며 도망친다.

(판소리/토끼전/판소리 열두마당/유준필/들불)

꾀가 많은 영감님

중국에 사신 갔던 사람이 중국 사람이 뻐기는 것이 보기 싫어' 우리나라엔 하늘 위에 농사짓는 밭이 있다' 고 거짓말을 한다. 중국 사람이 쫓아와서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여쭈니' 하늘 밭에 왕복하는데 60년이 걸린다 하고는 노인들이 춤추고 아이들이 우는 곳에 데려가라' 하여 중국 사람이 꽁무니를 뺀다.

(민담/하늘 나라 밭 구경)

꾀로 기생을 속인 이홍

이홍이라는 사람이 안주의 기생을 10일 안에 가까이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부유한 장사꾼 차림으로 시종 한 사람만 데리고 안주성으로 들어갔다. 그 기생집에 묵으며 돈을 물쓰듯 하니 기생 아범이 관아에 있는 기생을 불러내어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하였다. 이흥은 못 이기는 체 하며 그 기생과 동침을 하였는데 사나흘이 지나자 북경에서 올 물건이 안 온다며 초조해 한다. 다시 사흘이 지난 뒤 이홍은' 여기에 앉아서 기다릴 수 만은 없네. 내 짐을 다 맡기고 갈 테니 잘 간수해 주게 난 앞길로 가서 약속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겠네' 라고 말하고는 줄행랑을 놓았다. 그가 돌아오지 않자 맡긴 짐을 풀어 보니 조약돌만 가득 들어 있었다.

(민담/담정총서/김려/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을유문화사)

도둑놈을 찾아낸 풍헌 영감

암탉 한마리를 잃어버린 노파가 호랑이 풍헌 영감을 찾아가 닭을 찾아 달라고 한다. 풍헌은 마을 사람을 모두 모이게 하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이자 대뜸 호통을 친다.' 왜 다 모이지 않느냐, 닭 도둑질한 놈부터 안 나왔지 않았느냐' 고 고함을 치고 호통을 치니 한 사람이 벌벌 떨면서 기어나와' 아니 올시다.저는 진작부터 와 있었습니다' 하였다.

(민담/풍헌 영감의 지혜/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돈을 되찾은 장사꾼

서울에 올라온 장사꾼이 돈을 잃을까 봐 조용한 곳에 묻었는데 다음 날 가보니 돈이 없어져 버렸다. 멀리 있는 초가집의 뚫려있는 문구멍을 보고는 그 집의 영감을 찾아가 말을 던진다.' 돈 주머니 두 개를 서울로 가져와 5백냥 주머니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었는데 이 8백냥 주머니는 묻을까요,맡길까요?' 영감님이' 5백냥 묻은 곳에 같이 묻는 것이 좋겠다' 하여서 장사꾼은 밖으로 숨었더니 과연 영감님은 5백냥 자루를 다시 갖다 묻었고 장사꾼은 돈 주머니를 쉽게 찾았다.

(민담/함정/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두꺼비를 속인 게

두꺼비에게 잡혀 온 게가 살아나려고 온갖 머리를 짜낸다. 다리를 떼어먹으려 하자' 몸이 가벼워져 좋다' 고 하니 심술 많은 두꺼비는 게가 좋아하는 일은 할 수 없다며 다시 불에 구워 먹으려 한다. 게는' 네가 무서워서 벌벌 떨리니 빨리 숯불에 얹어달라' 하고 간장에 넣는다 하니' 목이 건건한데 마침 잘 되었다' 고 하며 두꺼비의 행동을 중지시킨다. 물속에 빠뜨리려 하자 게는' 물속에 던지면 저는 죽습니다. 제발 그만두셔요' 라고 말하니 두꺼비는 게를 물속에 집어 던졌다. 게는' 이젠 살았다' 라고 소리치며 두꺼비를 약올린다.

(동화/꾀 많은 작은 게/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땅벌로 벼슬 얻은 사람

시골 부자가 모든 재산을 팔아 서울 대감에게 갖다 바치나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자 땅벌을 뒤웅박에 담아 비단에 싸서 대감에게 드린다. 밤에 옷을 벗고 뒤웅박을 열다가 대감은 땅벌에 쏘이고 다음날 말을 못한 채 시골 부자를 가르키자 아들은 벼슬자리를 주라는 줄 알고 군수를 시켜준다.

(민담/땅벌군수)

미모와 언변의 애랑

제주 기생 애랑은 미모와 언변으로 뭇 남자들의 얼을 빼는데 정비장과 헤어지면서 쏟아놓는 언사에 정비장은 자신의 물건은 물론이고 입고 있던 옷과 칼도 내어 준다. 알몸이 되어서는 이빨도 뽑아주는데 이러한 솜씨로 배비장을 알몸으로 만들고 궤짝 속에 넣어 웃음거리로 만든다.

(판소리/배비장전)

방귀 때문에 떠난 신랑

첫날 밤에 방귀를 뀌어 소박 맞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 잘 키우는데 이 아들이 집안의 내력을 알고는 오이씨 한 봉지를 갖고 아버지 집 앞에 가서'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아침에 심으면 저녁에 따먹는 오이' 라고 선전을 한다. 아버지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내를 만나 잘 살게 된다.

(민담/방귀 안 뀌는 사람 있나)

빚 독촉을 면한 사람

빚 독촉에 시달리던 젊은 이가 꾀를 내어 저승에 갔다 와서는 여러 사람에게 저승이야기를 들려 주는데 가난뱅이는 저승에서 부자가 되고 부자는 거지가 된다고 한다. 또 자기 아버님은 빚쟁이의 어머니와 잘 살고 있고 빚쟁이의 아버님은 그 문 앞에서 걸식을 하더라는 암시를 준다. 결국 빚쟁이는 젊은이의 빚을 없애주고 마음도 바꾸게 된다.

(동화/저승 갔다 와서 빚 갚은 사람/한국전래동화2/강수원/정원)

쉰 죽 파는 김 선달

김 선달네 녹두죽 가게에 거만한 시골 양반이 오고 김 선달은 주방에다' 서울 양반들 처럼 초를 치지 말라' 고 소리를 친다. 시골 양반은' 내 죽에도 서울 양반들 처럼 초를 듬뿍 치라' 고 이르니 김 선달은 쉬어버린 죽을 데워서 내 오는데 시골 양반은 억지로 먹으며' 녹두죽은 초를 쳐야 맛이 난다' 고 한다.

(민담/초 친 녹두죽)

스님을 물에 빠뜨린 형제

고려 사람 영태는 장난이 심하였는데 어느 스님이 겨울철 못가에 나타난 뱀을 용의 새끼라고 하여 거두어 기르자 하루는 옷을 벗고 몸에 용의 비늘을 그리고는 스님에게 가서' 못 속의 용신(龍神)입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니 다시 와서 스님을 모셔 가겠습니다' 하였다. 약속한 날 다시 와서는 스님을 못가로 데려가' 금방 용궁에 들어갈 수 있다' 며 물 속에 던지고 가버렸다.

(일화/용재총화/성현/대동야승/고전국역총서49)

스승에게 불침 놓는 악동

스승이 술에 취해 낮잠을 자자 꾀 많은 악동이 불침 놓을 준비를 한다. 불침을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만들어 선생님에게는 짧은 것을 붙이고 긴 것은 자기에게 붙이고는 불을 당기고는 그 옆에 누워 자는 척 한다. 선생님이 불침에 놀라 일어나서는 옆의 악동에게 놓은 불침도 떼어주며' 어떤 놈이 이런 짓을... 아니 이 아이한테도 놓았구나' 한다. 악동은 왜 이리 시끄러우냐는 듯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난다.

(민담/선생님께 불침 놓기 묘수/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을유문화사)

시골 사람 골린 양반

강원도 시골 사람이 꿀을 팔러 서울에 오자 서울 부자는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한다면서 쉰 냥짜리 꿀을 닷 냥에 산다. 속은 것을 안 시골 사람은 양반을 시골로 초청해 꿀 만 먹여서 꿀만 싸는 강아지를 오백 냥에 판다. 서울 양반이 따지려고 다시 오자 시골 사람은 무덤 속에 누워 양반을 꾸짖는다.

(민담/꿀강아지)

시아버지 버릇을 고친 며느리

며느리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심하게 부려 먹는 고약한 시아버지가 막내며느리를 맞게 되었다. 며느리들이 새댁에게 이런 사정을 말하자 막내며느리는 염려말라고 하였다. 시아버지가 막내며느리를 불러 이름을 물어보자 그녀는 부모님이 오래 살라고' 쥐며느리' 라 지었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쥐며느리라고 이름을 부르면 자기가 쥐가 됨으로 그 후에는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다.

(민담/쥐며느리/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실수 연발의 시골뜨기

서울 객주집에 두 시골뜨기가 묵었는데 아침에 소금과 세숫물을 갖다주니 먹으라는 줄로 알고 그 물과 소금을 다 먹어버렸다. 아침상은 배가 불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밥을 남겨 먹는다' 며 객주집을 옮겼다. 그 집에서 소금과 세숫물의 용도를 알고는 다시 먼저 객주집으로 갔는데 주인이 또 세숫물을 먹을까봐 팥죽을 끓여다 주었다. 둘은 죽으로 세수를 하며' 서울 사람들은 죽으로 세수하는 법도 있는 모양' 이라고 말한다.

(민담/죽으로 세수를 한 시골뜨기/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안 들리는데요

인색한 주지 스님이 아랫마을의 과부와 좋아지내며 과부가 가져온 엿과 떡을 숨겨 놓고 혼자 먹었다. 절의 아이가 주지 스님이 없을 때 스님들과 그것을 꺼내어 실컷 먹고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다. 주지 스님은 아이를 데리고 법당 불상 앞으로 가서 다그치나 아이는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주지 스님은 자리를 바꾸어 네가 말해보라 하니 아이는 큰 소리로' 아랫마을 과부와 자고 온 놈이 누구냐' 고 소리친다.주지 스님은 목소리를 낮추어' 과연 이 쪽으로 오니까 안 들리는군' 하였다.

(민담/안 들리는데요/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해학형]_꾀보형

암행어사를 속인 기생

장성의 기생 노화는 여러 부자와 관리를 골탕먹이는 바람에 노수신이 노화를 벌하려는 책임을 지고 암행어사로 내려온다. 그러나 노련한 기생 노화는 장성으로 오는 길목의 주막집에서 수절과부로 위장하여 하룻밤을 묵게 된 노수신을 유혹하는데 노수신은 미색에 빠져 평생을 약속하며 노화의 팔뚝에 자기의 이름을 새긴다. 장성에 도착한 노수신은 노화를 잡아들이지만 진실을 알고난 그는 노화를 벌하지 못한 채 돌아가 임금에게 사실대로 고한다. 임금은 노화를 첩으로 들일 것을 허락해서 노수신은 노화와 한평생을 살게 된다.

(일화/기생 노화/어사 출또/민융기/하늘)

양반 행세하는 백정

진주의 백정 박치수는 가까운 친구인 이방 최영득이 나랏돈 이천냥을 축낸 것을 알고 이를 갚아 준다. 최영득은 그 답례로 좌수 신분증을 박치수에게 만들어 주는데 진짜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 좌수 자리는 내놓게 된다. 박치수는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팔아 충청도 서산으로 이사가서는 암행어사 어우룡이 자신의 이종사촌이라고 한다. 어우룡이 이 소문을 듣고는 박치수에게 가서 신분을 밝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는 다음날 서산군수를 데리고 다시 박치수의 집에 나타나 진짜 양반을 만들어 준다. 박치수는 감사의 표시로 서울로 올라와 큰 집을 사서 어우룡의 가족을 옮겨 살게 하는데 어우룡의 동생이 이 사실을 알고는 양반 행세하는 백정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서산으로 내려 간다. 박치수는 미친 놈이 왔다고 잡아가두니 이틀을 굶고 지내자 박치수에게 아저씨라고 부르게 된다.

(일화./양반이 된 백정/어사출또/민융기/하늘)

영리한 스님

스님이 어느 집에 시주를 갔다가 주인에게 뺨만 한 대 얻어맞고는 분해서 원님에게 고소하니 원님은 주인과 친척간이라 때린 벌금이일 전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느닷없이 원님의 뺨을 한 대 때리고 그 값은 주인에게서 받으라 하고 돌아간다.

(동화/스님의 뺨 값/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영리한 아이

추운 겨울날 참외를 갖다 바치라는 원님의 성화에 아버지가 병석에 눕자 아들은 원님에게 가서' 아버지가 참외를 따다가 독사에게 물려 누워계시다' 고 말하고 원님이 화를 내자 지금 참외가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여 원님은 깨우친다.

(동화/원님을 깨우친 소년/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이야기 잘하는 사위

어느 부자가 이야기 잘하는 사위를 구하자 많은 총각들이 응모하지만 '옛날에…' 라는 말만 시작하면 퇴짜를 놓는다. 한 영리한 총각이 부자에게 가서는 우선 요즈음 이야기를 좋아하시느냐,옛날 이야기를 좋아하시느냐' 고 묻고 요즈음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하자 미륵불 앞에 서 있는 큰 배나무의 배를 따 먹는 이야기를 한다. 도둑질은 할 수 없고 해서 큰 장대로 미륵불의 코를 간지르니 미륵불이 큰 재채기를 해서 떨어진 배를 주워먹었다는 것이었다. 부자는 영리한 그 총각을 사위로 삼는다.

(동화/이야기 잘하는 사위 모집/한국 전래동화4/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인색한 배장수

서울 깍쟁이가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던 차에 만난 배장수에게 배를 달라하니 인색한 배장수는 한마디로 거절한다. 깍쟁이는 앞서 가다가 모내기 하는 여자에게 희롱하는 말을 하여 모든 사람이 그를 잡으러 쫓아온다. 뒤에 오는 배장수를 보며 깍쟁이가' 형님 빨리 오시오' 라고 소리치니 쫓아오는 사람들이 배장수에게 행패를 가해 배는 못쓰게 되고 만다.

(민담/배장수의 봉변/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잃어버린 소를 찾은 농부

어떤 농부가 소를 잃어버리고 점장이가 시키는대로 길가에서 똥을 누면서 점심을 먹으니 길가던 사람들이 전부 한마디씩 한다. 어떤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똥 싸는 놈이 없나,방안에다 소를 키우는 놈이 없나'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추적해 잃었던 소를 찾게 된다.

(민담/소가 웃을 일이다/고려원미디어)

자기 꾀에 속은 노루

이웃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가장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먹자고 제안한 노루는 자기가 하늘의 별을 박으러 사닥다리를 올라갔다 한다. 토끼는 그 사닥다리를 만든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두꺼비는 자기의 세 아들들이 심은 나무로 별을 박는데 필요한 망치와 은하수를 팔 때 쓴 쟁기 자루를 만들었다고 한다.

(동화/동물들의 나이 자랑/한국전래동화/웅진출판)

자기 꾀에 속은 양반

대장장이와 목수의 집 사이에 집을 지은 양반이 두 집의 소음 때문에 그들을 이사시키려고 꾀를 낸다. 대장장이 에게는 집이 물의 터이니 이사가라 하고 목수에게는 집이 불의 터이니 이사가라 하면서 이사 비용도 듬뿍 보태준다. 이사 간다는 날에도 하루종일 시끄러워 가 보니 두 집이 서로 맞 바꿔 이사를 했다.

(민담/대장장이와 목수의 이사)

잔꾀 때문에 망신 당한 부부

코 없는 할아버지와 입이 큰 할머니가 잔칫집에서 망신 당하기가 싫어 할아버지는 초로 코를 만들어 붙이고 할머니는 양쪽 입을 바늘로 꿰맨 후 잔칫집으로 간다. 마침 겨울철이라 밖에서 음식을 먹던 할아버지는 화로가에서 불을 쬐다가 코가 녹아 떨어진다. 많은 사람과 함께 웃던 할머니도 꿰맨 입이 툭 터져 잔칫집은 웃음판이 되었다.

(동화/코 없는 할아버지와 입이 큰 할머니/한국 전래동화5/
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장사꾼 속이는 외팔이

외팔이가 포목점에서 물건을 고른 후 주인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김서방을 통해서 백냥만 보내주시오' 라고 대신 써 달란다. 그 편지를 외팔이를 따라 온 사나이가 가져가더니 백냥을 가져와서 값을 치뤘다. 저녁 때 포목점 주인이 집에 돌아갔더니 아내가 이렇게 묻는다.' 낮엔 어디에 쓰려고 백냥이나 가져갔소?'

(민담/외팔이의 지혜/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장사치 혼내는 김 선달

김 선달이 서울 구경을 와서는 못된 닭장수를 혼내려고 수탉을 봉이라고 하면서 스무 냥에 사 가지고 임금에게 바치니 임금은 수탉을 봉이라고 속여 판 닭장수를 닥달을 한다. 김 선달은 이백 냥을 주고 샀다고 하여 그 돈을 받아내고 그 때부터 봉이 김선달이 라는 별명이 생긴다.

(민담/닭값과 봉값)

재상을 골탕 먹인 시골 선비

과거를 위해 서울로 올라온 어느 선비가 장기로 유명한 재상을 찾아가 노비와 말을 걸고 시합을 하여 지게 되었다. 수십 일 후 과거에 떨어진 그 선비가 다시 나타나 재상은 노비와 말을, 선비는 시골의 밭을 걸고 장기 시합을 하여 승리하고는 노비와 말을 되찾았다. 재상이 놀라니 그 선비는' 장기수법은 원래 제가 높았으나 서울에 머물며 노비와 말을 먹일 수 없어 일부러 졌습니다' 고 하였다.
(민담/교수잡사(작자 미상)/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김영만/을유문화사)

재치 있는 백정

부자 백정이 가난한 양반을 도와 준 후에 경상도 안동으로 이사가서 양반행세를 하고 지내는데 가난한 양반이 출세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그의 매제라고 한다. 양반의 아들이 암행어사로 왔다가 백정의 위신을 세워주나 둘째 아들이 사실을 밝히려고 왔다가는 백정의 꾀에 속아 뜸장을 당하고는 서울로 내뺀다.
(민담/백정과 어사)

재치로 사위가 된 사람

어느 부자가 재치로 자기를 속이면 사위로 삼겠다고 하자 많은 총각이 응모하지만 모두 떨어진다. 똑똑한 총각이 어느 날 나타나서 옛날 자기에게서 10만 냥을 꾸어간 차용증서라며 부자에게 보여준 후 이제 그 10만 냥을 돌려달라고 한다. 부자는 거짓말이라 할 수도 없고 참말이라 할 수도 없어 그 총각의 재치를 인정하고 사위로 삼는다.
(동화/재치있는 사위 모집/한국 전래동화7/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정승을 세 번 속인 총각

자기를 세 번 속이면 천 냥을 주겠다는 정승을 이기는 사람이 없었는데 시골 총각이 와서 쥐고기를 쇠고기라 해서 속고 할아버지끼리 서로 친구였다고 해서 속고 대추 세 광주리 값을 오늘 받아야 된다고 해서 결국 세 번을 속고 만다.
(천 냥짜리 거짓말/우리가 정말…/현암사)

정승을 속인 사람

감사가 임금님께 진상하는 벼루를 깨트린 역졸의 일을 알게 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깨진 벼루를 가지고 서울 정승댁으로 간다. 일부러 정승댁 문지기와 시비를 해서 넘어지고는 문지기가 벼루를 깼다고 떠들고 이를 알게 된 정승이 감사에게 사람을 보내 없었던 일로 무마하겠다 하면서 노자도 듬뿍 주어 돌려보낸다.
(민담/깨어진 벼루)

제 꾀에 넘어간 며느리

잔소리가 많은 시어머니 밑에서 온종일 야단만 맞는 며느리가 있는데 무엇 보다도 참기 어려운 것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꾀를 내어 새벽에 우는 닭을 죽여 버렸는데 시어머니는 어림 짐작으로 더 일찍 일어나 며느리를 들볶는다.
(민담/며느리의 약은 꾀/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조카를 골탕 먹이는 삼촌

나이 많은 조카가 장가를 가게 되자 심술이 난 삼촌은' 첫날 밤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 고 말한다. 조카가 그 말대로 했다가 이부자리에 설사를 하고 망신을 당한다.삼촌이 장가를 가게 되자 조카는 삼촌에게' 아저씨 처가에서 아저씨가 고자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며 내놓으라고 하면 서슴없이 바지를 벗고 보여 주라 한다. 그리고는 삼촌의 처가집에 먼저 가서' 아저씨는 명창인데 내놓으라고 말해야만 노래를 한다' 고 말한다. 혼례식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잔치판에서' 내놓으시오' 라고 말하자 삼촌은 바지를 홀랑 벗고 보여준다.

(민담/심술쟁이 삼촌/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통째로 먹을 얻은 이항복

이항복은 처의 할아버지가 황해 감사로 나갔다 오며 먹을 여러 상자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는 영감이 없는 사이에 먹 구경을 하러 갔다. 장조모(처의 할머니)가 먹상자를 보여주니' 해주에 계시더니 먹마다 기생의 이름을 박았다' 고 속인다. 장조모가 보니 한림 풍월(翰林 風月)등 기생 이름 비슷한 것이 쓰여 있어 먹상자를 내동댕이치려 하자 이항복이' 젊은이들이 나눠 갖겠다' 며 먹을 통째로 얻어온다.

(일화/먹상자/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독한 과일로도 죽지 않는 스님

인색한 주지 스님이 시간을 알기 위해 닭을 기르며 달걀을 삶아 어린 스님이 잠든 후에 혼자 먹었다. 동자승이' 무엇을 잡수시느냐' 하니 주지는' 무뿌리' 라 대답한다. 어느 날 주지가 잠이 깨어 동자승에게 시간을 물으니 마침 닭이 울길래 동자승은' 무뿌리 아버지가 울었다' 한다.또 어느날 익은 감을 따서 숨겨 놓고 주지 혼자서 먹으며' 독한 과일이니 어린 아이가 먹으면 죽는다' 한다. 주지가 없는 사이 동자승은 감을 다 꺼내 먹고는 차 도구와 꿀단지를 부숴 놓고는 나무 위에 올가가 있는다. 돌아온 주지가 호통을 치자' 차 도구와 꿀단지를 깨뜨려 죽으려고 감을 다 먹었으나 죽지 않아 나무에 올라 죽기를 기다립니다' 하였다.

(민담/촌담해이/강희맹/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을유문화사)

중매를 선 아이

홀아비 훈장을 장가보내기 위해 글 배우는 아이가 동네 어른과 짜고서는 다음 날 아침 과부가 방을 나오면 그 방 안에 슬며시 들어가 앉아 있으라고 훈장님께 권한다.아침 일찍 아이는 과부댁에 가서 훈장님을 찾고 이웃 사람이 소를 빌리러 오자 방 안에 있던 훈장이 문을 열며 소를 못 빌려준다' 하여 꼼짝없이 부부가 된다.

(민담/홀아비 훈장 장가보내기/우리가 정말…/현암사)

[해학형]_재치형

간 큰 머슴

자기는 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머슴이 아무데서나 날 수 없고 중국황제 앞에서 날 수 있다고 하여 중국에 잡혀 간다. 머슴은 날 수 있는 옷과 부채를 토끼에게 우연히 얻어 날게 되고 황제도 날아 본다고 하늘로 올라 갔다 돌아오지 못하니 머슴은 졸지에 중국 임금이 된다.

(동화/중국 임금이 된 머슴)

그늘로 집을 얻은 총각

집 앞 느티나무 그늘에서 자던 욕심쟁이 영감은 어떤 총각이 같은 그늘에서 쉬고 있자 자기 나무 그늘에 쉬고 있다고 호통을 치고 총각은 닷 냥에 나무 그늘을 산다. 해가 기울자 총각은 나무 그늘을 따라 부잣집 마당,마루,안방으로 들어간다. 견디다 못한 부자는 이사를 가고 총각은 큰 집을 얻게 된다.

(동화/나무그늘을 산 총각/한국전래동화/웅진출판)

글 잘 쓰는 농사꾼

고춧가루 장사꾼이 장부에다 한글을 썼다고 곤장을 맞고는 원님과 양반들이 노는 곳에 와서 고춧가루를 한문으로 써 달라고 조르니 진땀만 흘린다. 지나가던 농사꾼이 이 꼴을 보고는 호미날로 열 십(十)자를 써 놓고"이렇게 고추(곧추)내려 그었으니' 고추요, 가루(가로) 그었으니 가루' 가 아닙니까"한다.

(민담/고춧가루)

도깨비를 이긴 농부

부지런한 농부의 집에 도깨비들이 몰려와 놀면서 그 집이 자기들의 집이라며 농부를 내쫓으려 한다. 농부는 자기가 지은 집이라며 물러서지 않자 도깨비들은 수수께끼를 내어 이기는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하자고 제안한다. 도깨비가 동해 바닷물이 몇 바가지냐' 고 묻자 농부는 동해 바닷물이 모두 들어가는 큰 바가지로는 한 바가지고 반만 들어가는 바가지로는 두 바가지' 라고 대답하고는 내가 지금 마당으로 내려가겠는가,방으로 들어가겠는가' 하고 되물어 도깨비들이 항복을 한다.

(동화/꾀 많은 농부/한국 전래동화4/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배짱 좋은 노총각

좁쌀 한 알을 들고 길을 떠난 노총각이 점차 쥐,고양이,말,황소로 바꿔어 가고 결국에는 황소를 사 간 정승의 집에 찾아가 시비를 걸다가 정승의 눈에 들어 글공부도 하고 사위도 된다.

(민담/좁쌀 한 알로 장가들기)

변소를 빌려 쓴 사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대변이 마려운 사람이 마땅한 장소가 없자 어린 머슴에게30전을 줄 테니 변소 좀 빌려쓰자고 한다.머슴은 돈에 욕심이 나 주인집 변소를 쓰게 하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변소에서 나오지를 않는다. 애가 탄 머슴이 빨리 나오라고 하자' 셋돈 줄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 한다. 어린 머슴은 그제야 속셈을 알고' 본전을 돌려줄 테니 빨리 나오세요' 하였다.

(민담/성수패설(작자 미상)/태평한화/편집부/신원문화사)

빛으로 방 안을 채운 아이

글방 아이들이 밤에 공부하다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엽전 한 닢을 주며 방 안에 가득 찰 물건을 사오라는 문제를 낸다. 아이들이 해답을 찾지 못하는데 한 아이가 그 돈으로 양초를 사와서는 방 안의 불을 끄고 촛불을 켰다. 불빛으로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이다.

(동화/방 안에 가득 차는 것/한국 전래 동화집1/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뼈있는 농담의 이항복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리는 시대라 사람들은 모여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였다. 오성 이항복은 그런 자세가 못마땅해 그들을 야유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종로에서 중하고 고자하고 싸운다' 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중은 고자의 불알을 잡고 고자는 중의 상투를 잡고 싸운다' 한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하니' 세상 이야기가 전부 거짓말 이라고 대꾸한다.

(일화/말조심/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서로 속이는 아이들

떡을 얻은 세 아이가 내기를 하여 한 사람이 먹기로 한다. 각자 머리 부스럼은 긁지 않고 흘리는 코는 닦지 않고 눈병에 붙는 파리를 쫓지 않기로 하지만 견디지 못한 한 아이가 사슴 뿔 이야기를 하며 머리를 긁자 한 아이는 총으로 쏜다며 코를 닦고 한 아이도 거짓말 듣기 싫다며 파리를 쫓는다.

(동화/떡은 누가?/한국구전동화/앞선 책)

서생을 꾸짖는 이항복

문재가 뛰어난 임제가 죽자 어느 서생이 이항복에게' 임제의 글은 엉터리' 라고 말했다. 이항복은' 죽은 임제는 어떠한지 모르지만 산 임제는 헐뜯어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일화/골계총서(작자 미상)/태평한화/편집부/신원문화사)

서울 양반 골리는 시골 총각

서울 구경을 하러 온 시골 총각이 음식값이 너무 비싸 짐승 먹일 풀을 파는 가게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메밀풀을 사 먹는다. 서울 양반이 지나가다 비웃자 시골 총각은 신경통에 좋은 풀이라며 질경이풀을 사는 척 하고 신경통 있는 서울 양반은 가로채듯 사가지고 먹는 통에 웃음거리가 된다.

(민담/서울 양반에게 풀 먹이기)

술잔이 큰 사람

윤회와 남수문은 문장에도 뛰어났지만 술을 너무 좋아하는 흠이 있었다. 그들을 아끼는 세종이 술을 마실 때에는 석잔을 넘지 못하도록 분부하였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지만 그 잔이 문제였다. 예전에 마시던 술잔보다 몇 배나 큰 잔으로 바꿔마셨기 때문이다.

(일화/필원잡기/서거정/고전국역총서49)

슬기로운 아들

가난뱅이가 부잣집에서 흘러나오는 생선 냄새를 맡자 부자는 냄새 값으로 5냥을 요구하고 다음날 까지 갖어오란다. 가난뱅이의 열 살 먹은 아들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5냥을 갖고 가서는 생선은 못 먹고 냄새만 맡았으니 돈은 드릴 수 없고 돈 소리만 들려드린다고 하며 엽전을 흔들어 소리를 낸다.

(동화/냄새 맡은 값)

쌀 그림을 그린 농부

양식이 떨어진 농부가 친구에게 쌀알 한 낱을 그린 그림을 보낸다. 친구는 편지를 가져온 농부의 아들에게 물어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는 방울을 하나 그려 되돌려 보낸다. 농부는 그 뜻을 알 수 없었는데 시장에서 만나' 양식이 떨어져 달랑달랑 한다는 뜻' 이라 대답한다.

(민담/목숨이 달랑달랑/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억센 시아버지를 누른 며느리

들어오는 며느리를 매번 트집을 잡아 쫓아내는 시아버지가 자청해서 시집 온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자 깜짝 놀랐다. 그는 늘 음식 트집을 잡아서 며느리들을 쫓아냈는데 이번 며느리의 밥상에는 밥과 국 만 있고 반찬도 없이 간장,찬물,돌맹이가 얹혀져 있었다. 시아버지가 트집을 잡자 며느리는' 음식의 간을 못 맞춰 여러 며느리가 쫓겨 났으니 이제 부터는 간장과 맹물로 간을 맞추시고 그래도 입에 맞지 않으면 이 돌로 맛을 모르는 입을 비벼 버리십시오' 라고 대차게 나간다. 시아버지는 만만히 쫓겨 갈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 채고' 내가 졌다' 고 항복을 한다.

(민담/억센 시아버지보다 더 억센 며느리/한국 전래동화9/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이야기꾼 정수동

늙은 대감은 정수동의 이야기만 재미있다고 하니 어느 시골 친구가 정수동을 찾아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해 달라며 한잔을 톡톡히 샀다. 정수동은 대감을 웃길 계책을 말해 준다. 그 후 노대감댁에 모인 여러 사람에게 시골 친구가 재미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장지문 밖에 있는 정수동이 이야기를 귀띔해 주는 것이었다. 한참 이야기를 하던 정수동이 별안간 가 버리자 시골 친구는 말문이 막혀 정수동이 갔다' 고 실토하니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한다. 뒷 날 시골 친구가 정수동에게 따지자 그는' 여보게 그런 망신 않고 자네가 무슨 수로 대감을 웃겨 보겠나' 한다.

(일화/얘기 훈수/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재주 넘치는 기생 설중매

어느 재상이 술자리에서 송도의 기생 설중매에게 너는 아침에는 동쪽 서방 저녁에는 서쪽 서방을 모신다니 오늘은 나를 모시는게 어떠냐' 고 농담을 했다. 설중매는 침착하게' 동쪽 서방 서쪽 서방을 모시는 저와 어제는 왕씨(고려)를,오늘은 이씨(조선)를 섬기는 대감과 어찌 걸맞지 않겠느냐' 고 받아 넘긴다.

(일화/설중매의 명답/선인의 명언 일화1/조수익/민족문화추진회)

재치 넘치는 아이

심부름 가던 아이가 마주 오던 아이에게 길을 묻는다. 길을 가르켜 준 아이에게 다시 얼마나 걸리냐고 물으니 대답을 안한다. 심부름 가던 아이는 화가 나서 가르켜 준 길로 걸어가는데 대답하던 아이가 그 걸음으로 가면 한 시간 반쯤 걸리겠다' 한다.

(민담/그 걸음으로 간다면/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재치 넘치는 정태화

효종 때의 재상 정태화는 우암 송시열과 가까운 사이였는데 정태화의 동생 정치화는 이유도 없이 송시열을 싫어 하였다. 어느 날 송시열이 찾아오자 정치화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는 돌아갔으리라 생각해서 사랑 문 밖에 와서는' 형님,그 놈 갔습니까?' 하였다. 정태화는 태연하게' 글쎄 그 놈이 어디론지 가 버렸구나' 하더니 이어서' 과천의 묘지기는 벌써 가고 지금 우암선생이 와 계시니 속히 들어와 뵙게' 하였다.

(일화/요절일화집/임경일/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을유문화사)

재치 많은 아이

훈장님이 먹으면 죽는 약이라고 하면서 감춰 놓은 조청을 서당 아이들이 꺼내서 다 먹어버리고는 걱정을 하는데 재치 많은 소년이 훈장이 아끼는 도자기를 깨어버리고는 다 같이 누워 있는다. 훈장이 돌아오자 도자기를 깨뜨린 죄로 다같이 죽으려고 약을 먹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자 훈장님도 웃고 만다.

(동화/훈장님의 꿀단지/한국전래동화2/간수원/정원)

재치로 선생님을 이긴 아이

글방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지혜로 나를 방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하였다. 한 아이가 대답하기를' 방 안에 계신 선생님을 나오시게는 못하지만 방 밖에서 방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다' 하였다. 선생님이 방 밖으로 나오자 그 아이는' 선생님이 졌다' 며 상을 달라 하였다.

(동화/재치있는 아이/한국 전래동화1/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

재치에 넘어 간 농부

차분하지 못하고 덜렁대며 몹시 수선을 피우는 농부가 초라니라는 별명을 얻게 되자 그 소리가 듣기 싫어 동네 사람들을 모셔다 잔치를 벌리고는 그 별명으로 부르지 말도록 신신당부를 한다. 그러나 그 농부의 버릇이 예전과 같자 동네 사람들은' 초라니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안 초라니' 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준다.

(민담/안 초라니/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재치있는 사위

오랜만에 온 사위에게 씨암탉을 잡고 쌀밥을 지어 주면서 며느리가 정성스레 지은 것이라고 자랑을 한다. 사위가 첫숟갈에 돌을 깨물자' 저런 쌀을 잘 일었는데...' 라고 며느리가 변명을 하는데 계속 돌을 깨물자 장모가 멋적어졌다. 사위는 얼른 돌보다는 쌀이 많다' 고 말하는데 장모가 또 거들자 사위는' 집에서 먹을 때보다는 돌이 적습니다' 라고 한다. 처가집에 갔더니 마침 싸움을 하다가 장모는 대문으로 나가고 뒤따라온 장인이 사위와 부딪칠 뻔하였다. 장인이' 멍텅구리 할멈이 어디로 갔나' 하고 물어보니 사위는' 멍텅구리 할멈이 이리 갔습니다' 하였다. 장인이 자네도 멍텅구리 할멈이라고 하면 되느냐고 따지니 사위는 장모님 이름이 그런 줄 알았다고 능청을 떤다.

(민담/재치있는 사위/한국 전래동화9/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재치 있는 사위

사위가 오랜만에 처가집에 갔는데 장인,장모가 싸우고 있었다. 장인,장모는 서로 제 편을 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딸을 도로 데려오겠다고 말한다. 사위는 도로 나가면서' 여기 오래 있으면 결국 마누라를 뺏길 터이니 물러갑니다' 했더니 싸움이 뚝 그쳤다.

(민담/재치있는 사위/한국 전래동화9/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중이 되었다는 정수동

정수동이 친구를 따라 묘향산에 들어갔다가 속세가 싫어 중이 되었다는 소문이 부인의 귀에 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동이 멀쩡하게 집에 돌아왔다. 아내가' 당신이 중이 되었다기에 내 간이 콩알만 해졌소 하였더니 정수동은 양반의 간이 크면 역적질을 하고 상놈의 간이 크면 도둑질을 하고 여편네는 간이 크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하였다.

(일화/간의 크기/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큰 잔이 필요한 정수동

정수동이 시골에 사는 친구의 집에 놀러 갔는데 겨우 가난을 면하고 사는 친구였기에 술상이 푸짐하지 못했다. 더구나 술잔이 도토리 깍정이 만한 것을 본 정수동은 별안간 그 잔을 쥔 채 목놓아 통곡한다. 친구가 물으니' 내 형님이 작은 술잔으로 술을 드시다가 목구멍으로 넘어가 돌아가셨지. 그래 형님 생각이 나서 우네' 하니 친구가 얼른 큰 잔으로 바꿔온다.

(일화/작은 잔/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풍랑을 멈추게 한 한의사

바다를 건너던 배가 풍랑을 만나 나뭇잎처럼 흔들거리자 스님이 ' 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 을 불렀으나 효험이 없다. 장님이' 각항씨방' 을 부르고 무당이' 용왕님' 을 차례로 불렀으나 효험이 없기는 마찬가지,의원이 나서서' 이중탕' 을 불렀더니 풍랑이 멎는다. 이중탕은 배아플 때 달여먹는 약인데 바다의 배가 탈이 났으니 불러 본 것이었다.

(민담/이중탕/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할아버지를 살린 소년

미신을 잘 믿는 할아버지가 시장에 갔다 오다가 한 번 넘어지면 3년 밖에 못산다는 고개에서 넘어졌다.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큰 병이 나서 일어나질 못하는데 이웃집 소년이 찾아와 한 번 넘어지면 3년 밖에 못사니 수십 번 넘어지면 오래살 수 있다' 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기운이 나서 삼년 고개로 달려가 수도 없이 뒹굴었는데 3년은커녕 아주 오래오래 잘 살았다.

(동화/삼년 고개/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해학을 즐기는 김인복

김인복은 애꾸였는데 전주부윤을 찾아 갔는데 부윤은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통인.방자.사령을 애꾸눈 가진 사람으로 택하고 수청드는 여자,머무는 숙소의 주인까지도 애꾸눈으로 하였다. 내왕하는 사람이 모두 애꾸눈인데 김인복은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고' 전주부윤 덕택으로 잘 잤지만 도적을 만나게 되면 망볼 사람이 적다' 하였다.부윤은 이 말뜻을 모르고 숙직하는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살피도록 하였는데 김인복은' 그만두어라,다섯 사람이 있으나 모두 외짝 눈이니 도둑을 수비하는 일이 두 사람 반이라는 말이다' 하여 모든 고을 사람들이 웃었다.

(일화/청강선생 소총/이제신 /대동야승/고전국역총서62)

형 보다 높은 아우

어느 판서집의 두 아들이 항상 자기가 높다며 다툰다. 아우가 말하기를' 형님이 날 때는 아버님이 참판이었고 제가 날 때는 아버님이 판서였으니 판서 아들이 높습니까. 참판 아들이 높습니까?' 형님은 말문이 막혀 버렸다.

(민담/판서 아들.참판 아들/한국 전래동화2/이원수.손동인/
창작과 비평사)

망신을 면한 백문선

술을 좋아하는 백문선은 딸의 후행길에 입고 갈 옷이 없어 아내의 고쟁이를 입고 간다. 그러나 아내의 당부도 잊고 술을 실컷 퍼마시고는 잠이 들었다. 잠결에 고쟁이를 벗어던지고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다가 엉뚱하게 아낙네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뜬 아낙네가 알몸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놀래서 전부 일어나는데 안사돈이 재치로서 이불을 덮어 주고는 모두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

(민담/아내 고쟁이 입은 백문선/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복 있는 시골 총각

서울로 올라온 시골 총각이 엉뚱하게도 명궁으로 소문이 나고 그 바람에 정승집에 끌려가 부엉이를 잡고는 사위가 된다. 활쏘기 대회에 나가서는 활시위를 놓지 못하는데 장인이 팔을 치는 바람에 날아간 화살이 솔개의 눈에 맞아 더욱 명성이 높아진다.

(민담/거짓 명궁)

서낭님과 장기두어 장가 간 총각

머슴을 살던 총각이 새경을 받아 세상 구경을 다니면서 장기를 배워 고수가 되었다. 어느날 서낭당에서 혼자 장기를 두며 서낭님과 시합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는 장기를 이긴 후 장가를 보내달라고 서낭님께 빈다. 그 후 외딴 집에서 남편 노릇을 하고는 돈을 받고 쫓겨나고 또 우연히 말을 얻고 신랑 옷도 얻는다. 신랑 옷을 입고 말을 탄채 어느 마을로 들어가니 신랑이 도착했다며 혼인식장으로 끌려들어가 식을 올린다. 신부의 작은아버지와 장기를 두는데 진짜 신랑이 도착하자 작은아버지는 가짜 신랑을 두둔하며 진짜 신랑을 푸대접하여 쫓아보낸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서낭당에 와서 제사를 잘 드렸다.

(민담/서낭님과 장기 둔 총각/한국의 전래동화8/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장모가 된 며느리

홀로 된 며느리가 홀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지만 홀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불쌍해 돈을 주어 내 보낸다. 며느리는 홀아버지를 모시며 사는 노처녀 집에 들어가 홀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두고 온 시아버지가 불쌍해 노처녀를 시집보낸다. 그래서 며느리는 장모가 되고 시아버지는 사위가 된다.

(민담/며느리가 장모 되다)

재복 있는 아이

부모를 잃은 아이가 친구가 숨겨둔 은수저를 찾아내어 그 집에서 살게 되고 대궐까지 불려가 잃어버린 옥쇄를 우연히 찾게 된다. 또 집에 오는 길에 만난 도적이낸 문제도 우연히 알아맞춰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

(동화/거북이와 차돌이)

재수 좋은 삼형제

아버지에게서 유산으로 받은 담뱃대,맷돌,장구를 물려받은 삼형제가 각기 다른 길로 흩어진 후 담뱃대를 가진 큰 형은 큰 지네를 잡고 맷돌을 가진 둘째는 도깨비 방망이를 얻고 장구를 가진 막내는 많은 호랑이를 잡아 함께 모여 잘 살게 된다.

(동화/세 가지 유산)

[해학형]_배짱형

점쟁이가 된 선비

아내한테 쫓겨난 선비가 우연히 한 말로 용한 점쟁이가 되고 우연히 던진 장기판이 명약이 되어 병자를 구한다. 보물 잃어버린 이웃마을 부잣집에 까지 불려가 또 우연히 한 말이 범인을 잡게 해 준다.
(민담/뭉게뭉게 올라간다)

호랑이를 보낸 사람

술버릇 나쁘고 싸움 잘하는 김씨를 따돌리고 동네 젊은이들끼리 깊은 산 속 초막에 들어가 개를 잡고 술을 마시며 놀다보니 날이 어두워졌다. 호랑이 한 마리가 불빛을 보고 다가와서는 창 밖에서 침을 흘리고 있는데 때마침 싸움꾼 김씨가 화가 나서 달려오다가 그만 호랑이를 발로 찼다. 놀란 호랑이가 초막 속으로 뛰어 들어 난장판을 만들고는 도망치는데 김씨가 들어와서 '너희들만 모여서 놀기냐, 내가 호랑이를 한 마리 보내서 놀라게 해 줬지' 라며 말했다.
(민담/기문(작자 미상)/옛날 사람들은 어떨게 말했을까/김영만/을유문화사)

호랑이를 잡은 선비

공부만 하는 선비가 돈을 좀 벌어오라는 부인의 성화에 길에 나섰다가 아홉 장사가 호랑이를 잡으러 간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갔다. 호랑이는 장사가 한 명씩 나설 때마다 큰 소리로 울어 뒷걸음질을 치게 하는데 구경하던 선비가 아홉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라고 한다. 그러나 호랑이가 울자 아홉 명은 무서워하며 전부 물러서자 선비가 이들을 비웃는다. 장사들도 화가 나 선비를 호랑이가 있는 절벽 쪽으로 던져 버렸는데 호랑이가 달려들자 재빨리 땅에 납작 업드렸다. 호랑이가 헛손질을 하고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자 장사들은 선비를 치켜세우며 사죄를 한다. 선비는 큰 상도 받고 장사들에게도 상을 받도록 해 주었다.
(동화/호랑이를 잡은 선비/한국 전래동화9/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살인하고 벼슬얻은 박달

강원도의 박달이란 사람이 벼슬을 얻어보려고 병조판서인 이모부 집에 드나들면서 논밭을 팔아다 바쳤다. 판서는 매양 미루기만 하더니 병이 들어 죽을 것 같았다. 박달은 화가 나서 문병을 가서는' 이왕 죽을 것 내 손에 죽으라' 며 주먹으로 환자의 가슴을 쳤다. 죽어가며 손가락으로 자꾸 박달을 가르키니 박달은 능청스럽게' 대감이 저에게 벼슬한자리 못 주고 가신다고 저러십니다' 고 말한다. 판서가 죽자 그의 아들은 박달에게 선전관 자리를 주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킨다.
(민담/운수/나도 밤나무/신춘성/행림각)

손 문답으로 장가 든 사나이

예쁜 딸을 둔 배 영감이 사위를 고르는 조건으로 장기에서 이길 것과 손으로 하는 벙어리 문답에서 이길 것을 내걸었다. 많은 청년들이 찾아와 퇴짜를 맞고 갔는데 배짱 좋은 총각이 찾아와 대뜸 딸을 달라고 요구한다. 배 영감은 손 문답을 시작하는데 세 가지 문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대답해 통과를 한다. 총각이 마음에 든 배 영감은 실력을 낮추어 총각에게 져주고 사위로 삼는다.
(민담/손으로 문답하여 사위 고르기/한국 전래동화8/최래옥/창작과 비평사)

죽음 앞에서도 농담하는 임형수

임형수는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게 되자 약을 싫어하니 목을 매어 죽겠다' 한다. 허락을 받자 방 안에서 목을 맬 테니 바깥에서 줄끝을 당기라고 하였다. 형졸이 한참 줄을 당겨도 사람이 죽은 기색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 임형수는 '평생 농담을 즐겼기로 목침에 옭아맨 줄을 내보냈다' 하였다.그리고는 독약 든 술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는데 시종이 울며 안주를 권했더니 그는 '상둣꾼끼리 벌주를 먹어도 안주 먹는 법이 없거니 이 벌주가 어떤 벌주인데 안주를 먹겠느냐' 면서 웃으며 죽었다.
(일화/요절일화집(작자 미상)/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김영만/을유문화사)

큰 소리치는 양반 도둑

도둑이 들어와 대청 밑에 숨은 것을 안 주인이 작대기로 도둑을 찔렀더니 그 도둑이' 장난이 심하다. 내 눈과 귀가 다치겠다' 고 소리를 친다. 주인이 기가 막혀' 어찌 너 같은 도둑놈하고 장난을 하겠느냐' 하고 꾸짖자 도둑은 더욱 분개하여' 나도 양반이야. 너는 나를 도둑양반이라 하지 않고 도둑놈이라 했으니 양반을 모욕한 죄로 벌을 받아야겠다' 며 당당히 그 집을 나가 버렸다.

(민담/어수신화/장한종/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을유문화사)

[변이.초자연형]

[변이.초자연형]_도움형.
좋은 결과형

곧은 선비를 돕는 별님

남의 벼이삭을 훔치려던 선비가 별을 보고 부끄러워 그냥 돌아가자 샛별은 머슴으로 변해 선비의 집을 부자로 만든다.

(동화/샛별 머슴/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정오/현암사)

금 손을 얻은 가난뱅이

가난한 사람이 하느님께 치성을 드려 만지기만 하면 금으로 변하는 금 손을 얻었다. 그러나 만지는 것 마다 금으로 변하니 음식도 물도 먹을 수가 없고 아내와 아이들도 금으로 변한다. 금도 아무 필요가 없다고 엉엉 우는 사이 꿈에서 깨어나 헛된 욕심이었음을 깨닫는다.

(동화/금을 낳는 손/한국 전래동화7/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나무꾼 색시가 된 선녀

나무꾼 총각이 옷을 감추는 바람에 나무꾼의 색시가 된 선녀는 아이 둘을 낳았을 때 선녀의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 남편이 다시 하늘에 올라와 옥황상제와 겨룰 때 남편을 도와 옥황상제를 이기게 만들어 남편을 하늘나라에 살게 만든다.

(동화/나무꾼과 선녀/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정오/현암사)

[변이.초자연형]_도움형.
좋은결과론

도둑 귀신을 물리친 젊은이

땅속 나라 도둑귀신이 세 공주를 잡아가자 한 젊은이가 나타나 구하러 간다. 2년이 지나자 부하들도 많이 떠나는데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도둑 귀신이 숨은 바위 구멍을 가리켜 준다. 젊은이는 칡덩굴 밧줄을 타고 내려가 땅속 나라에 닿고 우물 가 나무 위에 숨어 있다가 물 길러 나온 셋째 공주를 만난다. 젊은이가 변한 수박을 셋째공주가 가지고 들어가고 세 공주는 술을 빚고 돼지를 잡아 도둑 귀신을 취하게 한 다음 겨드랑 밑의 비늘을 떼어 죽인다. 젊은이가 세 공주를 광주리에 태워 올려보내자 부하들이 굴 입구를 막아버리니 젊은이는 다시 산신령이 준 말을 타고 대궐로 돌아와 부하들을 벌준 다음 셋째 공주와 결혼한다.

(동화/땅속 나라의 도둑귀신/한국 전래동화3/이원수.손동인/
창작과 비평사)

도둑질을 배운 형제

십 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형제는 뛰어난 도둑질 솜씨를 배워오는데 형은 부자집의 쌀과 돈을 주문을 외우면서 빼내어 가난한 집에 골고루 돌려주고 아우는 염불의 힘으로 가난한 효자의 대구탕을 훔쳤다가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는 바른 곳에만 재주를 쓰게 된다.

(동화/형제의 재주)

둔갑술을 익힌 산돼지

지리산과 백두산에서 둔갑술을 익힌 산돼지와 곰이 친구가 되어 구경을 다니기로 하였다. 사람으로 둔갑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다가 큰 게에게 바쳐진 여자를 대신해서 싸워 상처를 입힌다. 거북이로 둔갑해 냇물을 건너가다가 게를 치료하러 가는 거북이를 만나 다시 게에게로 함께 쫓아가 결국 게를 죽이게 된다.

(동화/도술 닦은 곰과 산돼지/한국 전래동화3/이원수.손동인/
창작과 비평사)

변신하는 여우

형한테 쫓겨난 아우가 소금장수를 하러 다니다 무덤가에서 자게 되고 여우가 할머니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할머니 뒤를 쫓아간 잔칫집에서 꾀를 내어 할머니로 변한 여우를 때려 죽이고 많은 재물을 얻는다. 형도 아우처럼 따라 하다가 진짜 할머니를 때려 큰 고역을 치룬다.

(동화/불여우와 할머니)

변신하는 호랑이

신라시대 김현이라는 총각이 탑돌이 중에 호랑이가 변신한 여인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여인의 집까지 갔으나 호랑이 오빠들이 잡아먹으려 한다. 그 벌로 여인은 호랑이의 몸으로 장터에 내려와 여러 사람을 해치고 김현이 숲속으로 쫓아가자 여인은 스스로 목을 찔러 죽는다. 김현은 나라에서 받은 상금으로 호랑이를 위해 절을 세운다.

(전설/호원사의 유래/일연/삼국유사)

부마가 된 아이

계모에게 죽임을 당한 아이가 개구리,달개비풀,금송아지로 계속 태어나면서 결국에는 임금님의 사위가 되고는 계모의 죄를 모두 밝힌다.

(동화/금송아지/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정오/현암사)

사람 돕는 호랑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천 냥을 갚아주는 신랑 때문에 자청해서 시집을 간 처녀는 신랑의 동네에서 큰 환영을 받으나 흰 노인이 나타나자 모두 사라진다. 알고보니 신랑은 천년 묵은 여우,노인은 백년 묵은 호랑이. 호랑이의 보호를 받으며 호랑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도령이 찾아와 처녀를 데려 가려고 하는 순간 호랑이가 나타나 도령을 물어 죽이자 곧 꼬리 아홉 달린 여우로 변한다. 이제 안심해도 된다며 호랑이는 처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고 처녀는 송아지와 돼지를 잡아 호랑이를 대접한다.

(민담/호랑이와 여우/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사람과 사랑한 호랑이

신라 사람 김현은 탑돌이에서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누나 그녀는 호랑이의 변신이었다. 여인의 집에 까지 쫓아가자 여인의 오빠 호랑이들이 잡아먹으려 하자 그 벌로 여인은 죽음을 택하는데 김현이 출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죽는다. 김현은 그 녀를 위해 호원사라는 절을 세웠다.

(전설/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성불한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같은 동네의 벗으로 백월산에서 각각 수행하였는데 달달박박은 해질무렵에 찾아온 아름다운 낭자를 내쫓았고 노힐부득은 자비심으로 이 낭자를 받아들여 재우고 해산을 돕고 목욕을 시킨다. 낭자는 관세음보살로 변하고 노힐부득은 금물에 목욕하여 성불하고 아침에 온 달달박박도 성불시켜 하늘로 올라간다.

(전설/ 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소가 된 동자승

장난 삼아 나락 세 송이를 끊은 어린 스님은 어른 스님에게 혼이 나고 그 벌로 소가 되어 나락 주인의 집에 가서 3년을 일한 후에야 다시 사람이 된다.

(동화/나락 모가지를 끊었다가)

소가 된 스님

스님 한 분이 조 이삭을 만지다가 손바닥에 떨어진 좁쌀 세 개를 먹고 금방 소가 되어 조밭 주인에게 끌려간다. 3년 후 겨우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도둑 5백 명이 쳐들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 말하여 동구 밖에 음식을 준비하도록 한다. 도둑들이 쳐들어와 음식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이 소는 사람의 목소리로' 좁쌀 세 개를 먹고 이렇게 소가 되었으니 너희들의 죄는 얼마나 큰 것이냐' 며 꾸짖는다. 도둑들이 모두 자기의 죄를 뉘우쳐 머리를 깍고 스님이 되었고 소도 스님으로 돌아와 열심히 불도를 닦는다.

(동화/좁쌀 세 알 먹고 소가 된 스님/한국 전래동화3/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신통력 있는 아들

늙은 내외가 눈,귀,팔,다리가 하나인 반쪼가리 아들을 얻었으나 성장해서는 신통력으로 효자 노릇도 하고 결국 뒷집 정승 딸과 혼인하여 온전한 사람이 된다.

(동화/반쪼가리 아들)

[변이.초자연형]_도움형.
좋은결과론

아유타국에서 온 허왕후

김수로왕은 신하들의 권유에도 결혼을 미루면서 하늘의 명령이 있을 것이라 하더니 아유타국의 공주가 배를 타고 찾아와 혼인하게 되었다. 허왕후는 뛰어나 내조로 제도를 고치고 교화를 펴 백성들의 사랑을 받다가 157세에 죽었다.

(전설/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알에서 깨어난 석탈해

고기잡이 할머니가 까치가 모여든 배를 얻어보니 궤짝이 하나 있었고 그 궤짝 안에서 단정한 사내아이가 나왔다. 스스로 말하기를 용성국의 사람으로 알로 태어나 인연있는 이곳으로 왔다 하였는데 이 아이가 신라의 4대왕인 탈해왕이다.

(신화/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알에서 깨어난 수로왕

김해 지방의 촌장들이 구지봉에 모여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금합을 받고 잘 모셔 두었는데 12일 후에 금합 속에 들어있던 여섯 개의 알이 모두 어린이가 되었고 곧 크게 자라 여섯 가야국의 왕이 되었다.

(신화/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

신라 서라벌(경주)의 여섯 촌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남쪽의 양산 아래 우물가에서 흰 말이 절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들이 가서 보니 붉은 알이 한 개 있어 그것을 깨었더니 사내아이가 나왔다.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이 따라 춤추며 해와 달이 청명해지므로 혁거세라 하고 왕으로 섬겼다.

(신화/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양심에 굴복하는 호랑이

도사로 변신한 호랑이가 어느 부자집의 외아들이 닷새 후에 큰 변을 당한다는 비밀을 나무꾼에게 털어 놓고 사라진다. 나무꾼은 고민하다가 부자집에 비밀을 말하고 아이를 구해 주나 자신은 호랑이에게 먹힐 각오를 한다. 산에서 호랑이를 만난 나무꾼은 내가 어찌 인간의 양심을 버릴 수 있느냐고 말하고 호랑이는 당신이야말로 훌륭한 인간이라고 칭찬하며 바람처럼 사라진다.

(민담/의를 아는 호랑이/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여자가 된 곰

한웅이 무리를 이끌고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세계를 다스릴 때 곰과 호랑이가 사람되기를 원함으로 쑥과 마늘을 주고 백날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 했으나 곰은 21일 만에 여자가 되었고 호랑이는 실패했다. 여자가 된 곰은 한웅의 아이를 낳으니 이가 곧 단군이다.

(신화/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영험한 호랑이

스님으로 변신한 태백산 호랑이가 눈 앞에 대기만 하면 그 사람의 본모습을 볼 수 있는 호랑이 눈썹을 농부에게 준다. 농부는 그 눈썹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개,돼지로 보이는 것을 알고 호랑이가 시키는 대로 다른 마을에게 좋은 여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된다.
(민담/범의 눈썹/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왕후 알영의 탄생

혁거세가 태어나는 날 사량리 알영정이라는 우물가에서 계룡이 나타는 왼쪽 갈비에서 계집아이를 낳았다.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았으나 목욕시키니 떨어져 나왔다. 사내아이는 박(朴)으로 성을 삼고 왕이 되었으며 계집아이는 우물의 이름을 따 알영이라 부르고 뒷날 왕후가 되었다.
(신화/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원수 갚은 지네

약초 캐던 가난한 총각이 지네가 변한 색시와 3년을 살다가 장날에서 초립동이에 방울을 단 소년을 만나고 색시가 지네임을 알게 된다. 소년의 말대로 지네를 죽이려다 3년 정든 것을 생각해 자기가 죽으려고 색시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으니 색시는 초립동이는 천년 묵은 지렁이이며 남편의 원수라고 한다. 지네는 결국 총각의 도움으로 지렁이를 죽이고 총각은 재물을 얻어 잘 살게 된다.
(동화/천 년 묵은 지네)

재주 많은 처녀

하루에 베 열두 필을 짜는 재주 많은 처녀가 신랑감을 구하지만 하루에 열두 칸짜리 기와집을 짓는 총각도,하루에 벼룩 석 섬 서 말을 잡아 코를 꿰어 말뚝에 매어 놓는 총각도 전부 퇴자를 놓는다. 결국 신랑감을 못 구해 절벽에서 몸을 던지고 절벽 밑에 있던 총각이 그 순간에 대밭에서 대를 베어와 광주리를 만들어 받아주어서 살아나게 되어 짝을 맺는다.
(민담/천생배필)

주몽을 도와주는 자라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어려서 금와왕의 밑에서 자랐으나 그의 일곱 아들이 해치려고 함으로 세 벗과 함께 도망쳤으나 강에 이르러 건널 배가 없었다. 주몽은 물에게 해모수의 아들이며 하백의 손자임을 밝히고 도움을 청하니 자라와 고기가 다리를 놓아 무사히 건넜다.
(신화/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주몽의 탄생

하백의 딸 유화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정을 통하여 부모에게 쫓겨나 금와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커다란 알을 낳았다. 금와왕이 그 알을 버렸으나 짐승들이 모두 보호함으로 유화에게 돌려주었는데 한 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다.
(신화/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변이.초자연형]_도움형.
좋은결과론

죽어서도 원한을 푼 김서방

어느 총각이 나뭇짐을 지고 가다 길에서 얼어 죽은 시체를 보고는 지게에 져다가 주막집 노름방 앞에 가져다 놓았다. 노름꾼이 방에서 나왔다가 시체를 보고는 여럿이 방에다 들여다 놓고 밤새 노름을 하다가 그만 깜박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시체는 그때 정신을 차려 일어나니 술 먹고 길에서 잠들었다가 거의 죽게 된 사람이었다. 그도 집으로 돌아갔는데 노름꾼들이 돌아와 시신이 없어졌다 하여 그 소문이 관가에 들어갔다. 애매한 주막집 주인이 살인범으로 몰렸는데 매를 맞더니 거짓으로 시체를 묻은 장소를 가르켜 주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네에 사는 김서방의 시체가 나와 주막집 주인이 진짜 살인범이 되려는 순간, 구경꾼 중에서 시체를 지고 간 총각과 시체가 되었던 사람이 나타났다. 다시 김서방의 뒷조사를 하여 그의 부인이 정부와 짜고 죽인 것임을 밝혀내는데 김서방은 죽어서도 원한을 풀려고 이런 일을 꾸며 자기 무덤을 파헤치게 했던 것이다.

(민담/ 원한이 서린 죽음/한국 전래동화8/최래옥/창작과 비평사)

파랑새가 된 우렁각시

장가 못 간 노총각이 들에서 일하다가 말하는 우렁이를 찾아 집으로 돌아오고 그 때부터 우렁이는 색시로 변해 살림을 차리게 된다. 우렁이 색시는 점심밥을 차려 들에 나가다 원님에게 끌려가고 남편은 몇 달을 관청 담 밖에서 울다가 죽으니 우렁 각시도 따라 죽어 두 마리 파랑새가 된다.

(동화/우렁이 각시)

허물 벗는 신랑

구렁이로 태어난 아들이 이웃집 셋째 딸에게 장가를 가서 허물을 벗고 늠름한 신랑으로 변한다. 신랑이 과거 보러 간 사이 두 언니가 구렁이 허물을 빼앗아 태워버리는 바람에 신랑은 사라지고 색시는 천신만고 끝에 다시 구렁이 신랑을 만나게 된다.

(동화/구렁덩덩 신선비)

호랑이 신과 결혼한 호경

왕건의 선조인 호경(虎景)은 동네 사람 9명과 사냥을 갔다가 굴 속에서 지내게 되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으르렁거리자 각자의 모자를 던지기로 하는데 호랑이가 호경의 관을 물어 호경이 밖으로 나오니 굴이 무너져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 호경은 호랑이 신과 결혼해 사라지고 꿈에 전 부인과 동침해 왕건의 조상인 강충(康忠)을 낳는다.

(전설/호경이 신이 되다/한호의 미술/조자용/에밀레박물관)

혼이 들린 돌쩌귀

소금장수가 말하는 돌쩌귀를 얻어 도인으로 소문이 나고 대궐에까지 불려 가 매번 원님이 죽는 마을로 내려간다. 돌쩌귀의 도움으로 백여우 둘을 잡고 한마리는 놓쳤으나 결국 이웃 나라까지 가서 임금의 첩이 되어 있는 백여우를 죽인다. 결국 돌쩌귀에 혼이 들린 사람의 집으로 가서 장례를 치뤄준다.

(민담/이상한 돌쩌귀)

황금궤에서 나온 김알지

숲 속 나뭇가지에 걸린 황금궤에서 상서로운 광명이 나오고 또 흰 닭이 나무 밑에서 울고 있음을 보고는 왕이 가서 열어보니 사내아이가 나왔다. 이 아이가 김알지로 김씨의 시조이며 그의 후손인 미추가 왕위에 올랐다.

(신화/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가족을 몰살한 여우

아들 삼형제를 둔 부자 영감이 딸 자식을 원하였는데 정말 딸을 낳아 소중히 길렀다. 6년 후부터 말이나 소가 죽기 시작해서 큰아들에게 밤새도록 외양간을 지키도록 했더니 한밤중에 누이동생이 나타나 소의 간을 꺼내먹자 소가 죽어버리는 것이었다. 둘째아들도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아버지는 두 아들이 누이동생을 모함한다며 내쫓아 버렸다. 두 아들은 우연히 도사를 만나 공부를 하다가 약병 셋을 얻어 집으로 돌아갔는데 부모는 물론 셋째아들도 다 누이동생에게 잡혀 먹었다. 누이동생에게 샘물을 길어오라 하고 도망을 치는데 누이동생은 여우로 변신해 뒤쫓아 온다. 가면서 가시 나무가 생기는 물병,불바다가 되는 물병,깊은 바다가 생기는 물병을 차례대로 던져 여우는 물에 빠져 죽게 된다.

(동화/여우 누이동생과 삼형제/한국 전래동화3/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꼬리 아홉 달린 여우

난향이란 처녀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천 냥을 갚아주고 신부로 삼으려던 여우는 호랑이의 방해로 실패하고 다시 도령으로 변신해서 호랑이의 집에서 살고 있는 처녀를 꾀어내려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다.

(민담/호랑이와 여우/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학민사)

나그네를 쫓는 여우

어여쁜 여자로 변신한 여우가 길을 잃은 나그네를 잡아먹으려 하지만 나그네는 미리 알고 도망을 치다가 오히려 여우의 아들에게 잡힌다. 겨우 담을 헐고 탈출하는데 호랑이 등에 떨어져 굴로 잡혀간다. 새끼들을 간신히 죽이고 나무 위로 피신하는데 쫓아온 여우들과 호랑이가 싸우다 서로 다 죽는다. 나그네는 여우굴에서 많은 보물을 얻어 집으로 돌아온다.

(동화/여우와 나그네/한국전래동화3/강수원/정원)

돌이 되버린 총각

마음씨 착한 노총각이 단오날 들에서 집으로 돌아오다 하늘에서 땅으로 귀양온 선녀를 만난다. 그들은 노총각의 집에서 같이 사는데 1년이 되는 단오날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종을 세 번 쳐도 선녀가 올라오지 않자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알고는 벼락을 때려 돌로 만든다. 사람들은 선녀와 바위라는 총각의 이름을 따서 선녀바위라 부르게 된다.

(전설/선녀바위/한국 전래동화4/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몸이 안 보이는 사람

산속에서 길을 잃고 무덤 곁에서 자게 된 사람이 귀신들에게 몸을 안 보이게 하는 능텅감투를 얻어 쓰고 제사집에 가서 제사 음식을 실컷 먹고는 감투를 쓴 채 집으로 도망간다. 제사 음식을 계속 먹으러 다니다가 어느날 감투를 본 아내가 태워버리는데 이 사람은 그 재를 온 몸에 바르고 제사집에 갔다가 손 등의 재가 벗어져 들통이 나고 만다.

(동화/능텅감투/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진오/현암사)

백발이 되어 버린 사람

소금장수가 외딴 집에서 캄캄한 밤중에 그의 집의 아낙네와 함께 남편의 시체를 찾으러 가고 또 혼자 시체를 지키다가 너무나 무서워 하룻밤 사이에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된다.

(민담/하루 사이에 백발/우리 옛이야기 백가지/서청오)

사람으로 변한 들쥐

절에서 3년간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집안에는 이미 자기 행세를 하는 똑 같은 모습의 도령이 있다. 시험 끝에 집에서 쫓겨난 진짜 도령은 길에서 스님을 만나 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가짜 도령 앞에 내놓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 고양이가 가짜 도령의 목을 물으니 커다란 들쥐로 변하여 죽고 만다. 절에 있을 때 손톱 발톱을 깎아 아무데나 버린 것을 들쥐가 먹고 도령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동화/손톱을 먹은 들쥐/한국 전래동화/지선옥/바른사)

[변이.초자연형]_선악이 없는형

곰나루

나뭇꾼 젊은이가 산에서 길을 잃고 처녀 혼자 사는 집에 묵는데 처녀는 자기와 함께 살기를 청한다. 젊은이는 같이 살면서 어떻게 음식을 마련하는지 궁금하여 한밤중에 처녀를 따라갔더니 암곰으로 변하여 사슴을 사냥하는 것이었다. 허겁지겁 강을 헤엄쳐 건너오는데 곰은 수영을 못해 물에 빠져 죽고 만다.

(동화/곰나루/한국전래동화4/강수원/정원)

귀신을 부리는 비형랑

비형랑은 진지대왕의 혼령이 도화녀와 관계하여 낳은 아들이다. 밤중에 항상 귀신을 데리고 놀았는데 길달이라는 귀신에게 벼슬을 주었으나 여우로 변하여 도망감으로 비형랑이 잡아 죽였다. 이로부터 귀신들은 비형랑의 이름만 듣고도 달아났고 비형랑에 대한 글을 대문에 붙여 귀신을 쫓는 풍속이 생겼다.

(전설/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으면 귀가 갈라지는데 한 사람을 잡아먹었으면 굴각(屈閣),두 사람이면 이올, 세 사람이면 죽혼이라 부른다. 다섯 갈래로 갈라진 호랑이 그림도 있다.

(전설/호랑이의 귀/한호의 미술/조자용/에밀레박물관)

오릉의 유래

혁거세왕이 죽어 하늘로 올라가고 7일후에 그 몸둥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는데 함께 모아 장사지내려 하니 큰 뱀이 쫓아와 방해함으로 그대로 장사지냈다. 다섯으로 나누어 봉분을 만들었음으로 오릉이라 하는데 지금도 그대로 전한다.
(신화/삼국유사/일연/대양서적)

[기인형]

[기인형]_도움형

귀신을 알아내는 장님

귀신을 알아보는 장님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색깔있는 떡에 붙어서 잔칫집으로 가는 귀신을 발견하곤 그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병이 난 새색시를 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계집종이 문종이를 뚫고 엿보는 바람에 귀신은 도망치고 만다. 장님 할아버지는 점점 유명한 점장이가 되어 임금님 앞에 불려가 쥐 한 마리를 넣은 상자 속의 물건을 알아맞춰 보라는 시험을 본다. 장님은 쥐 세 마리라 하여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뱃속에 새끼 두 마리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장님을 구해 주려 한다. 그러나 깃발을 오른쪽으로 나부끼게 하려니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왼쪽으로 깃발이 나부껴 장님은 사형을 당하고 만다. 장님에게 쫓겨난 귀신이 깃발로 장난을 친 때문이다.
(민담/장님과 귀신/한국 전래동화5/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남의 발목에 못 박은 사람

관상을 잘 보는 도사가 어느 집에 묵는데 그 주인의 관상이 아주 훌륭한데도 가난하게 사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같이 자면서 보니 주인은 두 발목을 붙여서 꼬고 자길래 도사는 위에 얹어 놓은 발목의 복사뼈에 대나무 못을 박았다. 주인은 노발대발했지만 도사는 3년 후에 다시 보자며 사라져 버렸다. 주인은 발을 포개고 잘 수 없어 자연히 두 발을 버리고 자는데 차츰차츰 재산이 불어 부자가 되었다. 3년 후에 나타난 도사는 발을 꼬고 자면 타고난 복이 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
(민담/발목에 못을 박은 사람/한국 전래동화9/최래옥/창작과 비평사)

도둑을 잡는 전우치

전우치가 나라에 자수하자 임금은 선전관이라는 벼슬을 준다. 함경도 가달산에 도둑떼가 들끓어 전우치는 이를 퇴치하러 간다. 나뭇잎으로 병사를 만들고 자기는 장수가 되어 도둑의 성으로 쳐들어가 잔치판를 엉망으로 만든다. 도둑의 두목과 칼싸움을 벌리다 결국 도술로써 두목을 사로잡고 부하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
(민담/가달산의 도둑/한국 전래동화4/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욕심을 경계한 전우치

길을 가던 전우치가 장례를 못치루고 있는 사나이를 만나자 족자 하나를 주며 그림 속의 고지기를 불러 백 냥을 달래서 장사를 치르라고 한다. 사나이는 장사를 잘 치루고 매일 한 냥씩 족자 속의 고지기에게서 얻었는데 어느 날 백 냥을 얻어쓰려고 고지기와 함께 그림 속의 창고에 들어갔다가 문이 닫혀 나오지 못한다. 그는 곧 관리들에게 붙잡혀 호조 판서에게 끌려가 관가의 돈을 훔친 죄로 사형을 받게 된다. 목이 잘릴 순간 전우치가 나타나 그를 구해주고는 욕심을 부렸다고 크게 꾸짖는다.

(민담/그림 속의 사람/한국 전래동화4/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기인형]_좋고나쁨이 없는형

사형장에서 사라진 전우치

모반을 일으킨 사람들이 전우치를 임금으로 모시려 했다는 말을 하여 전우치는 사형을 당하게 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고는 한 마리 나귀를 그린 후에 그것을 타고 사라져 버린다. 도망 친 전우치는 이조 판서 왕연희의 집에 나타나 그와 똑 같은 모습으로 둔갑해서는 오히려 진짜 왕연희를 여우로 만들어 혼을 낸다. 왕연희는 이유도 없이 전우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민담/반역죄/한국 전래동화4/이원수.손동인/창작과 비평사)

저승에 갔다 온 사람

어느 젊은 선비가 병을 앓다가 별안간 죽는다. 식구들이 장례를 지내고 며칠 후에 가보니 무덤이 갈라져 있어 무덤의 흙을 팠더니 죽었던 선비가 살아 나온다. 그는 흰 개 두 마리를따라 강을 건너가서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이름은 같으나 다른 사람이라면서 다시 데려다 주라고 한다. 개를 따라 강을 건너다 물에 빠졌는데 그 때 땅 파는 소리가 나서 살아났다는 것이었다.

(동화/ 죽었다 살아난 사람 /한국 전래동화4/이원수.손동인/
창작과 비평사)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 양소유

육관대사는 형산에 머물며 설법을 하는데 동정호의 용왕도 참여하였기에 그의 제자 성진을 인사차로 보내었다. 성진은 돌아오다 형산의 여덟 선녀를 도중에서 만나 애정을 느껴 놀고 헤어졌다. 그 벌로 아홉 명은 인간 사회로 내 쫓기는데 성진은 양소유로 팔선녀는 여러 계급의 여자로 각 지방에 태어난다. 양소유는 소년 급제한 후 여덟 여자를 차례로 만나 전부 아내로 삼고 호화스런 생활을 한다. 어느 날 아홉 명이 함께 모여' 인간의 이런 향락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 도를 닦기로 한다. 그들은 육관대사에게 나아가 불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극락세계로 들어간다.

(소설/구운몽/김만중/한국고전명작/학일출판사)

sound study system

소리





[S-1 사람음]

_ 말소리 _ 웃음소리 _ 울음과 비명소리 _ 탄성소리 _ 기타소리

[S-2 동물음]

_ 집짐승 _ 들짐승 _ 날짐승 _ 곤충 _ 기타

[S-3 자연음]

_ 물소리 _ 바람소리 _ 천둥,비

[S-4 일상음]

_ 뚜벅뚜벅 _ 삐그덕, 쾅, 똑똑 _ 쨍그렁, 덜그럭 _ 툭, 탁, 탕
_ 부시럭, 차르륵 _ 휙, 싱, 뽁, 통 _ 전화 _ 하수구 _ 소음
_ 자동차, 오토바이 _ 비행기, 총 _ 각종 신호음 _ 각종 기계음 _ 각종 장난감

[S-5 서양음]

_ 고전음악 _ 대중음악 _ 영화음악

[S-6 효과음]

_ 단순한 효과 _ 강도가 높은 효과

[S-7 민속음]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



[S_1 사람음]

[S_1_1 사람음]_말소리

S1-1-01	싫어요. 전 꼭 따라갈거에요
S1-1-02	안된다면 안되요
S1-1-03	까불고 있어
S1-1-04	너희들이 아니니?
S1-1-05	걱정마세요
S1-1-06	고자질쟁이라고 그러는 거야.
S1-1-07	이 건방진 놈
S1-1-08	타기 싫으면 내리세요.
S1-1-09	발 닦을 준비해
S1-1-10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마라
S1-1-11	도대체가 건방진 놈이 라니까
S1-1-12	난 그런 것 싫어
S1-1-13	나 좀 재워 줘
S1-1-14	나는 그 정도 예의는 있는 사람이야
S1-1-15	어디 있느냐?
S1-1-16	걸리기만 하면
S1-1-17	찾아와라
S1-1-18	큰일 날뻔 했다
S1-1-19	뭐야 저건
S1-1-20	걱정하지 말아요
S1-1-21	정말 고맙습니다
S1-1-22	지금 누구 놀리시는 거에요?
S1-1-23	화나거나 하지 않는다
S1-1-24	아주머니 무슨 소리에요
S1-1-25	걱정말아요
S1-1-26	괴롭혀!

[S_1_2 사람음]_웃음소리

S1-2-01	하하하1
S1-2-02	하하하2
S1-2-03	하하하3
S1-2-04	아주 잘하는데?
S1-2-05	하하하4
S1-2-06	하하하5
S1-2-07	하하하6
S1-2-08	하하하7
S1-2-09	하하하8
S1-2-10	하하하9
S1-2-11	하하하 이래도 네가 최고냐?
S1-2-12	하하하(남+녀)
S1-2-13	하하하10
S1-2-14	하하하11
S1-2-15	하하하12
S1-2-16	하하하13
S1-2-17	하하하14
S1-2-18	하하하15
S1-2-19	하하하16
S1-2-20	하하하17

[S_1_3 사람음]_울음과 비명소리

S1-3-01	으으윽 무서워
S1-3-02	형이 찾아와야 해
S1-3-03	늙은 것도 서러운데
S1-3-04	악!
S1-3-05	아빠, 이제 그만하고 가요
S1-3-06	으으윽
S1-3-07	으악! 사람살려

[S_1_4사람음]_탄성소리

S1-4-01	악1
S1-4-02	악2
S1-4-03	으악1
S1-4-04	아차1
S1-4-05	아차2
S1-4-06	으악2
S1-4-07	우와1
S1-4-08	우와2
S1-4-09	우와3
S1-4-10	우와4

[S_1_5사람음]_기타소리

S1-5-01	으으으악
S1-5-02	흐흐흐악
S1-5-03	으으으흑
S1-5-04	휘이이익
S1-5-05	우아
S1-5-06	하아아
S1-5-07	아하(하품)
S1-5-08	아아하
S1-5-09	크흑 크흑(기침)
S1-5-10	하아하아
S1-5-11	허
S1-5-12	뽀오오옥

[S_2 동물음]

[S_2_1동물음]_집짐승

S2-1-01	개 짖는 소리1
S2-1-02	개 짖는 소리2
S2-1-03	닭1
S2-1-04	돼지 소리
S2-1-05	말소리
S2-1-06	쥐소리
S2-1-07	말 뛰는 소리
S2-1-08	가축1
S2-1-09	강아지 짖는 소리1
S2-1-10	소1
S2-1-11	개 짖는 소리3
S2-1-12	개 짖는 소리4
S2-1-13	개 짖는 소리5
S2-1-14	가축2
S2-1-15	가축3
S2-1-16	닭2
S2-1-17	닭3
S2-1-18	개 짖는 소리6
S2-1-19	가축4
S2-1-20	개 짖는 소리7
S2-1-21	개 짖는 소리8
S2-1-22	가축5
S2-1-23	가축6
S2-1-24	가축7
S2-1-25	강아지 짖는 소리2
S2-1-26	강아지 짖는 소리3
S2-1-27	가축8
S2-1-28	개 신음 소리
S2-1-29	가축9
S2-1-30	가축10
S2-1-31	닭4
S2-1-32	닭우는 소리
S2-1-33	여러 마리의 개
S2-1-34	소2
S2-1-35	염소

[S_2_2동물음]_들짐승

S2-2-01	호랑이 으르릉1
S2-2-02	호랑이 짖는 소리
S2-2-03	호랑이 으르릉2
S2-2-04	여러마리 늑대
S2-2-05	코끼리1
S2-2-06	닭
S2-2-07	들짐승1
S2-2-08	들짐승2
S2-2-09	들짐승3
S2-2-10	들짐승4
S2-2-11	들짐승5
S2-2-12	들짐승6
S2-2-13	들짐승7
S2-2-14	들짐승8
S2-2-15	코끼리2
S2-2-16	들짐승9
S2-2-17	사자
S2-2-18	코끼리2
S2-2-19	코끼리3
S2-2-20	들짐승10
S2-2-21	들짐승11
S2-2-22	들짐승12
S2-2-23	들짐승13
S2-2-24	들짐승14
S2-2-25	말 울음 소리

S2-2-26	사자 소리
S2-2-27	늑대 소리
S2-2-28	여러 마리 새 소리
S2-2-29	늑대 울음 소리
S2-2-30	여우 울음 소리

[S_2_3동물음]_날짐승

S2-3-01	새 소리(+물 소리)
S2-3-02	여러 마리 작은 새 소리
S2-3-03	날짐승1
S2-3-04	날짐승2
S2-3-05	날짐승3
S2-3-06	날짐승4
S2-3-07	날짐승5
S2-3-08	날짐승6
S2-3-09	날짐승7
S2-3-10	날짐승8
S2-3-11	날짐승9
S2-3-12	날짐승10
S2-3-13	날짐승11
S2-3-14	날짐승12
S2-3-15	날짐승13
S2-3-16	날짐승14
S2-3-17	날짐승15
S2-3-18	날짐승16
S2-3-19	날짐승17
S2-3-20	날짐승18
S2-3-21	날짐승19
S2-3-22	날짐승20
S2-3-23	날짐승21
S2-3-24	날짐승22
S2-3-25	날짐승23
S2-3-26	날짐승24
S2-3-27	날짐승25
S2-3-28	작은 새 소리1
S2-3-29	작은 새 소리2
S2-3-30	새 소리1
S2-3-31	새 소리2
S2-3-32	새 소리3
S2-3-33	새 소리4
S2-3-34	벌떼 소리
S2-3-35	뻐꾸기 소리
S2-3-36	새 소리
S2-3-37	날짐승27
S2-3-38	새끼 새 소리1
S2-3-39	새끼 새 소리2
S2-3-40	멀리서 들리는 새 소리

[S_2_4동물음]_곤충

S2-4-01	곤충1
S2-4-02	곤충2
S2-4-03	곤충3
S2-4-04	곤충4
S2-4-05	곤충5
S2-4-06	곤충6
S2-4-07	매미 소리
S2-4-08	귀뚜라미(+개 소리)
S2-4-09	귀뚜라미
S2-4-10	여치 소리

[S_2_5동물음]_기타

S2-5-01	기타1
S2-5-02	기타2
S2-5-03	기타3
S2-5-04	기타4
S2-5-05	기타5
S2-5-06	기타6
S2-5-07	기타7
S2-5-08	기타8
S2-5-09	기타9
S2-5-10	기타10

[S_3 자연음]

[S_3_1자연음]_물소리

S3-1-01	물 소리1
S3-1-02	물 소리2
S3-1-03	물 소리3
S3-1-04	물 소리4
S3-1-05	물 소리5

[S_3_2자연음]_바람소리

S3-2-01	바람 소리1
S3-2-02	바람 소리2
S3-2-03	바람 소리3
S3-2-04	바람 소리4
S3-2-05	바람 소리5
S3-2-06	바람 소리6
S3-2-07	바람 소리7
S3-2-08	바람 소리8
S3-2-09	바람 소리9
S3-2-10	바람 소리10
S3-2-11	바람 소리11
S3-2-12	바람 소리12
S3-2-13	바람 소리13
S3-2-14	바람 소리14
S3-2-15	바람 소리15
S3-2-16	바람 소리16
S3-2-17	바람 소리17
S3-2-18	바람 소리18

[S_3_3자연음]_천둥,비

S3-3-01	천둥1
S3-3-02	천둥2
S3-3-04	비1
S3-3-05	비2
S3-3-06	비3
S3-3-07	비4
S3-3-08	비5
S3-3-09	비6
S3-3-10	비7
S3-3-11	천둥3
S3-3-12	천둥4
S3-3-13	천둥5
S3-3-14	천둥6
S3-3-16	비8

[S-4 일상음]

[S_4_1일상음]_뚜벅뚜벅

S4-1-01	뚜벅뚜벅1
S4-1-02	뚜벅뚜벅2
S4-1-03	뚜벅뚜벅3
S4-1-04	뚜벅뚜벅4
S4-1-05	뚜벅뚜벅5
S4-1-06	뚜벅뚜벅6
S4-1-07	뚜벅뚜벅7
S4-1-08	뚜벅뚜벅8
S4-1-09	뚜벅뚜벅9
S4-1-10	뚜벅뚜벅10
S4-1-11	뚜벅뚜벅11

[S_4_2일상음]_삐그덕,쾅,똑똑

S4-2-01	음1
S4-2-02	음2
S4-2-03	음3
S4-2-04	음4
S4-2-05	음5
S4-2-06	음6
S4-2-07	음7
S4-2-08	음8
S4-2-09	음9
S4-2-10	음10
S4-2-11	음11
S4-2-12	음12
S4-2-13	음13
S4-2-14	음14
S4-2-15	음15
S4-2-16	음16
S4-2-17	음17
S4-2-18	음18
S4-2-19	음19
S4-2-20	음20
S4-2-21	음21
S4-2-22	음22
S4-2-23	음23
S4-2-24	음24
S4-2-25	음25
S4-2-26	음26

[S_4_3일상음]_쨍그렁,덜그럭

S4-3-01	음1
S4-3-02	음2
S4-3-03	음3
S4-3-04	음4
S4-3-05	음5

[S_4_4일상음]_툭,탁,탕

S4-4-01	음1
S4-4-02	음2
S4-4-03	음3
S4-4-04	음4
S4-4-05	음5
S4-4-06	음6
S4-4-07	음7
S4-4-08	음8
S4-4-09	음9
S4-4-10	음10
S4-4-11	음11
S4-4-12	음12
S4-4-13	음13
S4-4-14	음14
S4-4-15	음15
S4-4-16	음16
S4-4-17	음17
S4-4-18	음18
S4-4-19	음19
S4-4-20	음20
S4-4-21	음21
S4-4-22	음22
S4-4-23	음23
S4-4-24	음24
S4-4-25	음25

[S_4_5일상음]_부시럭,차르륵

S4-5-01	음1
S4-5-02	음2
S4-5-03	음3
S4-5-04	음4
S4-5-05	음5
S4-5-06	음6
S4-5-07	음7

[S_4_6일상음]_휙,싱,뽁,통...

S4-6-01	음1
S4-6-02	음2
S4-6-03	음3
S4-6-04	음4
S4-6-05	음5
S4-6-06	음6
S4-6-07	음7
S4-6-08	음8

[S_4_7일상음]_전화

S4-7-01	전화1
S4-7-02	전화2
S4-7-03	전화3
S4-7-04	전화4

[S_4_8일상음]_하수구

S4-8-01	하수구1
S4-8-02	하수구2
S4-8-03	하수구3
S4-8-04	하수구4
S4-8-05	하수구5

[S_4_9일상음]_소음

S4-9-01	소음1
S4-9-02	소음2
S4-9-03	소음3
S4-9-04	소음4
S4-9-05	소음5
S4-9-06	소음6
S4-9-07	소음7
S4-9-08	소음8
S4-9-09	소음9

[S_4_10일상음]_자동차,오토바이

S4-10-01	오토바이1
S4-10-02	오토바이2
S4-10-03	오토바이3
S4-10-04	자동차
S4-10-05	자동차 경적소리
S4-10-06	여러대의 오토바이

[S_4_11일상음]_비행기,총

S4-11-01	비행기1
S4-11-02	비행기2
S4-11-03	총장전 소리
S4-11-04	총 소리1
S4-11-05	총 소리2
S4-11-06	총 소리3
S4-11-07	총 소리4
S4-11-08	총 소리5
S4-11-09	총 소리6
S4-11-10	총 소리7
S4-11-11	총 소리8
S4-11-12	총 소리9
S4-11-13	총 소리10
S4-11-14	총 소리11
S4-11-15	총 소리12
S4-11-16	총 소리13

[S_4_12일상음]_각종 신호음

S4-12-01	기적 소리
S4-12-02	신호음1
S4-12-03	신호음2
S4-12-04	신호음3
S4-12-05	신호음4
S4-12-06	신호음5
S4-12-07	신호음6
S4-12-08	신호음7
S4-12-09	신호음8
S4-12-10	신호음9
S4-12-11	알람
S4-12-12	신호음10
S4-12-13	신호음11
S4-12-14	신호음12
S4-12-15	벨 소리
S4-12-16	자전거 경적 소리
S4-12-17	화재경보
S4-12-18	큰 자명종 소리
S4-12-19	성당의 종소리1
S4-12-20	신호음13
S4-12-21	기차 경적 소리1
S4-12-22	기차 경적 소리2
S4-12-23	성당의 종 소리2
S4-12-24	성당의 종 소리3
S4-12-25	배 고동 소리
S4-12-26	절의 종 소리와 목탁 소리

[S_4_13일상음]_각종 기계음

S4-13-01	기계음1
S4-13-02	기계음2
S4-13-03	기계음3
S4-13-04	기계음4
S4-13-05	기계음5
S4-13-06	기계음6
S4-13-07	기계음7
S4-13-08	기계음8
S4-13-09	기계음9
S4-13-10	기계음10
S4-13-11	기계음11
S4-13-12	기계음12
S4-13-13	기계음13
S4-13-14	기계음14
S4-13-15	기계음15
S4-13-16	기계음16
S4-13-17	기계음17
S4-13-18	기계음18
S4-13-19	기계음19
S4-13-20	기계음20
S4-13-21	기계음21
S4-13-22	기계음22
S4-13-23	기계음23
S4-13-24	기계음24
S4-13-25	기계음25
S4-13-26	기계음26
S4-13-27	기계음27
S4-13-28	기계음28
S4-13-29	기계음29
S4-13-30	기계음30
S4-13-31	기계음31
S4-13-32	기계음32
S4-13-33	기계음33
S4-13-34	기계음34

[S_4_14일상음]_각종 장난감

S4-14-01	장난감1
S4-14-02	장난감2
S4-14-03	장난감3
S4-14-04	장난감4
S4-14-05	장난감5

[S_5 서양음]

[S_5_1 서양음]_고전음악

S5-1-01 Johann Sebastian Bach:
Air'(On the G String") from Orchestral Suite No.3, BMW 1068
Rampal Encore/CBS

S5-1-02 Johann Sebastian Bach:
Concerto No.1, BWV 1041, in A Minor
Heifetz/RCA Victor

S5-1-03 Brahms :
Hungarian Dance No.5
Brahms Greatest Hits/Progate

S5-1-04 Brahms :
Hungarian Dance No.6
Brahms Greatest Hits/Progate

S5-1-05 Frederic Chopin:
Nocturn(야상곡) No.1 b-moll op.9 No.1:Larghetto
Daniel Barenboim, Chopin Nocturns/Deutshe Gramapho

S5-1-06 Frederic Chopin:
Nocturn(야상곡) No.2 Es-dur op.9 No.2:Andante
Daniel Barenboim, Chopin Nocturns/Deutshe Gramaphon

S5-1-07 Di Capua :
O Sole Mio
Pavarotti, Amore/London

S5-1-08 Donizetti
Una furtiva lagrima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Pavarotti, Amore/London

S5-1-09 Albert Franz Doppler:
Hungarian Pastoral Fantasy
Rampal Encore/CBS

S5-1-10 Elga:
Salut d'amour(사랑의 인사)
Ofra Harnoy, Salut d'amour/ RCA Victor

S5-1-11 George Gershwin:
Kickin' the clouds away
Gershwin Plays Gershwin, The piano rolls/Elektra Nonesuch

S5-1-12 George Gershwin:
Rhapsody in Blue
Gershwin Plays Gershwin, The piano rolls/Elektra Nonesuch

S5-1-13 George Gershwin:
Summertime
Ofra Harnoy, Salut d'amour/ RCA Victor

S5-1-14 George Gershwin:
Sweet and Lowdown
Gershwin Plays Gershwin, The piano rolls/Elektra Nonesuch

S5-1-15 Keisler:
Serenade Espagnole
Yo-Yo Ma, Kreisler.Paganini/ CBS Masterworks

S5-1-16 Gluck:
The Dance of the Blessed Spirits from' Orfeo ed Euridice
Rampal Encore/CBS

S5-1-17 Haendel:
Lascia ch'io pianga
Farinelli, Il Castrato (o.s.t.)/ Travelling

S5-1-18 Haendel:
Rinaldo
Farinelli, Il Castrato (o.s.t.)/ Travelling

S5-1-19 John Zorn:
Cat O'Nine Tails
Kronos Quartet, Short Stories/ Elektranonsuch

S5-1-20 Franz Listz:
Mephisto Waltz No.1
The Young Ashkenazy/

Testament

S5-1-21 Franz Liszt:
Hungarian Rhapsody No.2 in C sharp minor
Liszt, Complete Hungarian Rhapsodies/Philips

Franz Liszt:
Hungarian Rhapsody No.2 in E flat

S5-1-22 Liszt, Complete Hungarian Rhapsodies/Philips

J.P. Martini:
Plaisir d'amour
Victoria De Los Angeles/EMI

S5-1-23 Mendelssohn:
Auf Flugeln des Gesanges,
Op. 34 No.2

S5-1-24 Victoria De Los Angeles/EMI

Mozart:
Eine Kleine Nachtmusik-Allegro
Mozart Greatest Hits/RCA Victor

S5-1-25 Mozart:
Symphony No.41" Jupiter", Molto Allegro
Mozart Greatest Hits/RCA Victor

S5-1-26 Mozart:
Clarinet Concerto in A, K.622-Adagio
Mozart Greatest Hits/RCA Victor

Mozart:

S5-1-27 **Sonata in A, K.331-Rondo**
alla turca (Turkish March)
Mozart Greatest Hits/RCA Victor

S5-1-28 Mozart:
Piano Concerto No.21
" Elvira Madigan", Andante
Mozart Greatest Hits/RCA Victor

S5-1-29 Paganini:
Variations on a theme from Moses(Rossini)
Yo-Yo Ma, Kreisler.Paganini/
CBS Masterworks

S5-1-30 Serge Prokofiev:
Piano Sonata No.7 in B flat major,
op.83
The Young Ashkenazy/Testament

Puccini :

S5-1-31 **Che gelida manina(그대의 찬손),**
LA BOHEME
The World of Puccini/Polygram

Puccini :

S5-1-32 **Si, mi chiamano Mimi**
(내 이름은 미미),
LA BOHEME
The World of Puccini/Polygram

S5-1-33 Puccini :
O mio babbino caro,
GIANNI SCHICCHI
The World of Puccini/Polygram

Puccini :

S5-1-34 **Un bel di(어떤 개인 날),**
MADAMA BUTTERFLY
The World of Puccini/Polygram

Rachmaninoff :

S5-1-35 **Prelude in G Minor, Op. 23, No.5**
Rachmaninoff Greatest Hits/
CBS Masterworks

Rachmaninoff :

S5-1-36 **Vocalise, Op.34, No.14**
Rachmaninoff Greatest Hits/
CBS Masterworks

Saint Saens:

S5-1-37 **The Swan**
Ofra Harnoy, Salut d'amour/
RCA Victor

Franz Schubert :

S5-1-38 **Ave Maria**
Masters of Classical Music, Vol.9

Johann Strauss
Fruhlingsstimmen(봄의 왈츠)

S5-1-39 Strauss Waltzes/DECCA

Johann Strauss:
An der schonen blauen Donau

S5-1-40 **(푸른 도나우 강의 왈츠)**
Strauss Waltzes/DECCA

Johann Strauss:

S5-1-41 **Kaiser-Walzer (황제 왈츠)**
Strauss Waltzes/DECCA
Peter Tchaikovsky:
Swan Lake: Ballet Suite

S5-1-42 Masters of Classical Music, Vol.6
Antonio Vivaldi:
The 4 Seasons-" Spring"

S5-1-43 Masters of Classical Music, Vol.7
Richard Wagner
Tannhauser-overture

S5-1-44 Masters of Classical Music, Vol.5
Corelli:
Concerto Grosso in G minor, Op.6, No.8

S5-1-45 **" Christmas"**
Baroque Splendor/Vox-Turnabout
Beethoven:

S5-1-46 **Piano Sonata No.26 in E Flat, Op.81a <Les Adieu>(고별' 소나타)**
Beethoven Favorite Piano Sonatas/Philips

S5-1-47 Beethoven:
Piano Sonata No.8 in C Minor, Op.13 <Pathetique>(비창' 소나타)
Beethoven Favorite Piano Sonatas/Philips
Beethoven:

S5-1-48 **Symphony No.5 op.67 C minor/ c-moll'(운명' 교향곡)**
Beethoven Collection Vol. /
Laserlight
Beethoven:

S5-1-49 **Piano Sonata No.14 in C Sharp Minor, Op.27 No.2<Moonligh**
Beethoven Favorite Piano Sonatas/Philips

S5-1-50

[S_5_2서양음]_대중음악

S5-2-01 Jazz/Bill Evans:
Come Rain or Come Shine
Portrait in Jazz/Fantasy, 예음

S5-2-02 Jazz/Bobby Mcferrin
Simple Pleasure
Simple Pleasure/EMI

S5-2-03 Jazz/Charlie Rouse
Back to Tropics
Bossa Nova Bacchanal/Blue Note

S5-2-04 Jazz/Chet Baker
My Funny Valentine
Chet Baker Sings Again/Bellaphon

S5-2-05 Jazz/Duke Jordan
No Problem
Flight to Denmark/Steeple Chase

S5-2-06 Jazz/Ella Fitzgerald
Mack the Knife
Jazz Masters 6/Verve

S5-2-07 Jazz/Stan Getz, Joao Gilberto
The Girl from Ipanema
Gets/Gilberto/Verve

S5-2-08 Jazz/Antonio Carlos Jobim
Wave
Antonio Carlos Jobim: WAVE/A&M

S5-2-09 Jazz/John Coltrane
Soul Eyes
The Gentle Side of John Coltrane/
impulse

S5-2-10 Jazz/Julie London
Cry me a River
Julie Sings Love/EMI

S5-2-11 Jazz/Julie London
Fly Me to the Moon
Julie Sings Love EMI

S5-2-12 Jazz/Keith Jarret
Country
Keith Jarret, My Song/ECM

S5-2-13 Jazz/Keith Jarret
My Song
Keith Jarret, My Son/ECM

S5-2-14 Jazz/Louis Armstrong
What a Wonderful World
Louis Armstrong, What a Wonderful World/BMG
Jazz/Chuck Mangione

S5-2-15 **Feel So Good**
Classic Volume 6/A&M
Jazz/Miles Davis

S5-2-16 **Somethin' Else**
The Best of Miles Davis/Blue Note
Jazz/Ry Cooder

S5-2-17 **Big Bad Bill is Sweet Williams Now**
Ry Cooder Jazz/Warner Bros. Music
Jazz/Sarah Vaughan

S5-2-18 **Body and Soul**
Sarah Vaughan-Tenderly/
Musicraft Jazz/Stan Getz

S5-2-19 **Manha de Carnival**
Stan Getz Big Band Bossa Nova/
Verve
50's Falk/Neil Sedaka

S5-2-20 **Happy Birthday, Sweet Sixteen**
Niel Sedaka/BMG
50's Falk/Neil Sedaka

S5-2-21 **Oh Carol**
Niel Sedaka/BMG
90's New Age/Enigma

S5-2-22 **Return to Innocence**
Enigma 2- the Cross of Changes/Charisma
Record

S5-2-23 90's New Age/Enya
Shepherd Moons
Enya Shepherd Moon/
Reprise Records

S5-2-24 90's New Age/The Benedictine Monks of
Santo Domingo de Silos
Puer natus est nobis
Chant/Angel

50's Falk/Patti Page
How much is that Doggie in the window
S5-2-25 The Best of Patti Page/Dana Music
50's Falk/Patti Page
Tennessee Waltz
The Best of Patti Page/Dana Music

S5-2-26 60's Falk Rock/the Mamas & the Papas
Dancing in the Street
the Mamas & the Papas 16 Their Greatest
S5-2-27 Hits/MCA
60's Falk Rock/the Mamas & the Papas
Monday, Monday
the Mamas & the Papas 16 Their Greatest
Hits/MCA

S5-2-28 80's Pop/Michael Jackson
Beat It
Michael Jackson History/epic
80's Pop/Michael Jackson
Billie Jean

S5-2-29 Michael Jackson History/epic
80's Pop/Michael Jackson
Thriller

S5-2-30 Michael Jackson History/epic
90's Rap/서태지와 아이들
Yo! Taiji

S5-2-31 SeoTaiji and Boys III /반도음반
90's Rap/서태지와 아이들

	교실이데아
S5-2-32	SeoTaiji and Boys III/반도음반
	90' s Rap/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
S5-2-33	SeoTaiji and Boys II /반도음반
	90' s Rap/서태지와 아이들
	환상 속의 그대
S5-2-34	SeoTaiji and Boys III /반도음반
	90' s Rap Metal/rage against
	the machine
S5-2-35	**Bullet in the Head**
	rage against the machine/EPIC
	60' s Rock & Roll/Beatles
S5-2-36	**All My Loving**
	The Beatles Anthology/Apple
	60' s Rock & Roll/Beatles
	Can' t Buy Me Love
S5-2-37	The Beatles Anthology/Apple
	60' s Rock & Roll/Beatles
	Roll over Beethoven
S5-2-38	The Beatles Anthology/ Apple
	60' s Rock & Roll/Beatles
	Twist and Shout
S5-2-39	The Beatles Anthology/ Apple
	60' s Rock & Roll/Elvis Presly
	Hound Dog
S5-2-40	Elvis-An Afternoon in the Garden/
	BMG
	60' s Rock & Roll/Elvis Presly
S5-2-41	**Proud Mary**
	Elvis-An Afternoon in the Garden/
	BMG
	60' s Rock & Roll/Elvis Presly
S5-2-42	**Love me**
	Elvis-The Ultimate Love Songs Collection/BMG
	60' s Rock & Roll/Elvis Presly
	Love me tender
S5-2-43	Elvis-The Ultimate Love Songs Collection/BMG
	90' s Metal Rock/X-Japan
	Rocket Dive
	Ja, Zoo:Hide/MVCH
S5-2-44	90' s Metal Rock/X-Japan
	Spread Beaver
	Ja, Zoo:Hide/MVCH
	Latin/Gipsy Kings
S5-2-45	**Bamboleo**
	Gipsy Kings/Elektra
	Latin/Gipsy Kings
S5-2-46	**Moorea**
	Gipsy Kings/Elektra
	90' s Industrious/Bjork
S5-2-47	**Army of me**
	BJORK.Post/Polygram
	90' s Industrious/Coal Chamber
S5-2-48	**Tragedy**
	Coal Chamber/Jigu
S5-2-49	
S5-2-50	

[S_5_3서양음]_영화음악

S5-3-01 Aladdin
A Whole New World
Princess Collection/Disney

S5-3-02 Aladdin
One Jump Ahead
Club Disney Volume 2/Disney

S5-3-03 Anastasia
Once Upon a Dream
Anastasia/20th Fox

S5-3-04 Anastasia
The Nightmare
Anastasia/20thFox

S5-3-05 Beauty & the Beast
Home
Princess Collection/Disney

S5-3-06 Beauty & the Beast
Mob Song
Club Disney Volume 2/Disney

S5-3-07 Cinderella
So This is Love
Princess Collection/Disney

S5-3-08 Birdy (music by Peter Gabriel)
At Night
Birdy/Geffen

S5-3-09 Birdy (music by Peter Gabriel)
Close up
Birdy/Geffen

S5-3-10 Birdy (music by Peter Gabriel)
Floating Dogs
Birdy/Geffen

S5-3-11 Birdy (music by Peter Gabriel)
Slow Marimbas
Birdy/Geffen

S5-3-12 The Fabulous Baker Boys
(music by Dave Grusin)
Shop till You Bop
The Fabulous Baker Boys/
GRP Records

S5-3-13 The Fabulous Baker Boys
(music by Dave Grusin
Soft on Me
The Fabulous Baker Boys/
GRP Record

S5-3-14 The Fabulous Baker Boys
(music by Dave Grusin)
Main Title(Jack's Theme)
The Fabulous Baker Boys /
GRP Recor

S5-3-15 Hercules
I won't Say (I'm in Love)
Club Disney Volume 2/Disney

S5-3-16 Hercules
Zero to hero
Club Disney Volume 2/Disney

S5-3-17 Silk Road(music by Kitaro)
Heavenly Father
Silk Road/Gramavision

S5-3-18 Silk Road(music by Kitaro)
Shimmering Light
Silk Road/Gramavision

S5-3-19 Silk Road(music by Kitaro)
Silk Road Theme
Silk Road/Gramavision

S5-3-20 Silk Road(music by Kitaro)
Westbound
Silk Road/Gramavision

S5-3-21 Last Exit to Brooklyn
(music by Mark Knopfler)
Last Exit to Brooklyn
Last Exit to Brooklyn/Polygram

S5-3-22 Last Exit to Brooklyn
(music by Mark Knopfler)
Love Idea
Last Exit to Brooklyn/Polygram

S5-3-23 Last Exit to Brooklyn
(music by Mark Knopfler)
Tralala
Last Exit to Brooklyn/Polygram

S5-3-24 The Prince of Egypt

Let Go, Let God

Inspirational The Prince of Egypt/Dreamwork

The Prince of Egypt

S5-3-25 **Let My People Go**

Inspirational The Prince of Egypt/Dreamwork

The Little Mermaid

Part of Your World

S5-3-26 Princess Collection/Disney

The Little Mermaid

Poor Unforgetable Souls

S5-3-27 Club Disney Volume 2/Disney

The Little Mermaid

Sea Floor Strout

S5-3-28 Splash Hits/Disney

Mary Poppins

Chim Chim Cher-ee

S5-3-29 Club Disney Volume 2/Disney

Prospero's Books

(music by Michael Nieman)

S5-3-30 **Caliban' Pit**

Prospero's Books/London

Prospero's Books

(music by Michael Nieman)

S5-3-31 **Come unto these Yellow Sands**

Prospero's Books/London

Prospero's Books

(music by Michael Nieman)

S5-3-32 **Come and Go**

Prospero's Books/London

Pocahontas

Colors of the Wind

S5-3-33 Princess Collection/Disney

Bleu (music by Zbigniew Preisner)

Bolero

S5-3-34 Bleu/EMI

Europa, Europa

(music by Zbigniew Preisner)

S5-3-35 **Exode**

Europa Europa/DRG

Oliver Oliver

(music by Zbigniew Preisner)

S5-3-36 **main title**

Oliver Oliver/DRG

Oliver Oliver

(music by Zbigniew Preisner)

S5-3-37 **Apre La Cheminee**

Oliver Oliver/DRG

Bleu (music by Zbigniew Preisner)

Song for the Unification of Europe

S5-3-38 Bleu/EMI

music by Ryuichi Sakamoto

1919

1996-Ryuichi Sakamoto/BMG

S5-3-39 마지막사랑(music by Ryuichi Sakamoto)

The Sheltering Sky

1996-Ryuichi Sakamoto/BMG

S5-3-40 The Last Emperor

(music by Ryuichi Sakamoto)

Rain

S5-3-41 1996-Ryuichi Sakamoto/BMG

The Wuthering Heights

(music by Ryuichi Sakamoto)

High Heels

S5-3-42 1996-Ryuichi Sakamoto/BMG

Sleeping Beauty

Once Upon a Dream

Princess Collection/Disney

S5-3-43 Sleeping Beauty

I wonder

Princess Collection/Disney

S5-3-44 SnowWhite and the Seven Dwarfs

Heigh-Ho

Club Disney Volume 2/Disney

S5-3-45 SnowWhite and the Seven Dwarfs

Someday My Prince Will Come

Club Disney Volume 2/Disney

S5-3-46 Song of the South

Zip-A-Dee-Doo-Dah

Club Disney Volume 2/Disney

S5-3-47 Saving Private Ryan

(music by John Williams)

Omaha Beach

S5-3-48 Saving Private Ryan/Dreamworks

Schindeler's List

(music by John Williams)

Remembrance

S5-3-49 Schindeler's List/MCA

Saving Private Ryan

(music by John Williams)

Wade's Death

S5-3-50 Saving Private Ryan/Dreamworks

[S_6 효과음]

[S_6_1 효과음]_단순한 효과

S6-1-01	효과1
S6-1-02	효과2
S6-1-03	효과3
S6-1-04	효과4
S6-1-05	효과5
S6-1-06	효과6
S6-1-07	효과7
S6-1-08	효과8
S6-1-09	효과9
S6-1-10	효과10
S6-1-11	효과11
S6-1-12	효과12
S6-1-13	효과13
S6-1-14	효과14
S6-1-15	효과15
S6-1-16	효과16
S6-1-17	효과17
S6-1-18	효과18
S6-1-19	효과19
S6-1-20	효과20
S6-1-21	효과21
S6-1-22	효과22
S6-1-23	효과23
S6-1-24	효과24
S6-1-25	효과25
S6-1-26	효과26
S6-1-27	효과27
S6-1-28	효과28
S6-1-29	효과29
S6-1-30	효과30
S6-1-31	효과31
S6-1-32	효과32
S6-1-33	효과33
S6-1-34	효과34
S6-1-35	효과35
S6-1-36	효과36
S6-1-37	효과37
S6-1-38	효과38
S6-1-39	효과39
S6-1-40	효과40
S6-1-41	효과41
S6-1-42	효과42
S6-1-43	효과43
S6-1-44	효과44
S6-1-45	효과45
S6-1-46	효과46
S6-1-47	효과47
S6-1-48	효과48
S6-1-49	효과49
S6-1-50	효과50
S6-1-51	효과51
S6-1-52	효과52
S6-1-53	효과53
S6-1-54	효과54
S6-1-55	효과55
S6-1-56	효과56
S6-1-57	효과57
S6-1-58	효과58
S6-1-59	효과59
S6-1-60	효과60

[S_6_2효과음]_강도가 높은 효과

S6-2-01 효과1
S6-2-02 효과2
S6-2-03 효과3
S6-2-04 효과4
S6-2-05 효과5
S6-2-06 효과6
S6-2-07 효과7
S6-2-08 효과8
S6-2-09 효과9
S6-2-10 효과10
S6-2-11 효과11
S6-2-12 효과12
S6-2-13 효과13
S6-2-14 효과14
S6-2-15 효과15
S6-2-16 효과16
S6-2-17 효과17
S6-2-18 효과18
S6-2-19 효과19
S6-2-20 효과20
S6-2-21 효과21
S6-2-22 효과22
S6-2-23 효과23
S6-2-24 효과24
S6-2-25 효과25
S6-2-26 효과26
S6-2-27 효과27
S6-2-28 효과28
S6-2-29 효과29
S6-2-30 효과30
S6-2-31 효과31
S6-2-32 효과32
S6-2-33 효과33
S6-2-34 효과34
S6-2-35 효과35
S6-2-36 효과36
S6-2-37 효과37
S6-2-38 효과38
S6-2-39 효과39
S6-2-40 효과40
S6-2-41 효과41
S6-2-42 효과42
S6-2-43 효과43
S6-2-44 효과44
S6-2-45 효과45
S6-2-46 효과46
S6-2-47 효과47
S6-2-48 효과48
S6-2-49 효과49
S6-2-50 효과50
S6-2-51 효과51
S6-2-52 효과52
S6-2-53 효과53
S6-2-54 효과54
S6-2-55 효과55
S6-2-56 효과56
S6-2-57 효과57
S6-2-58 효과58
S6-2-59 효과59
S6-2-60 효과60
S6-2-61 효과61
S6-2-62 효과62
S6-2-63 효과63
S6-2-64 효과64
S6-2-65 효과65
S6-2-66 효과66
S6-2-67 효과67
S6-2-68 효과68
S6-2-69 효과69
S6-2-70 효과70

[S_7 민속음]

S7-01진도씻김.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02진도씻김.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03진도씻김.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04진도씻김.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05진도씻김.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06진도씻김.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07진도씻김.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08진도씻김.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09진도씻김.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10진도씻김.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11진도씻김.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12진도씻김.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13진도씻김.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14진도씻김.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15수궁가.mp3	박초월/한국의 전통음악4/지구	음성
S7-16보허자.mp3	국립국악원연주단/옛궁중의 생활음악/서울	양성
S7-17보허자.mp3	국립국악원연주단/옛궁중의 생활음악/서울	양성
S7-18보허자.mp3	국립국악원연주단/옛궁중의 생활음악/서울	양성
S7-19보허자.mp3	국립국악원연주단/옛궁중의 생활음악/서울	양성
S7-20시나위.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21시나위.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22시나위.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23시나위.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24시나위.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25시나위.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26시나위.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27창부타령.mp3	장덕화 외/이춘희 민요가락/신나라	양성
S7-28영산회상.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양성
S7-29영산회상.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양성
S7-30영산회상.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양성
S7-31영산회상.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양성
S7-32영산회상.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양성
S7-33영산회상.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양성
S7-34영산회상.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양성
S7-35영산회상.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양성
S7-36영산회상.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양성
S7-37태평소시나위.mp3	최경만/한국의 전통음악2/지구	양성
S7-38가야금산조.mp3	김죽파/한국의 전통음악2/지구	양성
S7-39가야금병창호남가.mp3	박귀희/한국의 전통음악3/지구	음성
S7-40문묘.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음성
S7-41문묘.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음성
S7-42문묘.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음성
S7-43문묘.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음성
S7-44문묘.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음성
S7-45문묘.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음성
S7-46문묘.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음성
S7-47문묘.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음성
S7-48우락.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양성
S7-49경풍연.mp3	국립국악원연주단/옛궁중의 생활음악/서울	양성
S7-50삼현상영산.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양성
S7-51삼수대엽.mp3	이동규/한국의 전통음악3/지구	양성
S7-52사물놀이.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2/지구	양성
S7-53사물놀이.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2/지구	양성
S7-54판소리흥보가.mp3	박동진/한국의 전통음악3/지구	양성

S7-55판소리흥보가.mp3	박동진/한국의 전통음악3/지구	음성
S7-56생소병주염양춘.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음성
S7-57퉁애산조.mp3	한범수/한국의 전통음악4/지구	음성
S7-58대금독주.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음성
S7-59대금독주.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음성
S7-60대금독주.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음성
S7-61대금독주.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음성
S7-62대금독주.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음성
S7-63대금독주.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음성
S7-64대금독주.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음성
S7-65거문고산조.mp3	한갑득/한국의 전통음악4/지구	음성
S7-66범패.mp3	박송암/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67범패.mp3	박송암/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음성
S7-68어부사.mp3	이양교/한국의 전통음악3/지구	음성
S7-69수제천.mp3	국립국악원연주단/옛궁중의 생활음악/서울	음성
S7-70회심곡.mp3	국립국악원연주단/생활국악대전집9/서울	양성
S7-71삼현상령.mp3	국립국악원연주단/한국의 전통음악1/지구	음성

자료출처목록

그림

이야기

소리

비디오

그밖의 참고자료

1.그림자료

- <한국호랑이>, 올림픽경기장개장기념 전시 도록
- <한국 호랑이>, 김호근/윤열수, 열화당
- <민화이야기>, 윤열수, 디자인하우스.
- <조선시대의 민화 I, II, III,IV, V, VI>, 이영수, 예원
- <이조의 민화>, 이우환, 열화당
- <한국의 민화, I,II>, 임두수, 서문당
- <한복>, 한림
- <한국의 충효위인 도감>, 김학수, 한국도의 교육진흥회
- <한국인의 얼굴>, 국립민속박물관
- <한국무신도>, 김태곤, 열화당
- <국보 3, 8, 20>, 예경산업사
- <Korean Art 100 masterpieces>, Editions, API
- <기산풍속도첩>, 조흥윤, 범양사
-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옷>, 권오창, 현암사
- <조선의 미소>, 고미술연구소 솟대하늘, 나랏말
- <한호의 미술>, 조자룡
- <조선시대 후기의 민화 1>
- <장수도깨비>, 삼신학회 제 2회 신교미술전 도록
- <석굴암>, 황수영/예정산업사
- <장승>, 황헌만, 열화당
- <미술문고 22- 한국의 장승>, 주명덕, 열화당
- <한국의 탈>, 문화체육부, 대학사
- <나무꼭두와 인형>, 열화당
- <민속도록>, 온양민속박물관

- <빛깔있는 책들/산신도>, 윤열수, 대원사
- <빛깔있는 책들/지옥도>, 이기선, 대원사
- <빛깔있는 책들/한국의 무속>, 김태곤, 대원사
- <빛깔있는 책들/장승과 벅수>, 김두하, 대원사
- <빛깔있는 책들/한국의 토종개>, 하지홍/임인학, 대원사
- <한국의 미/풍속화>, 중앙일보
- <한국의 미/한국민화>, 중앙일보
- <한국전통생활의 미>, IBM
- <민화연작전>, 호암미술관 도록

2.이야기자료

<한국의 전래 동화집> 총 12권, 이원수/손동인/최래옥, 창작과 비평사

<한국의 전래 동화> 총 40권, 웅진출판

<한국의 전래동화>, 총 3권, 샘터

<한국고전명작>, 백두성, 학일출판사

<나도 밤나무>, 신춘성, 행림각

<태평한화>, 편집부, 신원문화사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 김영만, 을유문화사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웃었을까>, 김영만, 을유문화사

<고전국역총서 62: 사제록>,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49: 용재총화/성현,대동야승>,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49: 필원잡기/서거정>,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50: 청파극담/이륙>, 민족문화추진회

<선인의 명언일화 1>, 조수익, 민족문화추진회

<삼국유사>, 일연, 대양서적

<삼국사기>, 김부식, 삼중당문고

<어사출또>, 민융기, 하늘

<거지정승>, 민융기. 하늘

<한국의 민담>, 최운식, 시인사

<한국호랑이 설화집>, 한상수, 문지사

<천냥짜리 입담>, 최래옥, 동아출판사

<판소리 열두마당>, 유준필, 들불

<한국전래동화 1,2,3,4>, 강수원, 정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 서정오, 현암사

<한국구전동화>, 앞선책

<한호의 미술>, 조자용, 에밀레박물관
<소가 웃을 일이다>, 고려원미디어
<조선호랑이 이야기>, 이가원, 학민사
<호랑이>, 손도심, 서울신문사
<옛날이야기>, 이영, 예림당
<한국전래동화>, 지선옥, 바른사
<한국전래동화 연구>, 손동인, 정음문화사
<한겨레 옛이야기 1-소별왕대별왕/당금애기>, 한겨레신문사
<한겨레 옛이야기 2-바리공주/강남국일곱쌍둥이>, 한겨레신문사
<한겨레 옛이야기 3-황우양씨 막막부인>, 한겨레신문사
<한겨레 옛이야기 4-한락궁이/원천강 오늘이>, 한겨레신문사
<한겨레 옛이야기 5-강림도령/궤네깃또>, 한겨레신문사
<옛이야기 보따리 1- 참 이상하고 신기한 이야기/두꺼비 신랑>, 서정오, 보리
<옛이야기 보따리 5- 은근슬쩍 놀려주는 이야기/나귀 방귀>, 서정오, 보리
<옛이야기 보따리 7- 아기자기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떼굴떼굴 떡 먹기>, 서정오, 보리
<춘향전/심청전>, 이상보 주해, 범우사

3.소리자료

<한국의 전통 음악 1, 2, 3, 4, >, 지구

<생활국악대전집 9, >, 서울

<옛궁중의 생활 음악>, 서울

<이춘희 민요가락>, 신나라

<뿌리깊은 나무 조선소리선집-12>, 신나라

<안숙선-지음>, nice

<서편제>, 서울

<황천길>, 김수철, 서울

<장사익-하늘가는 길>, 예음

<이야기가 있는 동물의 세계>. Shilla Record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 뮤직마스터

<효과음 1집-사계절 효과음>, 오아시스

<효과음 2집-정서교육을 위한 효과음>, 오아시스

<효과음 3집-동물의 소리>, 오아시스

<효과음 Library 1- 風, 雨, 雪>, columbia, made in Japan

<효과음 Library 10- 梵鐘>, columbia, made in Japan

<효과음 Library 5- i野鳥>, columbia, made in Japan

<Rampal Encore>, CBS

<Heifetz>, RCA Victor

<Brahms Greatest Hits>, Progate

<Daniel Barenboim, Chopin Nocturns>, Deutshe Gramaphon

<Pavarotti, Amore>, London

<Gershwin Plays Gershwin, The piano rolls>, Elektra Nonesuch

<Ofra Harnoy, Salut d'amour>, RCA Victor

<Yo-Yo Ma, Kreisler.Paganini>, CBS Masterworks
<Farinelli, Il Castrato (o.s.t.)>, Travelling
<Kronos Quartet, Short Stories>, Elektranonsuch
<The Young Ashkenazy>, Testament
<Liszt, Complete Hungarian Rhapsodies >, Philips
<Victoria De Los Angeles>, EMI
<Mozart Greatest Hits>, RCA Victor
<The Young Ashkenazy>, Testament
<The World of Puccini>, Polygram
<Rachmaninoff Greatest Hits>, CBS Masterworks
<Franz Schubert:Masters of Classical Music>, Vol.9
<Strauss Waltzes >, DECCA
<Peter Tchaikovsky:Masters of Classical Music>, Vol.6
<Antonio Vivaldi:Masters of Classical Music>, Vol.7
<Richard Wagner: Masters of Classical Music>, Vol.5
<Baroque Splendor>, Vox-Turnabout
<Beethoven Favorite Piano Sonatas>, Philips
<Beethoven Collection Vol.1>, Laserlight
<Portrait in Jazz>, Fantasy/예음
<Simple Pleasure>, EMI
<Bossa Nova Bacchanal>, Blue Note
<Chet Baker Sings Again>, Bellaphon
<Flight to Denmark>, Steeple Chase
<Jazz Masters 6>, Verve

<Antonio Carlos Jobim: WAVE>, A & M

<The Gentle Side of John Coltrane>, impulse

<Julie Sings Love>, EMI

<Keith Jarret, My Song>, ECM

<Louis Armstrong, What a Wonderful World>, BMG

<The Best of Miles Davis>, Blue Note

<Ry Cooder Jazz>, Warner Bros. Music

<Sarah Vaughan-Tenderly>, Musicraft

<Stan Getz Big Band Bossa Nova>, Verve

<Niel Sedaka>, BMG

<Enigma 2- the Cross of Changes>, Charisma Record

<Enya Shepherd Moon>, Reprise Records

<Chant>, Angel

<The Best of Patti Page>, Dana Music

<the Mamas & the Papas 16 Their Greatest Hits>, MCA

<Michael Jackson History>, epic

<SeoTaiji and Boys III>, 반도음반

<rage against the machine>, EPIC

<The Beatles Anthology>, Apple

<Elvis-An Afternoon in the Garden>, BMG

<Elvis-The Ultimate Love Songs Collection>, BMG

<Ja, Zoo:Hide>, MVCH

<Gipsy Kings>, Elektra

<BJORK.Post>, Polygram

<Coal Chamber>, Jigu

<Princess Collection>, Walt Disney

<Splash Hits>, Disney

<Club Disney Vol.2>, BMG

<The Prince of Egypt(o.s.t.)>, Dreamworks

<Anastasia(o.s.t.)>, Atlantic

<Last Exit to Brooklyn(o.s.t.)>, Vertigo

<Saving Private Ryan(o.s.t.)>, Dreamworks

<Schindler's List(o.s.t.)>, MCA

<Bleu(o.s.t.)>, Virgin

<Prospero's Books(o.s.t.)>, London

<The fabulous baker boys(o.s.t.)>, GRP

<Birdy(o.s.t.)>, GEFFEN

<Silk Road(o.s.t.)>, Gramavision

<Oliver Oliver, Europa Europa(o.s.t.)>, DRG

<1996/Ryuchi Sakamoto>, BMG

4.비디오자료

- Pokahontas/Walt Disney
- Cinderella/Walt Disney
- Sleeping Beauty/Walt Disney
- The Lion King/Walt Disney
- A Bug's Life/Walt Disney
- Toy Story/Walt Disney
- Tim Burton's The Nightmare Brfore Christmas/Touchstone
- Tarzan/Walt Disney
- It's the Great Pumpkin, Charlie Brown/Paramount
- Pokemon/VIZ
- Beavis and Butt-Head (Chicks N'Stuff)/Music Television
- Betty Boop /Good Time
- Beauty and the Beast/Walt Disney
- Tom and Jerry/Family Home Entertaiment
-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Walt Disney
- Hello Kitty(Starring in mom Loves me After All)/Family Home Entertaiment
- Wallace & Gromit(In nick Park's The Wrong Trousers)/CBS FOX
- 50 classic 6 full hours of Color Caryoons Volume 1/Burbank
- 50 classic 6 full hours of Color Caryoons Volume 2/Burbank
- 50 of the Greatest Cartoons/StarMaker
- X-MEN (Days of Future Past1)/Marvel Comics
- Peter Pan/Walt Disney
- Mickey's Christmas Carol/ Walt Disney
- We're Badk-A Dinosaur's Story/ MCA

- Wee Sing in Sillyville/ Price Stern Sloan
- Sing Along Songs-Heigh-Ho/ Walt Disney
- Sing Along Songs-Fun with Music/ Walt Disney
- Sing Along Songs-The Bare Necessities/ Walt Disney
- Here Comes Mickey / Walt Disney
- Duck Takes-Lost World Wonders/ Walt Disney
- The Land beofre Time/ MCA
- Winnie the Pooh- The Sky's the Limit/ Walt Disney
- Winnie the Pooh- All's well that ends well/ Walt Disney
- Winnie the Pooh and a Day for Eeyore/ Walt Disney
- Chip' N' Dale/ Walt Disney
- Mulan/Walt Disney
- Fantasia-Walt Disney's Masterpieces/ Walt Disney
- A Goofy Movie/ Walt Disney
- Little Nemo/ Hemdale
- Robin Hood/ Walt Disney
- Alladin and the King of Thieves/ Walt Disney
- The Return of Jafar/ Walt Disney
- Thumbellina/Warner Brothers
- Hunchback of Notre Dame/ Walt Disney
- Lady and the Tramp/ Walt Disney
- 101 Dalmatians / Walt Disney
- 올림피아 비디오 프로덕션/호호아줌마 3 (5.귀신 놀이 가장 무도회)
- BOW WOW/영성 프로덕션
- 날아라 슈퍼보드 제 2 탄 (마무 귀신과 불벌레)/서진 통상 프로덕션

6.그밖의 참고자료

<국학도감>, 이병도/이희승, 일조각

<한국만화통사/선사시대~1945년 >, 손상익, 시공사

<한국만화통사/1945년이후>, 손상익, 시공사

<한국 만화의 선구자들>, 박재동 외, 시공사

<한국 만화의 역사>, 최열, 시공사

<한국 만화의 모험가들>, 관대원 외, 시공사

<한국의 딱지본>, 소재영/민병삼/김호근, 범우사

<민속도록/한국민속화자료총서 1~11>, 김만희

<Pokemon-Pathways to Adventure>, Jason R. Rich, Sybex

<The Daria Database>, Peggy Nicoll, MTV Books

<Akaba & Jeff's Guide to Life>, Matt Groening, Pantheon Books

<Lucy-Not Just Another Pretty Face>, Schulz, Harper Horizon

<Beavis & Butt-Head Encyclopedia>, Sam Johnson, MTV Books

<The Simpsons-A Complete Guide to our Favorite Family>, Mat Groening, Harper Collins

<Simpsons Comics Spectacular>, Matt Groening, Harper Collins

<Bart Simpson's> Guide to Life, Matt Groening, Harper Collins

<The Memory of Memories>, Otomo Katsuhiro, Kodansha

<Beavis & Butt-Head-This Sucks, Change it!>, Mike Judge, MTV Books